

국립제주박물관 학술총서 제13책

제주의 불교문화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의 불교문화

국립제주박물관 학술총서 제13책

제주의 불교문화

총서발간

편집 권강미, 박성혜
보조 진신승
교정 김승익, 강민경, 전지선
영문번역 Richard Pretti

조사연구 진정환, 오연숙
학술대회 진정환, 김창일

발행일 2022년 6월 30일
발행처 국립제주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17
Tel. 064-720-8000
jeju.museum.go.kr

편집·제작 (주)계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길 41 Tel.02-725-5216

© 2022 국립제주박물관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제한합니다.
© 2022 Jeju National Museum All rights reserved

일러두기

1. 이 책은 2021년 11월 12일 국립제주박물관에서 개최하였던 ‘제주 불교문화의 특징’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한 것이다.
2. 한자나 외래어가 필요한 경우 괄호로 병기하고, 같은 장에서 글의 내용상 문제가 없다면 한자와 외래어는 한글로만 표기했다.
3. 각 논문의 용어 표기는 필자의 방식을 따랐다.

* 본 학술지에 수록된 글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로 국립제주박물관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발간사

국립제주박물관은 2021년 제주 섬 문화 연구의 일환으로 ‘제주 불교문화 조사연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국립제주박물관의 섬 문화 브랜드 특성화 관련 첫 번째 사업으로 제주 불교문화의 실체를 밝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연구의 출발점이 되고자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소속관의 내·외부 관련 분야 전공자 7명의 조사단을 구성하였으며, 제주 지역에 남아 있는 불교 문화재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그 성과를 폭넓게 공유하기 위하여 2021년 11월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학술대회의 제1부에서는 ‘제주 불교문화의 시작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제2부에서는 ‘조선후기~근대 제주 불교문화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울러 제주 불교문화를 둘러싼 최신의 연구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뜻깊은 종합토론의 장이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학술대회의 발표와 토론 내용을 보완한 최종 결과물로 이 논문집을 발간합니다. 이를 계기로 제주 불교문화의 특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나아가 제주 섬 문화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국립제주박물관은 앞으로도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주제를 발굴하여 조사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제주박물관장 이 재 열

Jeju National Museum carried out its ‘Jeju Buddhist Culture Research Study’ project in 2021 as part of its research program on the island culture of Jeju. The project was the first in a series aimed at creating a specialized island culture brand for the museum, and serves as the departure point for a comprehensive, systematic investigation into the essence of Buddhist culture in Jeju.

A team of seven researchers was assembled for this project, comprising experts from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its affiliated museums, as well as specialists from other institutions. The team performed intensive research into the extant Buddhist cultural properties of Jeju, and Jeju National Museum organized an academic seminar in November 2011 to openly share the results of their investigations. The first session was titled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Buddhist Culture in Jeju’ and featured presentations on four research papers. Three other research papers were presented in the second session, titled ‘The Characteristics of Buddhist Culture in Jeju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to Modern Times’. The sessions were followed by compelling round table discussions on current trends surrounding research related to the culture of Buddhism in Jeju.

The publication of this collection of papers serves as a comprehensive exposition of the results of the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that took place at the seminar. I hope that it will aid in additional investigations into the essence of Jeju’s island culture by providing material for more in-depth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lture of Buddhism in Jeju. Going forward, Jeju National Museum will carry out further research studies and continue to explore themes that will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and culture of Je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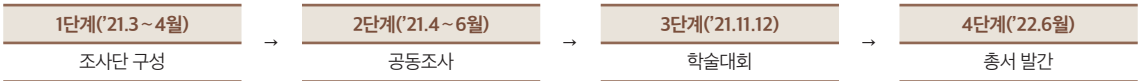
Lee, Jaeyeal

Director

Jeju National Museum

제주 불교문화 조사연구 개요

국립제주박물관은 제주 섬 문화 연구의 일환으로 2021년 ‘제주 불교문화 조사연구’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국립제주박물관의 섬 문화 브랜드 특성화 사업으로 진행된 첫 번째 조사연구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4단계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첫 번째 1단계에서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연구조사 주제 및 세부 조사내용 및 대상을 설정하였다. 참여연구자는 총 7명으로 내부연구자 4명과 외부연구자 3명으로 구성하였다. 내부연구자로는 진정환(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조사 당시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김영희(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조사 당시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신명희(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양수미(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외부연구자로는 이승희(덕성여자대학교 연구교수), 이현수((재)불교문화재연구소 팀장), 정성권(단국대학교 학술연구교수)이 참여하였다.

2단계 공동조사는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제주 지역 불교문화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단별 주제와 세부 조사대상지는 아래 표와 같다.

조사단	주제	세부내용 및 조사대상
이현수 ((재)불교문화재연구소 팀장)	제주의 옛 절터	법화사지, 수정사지, 원당사지, 존자암지, 만수사지, 대포동사지, 법정사지, 중문동사지, 강림사지, 관음사지, 해륜사지 등
신명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제주 불교유적 출토품 재검토	수정사지 및 출토유물, 원당사지 및 출토유물, 법화사지 및 출토유물, 존자암지 및 출토유물 등
진정환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제주의 석탑	불탑사 오층석탑, 수정사지 및 출토유물(석탑부재) 등
정성권 (단국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제주도 돌하르방과 불교조각의 영향관계	제주시 일대 돌하르방, 대정 일대 돌하르방, 성읍민속마을 돌하르방, 하원동 전 탐라왕자묘, 모슬포 우체국 앞 석인상, 회천동 석상,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목선대장군, 대정읍 인성리 방사탑, 안덕면 화순리 거육대 석상, 성산을 시흥리 영등하르방, 동자복 미륵상, 서자복 미륵상 등 * <참고> 제주 외 지역 영암 도갑사 석장승, 나주 불회사 석장승, 나주 운흥사 석장승, 남원 실상사 석장승, 임란 이후 조성된 사찰 사천왕상 등
양수미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제주 소재 조신 후기 불상	서산사 목조보살좌상, 월계사 목조아미타불, 삼광사 목조보살좌상,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정방사 석조여래좌상,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등
이승희 (덕성여자대학교 연구교수)	제주 근대기 전통불화의 제작과 특징	고관사 독성도, 관음사 아미타극락도, 금봉사 오백나한도, 불탑사 지장도·산신도·독성도, 사라사 신중도, 월성사 현왕도, 월인사 칠성도, 월정사 신중도·산신도, 원당사 삼존도 등
김영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20세기 초 제주 포교당 건립과 불교미술	관음사 아미타후불도 등, 불탑사 지장보살도·산신도·독성도 등, 원당사 삼존상·협시보살상 등, 정광사 본존상, 고관사 독성도 등

3단계로는 제주 지역 불교문화의 특징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2021년 11월 12일 국립제주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학술대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하였으며, 국립제주박물관 유튜브로 생중계하여 조사 결과를 관련 전문가와 제주 도민 등과 생생하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학술대회는 총 2부로 구성하였다. 제1부 **‘제주 불교문화의 시작과 발전’**에서는 현재는 그 흔적만 남은 제주 지역 초기 사찰의 실태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전기 불교문화의 양상을 살펴보는 네 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첫 발표는 불교문화재연구소 이현수 팀장이 ‘제주의 옛 절터’라는 제목으로 제주지역에서 실시한 절터 조사 성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두 번째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신명희 학예연구사가 제주 지역 불교유적에서 출토된 명문이 있는 금속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제주 불교유적 출토품 재검토’를 발표하였다. 세 번째는 국립익산박물관 진정환 학예연구실장이 ‘제주 불탑의 특징과 조성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는데, 세부 내용은 원당사지와 수정사지 석탑의 조성시기 및 조성 배경을 밝히는 것이었다. 제1부의 마지막 발표는 단국대학교 정성권 교수가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 문제와 불교조각과의 관계’라는 주제로 조선 전기 돌하르방이 제주지역 불교조각에 끼친 영향과 함께 조선 후기 제주 돌하르방을 소개하였다.

제2부 **‘근대 제주 불교문화의 특징’**에서는 18세기 초 제주 불교의 수난 이후 새롭게 부흥한 근대 이후 제주 불교문화의 특징을 밝히는 세 개의 발표가 이어졌다. 제2부 첫 번째 발표는 일제강점기에 제주로 옮겨진 조선 후기 불상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본 ‘새로운 성소의 오래된 성물, 제주도 소재 조선시대 불상’을 국립중앙박물관 양수미 학예연구사가 발표했다. 이어서 덕성여자대학교 이승희 교수가 ‘제주 근대기 전통 불화의 제작과 특징’이라는 주제로 일제강점기 제주지역에서 제작된 불화의 특징을 밝혔다. 마지막 발표는 국립중앙박물관 김영희 학예연구사가 ‘1940년대 제주 포교당 설립과 금융 일섭(1900-1975)의 불사’라는 주제로 근대기 제주지역 불사를 주도한 금융 일섭 스님의 활동을 통해 제주지역 불교문화재를 살펴보았다.

모든 발표를 마친 후 전영준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민규 간송미술관 연구원, 이용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전민숙 한국이민사박물관 연구원, 조성금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강사, 박아연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정진희 문화재청 문화재 감정위원, 최엽 동국대학교 대학원 강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제주 불교문화의 특징 발표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마지막 4단계로 국립제주박물관이 실시한 2021년 ‘제주 불교문화 조사연구’ 사업의 종합 결과물로 조사연구 개요와 학술대회의 발표내용을 정리하여 2022년 『제주의 불교문화』(국립제주박물관 학술총서 제13책)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목차

발간사	4
제주 불교문화 조사연구 개요	6

제1부 제주 불교문화의 시작과 발전	11
제주도 사지(寺址) 현황과 특징 이현수((재)불교문화재연구소 팀장)	12
제주 불교유적 금속제 출토품 재검토 신명희(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36
제주지역 불탑의 특징과 조성 배경 진정환(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	58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 문제와 불교조각과의 관계 정성권(단국대학교 학술연구교수)	90

제2부 조선후기~근대 제주 불교문화의 특징	125
새로운 성소(聖所)의 오래된 성물(聖物), 제주도 소재 조선시대 불상 양수미(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126
근대기 제주 불화와 관음사 후불도 이승희(덕성여자대학교 연구교수)	150
1940년대 제주 포교당 건립과 금용 일섭(金蓉日燮)의 불사 김영희(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180

제1부

제주 불교문화의 시작과 발전

제주도 사지(寺址) 현황과 특징

이현수((재)불교문화재연구소 팀장)

제주 불교유적 금속제 출토품 재검토

신명희(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제주지역 불탑의 특징과 조성 배경

진정환(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 문제와 불교조각과의 관계

정성권(단국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제주도 사지(寺址) 현황과 특징

이현수*

I. 머리말

II. 기록으로 본 제주도 사찰(寺刹)과 사지(寺址)

III. 제주도 사지 현황

1. 제주시
2. 서귀포시

IV. 제주도 사지 특징

V. 맺음말

I. 머리말

제주도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육지와는 다른 문화를 가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았지만, 최근 많은 유적 조사로 인해 선사시대 이후 육지와 동일한 문화를 향유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¹⁾

제주에는 고대 탐라국 시기부터 백제를 통해 불교를 접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언제 유입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탐라가 본격적으로 국제무대에 등장하게 된 660년대 이후 어느 시기로 추정할 수

*(재)불교문화재연구소 팀장

1) 국립제주박물관, 『유적과 유물을 통해 본 제주의 역사와 문화』(서경문화사, 2009).

있다. 백제의 세력권에서 벗어나 완전히 신라에 예속되었던 679년(문무왕 19) 이후 탐라지배층은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륙의 선진문화도 받아들여 큰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탐라의 활동을 고려해보다면, 삼국시대에 이미 제주도에 불교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절 오백, 당 오백’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불교와 민간신앙이 공존하는 형태로 형성해왔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어도 고려후기에는 여러 사찰이 창건되고 중건되었을 것이다. 이후 조선후기 제주목사 이형상 등이 훼불정책(毀佛政策)을 추진하면서 사찰이 대부분 훼손되거나 파괴되었다. 이로 인해 오늘날 제주 지역의 고대 불교문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불교 관련 유물과 유적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특히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사지(寺址)는 도심화와 경작지, 도로 조성 등으로 흔적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기록으로 전하는 제주도 사찰과 사지를 알아보고, 현재 확인되는 사지 현황을 토대로 제주도 사지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II. 기록으로 본 제주도 사찰(寺刹)과 사지(寺址)

탐라는 이른 시기부터 중국, 한반도 대륙, 일본과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는 당나라, 원나라와의 교류 기록이 있고, 백제와 신라와의 교류 기사도 전한다. 특히 일본과 교류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 10세기 이후에는 주로 고려와 대외교류가 이루어진다.

불교와 관련된 기사로는 1034년(덕종 3)에 팔관회를 열었는데, 탐라국에서 방물을 바쳤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확인된다.²⁾ 이후에도 연등대회에서 대승, 흑수, 탐라, 일본 등 여러나라 사람들이 각각 예물과 명마를 바쳤다는 기사가 있고, 1057년(문종 11)에는 한반도 육지부의 사찰 창건을 위한 벌목과 조영에 제주민이 동원되었다는 내용도 있다.³⁾ 또 1343년에는 충혜왕의 사부였던 승려 학선(鶴仙)이, 1348년에는 승려 종범(宗範)이 제주에 유배오기도 했다.⁴⁾ 이 외에도 충렬왕대(1275~1308) 무렵에 승려 혜일(慧日)이 제주에 머물며 여러 편의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⁵⁾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탐라에는 11세기경에 불교가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530년(중종 25)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제주도 15개 사찰 기록이 확인된다.

2) 『高麗史』卷9, 世家9, 문종 27년 11월.

3) 『高麗史』卷5, 世家5, 덕종 3년 11월.

4) 『高麗史』卷36, 世家36, 충혜왕 4년 4월 ; 『高麗史』卷37, 世家37, 충목왕 4년 12월.

5) 『新增東國輿地勝覽』卷38, 全羅道, 濟州牧 佛宇.

제주목(濟州牧) 불우(佛宇)에는 존자암(尊者庵)·월계사(月溪寺)·수정사(水精寺)·묘련사(妙蓮寺)·문수암(文殊庵)·해륜사(海輪寺)·만수사(萬壽寺)·강림사(江臨寺)·보문사(普門寺)·서천암(逝川庵)·소림사(小林寺)·관음사(觀音寺) 12개 사찰이 기록되어 있고, 정의현(旌義縣) 불우에는 영천사(靈泉寺)·성불암(成佛庵) 2개 사찰이, 대정현(大靜縣) 불우에는 법화사(法華寺) 1개 사찰이 실려 있다.⁶⁾

1653년(효종 4)에 이원진(1594~1665)이 편찬한 『탐라지(耽羅志)』에는 당시 현존하는 16개 사찰과 폐사지 4곳이 실려 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비교해보면, 안심사(安心寺)·원당사(元堂寺)·돈수암(頓水庵)·굴사(窟寺)·곽지사(郭支寺) 등 5개 사찰이 더 기록되어 있다.⁷⁾ 그러나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새로 신축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래 있었던 사찰로 보인다.

이 외에도 김상헌(1570~1652)이 1601년 8월부터 1602년 2월까지 제주도에서 생활하면서 일상을 기록한 제주 기행문인 『남사록(南槎錄)』이 있다. 이 기행문에는 존자암(尊者庵)이 여러번 등장하고 폐사되었다고 전하고, 영천암(靈泉庵)과 강림사(江臨寺)는 폐사되었으나 초가 몇 칸이 남아 있다고 한다. 그러나 『탐라지』에는 이 사찰들이 현존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기록마다 다르게 실려 있는 것은 사찰 규모나 명성 등에 관한 기록자의 관심도에 따라 달랐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밖의 기록들에는 기존 사찰의 쇠락한 모습이 간간히 묘사되고 있는데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제주도 불교는 16세기 중반부터 쇠퇴기에 들어선다. 비보사찰 폐지 등 국가지원중단과 15세기 이후 경제사정의 어려움, 그리고 목사들의 탄압에 의해 제주 사찰들은 점차 그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사되는 상황이 된다. 이 시기에 유생들은 1565년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문정왕후 보호로 불교를 중흥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허응당 보우(虛應堂 普雨, 1509~1565) 스님을 죽이라는 상소를 끊임없이 올리고, 끝내 제주도로 유배 보내진다. 제주도로 유배간 후 제주 목사 변협(邊協, 1528~1590)이 스님을 어도봉 인근에서 장살해버린다. 이후 1565~1568년 사이에는 제주도에 머물렀던 곽홀 목사가 사찰을 훼손하고 불상을 불태웠다.

『남사록』에는 승려와 속인을 불문하고 모두 병역을 치르도록 했다고 하며, 『남사일록』에는 이증(1628~1686)이 무사로 뽑혔는데, 입격자는 중군 강성좌 이하 출신 6명, 한량 86명, 사노(寺奴) 11명, 사노(私奴) 1명, 합 104명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로 보아 사찰 승려와 노비들이 군대 병력으로 동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사찰에서 노비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은 사찰이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조선 중기 불교는 외형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었으나 임진왜란 때 위기를 넘기는데 활약한 승려들의 활동에 힘입어 이후 사찰 중흥이 일부나마 이루어졌고, 불상과 불화 등의 불교문화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6) 『新增東國輿地勝覽』卷38, 濟州牧·旌義縣·大靜縣, 佛宇.

7) 『耽羅志』濟州, 佛宇.

하였다. 존자암을 비롯한 제주도 사찰의 부침도 이러한 시대 상황과 같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1700년대 무렵에 제작된 《탐라전도》에는 강림사·만수사·해륜사·월계사·서천암·존자암·법화사, 성불암, 영천암 9개 사찰이 실려 있다. 《조선강역총도》에도 법화사·영천사·성불암·묘련사·수정사·소림사·존자암·문수사·만수사·강림사 10개 사찰이 표시되어 있다. 1750년 무렵에 제작된 《해동지도》에 나오는 〈제주삼현도〉에는 해륜사·대천사 그리고 존자암 3곳이 기록되어 있다. 더욱이 1800년대 후반 《대동여지도》를 그릴 때 저본으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여도》에는 수정사와 수행굴이 표시되어 있다.

1702년 제주 목사를 지낸 이형상은 제주도에 사찰이 없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들 지도를 보면 1700년대 이후에도 제주도에는 몇몇의 사찰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653년 『탐라지』에 기록된 15개 사찰,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는 1702년 이형상의 기록, 그리고 1750년 〈제주삼현도〉에 나타난 10개 사찰 등은 당시 제주 지역 불교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Ⅲ. 제주도 사지 현황⁸⁾

제주도에 관리되고 있는 지정 사지는 법화사지(기념물), 존자암지(기념물), 법정사지(기념물)가 있고, 사지 내에 소재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원당사지(제주 불탑사 오층석탑[보물]), 존자암지(존자암지세존사리탑[유형문화재]), 해륜사지 서자복(민속문화재), 만수사지 동자복(민속문화재)이 있다. 그리고 유물과 유구가 남아 있는 사지는 35건이 있다. 그 외 사지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20건이고, 문헌으로만 파악되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23건이다.

1. 제주시

현재 제주시에서 사지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모두 38개소이고, 이 중 문헌이 확인되는 경우는 13개소이다. 유물이 확인되는 사지에서는 몇 개소 사지를 제외하고 모두 어골문 와편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고려중후기에 사찰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사지는 과수원, 경작지, 도로,

8) 사지 현황은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가 시행한 “폐사지 기초조사” 사업(2010-2020년) 일환으로 진행한 현장조사를 토대로 하였다.

주택단지 등으로 인해 사지 흔적을 파악하기 힘들다. 다만 유물과 유구가 남아 있거나 발굴을 한 경우 사찰에 대한 존속 시기와 특성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제주시에서 확인되는 사지는 <표 1>⁹⁾과 같다.

<표 1> 제주시 사지 현황

	사지명	현황	유구	유물	소재문화재
1	강림사지	마을	초석, 돌화, 방형석재	어골문, 어골복합문, 중호문 와편, 청자편, 분청자편, 토기편	×
2	고내리사지	도로, 경작지	×	어골문, 집선문 와편, 청자편, 백자편	×
3	고성리사지	경작지	×	어골복합문, 선문 와편	×
4	곽지사지	경작지	×	어골문, 어골복합문, 청자편, 분청자편	×
5	관음사지	경작지, 민가	×	어골문, 집선문, 중호문 와편, 청자편, 토기편	×
6	광령리사지	사찰(향림사)	×	어골문, 집선문, 청자편, 상감청자편, 백자편, 토기편	×
7	귀덕리사지1	경작지	×	어골문, 집선문 와편, 청자편	×
8	귀덕리사지2	경작지, 민묘	×	어골문, 어골복합문, 중호문 와편, 상감청자편, 백자편	×
9	김녕리사지1	경작지	×	×	×
10	김녕리사지2	-	×	×	×
11	납읍리사지1	도시화	×	×	×
12	납읍리사지2	마을	×	어골문, 격자문, 무문 와편, 백자편	×
13	만수사지	마을	×	어골문, 집선문, '大'명 와편	동자복 (민속문화재)
14	묘련사지	사찰(대각사)	×	어골문 와편	×
15	문수암지	경작지	×	×	×
16	보문사지	경작지, 묘역	×	어골복합문, 어골문, 수파문 와편, 청자편, 백자편	×
17	봉개동사지1	사찰	×	×	×
18	봉개동사지2	경작지	×	×	×
19	상귀리사지	경작지	×	어골문, 어골복합문 와편, 토기편, 청자편, 분청자편, 백자편	×

9)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지』(2011·2020) 참조.

	사지명	현황	유구	유물	소재문화재
20	상귀리사지2	경작지	×	×	×
21	상도리사지	경작지	×	×	×
22	서천암지	경작지, 도로	×	어골문, 집선문 와편, 상감청자편, 백자편	석불
23	성불암지	임야	×	어골문, 집선문 와편, 백자편	×
24	수정사지	도시화	초석, 건물지, 탑지	명문와편, 상감청자편 등	×
25	아라동사지	임야	×	어골문, 선문복합문 와편	곰솔군 (천연기념물)
26	애월리사지	경작지, 민가	×	어골문, 어골복합문 와편, 청자편, 분청자편, 백자편	×
27	오동동사지	경작지	×	어골문, 어골복합문 와편, 백자편	×
28	원당사지	사찰(불탑사)	건물지, 기단석	‘大天’명, 어골문, 종선문 와편, 해무리굽안, 청자편, 중국청자, 백자편	불탑사 오층석탑 (보물)
29	월계사지	경작지	×	어골문, 복합문 와편, 상감청자편, 분청자편, 백자편	×
30	유수암리사지	경작지		어골문, 사격자문 와편, 상감청자편	×
31	장전리사지	경작지	×	×	×
32	청수리사지	민가	×	×	×
33	평내리사지	경작지	×	×	×
34	해륜사지	사찰	×	×	서자복 (민속문화재)
35	해안동사지1	경작지	×	어골문, 무문, 집선문 와편	×
36	해안동사지2	경작지	×	어골문, 어골복합문, 집선문 와편, 청자편, 분청자편, 백자편, 토기편	×
37	화북동사지	경작지	×	×	×
38	회천동사지	경작지	×	×	×

만수사지는 『신증동국여지승람』¹⁰⁾에 ‘일명 동자복(東資福)이다. 건입포(巾入浦) 동쪽 언덕 위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탐라지』¹¹⁾에 ‘일명 동자복이다. 건입포(健入浦) 동쪽 언덕 위에 있다’고 실려 있어 1530년(중종 25) 이전에 창건되어 1653년(효종 4)까지도 사찰이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폐사 기록은

1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全羅道, 濟州牧, 佛宇.

11) 『耽羅誌』, 濟州, 佛宇.

『남환박물(南宦博物)』에서 찾을 수 있다.¹²⁾ 책의 풍속(風俗)편에 ‘사찰 역시 모두 없었다. 제주 성 동쪽에 만수사(萬壽寺)가 있고 서쪽에 해륜사(海輪寺)가 있다…(중략)…곧 양쪽 절을 헐어서 공해(公廨)로 옮겨 짓도록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어 1702년에서 1703년 사이에¹³⁾ 제주목사 이형상에 의해 폐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8세기 말에 기록된 『범우고』¹⁴⁾에서 ‘금폐(今廢)’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형상에 의해 폐사된 후 재건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지는 현재 제주항 남쪽이자 제주목관아 동쪽에 해당하는 낮은 언덕 위에 있다. 이곳에는 현재 ‘동자복’ 또는 ‘미륵불’, ‘복신미륵’ 등으로 불리고 있는 석불입상이 세워져 있는데, 제주목 서쪽에 있는 해륜사의 석불과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어 제주목을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 마을의 수호신과 같은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새롭게 정비된 담장 주변에서 기와편이 확인되었다. 기와편은 어골문 와편과 명문복합문(‘大’銘+어골문+방형구획문) 와편, 기와 두께 2.7cm 정도의 집선문 와편 등이다.



도 1. 만수사지 전경(불교문화재연구소 제공)



도 2. 동자복(불교문화재연구소 제공)

보문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탐라지』에 존재한다고 기록되어 있고,¹⁵⁾ 『범우고(梵宇攷)』에 폐사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¹⁶⁾ 18세기 무렵까지는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역 남쪽에는 남양홍씨 묘역이 조성되어 있고, 북쪽으로는 사당인 보문사(普門祠)가 들어서 있다. 사역 동쪽에는 ‘원물’이라 일컫는 용천수가 있다. 이 샘은 제주 4·3사건 전에는 식수로 사용되었고 현재 마을주민들이 돌담을 돌리고 지붕을 만들어 보존하고 있지만, 식수로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사지는 현재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고, 경작지 일대에는 다량의 유물이 넓게 산포되어 있다. 기초사에 따르면 약 12년 전까지만 해도 기단석과 초석,

12) 이형상 저, 이상규·오창명 공역, 『남환박물』(푸른역사, 2009), pp. 113-114.

13) 『瓶窩集』, 附錄 行狀, “辛巳冬 除濟州牧使”.

14) 『梵宇攷』, 全羅道, 濟州, 萬壽寺.

15) 『新增東國輿地勝覽』卷38, 全羅道, 濟州牧, 佛宇; 『耽羅誌』濟州 佛宇.

16) 『梵宇攷』濟州 大靜.

비좌 등이 확인되었으나 지금은 모두 반출되었다고 한다.¹⁷⁾ 이곳에서는 건물지 관련 유구가 없었으나, 일대에서는 어골복합문(어골+사격자문, 어골+방곽문), 어골문, 수파문 외편과 청자편, 인화국화문분청자편, 귀알분청자편, 백자편 등이 확인되었다.



도 3. 보문사지 전경 (불교문화재연구소 제공) 도 4. 용천수 (불교문화재연구소 제공) 도 5. 산포유물 (불교문화재연구소 제공)

수정사지는 창건과 관련하여 김정(金淨)의 『도근천수정사중수권문(都近川水精寺重修勸文)』과 김상헌(金尙憲)의 『남사록(南槎錄)』, 김석익(金錫翼)의 『탐라기년(耽羅紀年)』 등의 기록으로 보아 원 간섭기에 창건되었다는 견해와 13세기 이전에 창건되었다가 1300년대를 전후하여 대대적으로 중창되었다는 두 견해가 있으며, 기존 조사들은 후자가 더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태종대(太宗代)에는 범화사와 함께 130여명의 노비가 있을 정도로 대규모 비보사찰이었고, 1521년(중종 16)에 중수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폐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탐라지』 기록으로 보아 17세기 중반까지도 사세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나 『남사록』에 “루옥수간개이모자(漏屋數間蓋以茅茨)”라는 내용과 제주목사 이익태(李益泰)의 『지영록(知瀛錄)』 내 1694년(숙종 20) 9월 27일조 기사에서 연무정(演武亭)을 보수하기 위해 폐사된 사찰의 부재를 옮겼다는 기록으로 보아 수정사가 실제 17세기에 이르러 명맥만 유지하다가 후기 이전에 폐사되었고, 1694년에 이르러 훼손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¹⁸⁾ 또한 폐사와 관련하여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내에 수정사(水晶寺)가 기록되어 있어 1861년에도 존속하였다고 보고한 것도 있다.¹⁹⁾

제주도 내 범화사, 원당사와 더불어 고려 후기 대표 사찰로 알려진 수정사는 많은 관련 문헌과 연구를 토대로 역사성이 밝혀졌으며, 발굴조사를 통해 사역 일부도 확인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금당지를 중심으로 하는 중심사역의 배치형식이 밝혀지게 되었고, 금동제 사리함 장신구, 청동잔, 복숭대 화폐인 경덕원보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러나 현재 사역 대부분은 포장도로와 주거, 상업시설이 건립되고, 사역 일부만 공원으로 정비되어 안내판을 두었다. 따라서 공원 내 안내판을 제외하면 이곳이 수정사라는 것을 파악하기 어렵다.

17)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제주의 폐사지』(2004), pp. 128-130.

18) 제주대학교박물관, 『수정사지』(2000), pp. 31-38.

19) 제주대학교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제주시』(1998), p. 95.

이미 발굴조사 시행 이전부터도 사역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유구가 결실되어 있던 수정사지는 현재도 사역 내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은 곳들에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이 건립되고 있어 인위적 훼손이 계속 진행 중이다.



도 6. 수정사지(452-1번지 일원) 전경 (불교문화재연구소 제공) 도 7. 수정사 초석 전경(필자 촬영)

원당사지는 구전에 의하면 원나라 기황후(奇皇后)가 왕자를 얻기 위하여 이곳에 절을 세우고, 사자(使者)를 보내어 불공을 드려 아들을 얻었다고 한다.²⁰⁾ 폐사와 관련하여 『탐라지』에 원당사가 존속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²¹⁾ 17세기경에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폐사 시기에 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형상이 제주목사로 부임해서 사찰과 사당을 없애버린 1702년에서 1729년 사이에는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²²⁾ 삼첩칠봉(三疊七峰)으로 알려진 원당봉 북쪽 기슭에 위치한 원당사지에는 현재 불탑사가 조성되어 있고, 불탑사 맞은편에는 원당사가 있다.



도 8. 초석1(필자 촬영)

도 9. 초석2(필자 촬영)

도 10. 초석3(필자 촬영)

원당사지는 1988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조사에서는 명확한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주변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를 통해 연화문 막새와 귀목문 암막새, “대천(大天)”명 와편, 자기류 등이

20)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시의 옛터』(1996), p. 331.

21) 『耽羅志』, 濟州牧 佛宇 條.

22) 제주문화예술재단, 『원당사지』(2007), p. 16.

수습되어 과거의 사역과 현재 사찰의 사역이 중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²³⁾ 2003년 조사에서는 건물지 2동 및 석탑과 인접한 곳에서 건물지 기단석렬 일부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연화문, 초화문 막새와 어골문, 격자문, 종선문 와편, “시주만호리, 동원차처관(施主萬戶李, 同願差處館)”명 와편과 해무리굽완을 비롯해 청자편, 중국 청자, 백자 등이 다량 확인되었다. 청자의 경우 11~12세기에 제작된 것이 대부분이고, 13~14세기에 제작된 것은 소량이었다. 또한 분청자와 백자도 소량 확인되었다.²⁴⁾

석탑은 현무암이고, 단층기단과 5층의 탑신부, 상륜부로 구성되어 있다. 기단부 면석에는 북측면을 제외한 3면에 안상이 돌을새김 되어 있고, 그 내부에 귀꽃문이 있다. 초층 탑신석 남쪽면에는 감실이 조성되었고, 옥개석 각 모서리에는 풍탁공이 있다. 상륜부에는 노반과 보개가 올려져 있는데 원래 부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1988년 지표조사 때 직경 9.2cm, 높이 9.0cm, 구멍 직경 2.7cm의 그물추모양 토제품이 출토되었는데 구멍 안에서 녹슨 철의 흔적이 확인되어 보주 또는 용차로 추정되고 있다.²⁵⁾ 이 오층석탑의 제작시기는 기단부와 탑신석의 우주, 옥개받침이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고려말기로 추정되고 있다.²⁶⁾

원당사는 법화사, 수정사와 더불어 제주의 3대 사찰로 거론될 만큼 제주도의 대표 사찰이다. 창건시기와 관련하여 구전에는 기항후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발굴조사 결과 11세기까지 올라가는 유물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창건시기를 더 올려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당사는 11세기경에서 17세기 중반까지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 11. 불탑사 전경(필자 촬영)



도 12. 불탑사 석탑 전경(필자 촬영)

23) 제주대학교박물관, 『수정사·원당사 지표조사보고서』(1988).

24) 제주문화예술재단, 앞의 책(2007).

25) 제주대학교박물관, 『수정사·원당사 지표조사보고』(1988), p. 51.

26)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라남도의 석탑 II』(2006), pp. 332-333.

해륜사지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해륜사(海輪寺) 일명 서자복(西資福)이다. 주 서쪽 독포(獨浦) 어귀에 있다.’고 ‘신증’부분에 기록되어 있으며²⁷⁾ 『탐라지』에는 ‘해륜사 일명 서자복이다. 대옹포(大甕浦[한독잇개])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²⁸⁾ 1530년 이전에 창건되어 1653년까지도 사찰이 존속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해륜사의 폐사와 관련된 기록은 『남환박물』에서 찾을 수 있다.²⁹⁾ 책의 풍속(風俗)편에 ‘사찰 역시 모두 없었다. 제주 성 동쪽에 만수사가 있고 서쪽에 해륜사가 있다. …(중략)… 곧 양쪽 절을 헐어서 공해로 옮겨 짓도록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어 1702년에서 1703년 사이에³⁰⁾ 제주목사 이형상에 의해 폐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용화사라는 사찰이 세워져 있으며, 경내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서자복이 있다. 서자복은 상호표현의 토속화 등에서 고려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만수사지의 동자복(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과 표현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동시에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사지 주변은 모두 민가가 들어서 있으며, 용화사 경내도 모두 포장되어 있어 유물 및 유구의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다.



도 13. 해륜사지 원경 (불교문화재연구소 제공) 도 14. 해륜사지 전경 (불교문화재연구소 제공) 도 15. 서자복 (불교문화재연구소 제공)

2. 서귀포시

현재 서귀포시에서 사지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모두 24개소이다. 사지 몇 개소를 제외하고 유물이 확인되는 사지에서는 모두 어골문 와편과 청자편 등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앞서 본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고려후기에 사찰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사지는 과수원, 경작지, 도로, 주택단지 등으로 인해 사지 흔적을 파악하기 힘들다. 다만 유물과 유구가 남아 있거나 발굴을 한 경우 사찰에 대한 존속 시기와 특성을 알 수 있을 뿐이다.

27) 『新增東國輿地勝覽』卷38, 全羅道, 濟州牧, 佛宇.

28) 『耽羅誌』濟州 佛宇.

29) 이형상 저, 이상규·오창명 공역, 『남환박물』, 푸른역사(2009), pp. 113-114.

30) 『瓶窩集』, 附錄 行狀, “辛巳冬 除濟州牧使”.

서귀포시에서 확인되는 사지는 < 표2 >³¹⁾와 같다.

< 표 2 > 서귀포시 사지 현황

연번	사지명	소재지	현황	유구	유물	소재문화재
1	강정동사지	강정동 4117	도로, 경작지	×	×	×
2	대포동사지	대포동 2080번지	경작지	×	×	×
3	법화사지	하원동 1071-1	사찰(법화사)	○	명문, 어골문, 무문 와편, 청자편, 분청자편, 백자편, 석제소불, 청동등잔 등	×
4	법정사지	도순동 산1	임야	○	×	×
5	사계리사지1	안덕면 사계리 328	도로, 경작지	×	기와편(어골문), 청자편, 백자편, 토기편	×
6	사계리사지2	안덕면 사계리 272-1	경작지	×	거치문 와편, 흑유자기편, 청자편	×
7	삼달리사지	삼달리 1114	경작지	×	×	×
8	상예동사지1	상예동 3312-1	경작지	×	무문 와편, 청자편, 분청자편, 백자편, 토기편	×
9	상예동사지2	상예동 3114	경작지	×	×	×
10	상예동사지3	상예동 629-1	경작지	×	어골문, 집선문 와편, 상감청자편, 분청자편, 백자편, 토기편	×
11	상효동사지	상효동 산85-1	경작지	석축	×	×
12	신평리사지	성산읍 신평리 889-1	경작지, 도로	×	×	×
13	신흥리사지1	남원읍 신흥리 420번지	경작지	×	격자복합문 와편, 흑유자기편, 상감청자편, 분청자편, 토기편	×
14	신흥리사지2	남원읍 신흥리 449번지	경작지	×	어골문, 무문 와편, 청자편, 상감청자편, 분청자편, 토기편	×
15	안성리사지	대정읍 안성리 1596	경작지	×	어골문, 초문 와편, 백자편	×
16	영천사지	상효동 1077	경작지	×	×	×
17	오조리사지1	성산읍 오조리 643-1	경작지	×	어골문, 어골복합문, 중호문 와편, 청자편, 토기편	×
18	오조리사지2	성산읍 오조리 328-1	경작지	×	어골문, 어골복합문, 집선문 와편, 청자편, 분청자편, 백자편 토기편	×
19	인성리사지	대정읍 인성리 720-5	경작지, 도로	×	×	×

31)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지』(2011·2020) 참조.

연번	사지명	소재지	현황	유구	유물	소재문화재
20	일과리사지	대정읍 일과리 1374	사찰, 경작지	×	집선문, 어골문 와편, 청자편, 백자편	×
21	존자암지	하원동 산1-1	사찰	×	선문, 파상문, 무문, 명문, 어골문, 수파문 와편, 청자편, 분청자편, 백자편	존자암지 세존사리탑 (유형문화재)
22	중문동사지	중문동 90번지	임야	×	어골문 와편	×
23	하례리사지	남원읍 하례리 167	경작지	×	×	×
24	하원동사지	하원동 산1-1	임야	×	×	×

대포동사지는 대포동 남동쪽 ‘절터왓’에 있으며 고려시대 사찰인 존자암, 법화사와 함께 상원, 중원, 하원으로 일컬어졌다고 한다.³²⁾ 기존 자료에는 사지가 과수원으로 되어 있고, 사지에서 석축과 기와편, 분청자편, 백자편 등 유물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또한 사지 인근 ‘대포포구’와 마을에 각각 초석 1기와 초석 3기가 있는데, 본 사지 것인지 법화사지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³³⁾ 한편 2032-2번지에서도 초석이 확인되었다고 하나³⁴⁾ 앞서 언급한 초석과 같은지 알 수 없고, 현재 그 소재도 불명확하다. 사지는 ‘대포포구’에서 북쪽 400m 거리에 위치한 2080번지 감귤 밭 일원이다. 이곳은 남향한 환경사면에 자리하며 전면으로 대포포구와 바다가 바라보이는 등 조망이 좋다. 사지에는 경작 석축들이 조성되어 있고, 민묘도 수 기 확인된다. 또한 굴 저장용 창고가 2~3군데 조성되어 있다. 사지 주변은 도로가 둘러싸고 있는데, 이 중 동쪽에 위치한 도로는 인근 주민들에게 ‘중질’ 혹은 ‘스님길’로 불린다. 이 길은 대포포구에서부터 본 사지를 거쳐 존자암, 법화사까지 이르는 최단거리의 길로 옛날 승려들이 다녔던 길이라고 한다.³⁵⁾ 사지 내 유구는 확인되지 않으나 사지 북쪽 도로 가장자리에서 연질 토기편 다수와 청자편이 확인된다. 또한 사지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초석 1기가 대포포구에 있다. 그 외 기초사에 언급된 다른 초석들은 확인할 수 없었다.³⁶⁾

대포동사지는 오랜 기간의 경작 활동으로 인해 관련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다만 소량 남아있는 유물과

32) 제주대학교 박물관, 『법화사지』(1992), p. 26.

존자암지 및 법화사지는 여러 차례 발굴조사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지 下-전라남도 2,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2011), pp. 479-481(법화사지). ; pp. 514-516(존자암지).

33) 강창언, 「제주도의 불적」, 『탐라문화』1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1992), p. 165.

제주문화예술훈단 문화재연구소, 『제주의 폐사지』(2004), pp. 52-55.

34) 제주문화예술훈단 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04), pp. 51-53.

35) 제주문화예술훈단 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04), p. 54.

36) 한편 기초사자료와 초석 안내판에 사지 주변에는 ‘큰개물’, 대포포구에는 승려들이 마셨다는 ‘존장물’이라는 용천수가 있다고 한다. 또한 주민 탐문 시 본 사지 서쪽 소나무림 근처에도 용천수가 있다고 하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모두 확인하지 못했다.

지명으로 사찰이 있던 곳임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이곳은 유적의 입지와 이 일대 전체를 절터왔이라고 하는 전언으로 보아 사역이 컸을 가능성이 있지만 명확히 알 수 없다. 한편 사지는 대포포구와 존자암지를 잇는 길목에 위치해 그 중요성이 인정되며 차후 존자암, 법화사, 대포동사지 간의 관련성을 밝힐만한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고려시대 제주남부 불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포포구 2184-5번지에는 사지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초석 1기가 있다. 초석은 크기가 98×74×31cm이며 중앙에 지름 73.5cm, 높이 5cm인 원형 운두가 마련되어 있다. 초석 상면에는 얇은 흙으로만 주좌를 표시하였는데 형태가 뚜렷하지 않다. 안내판에 따르면 이 초석은 대포포구 공사 중에 해수면 아래에서 발견한 초석 3기 중 하나이며, 법화사지 초석과 같이 제주 현무암이 아닌 다른 석재를 가공해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법화사를 증건할 때 쓰인 건축 자재들이 수도 개경에서 제작되어 대포포구를 거쳐 법화사로 운반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법화사지 초석으로 보았다.³⁷⁾ 이 초석은 마을 주민들에게는 본 사지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하나 안내판 내용이나 실제 법화사지 초석 등을 보면 법화사지의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본 초석은 법화사지 추정 금당지 주변에서 확인된 초석과 형태나 재질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³⁸⁾ 격이 높은 건물에 쓰일 예정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제작시기 역시 금당지 추정연대인 고려 후기로 짐작된다.



도 16. 대포동사지 전경(불교문화재연구소 제공)



도 17. 대포동 2184-5번지 초석 (불교문화재연구소 제공)

법화사지는 창건과 관련하여 장보고가 810년 전후 중국 등주부(登州府) 영해주(寧海州) 문등현(文登縣) 청녕향(淸寧鄉)의 적산포(赤山浦)에 법화원(法花院)을 창건하고, 810~828년 사이에 제주도와 완도에 법화사를 창건하였다는 내용이 전한다.³⁹⁾ 고려시대와 관련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13세기 말에 제주도에 방문했던 혜일(慧日)의 시가 수록되어 있으며,⁴⁰⁾ 법화사에 봉안되어 있던 미타삼존(彌陀三尊)이 원대(元代)

37) 그러나 법화사 초석들이 개경에서 제작되어 법화사로 운반되었다는 근거자료를 찾을 수 없다.

38) 제주대학교 박물관, 앞의 책(1992), p. 43.

39) 국립문화재연구소, 『완도 법화사지』(1992), p. 125.

40) 『新增東國輿地勝覽』卷38, 全羅道 大靜縣 佛宇.

량공(良工)에 의해 조성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⁴¹⁾ 고려시대 후기에도 운영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 초기에 이르러 제주시의 수정사와 함께 비보사찰로서 노비 2백 80구를 보유하였지만 1408년에 이르러 30구로 제한되어⁴²⁾ 사세가 축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⁴³⁾ 폐사와 관련하여 『탐라지』에 “금폐(今廢)”로 기록되어 있지만 “유모암수간(有茅庵數間)”이라 하여 소규모 암자시설로 1653년 당시에도 근근이 법당이 유지되다가 『범우고』에 기록된 “금폐(今廢)” 내용으로 보아 18세기 이전에 폐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⁴⁴⁾ 폐사 이후 1920년대 후반에 이르러 포교소가 창건되었지만 4.3사건으로 인해 소실되고, 한국전쟁 당시 군 숙영소로 이용되기도 하였다.⁴⁵⁾

사역에 대해 1982년부터 1997년까지 총 8차에 걸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1차 조사는 명지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고려시대 후기 금당지가 확인되었다. 2~8차 조사는 제주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이루어져 총 10개 동에 이르는 건물지와 계단시설, 보도시설, 담장지, 연지(蓮池) 등 사찰 관련 유구와 기타 군속영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운봉문(雲鳳文), 연화문(蓮花文) 수막새와 운룡문(雲龍文), 화문(花文), 범문(梵文) 암막새, ‘지원육년기사시중창십육년기묘필(至元六年己巳始重創十六年己卯畢)’ 명, ‘만호(萬戶)’명 등의 명문와, 어골문, 어골복합문(어골문+격자문, 선문, 방각문), 무문와편, 청자편, 분청자편, 백자편, 중국백자편, 토기편, ‘법화경전등잔차양사시주주경(法華經前燈臺此樣四施主朱景)’명 청동등잔과 개원통보(開元通寶), 석제소불 등이 있다. 발굴결과를 토대로 법화사는 총 4기에 걸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각 시기별 편년은 1기(1269년 이전), 2기(1269~1400년경), 3기(1400~1600년경), 4기(1600~폐사시기)로 구분되었다.⁴⁶⁾

현재 법화사지의 사역 일원은 새로 조성된 법화사가 운영 중이다. 현 사역 내 대웅전과 연지는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원되어 있고, 기타 건물지는 복토, 일부 복원되어 있다. 대웅전과 종무소 일원에 해당하는 1071-1번지를 중심으로 1078번지 일원은 연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1091번지 동쪽으로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발굴조사로 출토된 초석 등의 유구는 현재 대웅전 우측 마당에 놓여 있으며, 사역 서쪽의 용천수는 연지까지 배수로를 조성하는 등 정비되어 있다.

제주도 내 수정사, 원당사와 더불어 고려 후기 대표 사찰로 알려진 법화사지는 많은 관련 문헌과 연구를 토대로 역사성이 밝혀졌으며, 발굴조사를 통해 사역도 확인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금당지를 중심으로 하는

41) 『太宗實錄』6年 4月 20日.

42) 『太宗實錄』8年 2月 28日.

43) 강창언, 「제주도의 불적」, 『탐라문화』1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1992), p. 148.

44) 『耽羅誌』大靜縣, 佛宇.
『梵宇攷』大靜.

45) 제주대학교박물관, 『법화사지』(1997), p. 35.

46) 강창화, 「제주 법화사지의 고고학적 연구」, 『제주도사연구』9집(2000).

건물지 영역과 구품연지로 복원된 연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출토유물 등을 통해 법화사는 1269년에 중창을 시작하여 10년 후에 완료되기도 하였으며, 원 간섭기 동안 왕실과도 관련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건기에 대한 관련 문헌과 고고학적 자료가 명확하지 않지만 이미 현 사역 내 소공원에는 창건주로 알려진 장보고기념비가 건립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사역이 급격히 축소되었지만 고려시대 전반에 걸쳐 대규모 사역을 형성하였으며, 조선시대 후기까지도 추가 시설로 법당이 연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 18. 법화사 전경(필자 촬영)



도 19. 발굴 출토 석재 전경(필자 촬영)

존자암은 창건과 관련된 기록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사찰의 존속과 위치에 관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한라산 서쪽 기슭에 있는데, 그 곳 동굴에 마치 승려가 도를 닦는 모습과 같은 돌이 있어 수행동(修行洞)이라 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⁴⁷⁾ 또한 『탐라지』에는 기록이 두 번 나온다. 첫 번째는 '처음의 존자암 위치는 영실이었고, 지금은 서쪽 기슭에서 밖으로 10리쯤 옮겼는데 곧 대정(大靜) 지경이다.'라고 실려있고⁴⁸⁾, 두 번째는 '한라산 서쪽 기슭에 있는데 대정현에서 동쪽으로 60리 거리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⁴⁹⁾ 폐사와 관련해서 이경억(李慶億, 1620~1673)의 시에는 '존자암이 이름난 절로 알았더니 황량한 반조각의 옛터일세'라는 시구가 전하고 있고,⁵⁰⁾ 1704년에 제주 절제사로 부임했던 이형상이 쓴 『남환박물』에도 '대정현 지경에 유일하게 존자암이 있는데 단지 이는 초집 몇 칸뿐이다. 역시 중은 살지 않는다. 다만 별성이 산에 오를 때 머무르고 쉴 뿐이다. 온 섬 5백리 넓이에 지금은 사찰이나 불상, 중, 비구니도 없고 염불자도 없으니, 불도의 모질고 사나운 운수라 말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⁵¹⁾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존자암은

47) 『新增東國輿地勝覽』卷38 全羅道 濟州牧 佛宇.

48) 『耽羅志』濟州牧 佛宇.

49) 『耽羅志』大靜縣 佛宇.

50) 제주대학교박물관, 『존자암지』(1996), pp. 32-33. 재인용.

51) 이형상 저, 이상규·오창명 공역, 『남환박물』, 푸른역사(2009), pp. 113-114.

17세기 중반 이전에 영실에서 대정 지경으로 옮겨졌고, 대정 지경으로 이전된 존자암도 18세기 초 경에는 폐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라산 영실의 서북편 불레오름 남사면 능선에 위치한 존자암지는 해발 1200m 정도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한라산국립공원 영실사무소에서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 확인할 수 있다. 기록으로만 전해졌던 존자암은 1993년과 1994년 두 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1993년 조사에서는 4단의 석축시설과 건물지, 비각지, 부도와 부도지, 배수시설, 적석시설 등이 확인되었고,⁵²⁾ 1994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1차 시기(14~15세기) 초기의 건물지, 부속시설물과 2차시기(16~17세기)의 중건 건물지, 비각 형태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발굴결과 선문, 파상문, 무문 와편과 ‘□□二月修正禪師大夫金仲(沖)光萬戶兼牧使奉’명, ‘壬申造’명, ‘天丑開啓’명, ‘高’명, ‘尊’명, ‘支’명, ‘土回’명 와편, 어골문, 무문, 수과문 와편과 소량의 청자편, 인화·철화·귀얄·덤뽕분청자, 다량의 백자, ‘大靜’명 ‘和順’명, ‘大’명, ‘林’명, ‘弟’명 백자류 등이 출토되었다.⁵³⁾

현재는 발굴조사 이후 문화재 정비 일환으로 복원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대웅보전과 국성재각, 요사채를 갖춘 존자암이 조성되어 있다.

존자암지 경내의 4단 석축 위에는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존자암지 세존사리탑이 있다. 이 탑은 현무암으로 조성되었고, 앞에는 배례석이 있다. 기단부는 팔각의 기단석과 종형의 탑신석, 옥개석, 상륜부로 구성되어 있고, 옥개석과 상륜부재가 한 석재로 되어 있다. 이 세존사리탑의 조성시기는 여말선초 경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재고의 여지가 필요하다.

존자암지는 제주도에서 비교적 잘 남아있는 사지로 학술적·문화재적으로 중요성이 있는 곳이다. 이 사지는 두 차례의 조사를 통해 4단의 석축시설, 건물지, 부도, 배수시설, 비각시설 등이 확인되었고,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사찰의 창건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 『탐라지』, 『남한박물』 등의 문헌기록을 통해 17세기 중반 이전에 한라산 영실에서 대정 지경으로 이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로서는 존자암이 이전된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기초사에 의하면 현재 존자암에서 남서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중문동사지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지에서는 사지와 관련된 유구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소량의 어골문 와편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전된 존자암이라고 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장조사에서는 시·발굴조사구역 이외 지역에서 유물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역의 확장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한라산 영실에 위치했던 존자암의 운영시기는 출토유물과 문헌 등으로 보아 고려후기에서 17세기경까지로 추정된다.

52) 제주대학교박물관, 『존자암지-발굴조사중간보고』(1993).

53) 제주대학교박물관, 앞의 책(1996).



도 20. 존자암 전경(불교문화재연구소 제공)



도 21. 존자암 세존사리탑(필자 촬영)

IV. 제주도 사지 특징

현재까지 제주도 지역에서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불교 관련 유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려시대 이전에 불교가 전래되지 않았다고 단정짓기는 힘들다. 앞서도 백제 등과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기록으로 볼 때 게다가 백제가 일본에까지 불교를 전해준 것으로 보아도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제주도 지역 사찰과 사지는 문헌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도심, 민가, 경작지 조성 등으로 인해 훼손되어 사지 흔적을 파악할 수 없는 곳이 많으며, 기록에 언급된 사찰인지에 대해서도 발굴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이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지표상에서 확인되는 유물들이 고려중후기에 제작되는 어골문, 어골복합문 와편과 청자편 등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에는 불교 문화가 왕성했을 것이다. 특히 제주 지역의 불탑 중에서 가장 빠른 제작시기를 가지고 있는 수정사지 청석탑은 점판암이 없었던 제주 지역에 조성되었다는 면에서 고려시대 불교문화의 확산 양상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육지와와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려준다. 게다가 청석탑 표면에 범자가 새겨진 경우는 원주 보문사 청석탑, 영월 무릉리 청석탑, 양양 도적사지 청석탑제 등에서 확인되는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요와 원나라 불교의 영향으로 밀교가 유행하면서 진언 다라니가 성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수정사지 청석탑도 신앙과 예불의 대상으로 진언 다라니를 새긴 것으로 보인다. 이 청석탑은 청석만을 가지고 와서 제주 지역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 우수한 장인에 의하여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⁵⁴⁾

54) 엄기표, 「제주지역 불교 석조미술의 특징과 의의」, 『탐라문화』 54호(2007), pp. 44-45.

원당사지 오층석탑과 존자암지 세존사리탑의 경우는 육지에서 대부분 사용하던 화강암이 아닌 현무암을 사용하여 조성하였다. 현무암은 가벼워 이동은 쉽지만 단단하지 않아 치석할 때 파손되기 쉽다. 뿐만아니라 건물지 초석도 현무암으로 제작하고 있는데, 이는 법화사지와 수정사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포동사지 부근인 대포동 2184-5번지에 있는 초석은 원형운두가 있으며, 초석 상면에 얇은 흙으로 주좌를 표현하였다. 이 초석은 현무암이 아닌 다른 석재를 가공한 것으로 보이며, 대포 포구 공사 중에 해수면 아래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법화사를 증건할 때 쓰인 건축 자재들이 수도 개경에서 제작되어 대포포구를 거쳐 법화사로 운반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제주도 지역에서 현무암 이외의 암석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좀더 정확한 석재의 산지 분석이 필요하다.

조선시대 들어와 제주도 지역 불교는 거시적으로는 육지와 동일한 쇄퇴와 발전 과정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미시적으로는 육지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조선초에 들어 육지에서 불교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제주도 지역의 중요 사찰이었던 법화사와 수정사 등 일부 사찰이 위축되기도 했지만, 육지의 불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많은 사찰들이 범등을 이어나가면서 불사가 진행되었다. 당시 제주도 불교는 지역의 민간신앙과 습합되면서 중심 신앙으로 자리잡아 나갔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들어와 부흥기를 맞이했던 육지의 불교와는 달리 제주도 지역은 대대적인 화불정책으로 오히려 불교계가 크게 위축되었다. 그래서 조선후기 제주도 지역은 육지에 비해 불교문화가 성행하지 못했다. 이는 오늘날 제주도 지역에서 조선시대의 불교문화가 육지에 비해 적게 확인되고 있는 요인이 아닐까 싶다.

더불어 제주도 지역의 사찰 폐사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육지의 경우 사찰 폐사 원인은 거란족 침입, 한국전쟁과 임진왜란, 방화, 승병 해산 등이 이유였다. 몇가지 사례를 보면, 회암사지는 화재로 인해, 운주사는 정유재란때 일본군의 방화로 16세기 중반에 폐사되었고, 무주 원통사지는 여수·순천사건에 의한 화재, 충주미륵대원지는 근대에 발생한 수해로 폐사된다. 조금 특이한 경우로는 예산 가야사지이다. 가야사지는 예로부터 유명한 명당으로 2대에 걸쳐 왕손이 나온다고 알려져 왔다. 이를 믿은 홍선대원군이 1844년(헌종 10)에 사찰에 불을 지르고 부친 이구(1788~1836)의 묘를 썼다. 이것이 오늘날 남아 있는 남연군 묘이고, 1863년에 자신의 아들이 보위에 오르니 바로 고종이다. 이후 홍선대원군은 가야사를 불태운 죄책감에 가야산 동쪽에 절을 짓고 부처의 은덕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이름을 보덕사라 하였다고 한다. 결국 가야사가 폐사된 이유는 풍수적인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반해 제주도는 숙종시기 제주목사 이형상(1653~1733)으로 인해 많은 사당과 사찰이 불타버리게 되면서 폐사되게 되고, 이때 법화사와 존자암이 모두 불탔다고 한다.

제주도 육지와 다른 점 중 하나는 불교와 민간신앙이 함께 공존하는 점이다. 이는 동자복과 서자복으로 불리는 2구의 조각상에서 알 수 있다. 이 두 조각상은 미륵불로 칭해졌지만 동시에 마을의 수호신상이자 복을 가져다주는 민불적 성격의 조각상으로도 인식되었다. 이와같이 제주도 지역의 불교문화는 불교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주도 지역만의 지리적인 특성이 반영되어 육지보다 제주도 민간신앙과 잘 습합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문헌에서 확인되는 사찰(寺刹)과 사지(寺址)를 토대로 제주도 지역에서 확인되는 사지 현황을 살펴보았다. 현재 제주도 지역 사지는 대부분 도심, 도로, 민가, 경작지 등으로 현상변경되어 흔적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사역 내에서 산포되어 있는 유물과 유구, 소재문화재를 통해 과거에 사찰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사지에 어골문, 어골복합문, 집선문 와편, 청자편, 분청자편, 백자편 등이 산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중후기 경에는 사찰이 존재했었음을 알 수 있고, 적어도 18세기경에는 폐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는 지표상에서만 파악한 현상이라서 지하에 어떤 유물과 유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된 바가 아니므로 제주도 지역 불교 유입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제주도에 남아 있는 사지 중 문헌 상 사찰로 규명짓는 것은 지표조사만으로 어렵고, 이는 정밀조사를 통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법화사지, 수정사지, 원당사지, 존자암지 외 다른 유적에 대한 조사가 함께 병행되어야 제주 고대 사찰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점차 도심화와 경작 등으로 훼손되고 있는 사지 중 역사성, 잔존 유구, 유물, 소재문화재 등에 따라 중요한 사지를 선별하여 정밀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제주 지역에 제작되는 건물 초석과 석탑 등은 거의 현지 수용이 가능한 현무암을 많이 사용했으나 법화사지 초석으로 추정되는 석재는 현무암 외에 다른 석재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확한 산지 분석 등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온 석재라면 대외교류 면에서 좋은 연구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헌>

『高麗史』

『南槎錄』

『南槎日錄』

『梵宇攷』

『新增東國輿地勝覽』

『耽羅志』

『太宗實錄』

<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완도 법화사지』, 1992.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라남도의 석탑 II』, 2006.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지 下-전라남도 2,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2011.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지 下-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부록』, 2020.

제주대학교박물관, 『수정사·원당사 지표조사보고서』, 1988.

제주대학교 박물관, 『법화사지』, 1992.

제주대학교박물관, 『존자암지-발굴조사중간보고』, 1993.

제주대학교박물관, 『존자암지』, 1996.

제주대학교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제주시』, 1998.

제주대학교박물관, 『수정사지』, 2000.

제주문화예술재단, 『원당사지』, 2007.

<단행본>

국립제주박물관, 『유적과 유물을 통해 본 제주의 역사와 문화』, 서경문화사, 2009.

이형상 저, 이상규·오창명 공역, 『남환박물』, 푸른역사, 2009.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시의 옛터』, 1996.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제주의 폐사지』, 2004.

<논문>

강창언, 「제주도의 불적」, 『탐라문화』 1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2.

강창화, 「제주 법화사지의 고고학적 연구」, 『제주도사연구』 9, 2000.

엄기표, 「제주지역 불교 석조미술의 특징과 의의」, 『탐라문화』 5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07.

제주도 사지(寺址) 현황과 특징

이현수((재)불교문화재연구소 팀장)

제주도 지역에서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불교 관련 유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려시대 이전에 불교가 전래되지 않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삼국시대에 백제와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고, 백제가 일본에까지 불교를 전파해 준 것으로 보아도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제주도에는 문헌 및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지가 제주시 38개소, 서귀포시에 24개소가 있다. 이 중 제주시 13개소와 서귀포시 4개소는 문헌으로만 전해지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위치를 알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지는 총 45개소이다. 그러나 대부분 사지는 과수원, 경작지, 도로, 주택단지 등으로 인해 흔적을 파악하기 힘들다. 다만 유물과 유구가 남아 있거나 발굴을 한 경우 사찰에 대한 존속 시기와 특성을 알 수 있을 뿐인데, 지표 혹은 발굴 출토 유물들이 고려중후기에 제작되는 어골문, 어골복합문 와편과 청자편 등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에는 불교문화가 융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 지역의 불탑 중에서 가장 빠른 제작시기를 가지고 있는 수정사지 청석탑은 점관암이 없었던 제주 지역에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고려시대 불교문화의 확산 양상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육지와와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려준다.

조선시대 들어와 제주도 지역 불교는 육지의 승유역불정책에 따른 위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법등을 이어나가면서 불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들어와 부흥기를 맞이했던 육지의 불교와는 달리 제주도 지역은 대대적인 화불정책으로 불교가 크게 위축되었지만, 제주 지역의 민간신앙과 습합되면서 지속되었다.

이렇듯 제주도 불교문화는 육지와와의 교류, 그리고 민간신앙과 습합된 제주도만의 독특한 불교문화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지 정밀조사와 석재 산지분석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기에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제주도의 불교유입과 대외교류 면에서의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주제어 : 제주, 불교, 사지, 사찰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Buddhist Temple Sites on Jeju Island

Lee, HyunSoo(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Cultural Heritage Team leader)

No traces of Buddhist activity from the Three Kingdoms or Unified Silla periods have been discovered on Jeju Island. However, given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no full-scale archeological work done across the island, it can not be concluded with certainty that Buddhism was not transmitted to Jeju prior to the Goryeo period. Trade between Baekje and the Tamna kingdom took place throughout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Baekje was responsible for transmitting Buddhist ideas as far as Japan.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erefore, that the religion was also brought to Jeju Island at that time.

Through research into historical records and onsite excavations, 38 temple sites have been confirmed to have existed in the area corresponding to modern Jeju City, as well as 24 in what is now the district of Seogwipo City. Among these, 13 sites in Jeju City and 4 sites in Seogwipo City are known only from historical records, and their exact locations are yet undetermined. So there is a total of 45 temple sites for which we have confirmed locations and some knowledge of the scope of their activity. Nonetheless, in the majority of those cases it is difficult to ascertain the full extent of their remains due to the presence of farms, orchards, roads and residences at the sites. For those sites at which artifacts and remains of building foundations have been discovered, or at which excavations have been carried out, we can only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orresponding time periods of the temples. Considering that artifacts discovered on or under the ground at the temple sites, such as pieces of roof tiles with simple and complex fishbone designs and sherds of celadon pottery, correspond to the work of artisans during the mid- and late Goryeo periods, it appears that Buddhist culture was flourishing in Jeju during the Goryeo Dynasty. The earliest known Buddhist stupa in Jeju is the Blue Stone Pagoda found at the Sujeongsa Temple site. It was constructed using slate, which is not naturally present in Jeju, suggesting that is a product of the diffusion of Buddhist culture during the Goryeo period. It also provides evidence for continual contact between Jeju and the mainland throughout the period.

Despite the strictly curtailed scope of Buddhist activity on Jeju during the Joseon Dynasty due to restrictions placed on the religion by the mainland authorities' policy of promoting Confucianism and suppressing Buddhism, the teaching of Buddhism and the performance of Buddhist rituals continued throughout the era. In contrast to the revival of Buddhism on the

mainland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practice of the religion saw a sharp decline in Jeju due to the strict policies intended to eliminate Buddhist practice in the province. But Buddhism survived on Jeju nonetheless, as aspects of the religion were blended with islanders' native folk beliefs.

The characteristics of Buddhist culture in Jeju are unique to the island, having developed through cultural exchange with the Korean peninsula and blending with pre-existing folk beliefs. Careful research into historical Buddhist temple sites on Jeju has not yet been carried out. Nor has there been wide-ranging, multi-perspective research into such topics as the analysis of stone sculpture production on the island. Much remains to be learned about the introduction of Buddhism to Jeju and the island's historical cultural exchange with mainland Korea; this will require further research.

Keywords: Jeju, Buddhism, Buddhist temple sites, Buddhist temples

제주 불교유적 금속제 출토품 재검토

- 청동 등잔 명문을 중심으로 -

신명희*

I. 머리말

II. 제주 불교유적 금속제 출토품

1. 제주 주요 불교유적과 출토품 현황
2. 금속제 출토품

III. 명문 금속제 출토품 재검토

1. 명문 재검토
2. 명문으로 확인한 등잔(燈盞)의 기명(器名)과 의의

IV. 맺음말

I. 머리말

제주도에는 많은 크고 작은 사찰이 있었다. 기록으로 전하는 ‘당(堂) 오백 절(寺) 오백’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제주도에는 집안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한 신당과 사찰이 많았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이나 제주도에서 불교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려시대이다. 대표적인 사찰인 법화사(法華寺), 수정사(水精寺), 원당사(元堂寺), 존자암(尊者庵) 등도 이 시기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찰이 창건된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국교로 삼고 국가의 지원 아래 사찰의 건립이 활발하였으며,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불교문화가 꽃을 피웠다. 제주도도 역시 여러 지역에 자리한 크고 작은 사찰로 보아 일찌감치 불교신앙이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제주목(濟州牧)에 존자암(尊者庵), 수정사(水精寺), 묘련사(妙蓮寺), 해륜사(海輪寺), 만수사(萬壽寺)가 있으며, 정의현(旌義縣)에는 성불암(成佛巖), 영천사(靈泉寺)와 대정현(大靜縣)에는 법화사(法華寺) 등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조선 전기까지는 여러 사찰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불교는 국가 정책에 따라 점차 쇠퇴하였다. 민간신앙의 대상이 불교신앙에 일부 수용되거나 불교신앙 대상이 민간신앙에 습합되는 등 변화되어 현세에는 건강과 행복을 비는 기복신앙이 자리하기에 이른다.

제주도 내 융성했던 불교문화는 많은 유적을 남겼으나 시·발굴조사는 일부 이름이 알려지거나 유구가 확인되는 곳에서만 이루어졌다. 그러다 2010년대 들어 문화재청이 주관하고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실시한 전국 사지 조사로 많은 불교유적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고, 제주도 내 사지에 대한 조사도 하였다. 제주도 내 사지 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총 84개의 사지가 조사되었는데 제주시 52개 처, 서귀포시 32개 처이다.¹⁾ 사지 조사 결과 사역이 확인된 곳도 있고, 불분명한 곳도 있으며 사찰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건축재 및 석재 부재와 기와편, 자기 편 등 일부 산포유물이 수습되기도 하였다.²⁾

〈표 1〉 제주특별자치도 시·발굴조사 현황³⁾

소재지	사지명	조사시기	조사기관	출토품	현황
제주시	수정사지	1998	제주대학교박물관	기와, 도자기, 동전, 석탑 부재(탑신석), 청동 등잔 등	사찰
		2000			
	원당사지	1998	제주대학교박물관	기와, 도자기 등	
		2003	제주문화예술재단		
	고내리사지	2002~03	제주문화예술재단	기와, 도자기 등	
서귀포시	법화사지	1982	명지대학교박물관	기와, 도자기, 도기, 동전, 청동 등잔 등	사찰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13호)
		1990~91	제주대학교박물관		
		1991~92			
		1995			
		1997~98			
	상효동사지	2009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존자암지	1993	제주대학교박물관	기와, 도자기, 동전, 금속품 등	사찰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43호)
		1994			
		2013	제주문화유산연구원		
	하원동사지	2018	제주고고학연구소		

1) 문화재청·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지』 2020하(2020), p.316.

2) 문화재청·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지』 2011하(2011), pp.477-588.

3) 문화재청·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20), p.355.

본 논문에서는 조사된 대표적인 불교유적을 중심으로 출토품 현황을 살펴보고, 출토품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자 한다. 기와나 도자기 등 모든 출토품에 대한 조사를 함께 진행하여 유적의 성격이나 시대상을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기서는 금속제 출토품만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다른 출토품은 이미 시행된 연구⁴⁾를 참고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후 보완하도록 하겠다.

II. 제주 불교유적 금속제 출토품

1. 제주 주요 불교유적과 출토품 현황

1) 법화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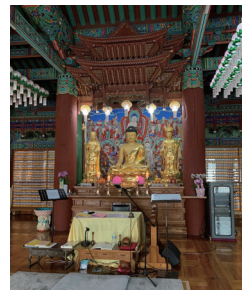
법화사지는 서귀포시 하원동 1071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13호로 지정되었다. 법화사는 고려시대 전기 창건되어 조선시대까지 지속되다가 18세기 초에 폐사하였다. 장보고가 810~828년 사이에 완도와 제주도에 법화사를 창건하였다는 내용⁵⁾은 전하나 정확하지 않다. 발굴된 명문와(銘文瓦)로 고려 1269년(원종 10) 이전에 창건하고, 고려 1279년(충렬왕 5)에 증창한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초에는 비보사찰로 노비를 280명이나 두었을 정도로 규모가 컸으나, 1408년(태종 8)에 노비 수가 30명으로 줄었고⁶⁾ 절의 세력은 축소되었다. 그러나 조사를 통해 조선 중기까지 계속 중·개축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절터에는 새로 지어진 법화사가 자리하고 있으며,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웅전과 연지(蓮池)를 복원하였다.



도 1. 법화사 전경(필자 촬영)



도 2. 법화사지 야외 석물(필자 촬영)



도 3. 법화사 대웅전(필자 촬영)

4) 국립제주박물관, 『제주 출토 고려시대 도자기』 (2013).

5) 국립문화재연구소, 『완도 법화사지』 (1992), p. 125.

6) 『태종실록(太宗實錄)』 태종 6년 4월 20일.

1982년부터 1998년까지 총 8차에 걸친 발굴조사로 고려 후기의 금당지와 10여 개의 건물지, 계단시설, 보도시설, 담장지, 연지(蓮池) 등 사찰 유구를 확인하였다.⁷⁾ 발굴조사에서 운용문 암막새, 운봉문 수막새, '지원(至元)'명(銘) 명문와, '만호(萬戶)'명(銘) 명문와 등 다양한 종류의 기와를 비롯하여 청자 대접, 청자 완, 분청사기 편, 백자 편 등이 나왔다. 명문이 있는 청동 등잔과 중국 동전인 개원통보(開元通寶) 등도 출토되었으며, 현재 국립제주박물관에 전시·보관 중이다.



도 4. 법화사지 출토품,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2011), p.131.)



도 5. 청자 대접, 고려, 높이 7.9cm(오른쪽),
제주 법화사지, 국립제주박물관(『국립제주
박물관』(2011), p.113.)



도 6. 운봉문 수막새, 고려, 지름 12.8cm
(왼쪽), 제주 법화사지,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2001), p.121.)

2) 원당사지

원당사지는 제주시 삼양동 694번지 일원으로, 창건과 관련한 기록은 전하지 않지만 중국 원의 기황후가 아들을 얻기 위해 삼첩칠봉(三疊七峯)인 이 곳 명당자리에 절을 짓고 사신을 보내어 불공을 드렸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탐라지(耽羅志)』에 원당사가 있었다는 기록⁸⁾으로 보아 17세기경까지는 있었으나 이후 폐사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지금은 옛 절터에 불탑사라는 새로운 절이 있다.

창건 당시에 만든 것으로 보이는 원당사지 5층 석탑은 제주도의 유일한 석탑이다. 기단부와 5층 탑신부로 구성되어 있고, 상륜부에는 노반이 있으며 그 위에 지붕모양의 장식 돌이 얹어져 있는데 이 돌은 후대에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기단면석은 뒷면을 제외한 3면에 테두리를 두르고 안상을 새겼으며, 안상 가운데에는 초문(草文)을 넣었다. 1층 탑신 정면에는 네모난 구멍을 뚫고 테두리를 돌을새김 하였는데,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곳으로 보인다. 옥개석 지붕 네 모퉁이에는 풍탁을 달았던 구멍이 있다. 이 석탑은 제주에서 직접 만든 석탑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보물 제1187호로 지정되어 있다.

7) 제주대학교박물관, 『법화사지』(1992); 제주대학교박물관, 『법화사지』(1997).

8) 『탐라지(耽羅志)』 제주목, 불우조



도 7. 원당사지 전경(필자 촬영)



도 8. 원당사지 5층 석탑
(필자 촬영)



도 9. 원당사지 금당지(필자 촬영)

원당사지는 1988년과 2003년 2차례 조사하였으며, 1988년에는 유구가 확인되지 않고 명문와와 도자기 일부만 나왔다.⁹⁾ 2003년 조사에서는 건물지가 확인되었고, ‘시주만호이(施主萬戶李)명(銘) 명문와, 연화문 수막새, 국화문 수막새, 귀목문 암막새, 청자 햇무리굽 완 편, 청자 편, 중국 청자 편 등 다양한 종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¹⁰⁾



도 10. 수막새·암막새, 고려, 너비 27.0cm (오른쪽 위), 제주 원당사지, 국립제주박물관(『국립제주박물관』(2011), p.137.)



도 11. 명문와, 고려, 길이 21.5cm(오른쪽), 제주 원당사지, 국립제주박물관(『국립제주박물관』(2011), p.138.)



도 12. 청자 편, 고려, 높이 6.9cm(왼쪽 아래), 제주 원당사지, 국립제주박물관(『국립제주박물관』(2011), p.137.)

3) 수정사지

수정사지는 제주시 외도동 199번지 일대 해안으로 흐르는 도근천(都近川)가에 위치한다. 수정사는 고려시대에 창건하여 조선시대까지 이어졌으며, 조선 초에는 130명의 노비를 갖는 비보사찰로 그 규모가 법화사 다음으로 큰 사찰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1408년(태종 8) 노비 수가 30명으로 줄어들고, 이후 조선시대 불교 정책에 따라 사찰이 쇠퇴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1521년(중종 16)에 중수되었다는 사실이 충암(冲庵) 김정(金淨)의 「도근천수정사중수권문(都近川水精寺重修勸文)」에 남아 있는데 17세기 이후에는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조사로 건물지 12동, 도로와 보도, 탑지, 석등지, 담장지, 폐와무지, 적석유구 등을 확인하였다.¹¹⁾

9) 제주대학교박물관, 『수정사·원당사 지표조사보고서』(1988).

10) 제주문화예술재단, 『원당사지』(2007).

11) 제주대학교박물관, 『수정사지』(2000).



도 13. 전 수정사지(필자 촬영)



도 14. 수정사지 안내판(필자 촬영)



도 15. 수정사지 석탑지(『국립제주박물관』 (2011), p.126.)

유물은 9~10세기 순창사에서 18세기 중엽 백자까지 다양하게 출토되었고, ‘만호(萬戶)’명 명문와, 수키와, 암키와, 막새 등 여러 종류의 기와도 나왔다. 중국 송나라 때 만들어 사용한 경덕원보(景德元寶, 1004~1007년), 원풍통보(元豐通寶, 1078~1085년), 정화통보(政和通寶, 1111~1117년)가 발견되어 육지와와의 교류 관계도 확인된다.

특히, 석탑지에서는 점판암으로 만든 탑신석이 발견되어 주목된다. 고려시대 점판암은 석관 재료로 많이 사용하였고, 석탑을 만들기도 하였는데 점판암으로 만든 석탑은 청석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통일신라 말기에 시작되어 고려시대 유행하였고, 크기가 작고 무늬를 새겨 공예적 요소가 두드러진다. 수정사에서 출토된 탑 부재 19점을 모아 추정해 보면 2단의 기단 위에 11층의 탑신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층 탑신 가운데에는 문이 새겨져 있고, 양옆에 인왕상이 가는 선으로 새겨져 있다. 몸돌에 새겨진 인왕상의 조형미와 조각수법이 매우 뛰어나다. 나머지 석탑 부재에는 범자(梵字)가 새겨져 있다. 제주에는 점판암이 없으며 이 탑은 육지에서 가져와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청동 젓가락 편, 금동제 장신구 편 등 금속제 출토품과 청동 등잔이 출토되었다. 청동 등잔은 제주 법화사에서 나온 명문이 있는 등잔을 비롯하여 고려시대 유행한 청동 작은 접시와 유사하다.



도 16. 탑신석, 고려, 높이 31.0cm, 제주 수정사지, 국립제주박물관(『국립제주박물관』 (2011), p.127.)



도 17. 탑신석, 고려, 길이 35.2cm(오른쪽 아래), 제주 수정사지, 국립제주박물관(『국립제주박물관』 (2011), p.127.)



도 18. 원풍통보·정화통보·경덕원보, 고려, 지름 1.0cm(왼쪽), 제주 수정사지, 국립제주박물관(『국립제주박물관』 (2011), p.129.)

4) 존자암지

존자암지는 서귀포시 하원동 산1번지에 위치하며,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43호로 지정되어 있다. 한라산 영실 서북쪽에 자리한 존자암지는 창건 시기가 정확하지 않으나 1593년(선조 26)에 중수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임진왜란 이전까지 존자암에서는 매년 삼읍(三邑) 수령 중 한 명이 주관하여 국성재(國聖齋)를 지내기도 하였다. 16세기 말 본래의 위치에서 대정현 지경으로 옮겨져 사세(寺勢)를 이어 왔다고 하나 폐사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발굴조사 결과 부도(浮屠)와 건물지 5동, 탑지 추정지, 석축시설, 배수시설 등이 확인되었다.¹²⁾ 부도는 몸체가 둥근 항아리 모양의 탑신을 가진 것으로, 기단에 사리공을 파서 사리를 안치한 후 탑신을 덮고 옥개석을 올렸다.



도 19. 존자암(필자 촬영)



도 20. 존자암(필자 촬영)



도 21. 존자암 사리탑
(필자 촬영)

출토품으로 명문와 및 막새 등 다양한 기와와 청자, 분청사기, 백자 편 등이 나왔으며 뚜껑으로 보이는 금속품과 청동 신장상이 나왔다. 신장상은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은 허리를 짚고 있는 모양으로 아래 부분은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전체 모양을 알기 어려우나 아래 부분에 한쪽만 남은 축으로 보아 어딘가 꽃아서 장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12) 제주대학교박물관, 『존자암지』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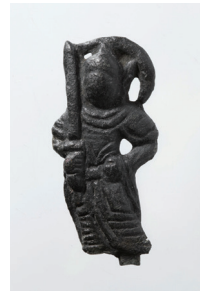
도 22. 청동 뚜껑, 조선, 지름 13.2cm, 제주 존자암지, 국립제주박물관(『국립제주박물관』(2011), p.140.)



도 23. 청자 편, 고려, 길이 11.5cm, 제주 존자암지, 국립제주박물관(『국립제주박물관』(2011), p.140.)



도 24. '만호겸목사봉 万户 兼牧使奉'명 명문와, 조선, 길이 18.0cm, 제주 존자암지, 국립제주박물관(『국립제주박물관』(2011), p.141.)



도 25. 청동 신장상, 고려~조선, 길이 4.9cm, 제주 존자암지, 국립제주박물관(『국립제주박물관』(2011), p.139.)

2. 금속제 출토품

제주도 중요 사지 출토품은 현재 국립제주박물관에 보관·전시 중이다. 그 동안 조사 연구가 계속 진행되었지만, 용도를 알 수 없거나 유물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재조사 및 검토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인 금속제 출토품은 법화사지, 수정사지, 존자암지에서 발견된 것으로 총 37점이다.

〈표 2〉 제주도 사지 금속제 출토품¹³⁾

연번	사진	명칭	수량	시대	크기(cm)	출토지	비고 (소장품번호)
1		동전	1	조선	지름 3.0	서귀포시 하원동 1063번지 법화사지	제주1123
2		청동 종지	1	고려	입 지름 8.1 높이 2.3	서귀포시 하원동 1063번지 법화사지	제주1162
3		동전	1	고려	지름 2.4	서귀포시 하원동 1063번지 법화사지	제주1163
4		청동제 판	1	고려	길이 2.0	서귀포시 하원동 1063번지 법화사지	제주1164

13) 소장품의 명칭은 국립박물관 등록관리 명칭으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어 추후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사진은 필자 촬영 및 e-뮤지엄 제공.

연번	사진	명칭	수량	시대	크기(cm)	출토지	비고 (소장품번호)
5		청동제 봉	1	고려	길이 4.6	서귀포시 하원동 1063번지 법화사지	제주1165
6		금동 장신구편	1	고려	길이 9.2 두께 2.0	제주시 외도동 498 수정사지	제주281
7		청동 저편	1	고려	길이 6.2 두께 0.3	제주시 외도동 498 수정사지	제주282
8		원풍통보	1	중국 송	지름 2.4	제주시 외도동 498 수정사지	제주283
9		청동제 젓가락	1	조선	길이 16.3 너비 04~0.7	제주시 외도동 498 수정사지	제주930
10		금동제 광배	2	조선	길이 3.5 너비 2.0	제주시 외도동 498 수정사지	제주931
11		청동제 동전	1	중국 송	지름 2.5	제주시 외도동 498 수정사지	제주932
12		청동제 동전	1	중국 송	지름 2.4	제주시 외도동 498 수정사지	제주933
13		청동제 동전	1	조선	지름 2.3	제주시 외도동 498 수정사지	제주934
14		청동제 잔	1	조선	입 지름 6.8 높이 2.4	제주시 외도동 498 수정사지	제주935
15		금동제 정	19	조선	(왼쪽) 길이 22 두께 02~05	제주시 외도동 498 수정사지	제주936

연번	사진	명칭	수량	시대	크기(cm)	출토지	비고 (소장품번호)
16		청동제 판	1	조선	길이 3.1	제주시 외도동 498 수정사지	제주937
17		청동 뚜껑	1	조선	지름 13.2	서귀포시 하원동 산1번지 존자암지	제주355
18		청동제 신장상	1	고려	길이 5.4	서귀포시 하원동 산1번지 존자암지	제주410

중국 동전과 우리나라 동전, 젓가락 편 등 용도를 알 수 있는 금속품 외에 장식을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속제품 등은 재조사에서도 정확한 용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수정사지 출토 금동 장신구 편과 금동 광배 편은 탑지와 그 주변에서 발견되어 사리기 부속구나 사리장엄구 일환으로 추정되었으나,¹⁴⁾ 구체적으로 비교, 규명할 유물이 없어서 용도나 성격에 대해서 확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금동 광배 편은 광배인 것이 확실하지 않으며, 광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투조 장식에서 많이 나타나는 당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광배 외 다른 장식으로도 사용되었을 수도 있으니 투조 장식 편으로 부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존자암지에서 출토된 청동 뚜껑은 유사한 사례가 있으나 존자암지에서 발견된 것과 같이 구멍이 있지 않다. 존자암지 청동 뚜껑의 경우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 3개의 구멍에 끈을 끼워서 무언가 담아 매달거나 거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화사지와 수정사지에서는 비슷한 크기와 모양의 청동 작은 접시가 출토되었다. 법화사지 출토품은 명문이 있어서 등잔임을 알 수 있으나 수정사지 출토품은 유사하지만 용도를 몰랐다. 고려시대에는 법화사지 등잔과 같은 작은 접시나 종지 형태의 그릇이 사찰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공양구로 추정할 뿐 정확히 알지 못했다. 더욱이 법화사지 청동 등잔은 다른 접시처럼 구연부가 벌어지지 않고 형태가 조금 달라 유사성만으로 다른 그릇의 용도를 단정하기 어려웠다. 이번 금속제 출토품 조사에서는 새로운 비교 연구 결과가 밝혀지면서 이 두 청동제 용기에 대한 성격과 용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14) 제주대학교박물관, 앞의 책(2000), pp.220-221.

Ⅲ. 명문 금속제 출토품 재검토

1. 명문 재검토

앞에서 소개한 제주 불교유적 금속제 출토품 중 명문이 있는 유물 2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주 법화사지에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기와, 청자, 중국 동전 등 다양한 출토품이 나왔는데 그 중 명문이 있는 청동 등잔이 있다. 작은 종지 형태로, 안쪽에 얇은 음각선이 새겨져 있으며 그릇 바깥 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다.

“法華經前灯盞此樣四施主朱景(법화경전정잔차양사시주주경)”

법화경 앞에 같은 모양의 등잔 4개를 바치는데, 시주자는 주경이다.



도26. 청동 등잔, 고려, 입 지름 8.1cm, 높이 2.3cm, 도 27. 청동 등잔의 명문(필자 촬영)
제주 법화사지, 국립제주박물관(『국립제주박물관』(2011), p.130.)

그 동안 이 청동 등잔의 명문을 소개할 때 실제 새겨진 ‘灯’자 대신 ‘燈’으로 표기하였다. ‘등(정)灯’은 ‘등(燈)’의 속자(俗字)로 알려져 있으나 속자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며,¹⁵⁾ 일부 사전이나 중국 한자에서는 독음을 ‘정’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뜻은 불이나 등불, 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등’으로 읽는 것이 맞다. 고려나 조선 시대에 고문헌이나 금석문에서 사용한 한자 이체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灯’을 ‘燈’의 이체자로 정의¹⁶⁾하고 있다. 일본 한자에서 속자로 사용하고, 같은 의미로서 ‘燈’으로 표기해 왔으나 앞으로는 명문에 새겨진 ‘灯’로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등잔이라고 읽는 한자 ‘灯盞’의 사용례를 더 찾아보고, 당시 특정한 모양의 그릇에만 사용한 고유 명칭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글씨를 새기기 편리하도록 이체자를 주로 사용한 것인지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15) 『漢韓大字典』(서울: 민중서림, 1966).

16) 국립국어원, 『한국 한자 이체자 조사』(2002), p.193.



도 28. 청동 등잔 명문 중 ‘등잔灯臺’ (필자 촬영)

제주 수정사지에서도 청동 작은 접시가 발견되었다. 법화사지에서 출토된 등잔보다 크기가 작고 기벽이 두꺼우나 형태는 비슷하다. 역시 고려시대 다른 사찰에서 쓴 청동 접시와도 비슷하며 법화사지의 청동 등잔과 비교하여 등잔으로 추정해왔다.



도 29. 청동 등잔, 조선, 입 지름 6.8cm, 높이 2.4cm, 제주 수정사지, 국립제주박물관(필자 촬영)

표면의 색이 유독 검고, 보존처리를 마쳤으나 제거하기 어려운 이물질 등이 그릇 표면에 일부 남아 있어 명문을 쉽게 찾아낼 수 없었다. 최근 정밀조사와 연구로 점렬문으로 새겨진 글자를 일부 찾아냈다. 점을 이어 얇게 새긴 글자는 글자의 유무만 확인이 되고 거의 알아보기 어려운데, 대략 12~14자 정도 새긴 것으로 보이며 이중 맨 앞에 2글자와 중간에 1글자, 마지막 1글자만 확인하였다.

“建文□□□□重□□□□堂□...”

(건문□□□□중□□□□당□...)



도 30. 청동 등잔 명문 중 '건' (필자 촬영)

도 31. 청동 등잔 명문 중 '문' (필자 촬영)

앞에 있는 '건문(建文)'은 명나라 2대 왕인 혜제(惠帝)의 연호로 1399~1402년(조선 정종 1~태종 2)까지 4년간 사용되었다. 우리나라 명문이나 기록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는데, 『조선왕조실록』 1399년(정종 1)에 처음 이 연호가 등장하고 이후 『조선왕조실록』에서 주로 볼 수 있다. 수정사지는 고려시대 불교유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의 유물이 많이 출토되는데, 명나라 연호가 새겨진 조선시대 유물이 발견되어 그 시기까지 사세가 대단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뒤에 있는 '중(重)'은 청동제 유물의 명문에서 자주 발견되는데 사용된 구리의 무게를 나타낼 때 주로 쓰인다. 뒷 글자로 숫자를 나타내는 한자와 무게 '근(斤)'을 써서 청동기 제작에 대한 정보를 준다. 다만 사찰의 이름이나 다른 내용을 뜻하는 글자인 경우도 있어서, 앞뒤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당(堂)'의 경우 건물을 나타내는 글자로 보통 이 청동제 용기가 모셔지는 불당을 가리킨다. 뒤에서 소개될 '영통사'명 청동 등잔의 경우도 영통사 '금당(金堂)'에 등잔을 모셨다는 내용을 적고 있다. 밝혀진 두 글자 사이의 다른 글자들이 추가로 확인되면 이 청동 등잔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수정사지에 대한 보다 많은 새로운 사실도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다.

2. 명문으로 확인한 등잔(燈臺)의 기명(器名)과 의의

고려시대 사지 출토품이거나 사찰 명문이 있는 공양구 중에 다수의 청동 접시가 있다. 이들은 청동 중, 청동 금고, 청동 향로, 청동 촛대, 청동 완 등과 함께 발견되어 공양구로 추정되어 왔으나 정확한 용도를 알지 못했다. 청주 사뇌사에서 사용한 123개의 청동 작은 접시는 청동 호 속에 담긴 채로 발견되어 차나 술을 공양하기 위한 작은 잔으로 보기도 하였으나, 제주 법화사지의 사례를 들어 청동 등잔이나 다른 용도의 공양구로 추정하기도 하였다.¹⁷⁾ 이러한 청동 작은 접시는 청주 흥덕사지나 청주 운천동사지에서도 비슷한 것이 다수 나왔으며, 역시 사찰에서 사용하던 공양구로 보았다.¹⁸⁾

17) 국립청주박물관, 『청주 사뇌사 금속공예』Ⅲ(2015), pp. 36-76.

18) 국립청주박물관, 『청주 흥덕사』(2017), pp. 139-143.



도 32. 청동 등잔, 고려, 지름6.8~9.2cm, 청주 사뇌사, 국립청주박물관(『청주 사뇌사 금속공예』III(2015), p.65.)



도 33. 청동 등잔, 고려, 지름6.1~10.3cm, 청주 흥덕사지, 국립청주박물관(『청주 흥덕사』(2017), p.140.)



도 34. 청동 등잔, 고려, 지름7.5~9.2cm, 청주 운천동사지, 국립청주박물관(『청주 운천동』(2019))

일찍이 법화사지에서 나온 청동 등잔은 명문 때문에 그릇의 용도가 확실하였다. 그러나 고려시대 유행한 비슷한 형태의 청동 작은 접시와는 조금 달랐다. 고려시대 사찰 관련 유물이나 절터 출토품에서 보이는 청동 작은 접시는 접시 끝 부분이 옆면에서 거의 직각을 이루며 바깥으로 벌어져 마치 술의 손잡이처럼 생긴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전 달린 접시로 부르기도 한다. 법화사지 청동 등잔은 그러한 형태와 달리 접시 구연부 끝 부분이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중지 형태에 가깝다. 형태의 차이 때문에 그동안 다른 유적의 출토품을 법화사지 등잔과 동일한 용도로 확정하지 못하고, 유사한 형태인 경우 등잔으로 추정해 왔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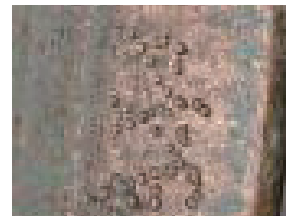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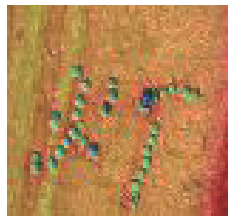
도 35. 청동 향완, 고려, 높이 13.8cm, 입 지름 23.5cm, 괴산 사담리, 국립청주박물관(청주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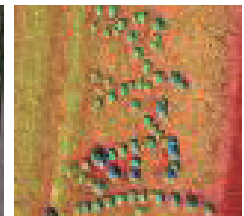
도 36. 청동 향완 명문 부분(청주박물관 제공)



도 37. 청동향완 명문 '등燈'(청주박물관 제공)



도 38. 청동향완 명문 '잔蠟'(청주박물관 제공)



19) 국립중앙박물관, 『발원-간절한 바람을 담다』(2015), p.158; 괴산 사담리 출토 청동 전접시를 등잔 공양을 위한 공양구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조사한 다른 유적의 불교 공양구에서 등잔(燈盞)이라는 명문이 나왔는데, 이 유적 출토품에는 청동 작은 접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이 접시를 당시에 등잔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괴산 사당리 출토 불교 공양구는 일제강점기 때 발견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입수되었다가 지금은 청주박물관에서 보관·전시 중이다. 전체 유물의 훼손 상태가 심하여 일부 완형의 출토품만 전시하다가 최근 보관 중이던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와 조사 연구를 하였다. 이 중 파손된 청동 향완 구연부 뒷면에서 명문이 나왔는데 사찰에 향완 1점과 ‘등잔(燈盞)’ 40개를 만들어 바쳤다는 내용이 있다. 법화사지 청동 등잔과 동일한 ‘등잔(燈盞)’이라는 글자가 발견된 예로, 실제 괴산 사당리 출토품 중에는 고려시대 전형적인 청동 작은 접시가 있다. 이 청동 접시 중 일부에는 ‘韓氏女造納(한씨의 딸이 만들어 바치다)’라는 명문이 있어서 공양구로 주목되어 왔다. 괴산 사당리 발견품으로는 16개의 작은 청동 접시가 있으며, 이 중 6개는 명문이 있고 나머지 10개는 명문이 없다. 명문이 있는 6개를 제외하면, 향완에 기록된 대로 40개의 등잔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명문이 있는 6개의 경우 형태나 크기가 유사해 보이지만, 정밀조사 결과 명문이 없는 10점보다 크기가 크고 그릇의 두께도 두꺼우며 무게가 많이 나가는 등 구별되는 특징이 나타난다. 나머지 10개(총 40개)와는 따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韓氏女造納(한씨녀조납)”

한씨의 딸이 만들어 바치다



도 39. 청동 등잔, 고려, 입 지름 7.5~8.8cm, 높이 1.8~2.0cm, 괴 도 40. 청동 등잔 명문 ‘한씨녀조납韓氏女造納’(『삶과 예술 속 산 사당리, 국립청주박물관(『삶과 예술 속 청동이야기』(2016), 청동이야기』(2016), p.195.) p.195.)

‘등잔(燈盞)’의 명문은 다른 소장품에서도 확인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동 작은 접시 중에 명문 사례를 조사하던 중 동일한 ‘등(燈)’자를 발견하였다. 이 청동 등잔 역시 사찰명이 기록되어 있어서 공양구로 사용된 등잔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청주 사씨사나 청주 흥덕사지 등에서 나온 청동 작은 접시와도 같은 모양이다.

“靈通寺金堂主仏前祝 聖千灯(영통사금당주불전축 성천등)”

영통사 금당 부처 앞에 성스러운 천개의 등(잔)을 받치고 빌다



도 41. 청동 등잔, 고려, 입 지름 10.3cm, 높이 2.3cm, 국립중앙박물관(필자 촬영)



도 42. 청동 등잔 명문 부분 (필자 촬영)



도 43. 청동 등잔 명문 '등灯' (필자 촬영)



도 44. 청동 등잔 명문 '등灯' (필자 촬영)

법화사지에서 출토된 청동 등잔은 고려시대 전형적인 청동 등잔의 형태를 조금 벗어나지만, 명문으로 다른 청동 등잔의 용도를 확인시킨 결정적인 증거로서 고려시대 불교 공양구 연구에 큰 기여를 하였다. 더불어 법화사지가 제주에서 불교성지로서 중심이 되고 육지와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제주 수정사지 출토 청동 등잔에서는 처음으로 명문을 확인하였고, 그 중 명나라 혜제(1399~1402)의 연호인 '건문(建文)'이 발견되었다. 수정사지는 고려시대 불교유적으로 고려 유물이 많이 출토되는데, 이 등잔은 명나라 연호가 새겨진 조선시대 것으로 확인되어 당시 육지와 교류가 활발하였고 사세도 계속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수정사지 청동 등잔은 법화사와 더불어 조선 초기까지 비보사찰로서 제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수정사의 당시 모습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건문' 연호와 앞에서 언급한 두 글자(重, 堂) 외에 아직 확인되지 않은 명문에 대한 조사 연구가 더 필요하다. 명문은 다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나 용도, 사찰 이름, 제작자 등의 정보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제주 불교유적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출토품이 나왔으며, 이에 대한 조사 연구도 계속되어 왔다. 특히 금속제 출토품은 그 종류와 수량이 극히 적지만 사찰의 성격이나 육지와 교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다. 아직 명확하지 않은 용도나 성격을 규명하고, 다른 비교 조사 연구를 위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가 앞으로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로 법화사지에서 출토된 청동 등잔은 고려시대 전형적인 등잔과 다르지만, 명문으로 다른 유적의 공양구가 청동 등잔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고려시대 사찰 유적마다 비슷한 크기와 모양의 그릇이 다수 발견되나 그 정확한 이름을 명명하지 못해 안타까움이 크던 중에 확실한 증명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 연구의 의미가 크다. 또한 법화사지가 당시 육지와 교류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출토품으로 확인시켜 준 계기도 되었다.

수정사지 청동 등잔은 처음 명문을 확인하였다. 등잔의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중국 명나라 혜제(1399~1402)의 연호인 '건문(建文)'이 발견되었다. 수정사지는 조선 초기 비보사찰로서 기록을 통해서만 당시 사세가 대단하였을 것이라 짐작해 왔는데, 명나라 연호가 새겨진 조선시대 유물이 확인되어 이를 직접 입증하였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명문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다 세심하고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발견될 새로운 정보에 기대를 가져본다.

명문이 있는 2개의 유물로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법화사지와 수정사지의 사세와 성격, 교류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이번 조사 연구의 의미가 깊다. 기존에 진행된 기와나 도자기 등 다른 분야의 연구도 함께 이어져 제주 불교 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계속 발전, 확대되기 바란다.

<문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탐라지(耽羅志)』

<보고서 및 단행본>

- 국립국어원, 『한국 한자 이체자 조사』, 2002.
- 국립문화재연구소, 『완도 법화사지』, 1992.
-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 2001.
-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2011.
- 국립제주박물관, 『제주 출토 고려시대 도자기』, 2013.
-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2017.
- 국립중앙박물관, 『발원-간절한 바람을 담다』, 2015.
- 국립청주박물관, 『청주 사뇌사 금속공예』Ⅱ, 2014.
- 국립청주박물관, 『청주 사뇌사 금속공예』Ⅲ, 2015.
- 국립청주박물관, 『삶과 예술 속 청동이야기』, 2016.
- 국립청주박물관, 『청주 흥덕사』, 2017.
- 국립청주박물관, 『중원의 고려 사찰』, 2018.
- 문화재청·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지』 2011 下, 2011.
- 문화재청·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지』 2020 下, 2020.
- 제주대학교박물관, 『수정사·원당사 지표조사보고서』, 1988.
- 제주대학교박물관, 『법화사지』, 1992.
- 제주대학교박물관, 『존자암지-발굴조사 중간보고』, 1993.
- 제주대학교박물관, 『존자암지』, 1996.
- 제주대학교박물관, 『법화사지』, 1997.
- 제주대학교박물관, 『수정사지』, 2000.
- 제주문화예술재단, 『원당사지』, 『제주시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07.

<논문>

- 김영미, 「제주 사지 출토 고려시대 도자기 고찰」, 『제주 출토 고려시대 도자기』, 국립제주박물관, 2013.
- 엄기일, 「제주지역 자기출토유적 내 막새에 대한 검토」, 『제주 출토 고려시대 도자기』, 국립제주박물관, 2013.

제주 불교유적 금속제 출토품 재검토

- 청동 등잔 명문을 중심으로 -

신명희(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제주도 내 융성했던 불교문화는 많은 유적을 남겼으나 일부만 이름이 알려지고 조사되었다. 확인된 대표적인 불교유적을 중심으로 출토품 현황을 살펴보고, 이중 금속제 출토품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를 하였다. 제주의 중요 불교유적 출토품은 꾸준히 조사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용도를 알 수 없거나 유물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 많다. 여기서는 법화사지, 수정사지, 존자암지에서 발견된 금속제 출토품 총 37점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중국 동전과 우리나라 동전, 젓가락 편, 금동 못 등 용도를 알 수 있는 금속품이 대부분인데, 금동 광배 편으로 알려진 것은 광배로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금속장식 편과 같이 장식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화사지와 수정사지에서는 비슷한 크기와 모양의 청동 작은 접시가 각각 출토되었다. 법화사지 출토품은 “법화경 앞에 같은 모양의 등잔 4개를 바치는데, 시주자는 주경이다(法華經前燈盞此樣四施主朱景)”라는 명문이 있어서 청동 등잔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명문의 글자 중 ‘등(燈)’을 ‘등(燈)’과 혼용하거나 잘못 사용한 경우가 있었는데, 당시 금석문에서는 ‘등(燈)’의 이체자로 ‘등(燈)’을 주로 사용하였던 것을 여러 사례에서 확인하였다.

수정사지에서 출토된 청동 작은 접시는 법화사지의 등잔과 형태가 유사하나 용도가 확실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建文□□□□重□□□□堂□...”이라는 명문을 확인하였는데, ‘건문(建文)’은 명나라 2대 왕인 혜제惠帝(1399~1402, 조선 정종 1년~태종 2년)의 연호로 이 그릇의 제작시기를 확인하는 단서가 되었다. 수정사지는 고려시대 불교유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의 유물이 많이 출토되는데, 명나라 연호가 새겨진 조선시대 유물이 확인됨으로써 그 시기까지 사세가 이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수정사지의 청동 접시가 등잔임을 증명하고, 법화사지의 ‘등잔(燈盞)’ 명문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된 고려시대 청동 등잔이 최근 많이 확인되었다. 고려시대 사지 출토품이거나 사찰 명문이 있는 공양구 중에 제주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한 다수의 청동 접시가 있다.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괴산 사담리 출토 청동 향완에서 명문을 확인하였는데, 사찰에 향완 1점과 ‘등잔(燈盞)’ 40개를 만들어 바쳤다는 내용이 있다. 법화사지 청동 등잔과 동일한 ‘등잔(燈盞)’이라는 글자가 발견된 예로, 실제 괴산 사담리 출토품 중에는 고려시대 전형적인

청동 작은 접시, 즉 등잔이 함께 출토되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동 작은 접시 중에서 “영통사 금당 부처 앞에 성스러운 천 개의 등(잔)을 받치고 빌다(靈通寺金堂主仏前祝 聖千灯)”라는 명문이 확인되어 이것 역시 청동 등잔으로 밝혀졌다. 이들 모두 같은 모양에 비슷한 크기로 모두 ‘등잔(灯臺)’이라고 표기하였으며, 당시 불교 공양구로서 전형적인 형태의 등잔임을 알 수 있다.

제주에서 금속제 출토품은 그 종류와 수량이 극히 적지만, 사찰의 성격이나 육지와 교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다. 법화사지 청동 등잔은 고려시대 전형적인 등잔과 조금 다르지만, 명문으로 다른 유적의 공양구가 청동 등잔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고려시대 사찰 유적마다 비슷한 크기와 모양의 그릇이 다수 발견되었으나 그 정확한 이름을 명명하지 못해 안타까움이 크던 중에 확실한 증명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조사 연구의 의의가 크다. 또한 법화사지가 당시 육지와 교류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출토품으로 확인시켜 준 계기도 되었다. 수정사지는 조선 초기 비보사찰로서 기록을 통해서만 당시 사세가 대단하였을 것이라 짐작해 왔는데, 명나라 연호가 새겨진 조선시대 출토품이 확인되어 이를 직접 입증하였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의 명문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도 필요하다. 출토품에 대한 불분명한 용도나 성격을 규명하고, 다른 비교 조사 연구를 위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가 앞으로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법화사지, 수정사지, 청동 등잔

A Re-examination of Metal Artifacts Unearthed at Buddhist Temple Sites in Jeju - Focusing on Bronze Lamp Inscriptions -

Shin, Myunghee(National Museum of Korea, Curator)

Although there are many artifacts from the Buddhist culture that flourished on Jeju in the past, only a small number of them have become well-known and feature as the subject of research. This study examines the state of research into artifacts uncovered at Buddhist sites, focusing on the sites that have become the most widely known, with a reinvestigation and reexamination of metal artifacts. Although there has been a great deal of research into the most important Buddhist sites found on Jeju, there are many artifacts for which no information is available and whose purpose is unknown.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are 37 metal artifacts which were discovered at the Beobhwasa Temple, Sujeongsa Temple and Jonjaam Hermitage sites. Most of the artifacts have a known purpose, such as bronze coins from China and Korea, fragments of chopsticks, and gilt bronze nails. Although the gilt bronze artifacts have become known as part of a halo of a statue, this conclusion seems to have been made prematurely; they appear to have in fact been used as part of an ornament along with fragments of other metal artifacts.

Small bronze dishes that are of similar size and shape have been unearthed at the Beobhwasa Temple and Sujeongsa Temple sites. Based on the fact that an artifact discovered at the Beobhwasa Temple site bears the inscription 法華經前灯臺此樣四施主朱景, meaning "Four oil lamps with the same design have been offered in front of the Lotus Sutra. The offering was made by Ju-gyeong," we can conclude that the dishes were parts of bronze lamps.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character for lamp, 灯, which appears in this inscription, has been mistakenly used through confusion with another character, 燈, also meaning lamp, however there are several examples of stone and metal inscriptions from the era in which the temples were in use where the character 燈 was written in its alternate form, 灯.

The small bronze dish discovered at the Sujeongsa Temple site appears to correspond to the lamp discovered at the Beophwasa Temple site, but no firm conclusion has been reached in this regard. This study shows that the inscription on the dish includes the characters “建文□□□□重□□□□堂□...”, in which 建文 is the era name of Emperor Hye (惠帝, 1399-1402, corresponding to the period covering the first year of the reign of the Joseon Dynasty King Jeongjong to the second year of King Taejong's reign), who was the second ruler of the Ming Dynasty, providing a clue to the date of its production. The Sujeongsa Temple site is regarded as a Buddhist site dating to the

Goryeo Dynasty, and many artifacts from that era have been discovered at the site, but given the confirmation of a Joseon era artifact from the site with an inscription that refers to a Ming Dynasty emperor whose reign dates to the Joseon Dynasty,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temple remained in use until that period.

The bronze dish discovered at the Sujeongsa Temple site contains evidence of being part of a lamp, and based on the re-examination of the 灯盞 'lamp' inscription on the Beophwasa Temple artifact, many bronze lamps have recently been confirmed as dating to the Goryeo era. The majority of artifacts discovered at temples from the Goryeo period and inscribed objects that were offered to the Buddha at temple sites on the mainland are bronze dishes that show a similarity to artifacts unearthed in Jeju. I examined the inscription on a bronze incense burner discovered in Goesan Sadam-ri that is part of the Cheongju National Museum collection. It states that one incense burner and 40 lamps (灯盞) were produced and offered to the Buddha at the temple. This provides an example of the characters 灯盞 being used for the word lamp, such as was done on the bronze lamp discovered at the Beophwasa Temple site in Jeju, and furthermore, the artifacts unearthed in Goesan Sadam-ri include small bronze dishes typical of the Goryeo era, which are clearly parts of bronze lamps. In addition, among the small bronze dishes belonging to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re is a dish containing the inscription 靈通寺金堂主仏前祝 聖千灯, meaning "1,000 sacred lamps were offered in prayer in front of Buddha at the main hall of Yeongtongsa Temple", which also shows that it was part of a bronze lamp. These artifacts are all of a similar size and shape, and all use the characters 灯盞 for lamp, which shows that they were the typical lamps used as objects offered in prayer to the Buddha during that era.

The number and variety of metal artifacts discovered in Jeju is extremely limited, but they are important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emples on the island and the cultural exchange that took place with the mainland in the past. Although the bronze lamp discovered at the Beophwasa Temple site is slightly different from typical Goryeo era lamps, the inscription on it provides confirmation that other artifacts that were used as offerings made to the Buddha were indeed parts of bronze lamps.

Keywords: Beophwasa Temple site, Sujeongsa Temple site, bronze lamps

제주지역 불탑의 특징과 조성 배경

진정환*

I. 머리말

II. 원당사지 오층석탑의 특징과 편년

1. 특징
2. 편년

III. 수정사지 청석탑의 특징과 편년

1. 특징
2. 편년

IV. 제주지역 사원과 불탑의 조성 배경

V. 맺음말

I. 머리말

제주지역은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독자적인 물질문화가 발전하였다.¹⁾ 일례로 제주의 기후적 특성이 반영된 토기는 같은 시기 육지의 그것과 형태는 물론 제작 방식이 달랐다. 이러한 문화적 독자성을 바탕으로 삼국시대부터 남북국시대까지 '탐라국(耽羅國)'으로서 독립적인 정치체를 유지·발전시켰다.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

1) 김경주, 「고고학의 본 탐라」, 『섬, 흙, 기억의 고리』 (국립제주박물관, 2009), pp. 166-177.

고려 건국 이후 탐라는 고려에 내조하여 관작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고려와 조공체제를 맺은 것에 불과하고 지역 내에서는 독립국의 지위를 갖고 유지하고 있었다. 1011년(현종 2) 탐라가 고려에 요청하여 주기(朱記)를 받고 기미주(羈縻州)가 되나, 섬 안에서의 자치권은 인정되었다.²⁾ 이즈음 고려 조정은 구당사(勾當使)를 파견하지만,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³⁾ 1105년(숙종 10)에는 탐라군이 되면서 고려의 내지(內地)가 되었다. 다만, 외관이 파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탐라의 성주 등이 지배층으로서 그 지위를 확보하고 문화적으로도 독자성을 유지하던 과도기였다. 의종대(毅宗代) 중엽에서 현령이 파견되면서 본격적으로 고려에 예속되었다. 대몽항쟁기(對蒙抗爭期)를 거친 이후 탐라는 원나라와 고려에 예속되기를 반복하다가 1375년(공민왕 6) 고려의 완전한 관할이 된다.

이러한 제주지역에 불교가 본격적으로 전래한 시기는 불교가 국교로서 사회 여러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던 고려시대로 보인다. 제주지역에 있는 불적(佛蹟)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고려시대 두 불탑-원당사지(元堂寺址) 오층석탑(五層石塔)과 수정사지(水精寺址) 청석탑(靑石塔)-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전통적 문화 의식이 강했던 고려 전기에는 국가와 호장층의 주도로 산천(山川)의 순역(順逆)을 사탑(寺塔)으로 비보(裨補)하기 위한 비보사사(裨補寺社)가 조성되었다.⁴⁾ 송과 국교를 재개한 1071년부터 개경으로 환도하는 1270년까지인 고려 중기에는 개인의 기복과 추복을 위한 원당의 조영과 함께 송(宋)과 요(遼)의 영향이 강한 불교미술품이 조성되었다.⁵⁾ 1270년 이후 고려 후기에는 원 문화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원나라의 주류 불교인 티베트 불교와 불교미술 양식이 고려의 불교계와 불교미술계에도 강한 영향을 끼쳤다.⁶⁾ 이처럼 고려시대 불교미술품은 시기에 따라 그 특징이 극명하게 달랐다. 이러한 점은 제주지역 고려 불탑이 고려시대 제주의 불교사를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가 됨을 보여준다.

그런데, 많지 않은 제주 불탑 연구에서도 연구자에 따라 그 의견이 제각각이다. 제주 불탑 관련 연구는 청석암 연구의 일환으로 수정사지 청석탑이 주 대상이 되었다. 그 제작 시기는 11세기 초부터 고려 후기까지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⁷⁾ 고려 불교 석조미술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엄기표에 의해 이루어졌다.⁸⁾

2) 노명호, 「10~12세기 탐라와 고려국가」, 『제주도연구』 28(제주학회, 2005), pp. 187-189.

3) 김창현, 「高麗의 耽羅에 대한 정책과 탐라의 동향」, 『韓國史學報』 5(고려사학회, 1998), pp. 309-345; 秦榮一, 「高麗 肅宗 10年 '耽羅郡'設置 考察」, 『耽羅文化』 23(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pp. 47-64.

4) 황인규, 『고려시대 불교계와 불교문화』(서울: 국학자료원, 2011), p. 32.

5) 정은우, 「고려 중기 불교조각에 보이는 북방적 요소」, 『美術史學研究』 265(韓國美術史學會, 2010), pp. 43-71; 강병희, 「고려 전기 사회변동과 불탑: 11-12세기 불탑의 북방적 영향」, 『미술사학』 23(미술사학회, 2009), pp. 227-319.

6) 鄭恩雨, 「高麗後期の 佛教彫刻 研究」, 『美術資料』 33(國立中央博物館, 1983), pp. 33-58; 鄭恩雨, 『高麗後期 佛教彫刻 研究』(서울: 문예출판사, 2004).

7) 전민숙, 「고려시대 청석탑에 관한 연구」, 『불교미술사학』 22(불교미술사학회, 2016), pp. 97-130; 김선, 「제주 수정사지 출토 청석탑의 제작지 검토」, 『고문화』 95(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20), pp. 67-86.

8) 嚴基杓, 「제주지역 佛教 石造美術의 특징과 의의」, 『耽羅文化』 54(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7), pp. 143-177.

엄기표는 불탑 이외에도 승탑, 동자복(東資福)과 서자복(西資福) 등의 석상(石像)을 다뤘다. 그는 고려 후기에 수정사지 청석탑과 원당사지 석탑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고고학적 연구에서는 발굴로 확인된 청자와 기와 조각 등으로 미루어 두 절이 10~11세기에 조성되었다고 생각한다.⁹⁾ 이처럼 제주지역 불탑에 조성 시기는 여전히 모호하고 그 배경 역시 명확하지 않다.

이 연구에서 필자는 제주의 대표적인 불탑인 원당사지 석탑과 수정사지 청석탑에 대한 조형적·양식적 특징을 바탕으로 조성 시기를 먼저 검토해 보겠다. 이를 바탕으로 두 탑의 조성 배경과 성격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서 제주지역 불탑이 갖는 미술사적·역사적 의의를 간략하게 밝히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이 연구의 내용과 결과가 제주지역에 불교 도입과 발전 과정을 밝혀줄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원당사지 오층석탑의 특징과 편년

원당사지는 제주시 삼양동 원당봉에 있다. 원당사(元堂寺)는 원나라 기황후(奇皇后)가 원당사와 함께 불탑을 세우고 불공드린 후 득남했다는 구전¹⁰⁾에 따라 일각에서는 적어도 고려 초 원당사가 창건된 이후 고려 후기, 즉 원간섭기(元干涉期)에 크게 중창되었다고 보기도 한다.¹¹⁾ 한편, 원당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보이지 않지만 17세기 중엽 간행된 『탐라지』 ‘불우(佛宇)’조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조선 초 폐사되었다가 조선 중기에 중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799년 간행된 『범우고(梵宇攷)』에 원당사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주목사 이형상에 의해 1702년 훼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당사지는 1988년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2002~2005년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있었다.¹²⁾ 발굴에서 강진 등 남서부 가마에서 제작된 것 중 가장 이른 양식에 해당하는 해무리굽완 1점을 비롯하여 한국식 해무리굽완과 퇴화해무리굽완이 확인되었다. 이 해무리굽완은 대체로 11세기 초~12세기 초 사이에 제작된 것이다. 특히

9) 김경주, 「고고자료로 본 원나라 주민의 탐라 이주와 정착」, 『야외고고학』 37(한국문화유산협회, 2020), p. 40; 차인국, 「제주도 기와의 출현 시점과 특징 - 원당사지와 수정사지 출토품을 중심으로 -」, 『한국기와학회』 2(한국기와학회, 2020); pp. 4-29.

10) 『耽羅紀年』(1918)과 『濟州道實記』(1936)에 ‘1300년 기황후가 탐라에 목장을 설치하고 수정사와 원당사를 창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기황후가 원순제의 공녀가 된 때가 1333년, 아들이 탄생한 해가 1339년이어서, 원당사 창건 관련 제주지역에 전하는 구전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11) 엄기표는 『耽羅志』 등에 기황후의 득남과 관련된 창건 연기가 수록되었다고 하였으나, 『탐라지』에서는 그것을 찾아볼 수 없다. 아마도 구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嚴基杓, 앞의 논문(2017), p. 152.

12) 제주문화예술재단, 「元堂寺址」, 『제주시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제주문화예술재단, 2007), pp. 3-146.

한국식 해무리굽완은 11세기 전반~중반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제작되었다.¹³⁾ 이와 함께 11세기 후반~12세기 초 해남 진산리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녹청자도 수습되었다. 한편, 13세기 이후 제작된 상감청자는 소량만이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고려 초부터 고려 중기까지 사용된 사격자문(斜格子文) 평기와와 세판연화문(細瓣蓮華文) 수막새도 발굴되었다.

1. 특징

원당사지 오층석탑(도1)은 현재 불탑사 오층석탑이라는 이름으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현무암으로 만든 유일한 고려시대 석탑인 원당사지 석탑은 단층의 기단부와 5층의 탑신부, 상륜부로 구성되었다. 다만, 상륜부는 2단으로 노반이 정연하지 않고 보개로 여겨지는 부재는 다른 부재에 비해 마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원래의 것이 아닐 가능성도 제기된다.¹⁴⁾

기단부는 각각 1매의 돌로 만들어진 하대·중대·상대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대석은 지대석으로도 볼 수 있으나, 모서리를 깎은 녹정형(盤頂形)을 이루고 있어 하대석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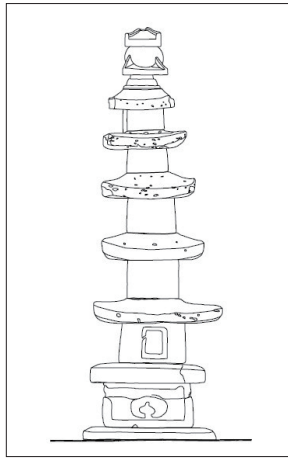
중대석 즉 기단 면석은 하단 폭에 비해 상단 폭이 약간 짧은 사다리꼴이다. 북쪽 면을 제외한 3면은 좌·우측과 하단 또는 상·하단에 도드라지게 조각한 돌대(突帶)가 있다. 그 형태의 일관성이 없어 이것이 안상의 윤곽을 표현한 것인지 귀기둥[우주(隅柱)]과 기단 받침을 형식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 안에는 첨두(尖頭)가 뾰족한 연봉 모양의 안상(眼象)이 양각되어 있다. 양각된 안상 안쪽 하단 중앙에도 양각된 문양과 같은 형태의 문양을 음각하여, 일반적인 안상과 다른 면모를 보인다. 다만, 꽃무늬만 두드러지게 강조되어 어색함이 있다. 일부에서는 안상 조각을 장인의 세심한 기교로 보기도 하지만,¹⁵⁾ 음각과 양각이 뒤바뀐 점과 면석의 일부만 활용해 조각한 점 등은 안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형은 아마도 불탑과 관련된 그림을 보고 재현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상대석은 하대석과 같은 형태인 녹정형이다. 상대석 하부에는 부연을 조각하지 않았다. 갑석 윗면에는 매우 낮은 탑신 괴임을 조각하였다. 다만, 탑신 괴임이 1층 탑신에 비해 불필요하게 넓어, 탑신과 유기적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오류는 석탑 조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조성에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3) 현문필, 「출토유물을 통한 원당사지(元堂寺址)의 조성시기와 성격 고찰」, 『제주도연구』 33(제주학회, 2010), pp. 303-321; 국립제주박물관, 『제주 출토 고려시대 도자기』(국립제주박물관, 2013), pp. 8-27.

14) 金禧庚, 「濟州 佛塔寺 五層石塔을 찾아서」, 『美術史學研究』 228·229(韓國美術史學會, 2001), pp. 147-148.

15) 嚴基杓, 앞의 논문(2017), p. 154.



도 1. 제주 원당사지 오층석탑, 고려 12세기, 돌, 4.04m, 제주 불탑사, 보물

원당사지 석탑의 기단은 하대석과 상대석의 형태가 농정형이고, 중대석에 커다란 안상을 새기고 있으며, 상대석에 부연 없는 점 등을 볼 때, 그 조형적 원류가 상·중·하 3단으로 된 불상대좌식 기단일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불상대좌식 기단 불탑은 개성 홍국사(興國寺) 석탑(도2), 개성 관음사(觀音寺) 칠층석탑, 평양 영명사(永明寺) 석탑 등이 대표적인 석탑이다. 개성·평양 일대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을 모티프로 변형된 기단이 불탑도 조성되었다. 예컨대, 영변 보현사(普賢寺) 구층석탑(도3)과 함양 승안사지(昇安寺址) 삼층석탑은 2중 기단인데 연화문이 새겨진 갑석을 새겼다. 용인 공세리 오층석탑(도4)은 하대에만 얇은 연판문을 새겨 단순화시켰다. 이를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킨 것이 원당사지 석탑 기단부 형태인 농정형이다.



도 2. 개성 홍국사 석탑, 1021년, 돌, 2.16m, 개성



도 3. 영변 보현사 구층석탑, 고려 11세기, 돌, 6m, 평북 영변 (국립중앙박물관 유리 건판)



도 4. 용인 공세리 오층석탑, 고려, 돌, 2.5m, 경기 용인

5층으로 된 탑신부는 각각 1매로 된 탑신과 옥개석으로 구성되었다. 탑신석은 모두 밑면에 비해 윗면의 폭이 좁은 사다리꼴을 보인다. 고려시대 일반적인 석탑은 2층 이상 탑신 높이가 1층 탑신에 비해 급격히 줄고 2층 이상 탑신 높이가 거의 유사하지만, 원당사지 석탑은 1층~3층 탑신 높이가 거의 같고 4층 이상 탑신부터 급격하게 줄었다.

원당사지 석탑 탑신석에는 일반적인 탑신에 모각되어 있는 귀기둥이 없다. 석탑의 모각된 귀기둥은 목탑을 석탑으로 번안하면서 등장한 형식이다. 신라 석탑 가운데 일부 모전석탑계열의 석탑을 제외하고 한국 석탑의 기본 형식으로 자리 잡았다. 고려시대에도 알게 조각하여 기둥과 면석의 단차가 거의 없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아예 귀기둥이 없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 이 또한 석탑 조형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도 5. 평양 원광사지 육각칠층석탑, 고려, 돌, 미상, 평양(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 도 6. 강릉 신복사지 삼층석탑, 고려, 돌, 4.5m, 강원 강릉(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 도 7.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고려, 돌, 6m, 경기 안성

1층 탑신 한 면에는 세로로 긴 직사각형 감실이 마련되어 있다. 감실 외곽에 두툼한 돌대를 둘렀다. 돌대에는 별도로 제작한 문비를 고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공적인 구멍이 확인되었다. 석탑 1층 탑신에 감실을 조성한 것은 경주 분황사(芬皇寺) 모전석탑(模塹石塔), 의성 탑리 오층석탑 등 초기 석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일반형 석탑은 감실을 파지 않고 문비를 모각하는 정도로 간략화되었다. 고려시대에는 평창 월정사(月精寺) 팔각구층석탑, 평양 홍복사지(弘福寺址) 육각칠층석탑, 평양 원광사지(元廣寺址) 육각칠층석탑(도 5), 영변 보현사 구층석탑, 강릉 신복사지(神福寺址) 삼층석탑(도 6), 안성 봉업사지(奉業寺址) 오층석탑(도 7), 강진 금곡사(金谷寺) 삼층석탑 등 1층 탑신 한 면 또는 네 면에 감실이 있는 석탑이 있다. 감실의 형태는 신복사지 석탑과 봉업사지 석탑처럼 주변에 돌대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돌대가 있는 것은 보현사 석탑을 비롯한 일부 석탑에서 확인된다. 이와 더불어 홍복사 석탑처럼 감실 내부에 불상을 새긴 것도 있다. 원당사지 석탑 감실이

깊고 비어 있다는 점에서 11세기 말~12세기 초 조성된 것으로 여겨지는 흥복사 석탑¹⁶⁾보다 이른 시기에 조성된 석탑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옥개석은 1층부터 5층까지 모두 같은 형태이며, 1장의 돌로 깎아 만들었다. 원당사지 석탑은 다른 석탑의 옥개석과 달리 옥개 받침과 상단 탑신 받침이 없다. 옥개석 윗면 중앙을 깊게 파 둔중함을 감소시켰다. 좌우 끝으로 갈수록 상향하는 물매를 잡아, 합각 부분에서 반전을 보여준다. 합각 윗면에는 내림마루를 두드러지게 조각하였다.

1층 옥개석은 평균 높이가 가장 낮아 평박한 느낌을 준다. 2~3층 옥개석은 1층에 비해 높은데, 이 두 옥개석은 거의 높이가 같다. 4~5층 옥개석은 2~3층에 비해 높이가 줄었다. 또한 한 부재에서도 폭과 높이가 제각각이다. 일관성 없는 부재 높이와 옥개 받침의 부재(不在) 역시 석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장인이 이 탑을 조성했음을 보여준다.

상륜부는 철제찰주(鐵製刹柱)와 보주(寶珠)가 소실되었다고 전한다.¹⁷⁾ 그러나 이것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 5층 옥개석 상부에 각호형(角弧形) 2단 상륜부 받침이 있고 옥개석과 비슷한 형태의 보개(寶蓋)가 올려져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석탑 조사 당시 도면에는 노반(露盤)과 복발(覆鉢)을 형상화한 2단 부재가 있는데, 현재 없는 것으로 보아 2단 부재는 제짝이 아닌 부재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석탑처럼 노반-복발-보개로 구성된 상륜부는 개성 현화사(玄化寺) 칠층석탑과 보현사 석탑 등 고려 신앙식 석탑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석탑 각 부재의 비례는 중대석(기단 면석):1층 탑신이 1.15:1, 1층 탑신:2층 탑신:3층 탑신이 1:1:0.9를 보인다. 이로써 중대석(기단 면석)부터 3층 탑신까지는 편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¹⁸⁾ 그러나 4층 이상 탑신은 급격히 줄었다. 이처럼 1~3층 탑신의 높이 변화가 크지 않지만 둔중함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탑신 윗면의 폭을 아랫면의 폭보다 좁게 만들어 자연스러운 상승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옥개석 폭은 1층에 비해 2층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2~5층 옥개석 폭은 비교적 완만하게 줄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기단 면석:1층 탑신의 비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11세기 석탑의 비례는 1.3:1이며, 12세기 석탑 비례는 1.1:1이다.¹⁹⁾ 이 석탑은 1.15:1을 보인다.

이 석탑이 11~12세기 과도기 양상을 보이는 점은 체감률의 수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0세기 석탑은 80°, 11세기 석탑은 83°, 12세기 석탑은 85°의 체감률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²⁰⁾ 그런데, 원당사지 석탑

16) 康炳喜, 『韓國의 多角多層石塔』(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6), p. 128; 강병희, 「고려 중기 법상종 미술의 6각 평면」, 『불교미술사학』 31(불교미술사학회, 2001), p. 248.

17)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라남도의 석탑』 II(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p. 337.

18)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2016), pp. 333-357, 표 1-4.

19) 전민숙, 「고려전기 석탑의 특성 연구」, 『東岳美術史學』 15(東岳美術史學會, 2013), p. 91.

20) 전민숙, 앞의 논문(2013), pp. 94-96.

체감률은 84.7°를 보인다.

원당사지 석탑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이 석탑은 11세기 2~3분기 이후 정착된 세장한 석주형 조형미를 보이는데, 탑신 비례와 체감률에서 11~12세기 석탑의 과도기적 양상을 보인다. 둘째, 모든 부재의 형태를 단순화시키고 통상의 구성요소도 과감히 생략하였다. 셋째, 기단, 탑신, 옥개석 모두에서 석탑의 기본적인 조형에 대한 물이해를 엿볼 수 있다.

한편에서는 이 석탑에 대해 낮고 간략한 기단부 결구 수법, 별석 받침 또는 탑신 괴임이 없는 갑석과 옥개석, 독특한 옥개석의 형태와 반전을 보이는 특징들로 보아, 장인이 고려 후기 원당사 중창 당시 육지에 건립된 당대 고려 석탑을 참고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한다.²¹⁾ 이러한 견해는 각 부재의 변형과 생략이 전형성의 해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봤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조탑 원리의 물이해에 따른 양식과 형식의 변형은 지역·장인·발원자 등의 변수에 따라 꼭 고려 후기가 아니어도 만들어질 수 있어,²²⁾ 그러한 주장을 쉽사리 수긍할 수 없다.

이 석탑의 특징인 각 부재 형식의 파괴와 치석의 비정연성 등은 석탑 조형에 능숙한 장인이 조성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어떤 특정한 석탑을 재현했다고 하기에다 형식의 파괴가 심하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원당사지 석탑은 석탑에 대한 간략한 그림을 바탕으로 석탑 조성 경험이 없는 장인이 제작한 석탑으로 판단된다.

2. 편년

원당사지 석탑의 편년을 파악하기에 앞서, 고려의 불교석조미술품의 일반적인 특징을 먼저 언급해보겠다.²³⁾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부터 11세기 1분기까지는 괴체성이 극대화된 형태미를 보인다. 11세기 2분기~3분기에는 괴체성이 약간 둔화된 석주형의 형태미를 띠며, 다른 양식 예컨대 전통양식과 신양식, 복고양식과 신양식, 전통양식과 복고양식이 절충되기도 한다.²⁴⁾ 11세기 4분기 이후부터 1270년까지, 즉 고려 중기에는 왕실과 귀족이 발원한 석탑 같은 경우 괴체적 조형미를 탈피, 단정한 형태와 적정한 비례를 보이며 장식 기법도 세련된 방향으로 전개되지만, 민(民)이 발원한 것은 비례가 깨지고 다양한 양식이 혼합되는

21) 嚴基杓, 앞의 논문(2017), p. 156.

22) 陳政煥, 「康津 月南寺址 三層石塔 造成時期와 性格」, 『美術史學研究』 303(韓國美術史學會, 2019), pp. 86-87.

23) 陳政煥, 『高麗前期 佛教石造美術 研究』(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3), pp. 185-188.

24) 陳政煥, 위의 논문(2013), pp. 175-186.

토착화의 길을 걷는다.²⁵⁾ 원간섭기에는 공주 마곡사(麻谷寺) 오층석탑의 라마탑형 상륜부나 원 장인이 참여한 개성 경천사지(敬天寺址) 십층석탑 등에서 알 수 있듯 원나라의 영향이 강했다.²⁶⁾ 만약 일각에서 추정하듯 원당사 석탑이 원나라 기황후를 위해 발원한 것이고 장인이 육지에서 건너와 직접 조성했다면,²⁷⁾ 앞서 살펴본 것 같은 미숙함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제작 배경이나 방식, 장인의 숙련도 등에 따라 주요 모본이 된 석탑뿐만 아니라 다른 석탑의 형식과 양식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사례가 강진 월남사지(月南寺址) 삼층석탑이다.²⁸⁾ 그런 만큼 조성 시기 추론은 역사적 배경과 맥락 속에서 검토하고 해석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원당사지 석탑은 세장한 석주형 조형미를 보이는데, 이로써 11세기 2~3분기 불교미술품과 친연성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원당사지 석탑 부재의 비례와 체감률이 11세기 석탑과 유사하다는 점 또한 그것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각 부재의 세부 형식이 생략되고 치밀함이 떨어지는 점은 고려 중기 민들이 제작한 석조물의 특징과 같다. 다만, 앞서 추정한 것처럼 이 석탑이 그림 또는 도면을 바탕으로 재현된 것이라면, 원당사 석탑의 형태미·비례·체감률 등 양식적 특징만을 조성 시기의 판단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이는 곧 모본이 된 석탑이 어떤 것인지, 어느 때 모본이 되었는지를 밝힘으로써 원당사지 석탑의 조성 시기를 추정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앞서 석탑의 특징을 살펴볼 때, 가장 많이 언급된 석탑이 영변 보현사 석탑이다. 보현사 석탑은 원당사 석탑의 녹정형 기단 갑석의 원형으로 보이는 연화문이 새겨진 기단 갑석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보현사 석탑의 귀기둥이 뚜렷하지 않고 안상이 강조된 기단 면석, 불분명한 귀기둥과 돌대를 두른 감실이 특징인 탑신, 내림마루가 강조된 옥개석, 구성과 형태가 유사한 상륜부 등의 조형성을 원당사 석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원당사 석탑 부재는 보현사 석탑을 모티브로 변형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원당사 석탑의 세장한 형태미를 좌우하는 기단부와 탑신의 비례, 체감률도 보현사 석탑과 거의 유사하다. 보현사 석탑은 상층기단 면석:1층 탑신의 비례가 1.14:1을 보이는데, 1.15:1인 원당사지 석탑과 거의 같다. 체감률 역시 84.7°인 원당사지 석탑과 유사한 84.2°를 보인다.

원당사지 석탑의 모본이 보현사 석탑임이 유력한 이쯤에서 보현사 석탑의 조성 시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현사 석탑은 1층 탑신 북쪽 면에 새겨진 명문(1-①)을 통해 조성 시기를 유추할 수 있다. 보현사 석탑은 1044년(정종 10)에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²⁹⁾ 그러나 명문만으로 1044년 탑을 조성했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한편, 「묘향산보현사기(妙香山普賢寺記)」(1-②)에 '수레가 함옹(咸雍)에 이르렀다'라는 문구로 보아

25) 陳政煥, 앞의 논문(2013), p. 188.

26) 陳政煥, 「高麗時代 石塔의 特徵」, 『박물관기요』 25(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0), pp. 36-37.

27) 嚴基杓, 앞의 논문(2017), pp. 152-156.

28) 陳政煥, 앞의 논문(2019), pp. 73-98.

29) 嚴基杓, 「妙香山 普賢寺 8角 13層 石塔에 대한 고찰」, 『東岳美術史學』 17(東岳美術史學會, 2015), p. 625.

문종이 보현사에 토지를 하사한 1067년(함옹 3) 이후 석탑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³⁰⁾

1-① (결락) 묘향산 보현사 (결락) 9층석탑을 만들었다. (결락) 엎드려 황제 폐하의 덕이 하늘과 땅에 떨치고 밝음이 일월에 펼쳐지고 백성들이 편안해지기를 기원한다. 권세를 계승하지 않을 수 없으니 수레가 함옹에 이르렀습니다. 경(經)이 밝아지고 행(行)은 닦을 수 있게 되니 능히 조사(祖師)를 계승하였습니다. 문묵(文墨)이 옮기고 바뀌어 조사의 기록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신이 감히 사양할 수 없으니 이에 말하기를 공자(孔子)께서 (결락)³¹⁾

1-② 두 스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연이어 주지를 맡았는데 스승들이 정한 법도대로 계승하지 않음이 없었다. 함옹[거란 도종(道宗)의 연호, 1065~1074년까지 사용] 3년 정미년(문종 21, 1067)에 문종(文宗)임금께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훌륭하게 여기셔서 담당 관청에 명하여 토지를 내리셨다.³²⁾

이렇게 보현사 석탑이 1067년 전후 조성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다른 불탑의 모본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보현사의 지명도 및 위상이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보현사의 위상은 12세기 이후가 되어서야 높아졌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120~1122년(예종 15~17) 조영된 파주 혜음원(惠陰院)은 보현사 승려의 주도로 만들어졌다.³³⁾ 1142년(인종 20) 인종이 「妙香山普賢寺之記(묘향산보현사지기)」의 제액을 직접 써 하사하기까지 한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1135년(인종 13) 서경(西京)에서 있었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비문을 찬술한 김부식과 보현사의 승려들이 결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보현사는 12세기 중엽 고려 사회에서 보현보살의 대표적인 주처(住處)로 자리매김한다.³⁴⁾

인종의 뒤를 이은 의종(毅宗)은 1160년 보현사를 직접 찾았다(2-①). 변경(邊境)과 가까운 보현사를 의종이 찾은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부왕인 인종이 직접 제액까지 쓴 묘향산보현사비의 친견이다. 두 번째는 절을 방문한 시기가 서경에서 팔관회(八關會)가 열리는 10월임을 고려할 때, 서경 세력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적 방문일 가능성이 있다. 개경에서는

30) 김창현, 「고려 서북면의 사원과 불교신앙-묘향산 일대를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49(한국사연구회, 2010), p. 177.

31) 許興植, 「寧邊普賢寺石塔記」, 『韓國金石全文』 中世上(亞細亞文化社, 1984), p. 474. “□□□□州妙香山普賢寺 無 □□盛□韓境□□ 奉告至尊□□ □愿以九層石塔□ 帝尊像 □□□ 伏愿 皇帝陛下德等乾坤明齊日月百姓療□ 無不承權輿至咸雍 經明行修能紹祖師 移易文 漫滅祖師 臣不敢辭乃日孔子”

32) 許興植, 「寧邊妙香山普賢寺記」, 『韓國金石全文』 中世上(亞細亞文化社, 1984), pp. 626-630. “二師沒弟子相續住持其爲 佛事無不承權輿 咸雍三年丁未歲□□□聖祖王文聞而嘉之命有司錫土田”

33) 「惠陰寺新創記(혜음사신창기)」에는 妙香山寺에서 승도를 동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東文選』 卷64, 記, 「惠陰寺新創記」; 全暎俊, 「高麗 睿宗代의 사찰 창건과 승도 동원 -「惠陰寺新創記」를 중심으로-」, 『震檀學報』 97(震檀學會, 2004), pp. 42-48. 승도 동원을 주도하였던 住持(주지) 慧觀(혜관)은 의천의 제자이자 한때 보현사의 주지였던 적이 있으므로, 「혜음사신창기」의 묘향산사는 보현사일 것으로 판단된다. 김창현, 앞의 논문(2010), p. 167.

34) 김창현, 앞의 논문(2010), p. 166.

11월에 팔관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서경에서는 정종(靖宗) 이래 맹동(孟冬, 10월) 보름 무렵 이틀 동안 팔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정례화되었다(2-②).³⁵⁾ 이후 서경 팔관회에 정종·문종·선종·숙종 등 여러 국왕이 참석하였다.³⁶⁾ 1135년 서경에서 있었던 묘청의 난 이후에도 인종과 의종은 서경을 방문했다. 보현신앙과 관련이 깊은 보현원³⁷⁾을 자주 찾은 의종이 보현보살의 주처로 인식되는 묘향산 보현사를 서경에서 팔관회가 열리기 직전 찾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보현사와 보현사가 있는 연주(延州)는 항상 고려 중앙정부의 우군이었다.³⁸⁾ 서경에서 팔관회 개최 전 그러한 곳을 찾았다는 것은 지지 세력과의 유대 강화와 더불어 서경 세력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2-① 병진(丙辰) 왕이 이윽고 보현사에 행차하여 반승(飯僧)하면서 30근 무게의 은병(銀瓶) 10개를 만들도록 하여 각기 다섯 가지 향과 다섯 가지 약을 가득 담아 절에 시납하였다.³⁹⁾

2-② 덕종(德宗) 3년(정종 즉위년, 1034) 10월 (정종이) 보신(輔臣)을 보내 서경에서 팔관회를 열게 하고 이틀 동안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서경의 경우 맹동(10월)에 행하는 것이 관례라서 이 팔관회를 설행한 것이었다.⁴⁰⁾

인종과 의종에 의해 중시되었던 1140~1160년대 보현사는 고려 사회에서 매우 주목받는 사원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곳에 있는 석탑은 비록 80~100년 정도 앞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이때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원당사지 석탑은 1060년대 이후 조성된 보현사지 석탑을 모본으로 제작된 석탑이다. 다만, 보현사 석탑이 시대의 아이콘으로 모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시기가 1140~1160년대 무렵이므로, 원당사지 석탑의 조성 시기는 12세기 중엽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원당사지 발굴에서 수습된 기와 가운데, 나말여초기부터 제작된 세판연화문 수막새가

35) 한정수, 「고려 현종~정종 대 팔관회(八關會)의 정비와 그 의미」, 『韓國史研究』 194(韓國史研究會, 2021), pp. 33-67.

36) 김창현, 「고려 서경의 사원과 불교신앙」, 『한국사학보』 20(고려사학회, 2005), pp. 15-26.

37) 최사위(崔士威)가 현종대(顯宗代) 송림현(松林縣) 경내에 보현경관(普賢鏡館)을 수리 혹은 창건하는데, 이곳은 보현신앙을 바탕으로 보현 행을 실천하기 위한 공간이었다. 許興植, 「崔士威墓誌」, 『韓國金石全文』 中世上(亞細亞文化社, 1984), pp. 502-505; 김창현, 앞의 논문(2010), p. 157.

38) 김창현, 앞의 논문(2010), pp. 141-185.

39) 『高麗史』 卷18, 世家18, 毅宗, “(14年 10月) 丙辰 遂幸普賢寺 飯僧 命造銀瓶十口重三十斤 各盛五香五藥納于寺”

40) 『高麗史』 卷69, 志23, 禮11, “德宗三年十月 遣輔臣 賜西京八關會 醕二日 西京例以孟冬 設此會”

수습되었다.⁴¹⁾ 하단부 깎기 조정한 사격자문 평기와도 나말여초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⁴²⁾ 또한, 원당사지 청자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11세기 초기 또는 전반으로 여겨진다.⁴³⁾ 이러한 고고학적 성과는 12세기 중엽 석탑이 조성되었다는 필자의 견해와 배치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평기와와 세판연화문 수막새는 고려 중기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졌다.⁴⁴⁾ 또한, 해무리굽완의 수량이 불과 8점에 불과할 정도로 수량이 적어 전세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은 청자와 기와의 제작 시기가 사찰의 존재 여부와 석탑의 조성 시기를 알려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아마도 원당사 터에는 사원이 들어서기 전 관청 건물과 같은 기와 건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원당사 터의 용도 변화와 관련해서는 IV장에서 한 번 더 다룰 것이다.

Ⅲ. 수정사지 청석탑의 특징과 편년

수정사지는 제주시 외도동 외도천(도근천) 인근 외도초등학교 서쪽 울타리를 따라 남쪽으로 200m에 위치한다. 현재는 발굴을 마친 후 택지로 개발되었는데, '제74호 어린이공원'이 절터에 해당한다.

수정사 창건에 대해 김정익의 「도근천수정사중수권문(都近川水精寺重修勸文)」, 김상헌의 『남사록(南槎錄)』, 김석익의 『탐라기년』 등에서는 원간섭기에 조성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⁴⁵⁾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현 『익재난고(益齋亂藁)』 소악부(小樂府) 수록 「수정사(水精寺)」를 바탕으로 1200년대 중반에 창건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⁴⁶⁾ 조선 태종대 사세가 위축되나 중종대에는 김정이 「도근천수정사중수권문」을 쓴 것으로 보아 이때 수정사가 중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601년(선조 34) 제주안무사(濟州安撫使)로 파견된 김상헌은 겨우 법등을 유지하고 있던 수정사를 목격한다. 그런데, 1694년(숙종 20) 제주목사 이익태가 연무정(演武亭)을

41) 이수정, 「고려시대 제주기와의 변화양상과 특징」, 『한국기와학회』 2(한국기와학회, 2020), pp. 44-48.

나말여초에 제작된 세판연화문화문 수막새는 주연이 화판보다 높고 연주문이 장식되어 있으며 꽃잎 모양이 유선형이다. 최정혜, 「고려막새의 변화양상과 의미」, 『한국 중세 기와의 생산과 사회구조』(한국중세고고학회 2020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2020), p. 49.

42) 차인국, 앞의 논문(2020), pp. 5-24.

43) 현문필, 앞의 논문(2010), pp. 314-315; 김영미, 「제주 사지 출토 고려시대 도자기 고찰」, 『제주 출토 고려시대 도자기』, 국립제주박물관(2013), pp. 164-167.

44) 최영희, 「中原地域 造瓦技術의 展開」, 『중원의 와당』(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2017), p. 444; 차인국, 「호남지역 고려시대 기와가마 출토 평기와 연구」, 『中央考古研究』 12(中央文化財研究院, 2017), pp. 7-9; 차인국, 앞의 논문(2020), p. 18.

45) 金淨, 『冲庵先生集』 卷4, 「都近川水精寺重修勸文」; 金尙憲, 『南槎錄』 卷3; 金錫翼, 『耽羅紀年』 卷1.

46) 梁重海, 「益齋亂藁 小樂府所收 耽羅曲에 대하여」, 『濟州島史研究』 3(濟州島史研究會, 1994), pp. 67-77.

수리할 때 수정사(도근천 근처 황폐한 절)의 자재를 가져다 썼다고 한다.⁴⁷⁾ 이로 미루어 보아, 1600년대 어느 때 수정사가 완전히 폐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⁴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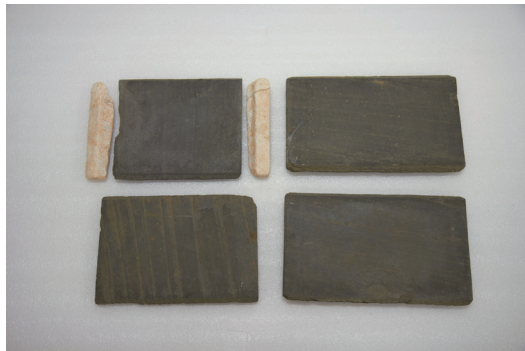
수정사는 2000년 시굴 이후 2005~2006년 본격적인 발굴이 있었다. 발굴에서 건물지, 도로 및 보도, 탑지 등이 확인되었다. 수정사지에서는 원당사지 출토품과 유사한 새판연화문 수막새와 평기와를 비롯하여, 해무리굽완, 대접, 접시, 잔, 매병, 병, 뚜껑, 돈, 향로 등 고려청자가 수습되었다. 수정사지 출토 청자는 12세기 전반~13세기 중반의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⁴⁹⁾ 수정사지에서는 중국제 자기도 확인되었다. 수정사지 출토 정덕진 청백자 접시는 12세기, 정요(定窯) 백자 접시는 12세기 후반~13세기 전반, 용천요(龍泉窯) 청자 대접은 13세기 중·후반의 것으로 파악된다.⁵⁰⁾

1. 특징

수정사지 발굴의 가장 큰 성과는 청석탑 부재와 함께 탑지(도 8)를 확인한 것이다. 탑지는 금당지로 추정되는 제1건물지 바로 앞에 있는데, 직경 1m 내외인 2매의 판석으로 된 지대석과 그 주위를 돌린 적심이 확인되었다. 그 위에서는 점판암과 화강암으로 된 청석탑의 기단 면석과 탑신 부재 24매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기단 갑석, 옥개석, 상륜부 등으로 추정되는 부재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⁵¹⁾ 그 이유는 1694년 연무정 보수에 일정 크기의 석재가 반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 8. 제주 수정사지 탑지



도 9. 제주 수정사지 청석탑재

47) 李益泰, 『知瀛錄』, 9月 27日. “亭在南門外五 里廣壤 數年前毀 積村瓦 未及改建 將至腐傷 遂謀諸將士 輸入都近川廢寺材添補 輪番軍助役木手 燔瓦於明月面舊密所 以其近處各班下人除番立役”

48) 濟州大學校博物館, 『水精寺址』(濟州市·濟州大學校博物館, 2000), pp. 31-38.

49) 국립제주박물관, 앞의 보고서(2013), pp. 28-41.

50) 김영미, 앞의 논문(2013), pp. 168-175.

51) 濟州大學校博物館, 앞의 보고서(2000), p. 65.

청석탑은 점판암을 다듬어 만든 석탑을 말하는데, 점판암(Clay slate)은 셰일이나 니암이 변성된 것이다. 이 석재는 단단하면서도 얇게 쪼개어져 비석이나 벼루를 만드는 소재로 쓰였다. 나말여초 점판암재 석탑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고려시대 성행하였는데, 문헌기록에 등장한 청석탑을 포함할 경우 최소 30여기가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⁵²⁾ 이 가운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15점 내외다.⁵³⁾ 그중에서도 발굴에서 청석탑이 확인된 곳은 제주 수정사지 이외에도 문경 미면사지(米麵寺址), 하남 천왕사지(天王寺址)가 있다.

〈표 1〉 제주 수정사지 청석탑 면석과 부재 크기

	부재	폭(cm)	높이(cm)	두께(cm)	비고
면석	1	31.2	26.6	2.6	인왕상
	2	37.0	25.6	2.4	
	3	42.6	25.8	3.6	
	4	42.2	25.4	3.4	
부재	1	5.8	25.8	3.5	화강암
	2	5.9	25.8	4.1	화강암

수정사지 청석탑(표 9)에 대한 기존 연구 가운데 기단부가 화강암재 하층과 점판암재 상층으로 구성된 일반형 석탑에서 볼 수 있는 가구식 기단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⁵⁴⁾ 사실 여부를 유추하기 위해서는 〈표 1〉에 제시한 면석 크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른 3개의 면석에 비해 폭이 좁고 높이가 높은 〈면석 1〉은 〈면석 2·3·4〉와는 다른 부재로 보인다. 〈면석 1〉은 상·하단을 뾰족하게 깎았는데, 이것은 위·아래 부재와 고정하기 위해 판 홈에 끼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홈의 깊이 등을 고려할 때, 높이가 25.8cm인 화강암 부재는 〈면석 1〉 좌우에 고정된 것으로 보인다. 〈면석 1〉과 화강암 부재가 한 세트인 점으로 보아, 수정사지 청석탑 기단부는 일반적인 중층 가구식 기단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면석 1〉과 〈부재 1·2〉은 한 부재로 생각된다. 세 부재를 결합할 경우, 좌우 폭은 42.9cm에 높이 26.6cm의 크기다. 면석에는 문비(門扉)와 인왕상(仁王像)(표 10)이 선각되어 있다. 왼쪽(향우) 인왕상은 비교적 조각이 잘 남아 있다. 한 손은 올려 주먹을 쥐고 있으며 다른 한 손은 칼을 쥐고 있다. 오른쪽 인왕상은 마멸이 심하지만, 허리춤의 손에 쥔 것이 창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왕상은 분황사 모전석탑, 안동 조탑동(造塔洞) 오층전탑 등 전탑계 불탑뿐만 아니라, 신라와 고려의 일반형 석탑 기단 또는 1층 탑신에도 장엄되었다. 다만, 문비와 함께 인왕이 조합된 것이 기단에 새겨진 유례를 찾을 수 없어, 이 부재는 1층 탑신 부재로 추정된다.

52) 전민숙, 앞의 논문(2016), p. 99, 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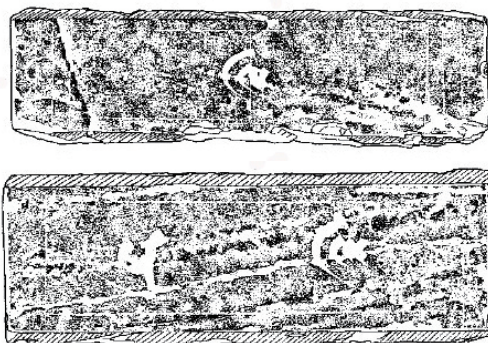
53) 洪大韓, 「高麗時代 靑石製 多層石塔 考察 I」, 『文化史學』 32(韓國文化史學會, 2009), pp. 118-138.

54) 嚴基杓, 앞의 논문(2017), p. 149.

<면석 1>이 탑신 부재라고 한다면, <면석 2·3·4>는 기단 면석 부재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목조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기둥, 상·하인방, 벽선 등을 선각하였다. <면석 2>가 <면석 3·4>에 비해 5cm 이상 작는데, 이것은 긴 두 부재 좌·우측에 짧은 부재를 끼우는 방식으로 조립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도 10. 제주 수정사지 청석탑 인왕상



도 11. 제주 수정사지 청석탑 범자문

한편, 해인사(海印寺) 원당암(願堂庵) 청석탑과 하남 천왕사지 청석탑의 경우 기단 면석에 별석의 화강암 부재를 세웠다. 그러나 이 석탑은 기단부에는 화강암 부재가 없고 1층 탑신에 화강암 부재가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수정사지 청석탑이 원당암 청석탑과 시차가 남을 보여준다. 또한, 초기 청석탑은 통상 3단의 화강암재 대석 위에 불상 대좌 형태의 기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⁵⁵⁾ 수정사지 청석탑 기단 면석은 위·아래 부재 홈에 끼울 수 있도록 뾰족하게 조각되어 있어, 상·하 부재도 점판암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수정사지 청석탑도 불상 대좌형 기단부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하단에 화강암 대석이 있었는지는 불명확하다.

2층 이상 탑신에는 1~2자의 범자(梵字)(도 11)가 새겨져 있다. 범자는 면석의 크기에 따라 큰 것 8개에는 2글자를, 상대적으로 작은 나머지 10개에는 1글자를 새겼다. 부재 가운데 뒷면에 층수와 방위가 적힌 것이 있는데, 「七(칠)」과 「南(남)」이 새겨진 부재보다 작은 부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수정사지 청석탑은 최소 9층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⁵⁶⁾ 한편, 부재에 새겨진 「칠」과 「남」은 이 석탑이 제주 현지가 아닌 타지에서 만들어져 옮겨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상륜부는 남아 있지 않아,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하남 천왕사지 청석탑 사례로 볼 때, 노반·복발·보륜·수연 등으로 구성된 일반적 상륜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55) 전민숙, 앞의 논문(2016), pp. 102-104.

56) 嚴基杓, 앞의 논문(2017), p. 151.

2. 편년

청석탑에 대한 몇몇 연구가 있는데, 연구자마다 제각각의 편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연구자가 가장 이른 시기의 청석탑으로 동의하는 것은 기단 면석과 탑신부 모두가 별석으로 된 해인사 원당암 청석탑(도 12)이다. 원당암 청석탑은 고려 태조 왕건과 회랑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고려 초에 조성되었다는 견해가 있다.⁵⁷⁾ 그러나 해인사 원당암 청석탑의 제작과 관련하여, 895년 승장이 조성한 해인사 묘길상탑(妙吉祥塔)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라 말 승장이 만든 석탑은 고답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경제적 상황에 맞게 축소·변형을 보인다.⁵⁸⁾ 그러한 경향을 원당암 청석탑과 육각 간주석 석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원당암 청석탑은 후삼국시기 해인사 소속 승장에 의해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당암 청석탑과 가장 유사한 조탑 방식을 보이는 것이 하남 천왕사지 청석탑(도 13)이다. 이 석탑도 원당암 청석탑과 마찬가지로 기단부는 화강암 기둥과 별석 점판암 부재로 구성하였고, 1층 탑신도 별석 부재를 조립하였다. 1층 탑신에는 범천과 제석천, 사천왕, 인왕 등이 새겨진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천왕사지 청석탑은 천왕사지 철불(하남 하사창동 철불좌상)과 함께 천왕사 중창 때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창 시기는 광종(光宗)이 찬유(璨幽)를 증진대사(證眞大師)로 책봉한 뒤 연이어 왕사(王師)·국사(國師)로 삼은 953~958년 사이일 것으로 추정된다.⁵⁹⁾



도 12. 해인사 원당암 청석탑, 고려, 청석, 2.4m, 경남 합천
 도 13. 하남 천왕사지 청석탑제, 고려, 청석, 25.0cm(아래), 하남 청석, 2.0m, 강원 영월 역사박물관
 도 14. 영월 무릉리 청석탑, 고려, 청석, 2.0m, 강원 영월
 도 15. 무릉리 청석탑 범자

9세기 말~10세기 전반의 청석탑은 원당암 청석탑처럼 별석으로 된 기단 면석과 탑신을 조립하고 일부 부재에 화강암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후 점차 규모가 축소되고 부재가 단일화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을 것으로

57) 洪大韓, 앞의 논문(2009), pp. 120-121.

58) 申龍澈, 「統一新羅 佛塔의 發願者와 製作者」, 『文化史學』 31(韓國文化史學會, 2009), pp. 71-75.

59) 진정환, 「하남지역 고려 초 불교석조미술품의 특징과 조성 배경」, 『淸靜 念願』(하남역사박물관, 2021), pp. 139-141.

추정된다. 수정사지 석탑은 별석 부재를 조립하고 화강암재를 일부 사용한 점에서 원당암 청석탑 및 천왕사지 청석탑과 조탑 방식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그러나 두 탑과 달리 수정사지 석탑에서 화강암 부재가 기단부가 아니라 1층 탑신에 쓰인 것으로 보아, 수정사지 탑이 두 탑보다 약간 늦은 10세기 후반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것은 편년의 상한일 뿐이다. 경천사지 십층석탑과 원각사지 십층석탑의 사례처럼 불탑 조영방식 가운데 모방과 재현이 있어 그 하한이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 없다.

수정사지 청석탑 편년 추정에 있어 그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인왕상과 범자문이다. 탑신에 새겨진 인왕상의 화염광배(火焰光背), 천의(天衣)의 형태, 번잡한 옷주름 등을 볼 때, 신라~고려 전기 불교미술품의 인왕상보다 고려 후기 사경변상도나 불감의 인왕상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정사지 청석탑 인왕상은 1010년 조성된 예천 개심사지(開心寺址) 오층석탑 1층 탑신의 자세가 곧은 인왕상보다는 허리를 더 틀었으나, 1275년 제작된 <불공견색신변진언경(不空羅索神變眞言經) 변상도>나 14세기 후반 제작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불감>, <구례 천은사(泉隱寺) 금동불감> 등 고려 후기 불교미술품의 인왕상보다는 과하지 않다.⁶⁰⁾ 오히려 이 수정사지 청석탑 인왕상은 고려 중기 불교미술에 강한 영향을 끼친 중국 요의 <중국 지현(薊縣, 현재 텐진) 독락사(獨樂寺) 금강역사상>이나 <중국 따통(大同) 하화엄사(下華嚴寺) 사천왕상>과 같은 신장상과 유사성이 강하다. 이는 수정사지 탑신 부재가 고려 중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범자문은 대불정다라니(大佛頂陀羅尼)를 새긴 것이다. 대불정다라니는 『수능엄경(首楞嚴經)』에 수록되었는데, 8세기 무렵 신라에 전해졌다. 고려 대각국사 의천(義天)이 송나라 유학 후 『수능엄경』에 대한 관심이 다시 촉발된다. 이를 계기로 대불정다라니 신앙이 활발해진다. 대불정다라니는 ‘용맹스럽게 정진하여 정(定)을 닦는데 힘을 돕는 다라니’라는 의미가 있다.⁶¹⁾ 대불정다라니를 외우면 깨달음과 함께 30여 가지의 공덕을 얻을 수 있는데, 공덕은 대부분 신변과 관련된 보호와 과보(果報), 죄과(罪過)의 소멸과 관련된 것이다.⁶²⁾ 이 공덕을 쌓는 방법으로 다라니의 서사와 수지, 그리고 염송이 공통적으로 강조되었다.⁶³⁾ 그 수지의 방법 가운데 탑[지제(支提)]과 당[탈도(脫閤)] 위에 봉안하라는 것이 있다.⁶⁴⁾

실제로 평안도와 황해도를 중심으로 불정사(佛頂寺) 대불정다라니 석당(石幢)(1027년 이전)을 비롯한 석당이 조성되었다. 석당이 서북지역에서 주로 조성된 이유는 요·금대(遼·金代) 불교 신앙의

60) 진정환, 「천은사의 불교조각」, 『천은사의 불교미술』(국립중앙박물관, 2009), pp. 79-81; 陳政煥, 「益山 深谷寺 七層石塔 出土品の 特徴과 性格」, 『전북사학』 45(전북사학회, 2014), pp. 439-446.

61) 옥나영, 「고려시대 대불정다라니(大佛頂陀羅尼) 신앙과 석당(石幢) 조성의 의미」, 『韓國思想史學』 60(韓國思想史學會, 2018), p. 100.

62) 이갑봉, 『수능엄경의 呪力念誦에 대한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p. 51-53.

63) 옥나영, 앞의 논문(2010) p. 100.

64)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T. 945), 136c16-137c10.

경향을 수용한 것이기도 하다.⁶⁵⁾ 또, 대불정다라니는 제주 수정사지 청석탑 외에도 원주 보문사(普門寺) 청석탑, 영월 무릉리 청석탑(도 14·15), 경천사지 석탑 등 석탑은 물론 석비[堤川(제천) 송계리(松界里) 대불정주범자비(大佛頂呪梵字碑)], 고분[진주(晉州) 평거동(平居洞) 5호분]에까지 새겨졌다. 영월 무릉리 청석탑과 경천사지 석탑 등 14세기에 조성된 석탑에도 범자문을 새기기도 하였으나,⁶⁶⁾ 진주 평거동 5호분이 1107년에 조성된 것으로 보아, 대불정다라니 범자진언(梵字眞言) 신앙은 요와 본격적인 문화교류가 이루어진 11세기 중엽 유입된 이래 12세기 초에는 전국으로 확산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불정다라니에서 주목할 점은 대불정다라니의 염송이나 탑에 새기는 것이 개인적 공덕의 한 방편이었다는 점이다. 거군현적(居郡縣的) 향도결사(香徒結社)가 국왕과 국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불교미술품을 조성했던 고려 전기와 달리, 고려 중기는 국왕·귀족·승려 중심으로 한 개인 또는 소규모 향도결사가 불사를 주도한 시기다.⁶⁷⁾ 그래서 고려 중기에는 개인 원당과 더불어 소규모 불교미술품이 많이 조성되었다. 수정사지 청석탑의 작은 규모, 기단부 구성과 결구 방식이 해인사 원당암 청석탑이나 하남 천왕사지 청석탑 등 초기 청석탑과 유사한 점, 11세기 중엽~12세기 널리 유포된 대불정다라니 범자가 새겨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 원당의 구성물로 12세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살펴본 탑의 형태와 조탑 방식, 인왕상의 양식적 특징, 범자문과 관련된 신앙의 성행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정사지 청석탑은 12세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뿐만 아니라, 수정사지 발굴에서 확인된 12~13세기 전반 제작된 수정사지 출토 고려청자와 중국 자기도 그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IV. 제주지역 사원과 불탑의 조성 배경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원당사지와 수정사지 석탑은 12세기에 조성되었다. 불탑과 함께 원당사와 수정사가 창건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12세기 탐라에 불교가 유입·정착될 만한 특별한 사건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 이유를 밝혀보기 위해, 고려 건국 이후 탐라와 고려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65) 옥나영, 앞의 논문(2010), p. 116.

66) 정성권은 영월 무릉리 청석탑의 조성 시기에 대해 기단부의 구성, 기단 갑석 부연, 원문 안에 새겨진 범자문 등장 시기 등을 고려할 때, 4세기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정성권, 「영월 무릉리 마애여래좌상과 청석탑의 조성시기와 배경」, 『東岳美術史學』 21(東岳美術史學會, 2017), pp. 101-106.

67) 陳政煥, 「新羅 下代~高麗 前期 佛教石造美術 發願者와 匠人의 變化」, 『新羅史學報』 32(新羅史學會, 2014), pp. 372-376.

3-① (925년) 11월 기축 탐라에서 토산물을 바쳤다.⁶⁸⁾

3-② (938년) 겨울 12월 탐라국의 타자 말로(末老)가 내조하자 성주(星主)·왕자(王子)의 벼슬을 내려주었다.⁶⁹⁾

탐라는 925년 고려에 공물을 바치면서(3-①), 본격적으로 고려와 관계를 맺는다. 938년에는 태자 말로가 고려에 내조하는데, 이에 고려는 성주·왕자 등의 관작을 준다(3-②). 이로써 고려는 탐라의 기존 질서를 인정해주면서,⁷⁰⁾ 고려의 조공체계에 탐라를 편입시켰다.⁷¹⁾ 이때 탐라는 여진, 발해 유민 등과 함께 고려 중심의 해동천하(海東天下)에 속했으며, 고려 황제로부터 관작을 받고 군사·외교·교역 등에서 교류하는 화내(化內)가 되었다.⁷²⁾

4-① (1011년 9월) 을유 탐라가 주군의 예에 따라 주기를 하사할 것을 간청하자, 이를 허락하였다.⁷³⁾

4-② (1079년 11월) 임신 탐라구당사(耽羅勾當使) 윤응균(尹應均)이 큰 진주 두 매를 바쳤는데, 빛이 별같이 반짝여서 당시 사람들이 야명주(夜明珠)라고 하였다.⁷⁴⁾

4-③ (1052년 3월) 임신 삼사(三司)에서 아뢰기를, 탐라국에서 해마다 바치는 굴을 100포자(包子)로 개정하고, 이를 항구한 제도로 삼으라 하자, 이를 받아들였다.⁷⁵⁾

그런데, 1011년 탐라가 고려로부터 주기(임명장)를 받은 이후(4-①), 고려의 기미주인 '번토(蕃土)'가 된다.⁷⁶⁾ 탐라가 고려의 기미주가 된 11세기에는 고려에서 구당사를 탐라에 파견한다. 구당사는 994년(성종 13) 압록강 하류 압록도(鴨綠渡)에 처음 설치되었는데, 강이나 해안의 중요한 나루나 항구를 감시·통제하기 위해 만든

68) 『高麗史』卷1, 世家1, 太祖. “(8年) 十一月 己丑 耽羅貢方物”

69) 『高麗史』卷2, 世家2, 太祖. “(21年) 冬十二月 耽羅國太子末老來朝 賜星主王子爵”

70) 김보광, 「고려전기 탐라에 대한 지배방식과 인식의 변화」, 『역사와 담론』 85(호서사학회, 2018), pp. 265-267.

71) 秦榮一, 「高麗前期 耽羅國 研究」, 『耽羅文化』 16(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pp. 168-173.

72) 노명호, 앞의 논문(2005), p. 187.

73) 『高麗史』卷4, 世家5, 顯宗. “(2年 9月) 乙酉 耽羅乞依州郡例 賜朱記 許之”

74) 『高麗史』卷9, 世家9, 文宗. “(33年 11月) 壬申 耽羅勾當使尹應均獻大眞珠二枚 光曜如星 時人謂夜明珠”

75) 『高麗史』卷9, 世家9, 文宗. “(6年 3月) 壬申 三司奏 耽羅國歲貢橘子 改定一百包子 永爲定制 從之”

76) 김보광, 앞의 논문(2018), p. 274.

관직이다.⁷⁷⁾ 탐라에 파견된 구당사 관련 최초의 기록은 1079년 진주를 바친 탐라구당사 윤응균의 기록이다(4-②). 그 파견 시기에 대해 주기를 내려 준 현종대라는 주장⁷⁸⁾과 『고려사』에 ‘탐라국’이라는 명칭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1077년부터 윤응균이 등장하는 1079년 사이에 파견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⁷⁹⁾ 실제 탐라에 구당사의 파견된 시기는 언제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1052년 탐라국에서 해마다 바치는 굴의 수량을 정해진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4-③). 구당사는 기본적으로 항구를 감시·감시하는 것이지만 공물을 점검하거나 지배층 감시·통제 역할도 했기 때문에,⁸⁰⁾ 1053년을 전후한 때 구당사가 파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12세기 이후 고려의 탐라 지배방식이 변한다. 1105년(숙종 10) ‘탐라군’으로 고쳐 고려의 내지에 편입된다. 11세기 중엽 구당사 파견 이후, 1077년 이후 『고려사』에 ‘탐라국’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탐라’ 또는 ‘탁라(毛羅)’ 등이 혼용되는 것으로 보아, 11세기 4분기부터 탐라의 내지화는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가 바로 1105년 ‘탐라군’ 설치였다. 그러나 고려에서는 탐라군에는 지군사(知郡事)를 파견하지 않아, 탐라국의 지배층이었던 성주·왕자·도상(徒上) 등을 중심으로 한 탐라 고유의 지배 질서가 유지되고 고유문화가 존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5-① 탐라현 …… 태조 21년(938)에 탐라국의 태자 말로가 찾아와 내조하므로, 성주·왕자의 작위를 내려주었다. 숙종 10년(1105)에 탁라를 탐라군으로 고쳤다. 의종 때 현령관이 되었다. …… 앞의 세 곳의 배는 모두 이 섬을 경유하여, 사서도(斜鼠島), 대소화탈도(大小火脫島)를 거쳐, 애월포(涯月浦)와 조천관(朝天館)에 이른다. 대·소화탈도 사이에 두 해류가 교류하여 파도가 높이 일기 때문에, 무릇 왕래하는 사람들이 어려워한다.⁸¹⁾

5-② (1153년 11월) 경자 탐라현의 도상 인용부위(仁勇副尉) 중련(中連)과 진직(珍直) 등 12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⁸²⁾

5-③ 최척경은 …… 의종 초에 경산부판관(京山府判官)에 보임되었는데 성품이 청렴하고 깨끗하여 향리와 민(民)이 두려워하면서도 좋아하였다. 임기가 차서 개경으로 돌아왔는데 권문세가를 찾지 않은 것이 10여 년이나 되었다. 판리부사(判吏部事) 최윤의가 그의 청렴함과 정직함을 듣고 탐라의 수령으로

77) 노명호, 앞의 논문(2005), p. 190.

78) 노명호, 앞의 논문(2005), p. 190.

79) 김보광, 앞의 논문(2018), p. 276.

80) 秦榮一, 앞의 논문(1996), pp. 172-173.

81) 『高麗史』卷18, 世家18, 毅宗. “(7年 11月) 庚子 耽羅縣徒上仁勇副尉中連珍直等十二人來 獻方物”

82) 『高麗史』卷18, 世家18, 毅宗. “(7年 11月) 庚子 耽羅縣徒上仁勇副尉中連珍直等十二人來 獻方物”

임명하려고 하니, 최척경은 …… 한사코 사양하였다. …… 최척경이 어쩔 수 없이 수령으로 취임하였다.⁸³⁾

『고려사』 지리지(地理志)에 따르면, 탐라에 고려의 지방관이 파견된 시기는 의종대이다(5-①). 그런데, 『고려사』 식화지(食貨志)에는 인종대 탐라현령(耽羅縣令)의 녹봉이 정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⁸⁴⁾ 혼선을 준다. 그러나 식화지 녹봉조에 언급된 외관(外官)은 명종대(明宗代)의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져,⁸⁵⁾ 의종대 현령이 파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려사』 세가(世家)와 열전(列傳)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령이 파견된 구체적인 시기는 1153년(의종 7) 11월 팔관회에 맞춰 탐라현의 도상이 방물을 바쳤다는 기록(5-②)과 1161~1162년 무렵 최척경이 현령으로 파견된 것(5-③) 등으로 미루어 볼 때,⁸⁶⁾ 빠르면 1150년대 초, 늦어도 1160년대 초로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원당사지 오층석탑과 수정사지 청석탑은 12세기 조성된 것이다. 그 시기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탐라가 고려의 내지가 된 이후 시기와 겹친다. 그런데, 탐라가 고려의 내지가 되었다고 하지만, 고유 지배 질서와 전통문화가 공고했던 탐라가 고려의 통치와 불교 같은 고려의 문화를 쉽사리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은 1165년과 1168년 연달아 일어난 탐라 주민들의 반발에서 유추할 수 있다(6-①·②).⁸⁷⁾

6-① 전라도 안찰사(按察使)가 급히 보고를 보내 탐라 사람들이 수령의 포악한 침탈에 시달리다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만약 최척경을 수령으로 임명해 준다면, 마땅히 무장을 풀겠다고 합니다’라고 전하였다. 왕이 재상 최포칭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어진 사람이 있는데, 어찌하여 쓰지 않았는가’라고 하고 최척경을 불러 비단을 하사하고 즉시 탐라의 수령으로 제수(除授)하였다.⁸⁸⁾

6-② (1168년 11월) 정축 탐라안무사(耽羅安撫使) 조동희가 입관하였다. 탐라까지는 험준하고 멀어 공전(攻戰)이 미치지 않는 곳인데다 토지가 기름져서 나라의 재정에 충당되었다. 이보다 앞서서는

83) 『高麗史』卷99, 列傳12, 諸臣, 崔陟卿. “崔陟卿 完山吏 登第 毅宗初 補京山府判官 性廉介 吏民畏愛 秩滿還京 足不至權門者十餘年 判吏部事崔允儀 聞其清直 欲授耽羅令 陟卿以其再除外寄地 且僻遠 固辭 允儀曰 耽羅地遠俗獷 爲守實難故 以予補之 幸予勿憚 往撫遠民 不爲國家憂 則當報以美官 陟卿不得已就任”

84) 『高麗史』卷80, 志34, 食貨3, 祿俸. “仁宗朝 定 …… 二十六石十斗 …… 西京六縣令 江華 耽羅 長湍 …… 金浦 等 縣令”

85) 윤경진, 『『고려사』 식화지(食貨志) 외관록(外官祿) 규정의 기준 시점과 성립 배경』, 『역사와 현실』 78(한국역사연구회, 2010), pp. 195-244.

86) 노명호, 앞의 논문(2005), p. 206; 김보광, 앞의 논문(2018), pp. 290-291.

87) 의종대 이후에도 탐라 원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되었다. 『高麗史』卷20, 世家20, 明宗 16年 7月. 『高麗史』卷21, 世家21, 神宗 5年 12月.

88) 『高麗史』卷99, 列傳12, 諸臣, 崔陟卿. “會全羅按察使馳奏 耽羅人苦令尉侵暴以反 乃曰 若得陟卿爲令 當釋兵 王謂宰相崔褒偁曰 有賢如此 何不用之 召賜綾絹 卽除耽羅令”

공부(貢賦)가 번다(煩多)하지 않아 백성들이 생업에 즐거워하였는데 근자에 들어와 관리들이 불법을 행하고 도적의 우두머리 양수(良守) 등이 모반하여 수령을 쫓아내기까지 하였다. 왕이 조동희에게 명하여 지절(持節)로 선유(宣諭)하게 하자 적이 스스로 항복하였다. 양수 등 두 명과 그 무리 5인을 참수하고, 나머지에게는 모두 곡식과 포백(布帛)을 내려 이들을 위무하였다.⁸⁹⁾

기록에는 탐라 원주민들이 반발한 원인으로 과중한 공부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이질적인 고려 문화 유입에 따른 고유문화의 해체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탐라의 반란이 1160년에 집중되는데, 원당사와 수정사, 그리고 석탑이 조성된 시기는 탐라 원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때거나 그보다 조금 앞 시기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고려 중앙에서 파견된 탐라현령은 원당사와 수정사의 입지를 어떻게 골랐을까. 소위 탐라시대 후기, 즉 남북국시대에 해당하는 시기 제주지역의 취락은 종달리 중심의 동북부, 용담동과 삼도동 일대의 원도심권, 팍지리와 고내리 일대의 애월포 권역 등에 집중되었는데,⁹⁰⁾ 탐라국의 읍기(邑基)는 원도심권일 것으로 추정된다.⁹¹⁾ 이러한 양상은 고려시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⁹²⁾

고려에서 탐라에 파견한 최초의 관리는 11세기 중엽 파견된 구당사다. 구당사는 본질적으로 나루나 항구를 감시·통제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당시 탐라의 포구는 애월포와 조천관이었다(5-①). 구당사는 낮에는 포구에 나가 감시하고 저녁에는 주둔지로 되돌아왔는데,⁹³⁾ 구당사가 탐라국의 치소였던 현재의 제주 원도심권에 주둔하는 것은 탐라 원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이다. 탐라국 읍기에서 애월포나 조천관으로 가기도 멀다. 구당사의 주둔지는 포구와 가깝고 자체 방어가 용이하며 탐라 지배층을 감시하기 쉬운 곳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입지로 가장 적합한 곳이 '삼첩칠봉(三疊七峯)'으로 불리던 원당봉이다. 원당봉은 탐라국의 주요 거점이었던 원도심권 및 포구인 조천관과 가깝고 자체 방어도 쉬운 곳이다. 원래 구당사의 주둔지였던 원당사 터는 현령 부임 이후 절로 용도를 바꾸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 때문에 원당사지 발굴에서 11세기 이전의 특성을 보이는 기와와 청자가 확인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정사도 탐라국의 읍기(원도심권)와 애월포 중간에 입지하고 있어 구당사의 주둔지였을 수도 있겠으나, 발굴에서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89) 『高麗史』卷18, 世家18, 毅宗. “(22年 11月) 丁丑 耽羅安撫使趙冬曦 入覲 耽羅險遠 攻戰所不及 壤地膏腴 經費所出 先是 貢賦不煩 民樂其業 近者 官吏不法 賊首良守等 謀叛 遂守宰 王命冬曦 持節宣諭 賊等自降 斬良守等二人及其黨五人 餘皆賜穀帛以撫之”

90) 김경주, 앞의 논문(2020), pp. 36-39.

91) 김일우, 「조선시대 이전 耽羅國 중심 마을의 형성과 변천-제주목관아지 일대를 중심으로-」, 『한국사지리지학회지』 21(한국사지리지학회, 2011), pp. 171-186.

92) 김경주, 앞의 논문(2020), p. 38.

93) 『高麗史』卷10, 世家10, 宣宗. “(五年) 是故 遣河拱辰於鴈門 爲勾當使於鴨綠 晝則出監於東溟 夜則入宿於內城”

현령이 탐라에 파견된 후, 현의 치소는 탐라국의 읍기였던 원도심권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⁹⁴⁾ 탐라현령은 고려의 행정체계에 맞는 대대적인 읍기의 정비를 추진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과정에서 육지의 읍기 정비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앞서 설명하였던 탐라 원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을 것이다.

한편, 고려는 왕도 개경을 조성하면서 의례의 설행(設行)과 비보를 위해 수많은 사찰을 조성하였는데, 이것이 지방의 읍기 조성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즉, 지방 읍기에서도 의례의 설행과 비보를 위한 자복사(資福寺)가 조성되었다. 자복사는 성종·현종대 지방 통치 체계가 확립되면서 계수관(界首官)에서 향(鄉)·소(所)·부곡(部曲)에 이르기까지 1곳 이상이 조성되었다.⁹⁵⁾ 자복사는 국가불교 의례의 실현 장소이자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고 지역민을 불교로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였다.⁹⁶⁾ 12세기 탐라에 현령이 파견될 당시는 자복사가 보편화된 시기였기 때문에, 탐라현 읍기 정비 시 1곳 이상의 자복사가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당사와 수정사는 탐라에 현령이 파견된 이후 조성되었고 고려시대 탐라현의 읍치로 추정되는 목관아지에서 두 사찰까지의 직선거리가 거의 같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사찰 모두 탐라현의 자복사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7-① (1168년 3월) …… 장차 낡은 것을 혁신하고 새로운 것을 세워 왕화(王化)를 부흥하고 옛날 성조(聖祖)께서 권계(勸戒)한 유훈(遺訓)을 채용하여 당면한 폐해가 되는 사무를 바로잡아 새로운 명령을 반포하노라. …… 1, 불사(佛事)를 숭중(崇重)하라. 지금은 말계(末季)에 해당하는 때로 불법(佛法)이 점차로 쇠하고 있다. 무릇 조종 대에 비보사사를 개창하였으니 옛날부터 규정하여 행해 온 법석사원(法席寺院)과 함께, 별도로 은혜를 비는 사사(寺社) 중에서 잔폐한 곳이 있으면 주무 관서에서는 곧바로 수리하도록 하라. …… 1, 삼보(三寶)를 보호하라. 사찰에 있는 진기한 보물과 쌀·보리가루 및 기타 물품들을 근래에 내시원(內侍院) 및 여러 관아에서 비용(費用)이라 아뢰어 취하니 승도들이 한탄하며 원망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헌대(憲臺)에서 두루 잘 타일러 금단(禁斷)하도록 하라.⁹⁷⁾

7-② (943년 4월) …… 둘째, 여러 사원은 모두 도선(道詵)이 산수의 순역을 미루어 점차서 개창한 것으로, 도선이 이끄기를, 내가 점을 쳐 정한 곳 외에 함부로 덧붙여 창건하면 지덕(地德)이 줄어들고 옹여져 조업(祚業)이 길지 못하리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후세의 국왕이나

94) 김일우, 앞의 논문(2011), pp. 179-180.

95) 한기문, 「고려시대 資福寺의 성립과 존재 양상」, 『民族文化論叢』 49(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2011), pp. 281-288.

96) 한기문, 앞의 논문(2011), pp. 288-297.

97) 『高麗史』卷18, 世家18, 毅宗, “(22年 3月) …… 將欲革舊鼎新 復興王化 採古聖勸戒之遺訓 及當時救弊之事務 頒布新令 …… 一 崇重佛事 時當末季 佛法漸衰 凡祖宗時 開創裨補寺社 及古來定行法席寺院 與別祈恩寺社 如有殘弊 主掌官 隨即修葺 …… 一 保護三寶 其佛舍珍寶 米麴 雜物 近因內侍院及諸司奏取費用 僧徒嘆怨 自今憲臺 遍令曉諭禁斷 ……”

공후(公侯)·후비(后妃)·조신(朝臣)이 각각 원당(願堂)이라 일컬으며 혹시 더 만들까봐 크게 근심스럽다. 신라 말에 다투어 부도(浮屠)를 짓다가 지덕이 쇠하고 손상되어 결국 망하는 데 이르렀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⁹⁸⁾

그렇다면, 자복사의 위치는 어떻게 정해졌을까.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비보사탑설(裨補寺塔說)이다. 1168년(의종 22) 서경 순행 시 반포한 신령(新令) 가운데 고려의 사찰은 ‘비보사사’임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7-①). 그런데, 비보사탑설은 도선에 의해서 정립된 것으로서, 지세(地勢)를 보완하기 위해 사찰과 불교미술품, 즉 불상·불탑·당간지주 등을 조성한다는 개념이다. 이 비보사탑설은 고려시대 들어 태조가 훈요십조(訓要十條)에서 두 번째로 언급할 정도로 사찰과 불교미술품 조성에 매우 강한 영향을 끼쳤다(7-②).⁹⁹⁾

비보사탑설에 근거하여 불탑과 사원이 조성된 것은 「백운산내원사사적(白雲山內院寺事蹟)」(8-①)과 「오관산성등암중창기(五冠山聖燈庵重創記)」(8-②) 등의 기록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주형(行舟形)인 나주의 지세 보완하기 위해 조성된 나주 동문 밖 당간지주(幢竿支柱), 강진 월남사지 3층석탑, 남원 만복사(萬福寺) 등에서 실제로 비보사탑설이 적용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¹⁰⁰⁾

8-① 부처의 도를 약썩으로 삼아 산천의 병든 땅을 치료하십시오. 결합이 있는 땅은 사찰을 창건해 보완하고, 지세가 과도한 곳은 불상으로 누르며, 달아나는 곳은 탑을 세워 머무르게 하고, 등진 땅은 당간(幢竿)으로써 불러들이며, 해치려 드는 것을 방지하고, 다투려는 것을 금지하며, 좋은 것은 복돋아 키우고, 길한 것은 선양하게 하니, 천하가 태평하고 법륜이 스스로 굴러가는 것이다.¹⁰¹⁾

8-② [술사(術士)가] 창바위(극암(戟岩))가 우뚝 선 곳은 지맥이 둘째 번 순룡(順龍)의 폐간에 해당하는데, 하늘을 찌르듯이 서 있으니 이것은 삼재가 일어날 곳으로, 만약 삼재를 없애려면 마땅히 석당을 세워야 한다고 하자, 양지쪽 벼랑의 큰 돌 위에다가 돌기둥을 사방에 벌여 세워 집 모양 같이하고, 장명등(長明燈)을 설치하여 창바위의 재앙을 누르고 ……¹⁰²⁾

98) 『高麗史』卷2, 世家2, 太祖. “(26年 4月) …… 其二曰 諸寺院 皆道詵推占山水順逆而開創 道詵云 吾所占定外 妄加創造 則損薄地德 祚業不永 朕念後世國王公侯后妃朝臣 各稱願堂 或增創造 則大可憂也 新羅之末 競造浮屠 衰損地德 以底於亡 可不戒哉”

99) 김진숙, 「고려시대의 비보사탑과 불상조성」 『불교연구』 42(한국불교연구원, 2015), pp. 273-274.

100) 村山智順 著, 崔吉成 譯, 『朝鮮의 風水』(서울: 민음사, 1990), p. 633; 陳政煥, 앞의 논문(2019), pp. 87-92; 陳政煥, 「南原 萬福寺址 佛教美術品 造成과 그 背景」, 『전북사학』 61(전북사학회, 2020), pp. 47-51.

101) 朝鮮總督府內務部地方局 纂輯, 「白雲山內院寺事蹟」, 『朝鮮寺刹史料』上(朝鮮總督府內務部地方局, 1911), pp. 18-19. “佛氏之道爲艾而 醫之於山川痛痒之地而 缺者以寺補之 過者以佛抑之 走者以塔止之 背者以幢招之 賊者防之 爭者禁之 善者樹之 吉者揚之 則天下泰平法輪自輪”

102) 『東文選』卷79, 記, 「五冠山聖燈庵重創記」. “戟岩突起 乃當地脉第二順龍肺肝 衝天而立 是爲三災發作之所 若欲禳之 宜豎石幢

원당사가 있는 원당봉은 풍수적으로 한라산의 지세가 모이는 곳으로 인식된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고려는 산수의 지세가 국가의 안녕과 번영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다. 현령 파견 이후 빈번했던 탐라 원주민들의 반란에 대해 고려 왕실과 관리들은 한라산의 과도한 지세가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당봉 안에 있던 구당사의 주둔지를 사찰로 바꾸고 불탑을 세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형이 많이 바뀐 수정사의 입지가 비보사탑설과 관련이 있다는 기록과 근거를 찾기 어렵지만, 원당사 입지 선정 방식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원당사와 수정사에 조성된 불탑의 조성 시기와 그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두 불탑은 탐라에 현령이 파견된 12세기 조성된 석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당사와 수정사는 탐라현의 자복사였으며, 비보사탑설에 근거하여 입지를 정하였다. 그 가운데 원당사는 11세기 중엽 고려 중앙에서 파견한 구당사의 주둔지를 정비하여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당사지 석탑은 모본이 되는 석탑 그림을 바탕으로, 제주 현지에서, 제주 현지 재료인 현무암으로, 제주 현지인들이 만들었다. 모본은 조성 당시 고려 사회에서 주목받던 묘향산 보현사 8각9층석탑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석탑에 대한 이해도와 석탑 조성의 숙련도가 떨어진 제주 현지인들이 만들면서, 각 부재의 치밀함이 떨어지고 일부 요소들이 생략되는 등 퇴화 양상을 보였다. 수정사 청석탑은, 모본의 그림을 바탕으로 만들면서 나타난 원당사지 석탑의 조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육지에서 수정사 조성 당시에 새로 만든 것이거나, 개인 원당에 있던 청석탑을 해체하여 배로 옮겨 탐라 현지에서 조립하였을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원당사와 원당사지 석탑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후에 수정사가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당사와 수정사에 세워진 불탑은 제주의 역사·문화뿐만 아니라 한국 미술사와 역사에 있어 몇 가지 큰 의의가 있다. 첫 번째, 12세기 중엽 탐라에 현령이 파견된 것과 불탑이 조성된 것이 비슷한 시기라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고려의 탐라 지배체제가 어떻게 구축되었으며, 고려의 문화가 탐라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친 시기가 언제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고려의 지방 읍기 정비 시 자복사의 조영 양상과 비보사탑설의 영향이 탐라현 읍기 조성에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원당사지와 수정사지 석탑을 통해 다양했던

於是 就其陽崖巨石之上 樹石柱四方 列如屋 置長明燈 以鎮戢岩之災 ……”

12세기 불탑 제작의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 원당사지 석탑은 제주도 내 승탑, 석불, 동자석, 돌하르방 등 현무암 석조물의 시작이며, 제주 석조미술품에서 공통으로 살펴볼 수 있는 ‘축소’와 ‘생략’이라는 제주 석조미술 전형양식의 시원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앞서 지적하였듯이 문헌 자료의 한계가 있고 불탑의 조형이 일반적인 경향과 달라 앞으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연구가 제주 역사와 문화의 원형을 찾아가는데, 하나의 디딤돌이 되리라 기대한다. 필자 역시 이 논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제주 불교문화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를 계속할 것을 다짐하며, 글을 맺는다.

<사료 및 자료>

『高麗史』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T. 945)

『東文選』

『濟州道實記』

『耽羅志』

金尙憲, 『南槎錄』

金錫翼, 『耽羅紀年』

金淨, 『冲庵先生集』

李益泰, 『知瀛錄』

朝鮮總督府內務部地方局 纂輯, 『白雲山內院寺事迹』 『朝鮮寺刹史料』 上, 朝鮮總督府內務部地方局, 1911.

許興植, 『寧邊妙香山普賢寺記』, 『韓國金石全文』 中世上, 亞細亞文化社, 1984.

許興植, 『寧邊普賢寺石塔記』, 『韓國金石全文』 中世上, 亞細亞文化社, 1984.

許興植, 『崔士威墓誌』, 『韓國金石全文』 中世上, 亞細亞文化社, 1984.

<보고서 및 단행본>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라남도의 석탑』 II,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국립제주박물관, 『제주 출토 고려시대 도자기』, 국립제주박물관, 2013.

鄭恩雨, 『高麗後期 佛教彫刻 研究』, 서울: 문예출판사, 2004.

제주문화예술재단, 『元堂寺址』, 『제주시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제주문화예술재단, 2007.

濟州大學校博物館, 『水精寺址』, 濟州市·濟州大學校博物館, 2000.

村山智順 著, 崔吉成 譯, 『朝鮮의 風水』, 서울: 민음사, 1990.

황인규, 『고려시대 불교계와 불교문화』, 서울: 국학자료원, 2011.

<논문>

康炳喜, 『韓國의 多角多層石塔』,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6.

강병희, 『고려 중기 법상종 미술의 6각 평면』, 『불교미술사학』 3, 불교미술사학회, 2001.

강병희, 『고려 전기 사회변동과 불탑: 11-12세기 불탑의 북방적 영향』, 『미술사학』 23, 미술사연구회, 2009.

김경주, 『고고학의 본 탐라』, 『섬, 흙, 기억의 고리』, 국립제주박물관, 2009.

김경주, 『고고자료로 본 원나라 주민의 탐라 이주와 정착』, 『야외고고학』 37, 한국문화유산협회, 2020.

김보광, 『고려전기 탐라에 대한 지배방식과 인식의 변화』, 『역사와 담론』 85, 호서사학회, 2018.

김 선, 『제주 수정사지 출토 청석탑의 제작지 검토』, 『고문화』 95,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20.

김영미, 『제주 사지 출토 고려시대 도자기 고찰』, 『제주 출토 고려시대 도자기』, 국립제주박물관, 2013.

김일우, 『조선시대 이전 耽羅國 중심 마을의 형성과 변천-제주목관아지 일대를 중심으로-』, 『한국사지리지학회지』 21, 한국사지리지학회, 2011.

김진숙, 『고려시대의 비보사탑과 불상조성』, 『불교연구』 42, 한국불교연구원, 2015.

김창현, 『高麗의 耽羅에 대한 정책과 탐라의 동향』, 『韓國史學報』 5, 고려사학회, 1998.

- 김창현, 「고려 서경의 사원과 불교신앙」, 『한국사학보』 20, 고려사학회, 2005.
- 김창현, 「고려 서북면의 사원과 불교신앙-묘향산 일대를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49, 한국사연구회, 2010.
- 金禧庚, 「濟州 佛塔寺 五層石塔을 찾아서」, 『美術史學研究』 228·229, 韓國美術史學會, 2001.
- 노명호, 「10~12세기 담라와 고려국가」, 『제주도연구』 28, 제주학회, 2005.
- 梁重海, 「益齋亂藁 小樂府所收 耽羅曲에 대하여」, 『濟州島史研究』 3, 濟州島史研究會, 1994.
- 申龍澈, 「統一新羅 佛塔의 發願者와 製作者」, 『文化史學』 31, 韓國文化史學會, 2009.
- 嚴基杓, 「제주지역 佛教 石造美術의 특징과 의의」, 『耽羅文化』 5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7.
- 嚴基杓, 「妙香山 普賢寺 八角 13層 石塔에 대한 고찰」, 『東岳美術史學』 17, 東岳美術史學會, 2015.
- 옥나영, 「고려시대 대불정다라니(大佛頂陀羅尼) 신앙과 석당(石幢) 조성의 의미」, 『韓國思想史學』 60, 韓國思想史學會, 2018.
- 윤경진, 「『고려사』 식화지(食貨志) 외관록(外官祿) 규정의 기준 시점과 성립 배경」, 『역사와 현실』 78, 한국역사연구회, 2010.
- 이갑봉, 「수능엄경의 呪力念誦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수정, 「고려시대 제주기와의 변화양상과 특징」, 『한국기와학보』 2, 한국기와학회, 2020.
- 전민숙, 「고려전기 석탑의 특성 연구」, 『東岳美術史學』 15, 東岳美術史學會, 2013.
- 전민숙, 「고려시대 청석탑에 관한 연구」, 『불교미술사학』 22, 불교미술사학회, 2016.
- 全暎俊, 「高麗 睿宗代의 사찰 창건과 승도 동원 -「惠陰寺新創記」를 중심으로-」, 『震檀學報』 97, 震檀學會, 2004.
- 정성권, 「영월 무릉리 마애여래좌상과 청석탑의 조성시기와 배경」, 『東岳美術史學』 21, 東岳美術史學會, 2017.
- 鄭恩雨, 「高麗後期の 佛教彫刻 研究」, 『美術資料』 33, 國立中央博物館, 1983.
- 정은우, 「고려 중기 불교조각에 보이는 북방적 요소」, 『美術史學研究』 265, 韓國美術史學會, 2010.
- 秦榮一, 「高麗前期 耽羅國 研究」, 『耽羅文化』 1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 秦榮一, 「高麗 肅宗 10年 ‘耽羅郡’設置 考察」, 『耽羅文化』 2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 진정환, 「친은사의 불교조각」, 『친은사의 불교미술』, 국립중앙박물관, 2009.
- 陳政煥, 「高麗時代 石塔의 特徵」, 『박물관기요』 25,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0.
- 陳政煥, 「高麗前期 佛教石造美術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3.
- 陳政煥, 「益山 深谷寺 七層石塔 出土品의 特徵과 性格」, 『전북사학』 45, 전북사학회, 2014.
- 陳政煥, 「康津 月南寺址 三層石塔 造成時期와 性格」, 『美術史學研究』 303, 韓國美術史學會, 2019.
- 陳政煥, 「南原 萬福寺址 佛教美術品 造成과 그 背景」, 『전북사학』 61, 전북사학회, 2020.
- 진정환, 「하남지역 고려 초 불교석조미술품의 특징과 조성 배경」, 『淸靜 念願』, 하남역사박물관, 2021.
- 차인국, 「호남지역 고려시대 기와가마 출토 평기와 연구」, 『中央考古研究』 12, 中央文化財研究院, 2017.
- 차인국, 「제주도 기와의 출현 시점과 특징 - 원당사지와 수정사지 출토품을 중심으로 -」, 『한국기와학보』 2, 한국기와학회, 2020.
- 최영희, 「中原地域 造瓦技術의 展開」, 『중원의 와당』,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2017.
- 최정혜, 「고려막새의 변화양상과 의미」, 『한국 중세 기와의 생산과 사회구조』, 한국중세고고학회 2020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2020.
- 한기문, 「고려시대 資福寺의 성립과 존재 양상」, 『民族文化論叢』 49,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2011.
- 한정수, 「고려 현종~정종 대 팔관회(八關會)의 정비와 그 의미」, 『韓國史研究』 194, 韓國史研究會, 2021.
- 현문필, 「출토유물을 통한 원당사지(元堂寺址)의 조성시기와 성격 고찰」, 『제주도연구』 33, 제주학회, 2010.
- 洪大韓, 「高麗時代 靑石製 多層石塔 考察 I」, 『文化史學』 32, 韓國文化史學會, 2009.

제주지역 불탑의 특징과 조성 배경

진정환(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제주지역은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독자적인 물질문화가 발전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독자성을 바탕으로 삼국시대부터 남북국시대까지 '탐라국'으로서 독립적인 정치체를 유지·발전시켰다. 그러나 탐라는 고려 건국 직후부터 고려 화내에 포함되었다. 11세기 초에는 기미주가 되었고, 12세기 초에는 고려의 내지가 되었다. 이후 의종 재위 때 지방관이 파견되기에 이르렀다. 제주지역에 불교가 본격적으로 전해진 시기는 바로 이 고려시대로 판단되는데, 이는 제주지역에 있는 불적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고려시대 두 불탑-원당사지 오층석탑과 수정사지 청석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제주의 대표적인 불탑인 원당사지 석탑과 수정사지 청석탑의 조성 시기와 조성 배경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제주에 불교 및 불교미술이 전래한 시기 및 제주의 초기 불사 양상까지도 파악해볼 수 있다.

고려시대 불탑 및 불교미술품과의 형식과 양식 비교를 통해, 두 불탑은 탐라에 현령이 파견된 12세기 조성된 석탑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원당사는 11세기 중엽 고려 중앙에서 파견한 구당사의 주둔지를 정비하여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당사지 석탑은 모본이 되는 석탑 그림을 바탕으로, 제주 현지에서, 제주 현지 재료인 현무암으로, 제주 현지인들이 만들었다. 모본은 조성 당시 고려 사회에서 주목받던 묘향산 보현사 8각9층석탑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석탑에 대한 이해도와 석탑 조성의 숙련도가 떨어진 제주 현지인들이 만들면서, 각 부재의 치밀함이 떨어지고 일부 요소들이 생략되는 등 퇴화 양상을 보였다. 수정사지 청석탑은, 모본의 그림을 바탕으로 만들면서 나타난 원당사지 석탑의 조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육지에서 수정사 조성 당시에 새로 만든 것 혹은 개인 원당에 있던 청석탑을 해체·운반하여 탐라 현지에서 조립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원당사와 수정사는 탐라현의 자복사였을 가능성이 크며, 고려시대 절, 불상, 불탑, 당간지주 등의 입지 선정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비보사탑설에 근거하여 조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제주, 탐나, 고려, 불탑, 원당사, 수정사

Th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Background of Buddhist Stone Pagodas in Jeju

Jin, Jounghwan(Iksan National Museum, Chief curator)

People on Jeju developed a distinctive material culture due to the island's considerable distance from the Korean Peninsula. Known as the Nation of Tamna,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the island's independent political system took place within the context of its unique cultural identity between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the North-South Kingdoms Period. However, Tamna fell under the sphere of influence of the Goryeo Dynasty shortly after its founding in 918. Although still nominally independent, it fell under the control of Goryeo at the beginning of the 11th century, and was formally incorporated into the Dynasty in the early 12th century. A governing official was dispatched to the island from the mainland during the rule of King Eui-Jong. It is believed that Buddhism fully took root on Jeju during the Goryeo Dynasty. This can be inferred from the oldest remaining relics of the Buddhist faith on the island, namely two stone pagodas - the Five-story Stone Pagoda at the site of Wondangsa Temple and the Blue Stone Pagoda at the Sujeongsa Temple si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ed light on the historical period and development background of these iconic stone pagodas on Jeju. By doing s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transmission of Buddhism and Buddhist art in Jeju can be gained, along with the status of Buddhist temples in the early stages of the religion's development on the island.

Through a comparison with the formation and styles of stone pagodas and Buddhist art in the Goryeo period, it is clear that the two stone pagodas on Jeju were constructed during the 12th century when a county magistrate was dispatched from Goryeo to Tamna. Wondangsa Temple seems to have been constructed during the mid-11th century at the time that a garrison was being built for the gudangsa (official in charge of ports and harbors) sent to the island from Goryeo. The pagoda at Wondangsa Temple was built onsite by natives of Jeju Island using the locally available basalt rock, according to a painted design. The pagoda is believed to have been modelled after the octagonal 9-story pagoda at Bohyeonsa Temple on Mount Myohyang, which was a focus of great interest in Goryeo society at that time. The builders on Jeju had limited knowledge of pagodas and were lacking in craftsmanship of such structures, so the body stones don't fit cleanly to the roof stones and some structural elements are missing, leaving the pagoda with an unrefined appearance. In order to avoid the structural deficiencies of the stone pagoda at Wondangsa Temple that arose through its construction from a painted design, the Blue Stone Pagoda at Sujeongsa Temple appears

to have been built on the mainland at the same time as the temple was being built, or to have been re-assembled from pieces of a privately-owned pagoda that were shipped over. While it is highly likely that Wondangsa Temple and Sujeongsa Temple were built as jaboksa (temples whose purpose was to pray for the prosperity of the nation) for Tamna-hyeon (Tamna County), it is believed that the selection of sites for Buddhist temples, statues, pagodas and flagpole supports was heavily influenced by the theory of complementarity of temples and Buddhist stone pagodas.

Key-words : Jeju, Tamna, Goryeo, Buddhist Stone Pagodas, Wondangsa Temple, Sujeongsa Temple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 문제와 불교조각과의 관계

정성권*

I. 머리말

II. 제주도 돌하르방의 건립시기와 기원

1. 제주읍성 돌하르방
2. 대정현성 및 정의현성 돌하르방

III. 돌하르방과 불교조각의 영향 관계

1. 제주읍성 돌하르방과 불교조각
2. 복신미륵과 대정현성·정의현성 돌하르방

IV. 맺음말

I. 머리말

제주도 돌하르방은 어디서 왔을까? 이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다양한 가설들이 나왔다. 제주도 돌하르방에 대한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탐구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었다. 제주도 돌하르방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며 제주 문화의 아이콘이다. 제주도 돌하르방은 제주 곳곳에서 만날 수 있지만, 제주·대정·정의, 삼주현성(三州縣城) 성문밖에 세워져 있었던 48기의 석인상(현존 47기)이 전근대시대부터 내려온 돌하르방이다.

*단국대학교 학술연구교수

현재의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제주읍성이 일제강점기 훼손되기 이전까지 읍성 동·서·남문 밖 'S'자형으로 휘어진 도로의 굽이마다 서로 마주보며 4기씩, 각 문 앞에 8기가 세워져 있었다.¹⁾ 제주읍성에는 24기의 돌하르방이 있었으나 현재는 23기가 전한다. 대정현성과 정의현성 동·서·남문 밖에 세워졌던 돌하르방은 각기 12기씩이며 현재 모두 남아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진행된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에 대한 연구는 남방기원설²⁾, 북방기원설³⁾, 제주자생설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남방기원설은 유라시아 대륙과 몽골의 석인상이 소개되면서 남방기원설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게 되었다. 이후 돌하르방의 기원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중반부터 북방기원설과 한반도 남부 석장승 영향설을 중심으로 한 육지전래설 등이 논의되었다. 근래에는 돌하르방을 주제로 한 박사논문까지 출간되어 돌하르방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⁵⁾

돌하르방 기원에 관한 최근의 연구성과는 북방기원설과 육지전래설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북방기원설의 경우 기존의 몽골유물설과 더불어 다양한 시각의 북방기원설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기존의 북방기원설의 경우 13~14세기 조성된 동 몽골지역 석인상인 훈출로와 제주도 돌하르방과의 연관성을 주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주채혁은 돌하르방의 언어적 유사성(HarBavang, 弓王)에 주목하여 돌하르방을 석궁왕(石弓王)의 개념으로까지 확대해석하고 있다.⁶⁾ 이러한 주장은 몽골의 탐라 지배라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논지를 전개하나 돌하르방 개개의 양식적 특징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제주 목사 김몽규가 1754년 제주읍성 밖에 '웅중석(돌하르방)'을 세웠다는 문헌기록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⁷⁾

근래에 발표된 북방기원설 중에는 제주도 돌하르방 중 대정현성 돌하르방 4기가 13~14세기 몽골인들에 의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학설도 제기되었다. 이 주장은 대정현성 돌하르방 4기가 대정현성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바람 부는 언덕위에 있었으며 그 석상을 만든 사람들은 킵차크 칸국 출신 몽골인들이라는 주장이다. 이 4기의 석상은 13~14세기 조성된 동몽골 석인상인 훈출로와 직접적인 조형적 관계가 없으며

1) 金榮敦, 「濟州·大靜·旌義 主縣城 石像」, 『문화인류학』5(1972), pp.36-38.

2) 김병모, 「한국 석상문화 소고」, 『한국학논집』2(1982), pp.1-12.

3) 주채혁, 「제주도 돌하르방 연구의 몇가지 문제점 : 그 기능과 형태 및 계통 - 동몽골 다리강가 훈출로와 관련하여」, 『江原史學』9(1993) ; 주채혁, 「제주도 돌하르방 연구의 몇가지 문제점 : 그 명칭과 개념정의 및 존재시기 - 동몽골 다리강가 훈출로와 관련하여」, 『청대사림』6(1994) ; 정성권, 「제주도 돌하르방에 관한 연구 -양식적 특징 및 조성시기를 중심으로-」, 『史學志』34(2001), pp.67-91.

4) 玄容駿, 「濟州石像 '우석목' 小考」, 『제주도』8(1963) ; 金榮敦, 「濟州·大靜·旌義 主縣城 石像」, 『문화인류학』5(1972) ; 文基善, 「돌하르방의 解剖學的 研究」, 『제주대학 논문집』13(1981) ; 金榮敦, 「돌하르방」, 『朝鮮時代 濟州文物展』(濟州大學校博物館, 1992) ; 姜昌언 외, 「제주도 石像에 관한 一研究」, 『濟州道史研究』7(1998).

5) 황시권, 「제주도 돌하르방의 종합적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5).

6) 주채혁, 「돌하르방은 석궁왕(石弓王), 쿠빌라이 대칸의 탐라도 환생석」, 『한국 시베리아연구』20권2호(2016), pp.148-155.

7) 金錫翼, 『耽羅紀年』(瀛洲書館, 1918), 「甲戌三十年 清乾隆十九年 牧使金夢煒設翁仲石於城門外」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일대의 초원지대에 분포한 돌궐계 석인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다.⁸⁾

다양한 북방기원설 중 언론의 주목을 받은 주장으로는 돌하르방의 요대 석인상 기원설이 있다. 이 주장은 중국 요녕성 요양시 건평현 박물관에 소장된 석상이 제주읍성 돌하르방과 매우 유사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 돌하르방의 외형이 몽골 지배기를 통해 제주도에 전래되었을지라도 그 외형은 최소한 요대부터 시작되었다는 의견을 펴고 있다.⁹⁾

북방기원설은 기존의 훈족로 기원설과 더불어, 돌궐계 석인상 영향설, 요대 석인상 기원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반해 육지전래설은 주장하는 내용에 큰 변화가 없다. 육지전래설은 기존의 제주 자생설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이 주장은 제주도 토착 석상문화가 한반도 남부의 석장승 문화와 만나 제주도 돌하르방이 조성되었다는 의견이다.¹⁰⁾ 이 견해는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경우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조각방법이나 조형미 등이 전혀 다른 대정현성과 정의현성 돌하르방을 제주읍성이 건립되는 1754년을 전후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는 점은 미술사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동의하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학설을 바탕으로 돌하르방의 기원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돌하르방과 불교조각과의 조형적 영향 관계를 살펴 볼 것이다. 돌하르방과 유사성이 있는 제주도 불교조각으로는 복신미륵이 있다. 복신미륵은 대정현성 및 정의현성 돌하르방과 형식적 특징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육지의 석장승 조형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천왕상의 형식적 특징이 잔존해 있다. 이 글에서는 제주도 각 지역의 돌하르방과 불교조각의 관계를 미술사적 입장에서 분석할 것이다. 돌하르방과 불교조각과의 영향 관계 분석은 돌하르방의 기원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돌하르방의 전개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8) 정성권,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과 전개」, 『耽羅文化』50(2015), pp. 219-237.

9) 우설하,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과 요대 석인상」, 『몽골학』51(2017), p.191.

10) 주강현, 『우리문화의 수수께끼』 I (한겨레신문사, 2004), pp.162-163; 김유정, 「돌하르방 북방·남방 기원설에 대한 재론」, 『耽羅文化』31(2007), pp. 230-231 ; 김정선, 「翁仲石 : 돌하르방에 대한 고찰」, 『耽羅文化』33(2008) p.33 ; 황시권, 「제주도 돌하르방의 제작시기 고찰」, 『耽羅文化』61(2019), pp.61-88 ; 황시권, 「돌하르방의 문화재 가치 재정립과 관리제도 개선방안」, 『탐라문화』 64(2020), pp.42-50.

II. 제주도 돌하르방의 건립시기와 기원

1. 제주읍성 돌하르방

제주도 돌하르방에 대한 기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돌하르방에 관한 문헌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다. 돌하르방에 대한 문헌기록은 심재(心齋) 김석익(金錫翼, 1885~1956)이 1918년 간행한 편년체 역사서인 『탐라기년(耽羅紀年)』의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김석익은 조선-일제강점기-해방기의 역동기를 살다간 뛰어난 문인이자 저술가이며 1909년 제주 의병항쟁의 주역이었던 김석윤의 동생이다.¹¹⁾ 김석익이 저술한 『탐라기년』의 내용 중에는 “청건륭십구년(淸乾隆十九年, 1754)에 목사 김몽규가 성문 밖에 웅중석(翁仲石)을 세웠다”라는 기록이 있다.¹²⁾ 1754년은 영조 30년이며 김몽규는 1752년(영조 28)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1754년 10월까지 재직하였다. 이 기록에 나오는 웅중은 중국 진시황 때 흉노에게 큰 명성을 떨친 인물인 완웅중(阮翁仲)에서 유래한 것이다. 조선시대 웅중석은 무덤 앞 석상, 길가에 세운 석장승 등을 부르는 용어였다. 1754년 목사 김몽규가 성문밖에 세웠다는 웅중석은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 지금의 돌하르방으로 볼 수 있다.¹³⁾ 목사 김몽규가 1754년에 제주읍성 삼문 밖에 돌하르방을 세웠다는 기록은 1954년 간행된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에서도 확인된다.¹⁴⁾

목사 김몽규가 제주읍성에 돌하르방을 건립하였다는 기록은 모두 20세기 초반과 중반의 기록이나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제주읍성 건립에 관한 사료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제주읍성 돌하르방과 육지 석장승과의 관계 때문이다. 17세기 중후반부터 18세기 전반기 사이에 사찰 앞에 석장승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절이나 절터 입구에 세워진 석장승은 고려시대 조성된 장생(長生)처럼 18세기 사찰의 비보물이면서 동시에 경계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¹⁵⁾

장승은 18세기 영·정조시기를 거쳐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 설치연대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으로 영암 도갑사의 석장승(1717년), 나주 불회사의 석장승(1719년), 나주 운흥사의 석장승(1719년), 남원 실상사의 석장승(1725년) 등이다.¹⁶⁾ 영암 쌍계사지 석장승, 남원 호기리 석장승 역시 18세기 전반의 석장승으로 추정된다. 이 석장승들은 1754년 조성된 제주읍성 돌하르방과 얼굴 모습이

11) 김새미오, 「심재(心齋) 김석익(金錫翼)의 삶과 저술에 대한 일고」, 『영주어문』31(2015), pp. 225-226.

12) 金錫翼, 『탐라기년』(瀛洲書館 1918), “甲戌三十年 淸乾隆十九年 牧使金夢堧設翁仲石於城門外”

13) 김정선, 「翁仲石 : 돌하르방에 대한 고찰」, 『耽羅文化』3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pp. 202-206.

14) 淡水契 編, 『增補 耽羅誌』(1954), 名勝古蹟 條, “翁仲石... 濟州 邑城 東西南三門 外에 在하였고 甲戌 英조 30년에 牧使 金夢堧가 刱建한 바인데 三門 毀撤에 因하여 2좌는 觀德亭前, 2좌는 三姓祠 입구에 移置되었다. 防禦使 金夢堧..... 翁仲石을 3門城外에 建하고 運籌堂과 觀德亭을 重創하다.”

15) 정승모, 「장승의 기원과 웅중석」, 『문화재』46권1호(2013), p. 171.

16) 유홍준 외, 『장승』(열화당, 1988), pp. 160-161.

매우 닮았다. 특히 쌍계사지 석장승은 장승의 얼굴에 이빨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제주읍성 돌하르방과 매우 유사한 얼굴 모양이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보았을 때 제주읍성의 돌하르방은 육지의 석장승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⁷⁾ 즉,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조성시기는 문헌기록에서 확인되는 1754년 제작설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도 1. 대정현성 돌하르방



도 2. 정의현성 돌하르방



도 3. 제주읍성 돌하르방

2. 대정현성 및 정의현성 돌하르방

1) 조성시기

대정현성은 1416년에 대정현이 설치된 이후 현감 유신(兪信)이 1418년에 수축하였다.¹⁸⁾ 정의현성이 현재의 자리에 축성된 것은 1423년이다.¹⁹⁾ 대정현성과 정의현성에는 각 문마다 4기씩 총 12기의 돌하르방이 있다. 대정과 정의현성 돌하르방은 동·서·남문 앞에 4기씩 세워져 있었는데 현재 성읍민속마을이 있는 정의현성 돌하르방의 경우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대정현성과 정의현성 돌하르방은 생김새가 서로 다르며 제주읍성 돌하르방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대정현성 돌하르방의 평균 크기는 약 136cm이며 정의현성 돌하르방의 평균 크기는 약 141cm이다. 이에 반해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평균 크기는 약 182cm에 달하여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크기가 다른 지역의 돌하르방에 비하여 월등히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정현성 및 정의현성 돌하르방과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17) 정성권, 「제주도 돌하르방에 관한 연구 -양식적 특징 및 조성시기를 중심으로-」, 『史學志』34(2001), p. 77.

18) 李元鎮, 『耽羅志』大靜縣 城郭條.

19) 李元鎮, 『耽羅志』旌義縣 城郭條.

조형적 차이점은 크기뿐만 아니라 얼굴의 표현에서도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다.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왕방울 눈에 커다란 주먹코가 얼굴표현의 중요한 특징적인 요소이다. 이에 반해 대정현성 돌하르방은 적당한 크기의 눈과 'I'자 형태의 코가 표현되어 있으며 정의현성 돌하르방은 'I'자 형태와 삼각형 모양의 코가 조각되어 있다.

사람이나 동물 형상의 코를 커다란 주먹코로 표현하는 방법은 조선후기에 들어와 나타난 특징이다. 조선전기와 조선후기의 특징을 확연히 비교할 수 있는 사례로는 광화문 해치를 비롯한 경복궁 서수상(瑞獸像)을 통해 알 수 있다. 경복궁 서수상 중 조선전기의 서수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영제교 주변의 서수상이 있다. 천록이라고도 불리는 이 서수상은 유득공이 1770년 봄 서울의 모습을 읊은 「춘성유기(春城遊記)」에 등장한다.²⁰⁾ 이를 통해 영제교 주변의 서수상은 임진왜란 이전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천록은 작은 코에 적당한 크기로 눈이 조각되어 있다. 이에 반해 1865년경 경복궁이 중건되는 시점에 만들어진 근정전 주변의 난간석주 서수상과 광화문 해치상의 경우 매우 큰 주먹코와 커다란 눈을 갖고 있다. 사람이나 동물의 표현에 주먹코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은 임진왜란 이후 17세기부터이다. 17세기 이후 여러 사찰에서 만들어지는 사천왕상의 코는 주먹코로 표현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코의 표현 방법은 이후 등장하는 석장승, 제주읍성 돌하르방, 경복궁 근정전 서수상 및 광화문 해치상, 조선왕릉 석인상까지, 18세기를 거쳐 19세기까지 지속적으로 등장하였다.



도 4. 경복궁 영제교 서수상 '천록'



도 5. 경복궁 근정전 난간석주 서수상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I'자나 삼각형 형태의 코와 적당한 크기로 눈이 조각된 대정현성과 정의현성 돌하르방은 제주읍성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보기 어렵다. 돌하르방 조성시기에 대한 최근의 주장은 대정 및 정의현성 돌하르방의 조성시기가 제주읍성 돌하르방이 만들어진 1754년이나 그 직후일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²¹⁾ 그러나 이 주장대로 대정현성과 정의현성 돌하르방이 1754년경에

20) 柳得恭, 「春城遊記」『冷齋集』권15, “又翌日入景福古宮. 宮之南門內有橋, 橋東有石天祿二, 橋西有一鱗鬣, 蜿蜒良刻也. 南別宮後庭有穿背天祿, 與此酷肖. 必移橋西之一而無掌故可證也”; 김민규, 「경복궁 인수형(麟獸形) 서수상(瑞獸像)의 제작시기와 별간역(別看役)연구」, 『문화재』47권1호(2014), p. 74.

21) 황시권, 「제주 돌하르방의 제작시기 고찰」, 『耽羅文化』61(2019), pp. 85-88.

조성되었다면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형식적 특징인 커다란 주먹코, 왕방울 눈, 콧등과 이마의 깊은 주름, 높은 이마 등은 대정과 정의현성 돌하르방에도 강하게 남아 있거나 그 흔적이라도 표현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대정현성과 정의현성 돌하르방을 제주읍성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복신미륵 때문이다. 복신미륵과 관련된 문헌 기록은 이형상의 『남환박물(南宦博物)』에서 찾을 수 있다. 이형상은 1702년부터 1703년까지 제주목사로 재직한 인물이며 제주목사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의 풍물을 기록한 『남환박물』을 남겼다. 이 책의 기록에 의하면 이형상이 제주도에 도착하였을 때 복신미륵인 동자복, 서자복 미륵이 있었던 제주읍성 동쪽의 만수사(萬壽寺)와 서쪽의 해륜사(海輪寺)는 머무는 승려도 없었으며 사찰은 쇠락해 있었다.²²⁾ 이형상이 제주도에 왔던 1702년경 복신미륵이 있었던 사찰은 이미 쇠락한 상태였다. 이를 통해 보면 복신미륵은 1702년보다 한 참 이전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복신미륵에는 대정현성과 정의현성 돌하르방의 형식적 특징이 모두 나타난다.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복신미륵에 두 지역 돌하르방의 형식적 특징이 모두 나타난다는 점은 복신미륵이 대정현성, 정의현성 돌하르방의 조형적 특징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복신미륵이 대정 및 정의현성 돌하르방 다음에 조성된 것임을 말해준다. 근래의 연구성과는 복신미륵의 조성시기를 15세기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다.²³⁾

성문 앞에 세워져 있었던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본적인 성격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 및 수호신 역할이다.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조성시기는 문헌기록을 통해 1754년 건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대정 및 정의현성 돌하르방의 조성시기는 성문 앞을 지키는 역할이라는 점을 통해 보았을 때 두 현성의 축성시기가 대정 및 정의현성 돌하르방 조성시기의 상한선이 될 것이다. 대정현성은 앞서 언급했듯이 1418년 축성되었으며 정의현성은 1423년 축조되었다. 대정현성과 정의현성 돌하르방의 조성 하한 시기는 복신미륵이 조성되는 15세기 후반기로 볼 수 있다. 대정현성과 정의현성 돌하르방의 조성시기는 복신미륵의 조성시기가 15세기 후반기로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15세기 전반기로 추정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2) 외래적 요소 및 기원문제

앞에서는 제주읍성 돌하르방이 1754년 건립되었으며 대정과 정의현성 돌하르방이 15세기 전반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았다. 제주도 돌하르방의 건립순서는 대정과 정의현성의 축성시기를 통해 보았을 때 대정현성 돌하르방이 가장 먼저 건립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대정현성 돌하르방 건립 직후 정의현성 돌하르방이 만들어지고 이후 제주읍성 돌하르방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22) 이형상, 『남환박물』(푸른역사, 2009), p.113.

23) 정성권, 「조선전기 석조불상 연구 -편년과 양식적 특징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24(2017), pp.197-199 ; 이정화, 「제주의 불교미술과 자복미륵」, 『문화재』51권3호(2018), pp.113-116.



도 6. 대정현성 민속자료 2-34호 돌하르방(3D 사진 정성혁 제공) 도 7. 대정현성 민속자료 2-34호 돌하르방(3D 사진 정성혁 제공)

제주도 돌하르방의 건립순서를 통해 보았을 때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은 대정현성 돌하르방이 된다. 그러나 대정현성 돌하르방이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바로 대정현성 돌하르방 일부에서 나타나는 외래적 요소의 문제이다. 특히 이 외래적 요소는 대정현성 돌하르방 전부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민속자료 2-34호로 지정된 서문지 돌하르방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대정현성 남문지에 있는 일부 대정현성 돌하르방에서도 외래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 대정현성 돌하르방에서 확인되는 외래적 요소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도 8. 알타이 지역 돌궐계 석인상²⁴⁾



도 9. 알타이 지역 돌궐계 석인상



도 10. 알타이 지역 돌궐계 석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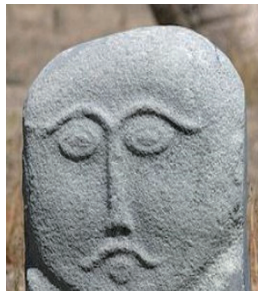
24) 도 8, 9, 10번 사진은 블라지미르 D. 꾸바레프, 『알타이의 제사유적』(학연문화사, 1999), p. 63, p. 56, p. 99 사진을 인용하였다.

첫 번째는 평평한 평면적인 얼굴이다. (도 6~10) 평평한 평면적인 얼굴은 대정현성 돌하르방 얼굴표현의 특징이다. 대정현성 돌하르방은 얼굴을 평평하게 만든 후 눈과 코를 돌출되게 만드는 방식으로 얼굴을 만들었다.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얼굴은 광대가 돌출되어 있으며 눈과 코를 크게 만들었기에 매우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정의현성 돌하르방의 얼굴은 평면적인 요소가 있으나 눈 주변은 음각선을 파서 둥글게 표현하였으며 얼굴의 광대뼈 부분을 약간 튀어나오게 만들고 있어 대정현성 돌하르방 얼굴보다 상대적으로 입체적이다. 대정현성 돌하르방 얼굴같이 평평한 얼굴 위로 눈동자를 양각하여 돌출되게 표현하는 방식은 돌궐계 석인상의 얼굴 표현 방법에서 흔하게 찾아 볼 수 있다.

두 번째 외래적 요소로는 이중동심원을 이용한 돌출된 눈 표현 방법이다. (도 11~14) 대정현성 돌하르방의 눈 표현 방법은 이중동심원을 타원형으로 만들어 평평한 얼굴에서 돌출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조각 작품으로는 삼국시대 이후 등장하는 불교조각이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한다. 이밖에 유교조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무덤 앞의 석인상 역시 그 수량이 상당하다. 민속조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석장승 역시 적지 않은 수가 남아 있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수많은 조각 작품 중 눈의 표현을 이중동심원을 이용하여 타원형으로 만든 후 돌출된 양각 형태로 표현한 사례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표현 방법이 제주도 돌하르방 중 대정현성 돌하르방에서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특이하다.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중동심원을 이용한 돌출된 양각 형태의 눈 모양은 돌궐계 석인상의 눈 표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어 주목된다.



도 11. 돌궐계 석인상²⁵⁾



도 12. 돌궐계 석인상



도 13. 돌궐계 석인상(몽골과 학아카데미 Tubat Tsagaan 르방 스케치 제공)



세 번째 외래적 요소는 목 주변의 복장(服裝) 표현이다. (도 8~10, 15~17) 제주도 돌하르방 중 목 주변에 복장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사례는 대정현성 서문지에 있는 2-34호 돌하르방, 대정현성 남문지에 있는 2-42호, 2-43호 돌하르방에서만 확인된다. 서문지 2-34호 돌하르방 복장 표현은 목둘레가 띠 형태의 음각으로 파여 있으며 띠

25) 블라지미르 D. 꾸바레프, 『알타이의 제사유적』(학연문화사, 1999), p.101 사진 인용.

아래 부분에 11자 형태의 복장선이 양각선으로 돌출되어 있다. 대정현성 남문지에 있는 2-42호 돌하르방의 목 아래에는 돌출된 양각선으로 마치 둥글게 늘어진 목걸이 같은 복장선이 표현되어 있다. 대정현성 남문지 2-43호 돌하르방 역시 목 주변에 돌출된 양각 형태의 복장선이 ‘옹’자형의 목도리같이 표현되어 있다.



도 15. 대정현성 민속자료 2-34호 돌하르방 도 16. 대정현성 민속자료 2-42호 돌하르방 도 17. 대정현성 민속자료 2-43호 돌하르방

대정현성 2-34호 돌하르방 목 주변을 음각선으로 넓게 판 형태는 다른 돌하르방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특이한 조각 형식이다. (도 15) 목주변을 음각선의 띠로 두른 형태는 주변보다 띠 부분을 깊게 갈아서 마무리하는 조각 방식이다. 음각선으로 목주변을 표현하는 방식은 알타이 초원 일대의 돌궐계 석인상에서 주로 확인된다. (도 8~10) 이러한 외래적 조각 방식이 대정현성 2-34호 돌하르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요소이다. 대정현성 2-34호 돌하르방은 목주변을 음각으로 파들어간 선이 도리처럼 목 주변에 두르고 있다. 이 음각선은 턱 아래에서 11자 형식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2-43호 돌하르방 역시 턱 아래에 11자 형식의 복장선이 나타난다. 목 주변을 복장선이 목도리처럼 두르고 목 바로 아래에 수직선 형식의 복장선이 만들어진 사례는 몽골풍 복식을 착용하고 있는 진주 대아고등학교 석인상에도 나타나고 있어 이 역시 외래적 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 (도 18~20)



도 18. 대아고등학교 석인상 정면



도 19. 진주 대아고등학교 석인상 측면



도 20. 진주 대아고등학교 석인상 후면

네 번째 외래적 요소는 허리띠 표현이다. (도 15, 도 21~23) 대정현성 서문지에 있는 2-34호 돌하르방에는 다른 돌하르방에서나 육지의 석장승 등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허리띠가 선명하게 조각되어 있다.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18세기 전반기에 조성된 육지 석장승의 조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육지의 석장승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다른 돌하르방에서도 허리띠를 착용한 조각은 찾아 볼 수 없다. 주목되는 점은 허리띠의 형태이다. 대정현성 서문지에 있는 2-34호 돌하르방의 허리띠는 장방형의 조각을 서로 이어 붙여 만든 모습이다. 이러한 허리띠는 가족의 허리띠에 금속제 장식판을 붙인 형태를 나타낸 것으로 이러한 형태의 허리띠는 유라시아 초원지대에 산재해 있는 돌궐계 석인상의 허리띠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도 21~23) 26) 허리띠는 유목민들이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복장 요소로서 몽골에서는 남자를 허리띠 있는 사람(БУСГЭЙ ХҮН)으로 부르고 있는 점 역시 관심 있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7)

대정현성은 1418년 축성된 읍성이다. 조선전기에 축성된 읍성의 성문 앞에 세워진 돌하르방 중 일부에서 확인되는 강한 외래적 요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대정현성 돌하르방 중에서 외래적 요소가 나타나는 돌하르방은 서문지에 있는 2-34호 돌하르방이 대표적이다. 남문지에 있는 2-42호, 2-43호 역시 외래적 요소가 있다. 민속자료 2-34, 2-42, 2-43호 돌하르방은 대정현성 돌하르방 12기 중 비교적 크기가 크며 조각수법 역시 다른 대정현성 돌하르방에 비하여 우수하다. 대정현성 남문지에 있는 2-41호 돌하르방은 목 주변에 복장 표현은 없으나 얼굴의 조각 방법과 크기 등을 비교하였을 때 외래적 요소가 있는 대정현성 남문지 2-42, 2-43 돌하르방과 유사하다. (도 15~17)

26) 권현주, 「실크로드 출토 유물에 보이는 대(帶)의 유형 및 특징」, 『실크로드의 복식과 동서 문화교역』(2021), pp. 170-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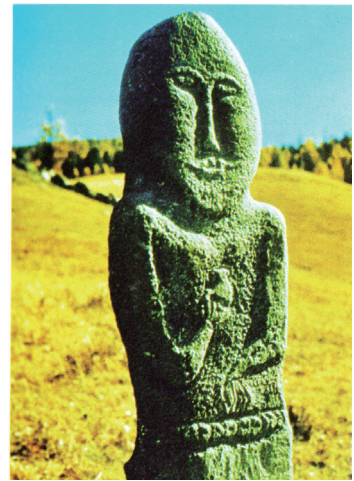
27) 주채혁, 「몽골·고려사의 한 고찰-알랑어신과 이어도, 돌하르방, 몽골호칭 등에 관한 문제 제기」, 『인문과학연구』1(1990), p. 187.



도 21. 돌궐계 석인상²⁸⁾



도 22. 돌궐계 석인상



도 23. 돌궐계 석인상

대정현성 돌하르방은 기단을 갖추지 않은 채 대정현성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근래에 대정현성 돌하르방을 각 문지 근처에 모아 놓고 기단을 새롭게 만들었다. 남문지 돌하르방은 2-41호, 2-44호, 2-43호가 서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 줄로 서 있다. 한 줄로 서있는 배치 덕분에 돌하르방의 조각 기법과 숙련도 등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2-41, 44, 43호는 비슷한 크기의 돌하르방임에도 불구하고 2-41호와 2-43호 돌하르방이 가운데 있는 2-44호 돌하르방에 비해 조각 숙련도가 우수하며 눈·코·입 등을 더 잘 조각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정현성 돌하르방은 외래적 요소가 있는 2-34, 2-42, 2-43호와 이와 비슷한 조각 역량을 보여주는 2-41호를 제외하면 나머지 8기의 돌하르방은 작은 크기, 영성한 마무리, 투박한 솜씨 등이 돌하르방 조각에 남아 있다. 즉 대정현성 돌하르방은 12기의 돌하르방이 한 번에 조각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외래적 요소가 있는 4기의 돌하르방과 나머지 돌하르방과의 조각 역량차이가 확연하다.

1418년 축성된 대정현성 앞에 세워진 돌하르방 중 4기의 돌하르방과 나머지 8기의 돌하르방의 조각 역량 차이는 설명이 필요하다. 조각 역량이 우수한 4기의 돌하르방, 그중에서 서문지 2-34호 돌하르방의 강한 외래적 요소가 어떻게 조선전기에 축성된 읍성 앞의 돌하르방에 나타났는지도 풀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정의현성과 제주읍성 돌하르방 대부분은 본래부터 기단을 갖추고 있었는데 대정현성 돌하르방은 대부분이 기단이 없는 이유 역시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논의거리이다. 또 다른 의문점은 제주도에는 대정현성 돌하르방보다 더 오래된 등신대 크기의 석불이나 석상이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성문 앞에 대형 석인상이 12기나 등장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문헌기록이 없기에 정확한 내력을 파악할 수 없다. 다행스러운 점은 제주도에

28) 도 21, 22, 23번 사진은 블라지미르 D. 꾸바레프, 『알타이의 제사유적』(학연문화사, 1999), p. 25, p. 26, p. 27 사진을 인용하였다.

내려오는 많은 구비전승 중 일부가 대정현성 돌하르방에 제기된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제주도에 전래되는 구비전승 중 돌하르방의 기원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녹편하르방’이라는 전설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전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 어느 고을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하늬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언덕길 위에 퍼렇게 녹편 노인이 우뚝 서 있는 것이었다. 이에 나무꾼이 바람을 피하라고 노인에게 권했으나 노인은 내 팔자가 하늬바람을 맞으면서 이 언덕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고집스럽게 똑 바라보는 눈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버티어 서 있었다. 나무꾼이 마을에 내려간 후 걱정이 되어 개장국을 사들고 다시 올라갔으나 그 노인은 나무꾼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똑바로 그 고집스러운 눈으로 빨리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나무꾼은 녹편 하르방에 의해 그 착한 마음을 보상받았고 나무꾼과 같은 마을에 사는 욕심 많은 사람은 나무꾼의 얘기를 듣고 녹편 하르방을 대접한 후 그로부터 금은보화를 구했으나 결국 벌을 받는다.²⁹⁾

전설의 내용을 역사 기록처럼 신뢰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전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설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사전에 필요하다. ‘녹편 하르방’에 등장하는 노인은 언덕 위에서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것이 운명이라 말한다. 채록된 시기가 다른(1957년 남원면 남원리 채록) 비슷한 내용의 구비전승에서도 노인은 바람 부는 동산에 서 있었다. 그 노인이 말하기를 “나는 바람 부는 곳 밖에는 서 있지 못하는 사람ियो”라고 대답하였다.³⁰⁾

바람 부는 언덕에 노인이 서 있었다는 구비전승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필수 요소가 만족되어야 한다. 즉, 언덕 위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사람(노인)이 필요하다. 그 존재를 구비전승에서는 ‘녹편 하르방’이라 전한다. 언덕 위에 서있는 노인을 퍼렇게 이끼 낀 석인상으로 해석하면 전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된다.

그렇다면 제주도 언덕 위에 등신대 크기의 석상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주도에서 야외에 세워진 석상 중 대표적인 것은 동자석이 있다. 제주도 동자석은 대부분이 17~19세기에 만들어졌다.³¹⁾ 제주도 동자석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크기가 작고 주로 무덤가에 세워져 있다. ‘녹편 하르방’이라는 구비전승의 핵심은 바람 부는 언덕 위에 서 있는 등신대의 사람이기에 동자석같이 작은 크기의 석상은 이

29) 李琪亨, 「〈제주도 전설〉 녹편 하르방」 『제주도』8(1963), pp. 141-147. ‘녹편 하르방’ 전설의 요약문은 정성권, 「제주도 돌하르방에 관한 연구-양식적 특징 및 조성시기를 중심으로」, 『史學志』34(2001), pp. 79-80, 재인용; 정성권,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과 전개」, 『耽羅文化』50(2015), pp. 221-222에도 ‘녹편 하르방’ 전설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30) 秦聖麒, 「녹편영감」, 『南國의 傳說』(一志社, 1968), p. 87.

31) 강윤희, 「조선시대 제주지역 동자석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2), p. 60.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결국 ‘녹편 하르방’이라는 전설이 발생하는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바람 부는 언덕위에 등신대 크기의 석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에 전해지는 석상 중 이 가능성에 부합하는 등신대 크기의 석상으로는 돌하르방이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 돌하르방 중 다른 지역의 돌하르방과 다르게 대부분의 돌하르방에 기단이 없었던 대정현성 돌하르방 중 일부가 본래는 바람 부는 언덕 위에 서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추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대정현성 2-34호와 일부 대정현성 돌하르방 때문이다. 대정현성 2-34호 돌하르방에 나타나는 외래적 요소는 대정현성이 처음 축성되는 1418년경이나 이후의 조선시대에 등장하기 어려운 형식적 요소이다. 2-34호 돌하르방은 돌궐 석인상 요소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으며 목 주변의 11자 복식선에서는 몽골의 영향력 또한 감지된다. 그렇다면 대정현성 2-34호 돌하르방을 비롯하여 조각수법이 비슷한 2-41, 2-42, 2-43호 돌하르방은 대정현성이 축성된 후 만들어진 돌하르방이 아니라 그 이전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아마도 이 돌하르방은 제주도 서부 일대의 바람 부는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던 석상으로 추정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돌하르방에 나타난 강한 돌궐 석인상의 특징적 요소와 몽골 석인상의 외래적 요소를 설명해 줄 수 있다. 또한 대정현성 축성 전에 대형 조각 전통이 없었던 제주도 내에 등신대 크기의 석상이 1418년 이후 제주도의 읍성 문 앞에 갑자기 등장할 수 있었던 문화적 배경 또한 말해 줄 수 있다.

그렇다면 대정현성 돌하르방 중 2-34, 2-41, 2-42, 2-43호의 조성시기는 언제쯤으로 볼 수 있을까? 돌궐 석인상의 특징과 몽골유풀이 남아있는 돌하르방 4기는 몽골의 탐라지배기와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한 이유는 진주 대하고등학교 석인상 때문이다. 대하고등학교 석인상은 대정현성 2-34, 2-42호 돌하르방과 유사한 손 모양을 하고 있으며 2-34, 2-43호와 같이 목 주변에 목도리 같은 복장선과 목 아래에 수직선의 복장선이 있다. 평평한 얼굴 또한 대정현성 돌하르방과 매우 유사하다. 이밖에 대하고등학교 석인상은 몽골풍의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도 19~20) 몽골풍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 석인상이 경남 진주에 있으며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석인상이 제주도 대정현성에서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두 지역에 유사한 형태 석인상이 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비슷한 시기 두 지역에 동일한 세력들이 머물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진주 대하고등학교 석인상이 몽골풍 모자를 착용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보았을 때 그 시기는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정벌했던 시기인 13세기 후반경 이후로 추정이 가능하다.³²⁾ 여몽연합군의 일본정벌 시도와 몽골세력의 탐라 지배를 생각한다면 대정현성 돌하르방 중 외래적 요소가 있는 4기의 돌하르방은 13세기 후반부터~14세기 전반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13~14세기 몽골인들이 만들었던 석인상은 훈출로로 알려져 있다. 훈출로는 동몽골 일대에 주로 분포하며

32) 여몽연합군은 1274년과 1281년 두 차례에 합포(마산)를 출발하여 일본 원정길에 올랐다(盧啓鉉, 『麗蒙外交史』(甲寅出版社, 1993), pp.206-216.

의자에 앉아 있는 형상이 많고 얼굴도 사실적으로 표현된 입체적인 모습이 다수이다.³³⁾ 앞에서는 대정현성 돌하르방 4기의 건립시기를 13~14세기경으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대정현성 서문지 2-34호와 나머지 3기의 돌하르방에서 나타나는 외래적 요소의 특징이 13~14세기 조성된 몽골의 훈출로와는 관계가 별로 없다. 오히려 8세기를 전후한 시기 알타이 초원과 주변의 스텝 지역에 주로 건립된 돌궐계 석인상과 강한 친연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의문점에 대한 설명은 몽골이 탐라에 목장을 설치한 후 우마방목을 주관하였던 하치(合赤)를 통해 해당지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몽골의 일본정벌시도 이후 탐라는 1273년 원의 직할령이 되었으며 원은 탐라에 목장을 설치하였다. 탐라 목장은 원제국 내 14개 국립목장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탐라목장은 원제국 내 14개 국립목장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굳혔고, 시설과 운영인원 등의 규모 확대도 이루어졌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우마방목 등을 주관하는 직책 명칭인 하치로부터 유래했을 동·서 ‘하치’였던 탐라목장의 명칭이 다수의 ‘하치’가 소속하고, 우마 등의 월동시설도 갖추어진 목사(牧舍)를 의미하는 아막(阿幕)의 호칭이 붙은 동·서 아막으로 변했던 것 같다. 특히 동·서 아막이 각각 자리를 잡았던 성산읍 수산리와 한경면 고산리 일대를 중심으로 우마 등이 크게 번식했다.³⁴⁾

대정현성 일부의 돌하르방에서 돌궐계 석인상의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치에 주목해야 된다. 하치에 대해 주목할 만한 연구를 한 이는 고창석이다. 고창석은 조익의 『이십이사차기(二十二史劄記)』와 『원사(元史)』 권128 「토토합전(土土哈傳)」의 자료를 통해 하치가 킵차크인(欽察人)의 언어에서 유래했으며, 이것은 킵차크인이 대원황실의 마축을 관장한 것과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³⁵⁾ 이것은 이제까지 하치를 몽골인으로만 보았던 관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³⁶⁾

킵차크 칸국은 칭기즈칸의 아들 주치, 손자 바투의 상속 재산이었다. 그 영역이 변경되어 정확하게 윤곽을 그려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킵차크 칸국은 볼가강 상류, 시베리아에서 우랄 산맥 일대, 북코카서스, 불가리아, 크림반도, 중앙아시아의 호레즘을 포함하고 있었다. 킵차크 칸국의 중심이면서 그 정체성과 성공의 핵심이었던 곳은 흑해·카스피해 초원이었다.³⁷⁾

원제국 국립목장인 탐라목장의 마축을 관장하였던 하치가 킵차크 출신이라는 연구성과는 대정현성 돌하르방에 돌궐계 석인상의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13~14세기 몽골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훈출로는 대부분이 동 몽골지역에 분포해 있다. 그 숫자 또한 전체 유라시아 석인상에 비해 많은

33) 훈출로에 대한 연구는 데 바이에르, 박원길 역, 『몽골석인상의 연구』(혜안, 1994) 참조.

34) 金日宇, 『高麗時代 耽羅史 研究』(신서원, 2000), p.334.

35) 고창석, 「원대의 제주도 목장」, 『濟州史學』 창간호(1985), pp.8-9.

36) 이개석, 『고려-대원 관계 연구』(지식산업사, 2013), p.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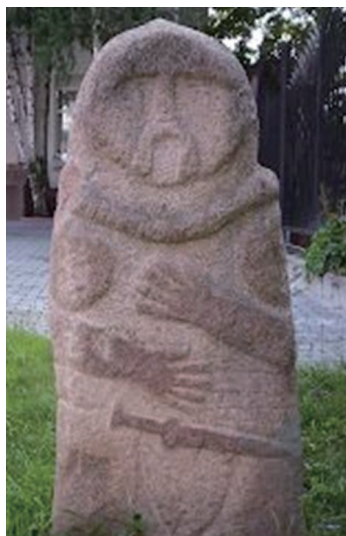
37) 찰스 헬퍼린, 『킵차크 칸국: 중세 러시아를 강타한 몽골의 충격』(글항아리, 2020), p.66.

편이 아니다. 현재 몽골공화국 내에는 500기의 석인상이 분포해 있다.³⁸⁾ 이 석인상들 중 약 400여기는 돌궐석인상이다.³⁹⁾ 근래까지 조사된 몽골 석인상 숫자는 의자에 앉아 있는 42기와 서있는 훈출로 22기를 합치 66기이다.⁴⁰⁾

돌궐석인상은 현재의 몽골공화국뿐만 아니라 몽골 서쪽의 흑해·카스피해 초원지대에도 많은 수가 퍼져있다. 넓은 범위의 유라시아 초원지대에는 돌궐석인상뿐만 아니라 선사시대부터 만들어진 석인상 또한 분포한다. B.C.2600-1800 사이에 만들어진 켄체크 문화(Khemcek culture)에 속하는 석인상의 가슴에는 대정현성 2-42호 돌하르방의 가슴에 보이는 목걸이 같은 돌출선이 만들어져 있다.(도 24) 이밖에 킵차크 칸국의 범위에 포함되는 넓은 초원지대에는 수백기의 돌궐석인상이 분포해 있다. 킵차크 칸국 출신의 하치들은 고향에 있을 때 선사시대부터 8세기 돌궐시대까지 걸쳐 만들어진 많은 수의 석인상을 일상적으로 보며 자랐다.(도 8~10, 21~23, 24, 25) 이들은 대원 황실의 마축을 관리하기 위해 탐라로 파견되었다. 대정현성 2-34호를 비롯한 일부 돌하르방에서 강한 돌궐계 석인상의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 이들 돌하르방을 만든 사람들이 킵차크 칸국 출신의 하치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해준다. 7~8세기 유라시아 스텝 지역에 만들어진 돌궐계 석인상의 특징이 제주도 대정현성 돌하르방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킵차크 칸국 출신 하치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도 24. 켄체크 문화 석인상 (몽골과학아카데미 Tubat Tsagaan 사진제공)



도 25. 우크라이나 지역 스키타이 석인상⁴¹⁾



도 26. 대정현성 민속자료 2-42호 돌하르방

38) 데 바이에르, 『몽골석인상의 연구』(혜안, 1994), p.15.

39) 윤형원, G.에렉젠, 「몽골 석인상의 편년과 상징성에 대한 일고찰」, 『中央 아시아 研究』11(2006), p.201.

40) 데 바이에르, 위의 책, p.100.

41) <https://www.pinterest.co.kr/pin/391672498851711646/> 사진인용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제주도 돌하르방은 앞서 설명한 대정현성 돌하르방 4기가 제주도 돌하르방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 4기의 돌하르방은 13세기 후반~14세기 전반기 탐라의 원형설 목장에 파견된 킵차크 칸국 출신 하치들이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 하치들은 일상적으로 돌궐계 석인상을 비롯한 다양한 석인상들을 보고 자랐다. 다만 그들이 활동했던 킵차크 칸국은 동몽골지역과 상당한 거리가 있기에 동몽골 일대에 주로 분포한 훈출로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은 북방 유라시아 대륙에서 찾을 수 있다. 굳이 말하자면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은 돌궐 석인상 영향설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 돌하르방은 북방에 기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고유의 독자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며 전개되었다. 그 이유는 바람 부는 언덕 위에 처음 만들어졌을 4기의 돌하르방이 대정현성 축성 이후 15세기 전반기 성문 앞으로 옮겨 오면서 그 성격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이다. 초원 위에 세워졌던 돌하르방은 대정현성이 축성된 후 성문 앞을 지키는 수문장으로 새로운 성격을 부여받았다. 정의현성이 축성된 후에는 돌하르방의 외형마저 대정현성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의 돌하르방이 만들어졌다. 18세기에 들어와서는 한반도 남단의 석장승 문화의 영향으로 준수하고 잘생긴 제주읍성 돌하르방이 건립되었다. 제주도 돌하르방은 유라시아 대륙에 기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자체의 독자성이 잘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문화 교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⁴²⁾

Ⅲ. 돌하르방과 불교조각의 영향 관계

1. 제주읍성 돌하르방과 불교조각

앞에서는 대정현성 돌하르방 4기(2-34호, 2-41호, 2-42호, 2-43호)가 제주도 돌하르방의 시작임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주장을 학설로 분류한다면 큰 범주에서 북방기원설로 분류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돌궐 석인상 영향설 정도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장을 전개하면서 북방기원설 중의 하나였던 훈출로 영향설이 역사적 개연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북방기원설 중에는 몽골 석인상인 훈출로 영향설 이외에 요대 석인상으로부터 외형적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있다.⁴³⁾ 이 주장의 근거가 되는 요대 석인상의 외형은 제주도 돌하르방 중 제주읍성 돌하르방과 매우 유사하게 생겼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외형이 어디서 기원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주읍성 돌하르방 외형의

42) 정성권,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과 전개」, 『耽羅文化』50(2015), p. 238.

43) 우실하,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과 요대 석인상」, 『몽골학』51(2017), p. 191.

기원에 대한 고찰은 자연스럽게 제주도 돌하르방이 요대 석인상에서 기원했는지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읍성 돌하르방 외형의 가장 큰 특징은 왕방울 눈과 주먹코이다. 좀 더 세밀하게 제주읍성 돌하르방을 살펴본다면 병거지형의 모자를 쓰고 있으며 이마 위에는 한 줄의 깊은 주름이 있다. 두 눈은 둥그렇고 튀어나오게 조각하였으며 콧등에는 두 줄의 주름이 잡혀있다. 얼굴의 광대뼈 부분도 두드러지게 만들어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입체적이며 근엄하다.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한 손을 가슴부분에 놓았으며 다른 손은 배에 닿게 올려놓았다. 팔은 측면에서 보았을 때 ‘ㄴ’자 형태이다. 다리는 조각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기단을 갖추고 있다.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육지의 장승으로부터 조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암 쌍계사지 석장승과 제주읍성 돌하르방을 비교해보면 높은 이마 위의 굽은 주름, 크고 둥글게 표현한 왕방울 눈, 커다란 주먹코, 콧등 위 두 줄의 주름 등은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흡사하다. 쌍계사지 석장승에 이빨이 조각된 것을 제외하면 한반도 남단의 석장승과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매우 유사한 모습이다.⁴⁴⁾ 한반도 남부지역에 건립된 석장승은 주로 18세기 전반기에 집중적으로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⁵⁾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1754년 제주목사 김몽규가 세웠으며 제주읍성 돌하르방과 육지장승의 외형이 닮은 이유 역시 목사 김몽규와 관련이 있다. 그 이유는 제주도 돌하르방을 건립하였던 해에 제주도에 가장 큰 기와건물인 관덕정을 중창하였기 때문이다.⁴⁶⁾ 제주목사 김몽규가 관덕정을 중창하는 18세기 중반기 이전 제주도의 기와 건물 수요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관청과 더불어 주된 기와 수요처인 제주도의 사찰이 대부분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1702년 부임하였던 제주목사 이형상이 쓴 『남환박물』의 기록에 의하면 제주읍성과 가까이 있었던 사찰에서조차 승려가 상주하지 않았으며 사찰은 방치되어 있었다. 당시 제주도에 기와건물에 대한 수요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김몽규가 1754년 대형 기와건물인 관덕정을 중창하였을 때 대부분의 전문 건축기술자는 육지에서 건너왔을 가능성이 높다.⁴⁷⁾ 육지 석장승의 얼굴과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얼굴이 매우 유사한 이유는 관덕정 중창에 참여하였던 건축 장인들이 제주읍성 돌하르방 건립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 장인들은 육지의 사찰 중창과 수리에 일상적으로 참여하였던 경험이 풍부한 장인들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이 활동했던 한반도 남부지역의 사찰 입구에는 석장승이 여러 곳에 세워져 있었기에 석장승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았던 장인들이라 할 수 있다.

44) 정성권, 「제주도 돌하르방에 관한 연구 -양식적 특성 및 조성시기를 중심으로-」, 『史學志』34(2001), p77.

45) 유홍준 외, 『장승』(열화당, 1988), pp. 160-161.

46) 淡水契 編, 『增補耽羅誌』(1954) 名勝古蹟 條 “翁仲石... 濟州 邑城 東西南三門 外에 在하였고 甲戌 丙子 30년에 牧使 金夢奎가 勸建한 바인데 三門 毀撤에 因하여 2좌는 觀德臺前, 2좌는 三姓祠 입구에 移置되었다. 防禦使 金夢奎..... 翁仲石을 3門城外에 建하고 運籌堂과 觀德亭을 重創하다”.

47) 정성권,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과 전개」, 『耽羅文化』50(2015), p. 210.

왕방울 눈과 주먹코, 콧등과 이마 위의 굽은 주름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얼굴은 육지의 석장승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육지 석장승의 외형을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모습에 반영시킨 실무자들은 관덕정 중창에 참여하였던 장인들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18세기 전반기에 집중적으로 건립된 석장승의 외형은 어디서 왔을까?

그 해답은 석장승의 위치에서 찾을 수 있다. 18세기 전반기 건립된 석장승은 대부분이 사찰 입구나 사찰 근처에 세워졌다. 석장승은 사찰의 경계를 알리는 역할과 더불어 사찰을 지키는 비보(裨補) 역할을 수행하였다.⁴⁸⁾ 석장승의 역할은 비보와 벽사(辟邪) 경계표지 역할을 포함한 금표(禁標)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역할과 동일하다. 제주읍성 돌하르방과 석장승의 동일한 역할이 결국 얼굴에서 비슷한 조형이 나타날 수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왕방울 눈과 주먹코 등을 통해 표현되는 강인한 인상은 비보와 벽사를 나타내는데 매우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표 1〉 조선후기 대형 사천왕상 목록⁴⁹⁾

번호	명칭	시 기	규격(cm)	소재지
1	장흥 보림사 목조사천왕상(좌상)	1515년 (1780년 중수)	높이 373	전남 장흥
2	보은 법주사 소조사천왕상(입상)	1624년	높이 600	충북 보은
3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좌상)	1628년	높이 403	전남 순천
4	구례 화엄사 소조사천왕상	1632년	높이 373	전남 구례
5	완주 송광사 소조사천왕상(좌상)	1649년	높이 425	전북 완주
6	김천 직지사 소조사천왕상(좌상)	1665년	높이 453	경북 김천
7	고흥 능가사 목조사천왕상	1666년	높이 470	전남 고흥
8	홍천 수타사 소조사천왕상	1676년	높이 320	강원 홍천
9	고창 선운사 소조사천왕상	1680년	높이 326	전북 고창
10	공주 마곡사 소조사천왕상(좌상)	1683년	높이 326	충남 공주
11	청도 직천사 목조사천왕상	1690년	높이 380	경북 청도
12	여수 흥국사 소조사천왕상(좌상)	17세기	높이 410	전남 여수
13	영광 불갑사 목조사천왕상(좌상)	17세기	높이 450	전남 영광
14	남해 용문사 목조사천왕상	1702년	높이 294	경남 남해
15	하동 쌍계사 목조사천왕상	1705년	높이 411	경남 하동
16	양산 통도사 목조사천왕상	1718년	높이 400	경남 양산
17	안성 칠장사 소조사천왕상(좌상)	1726년	높이 340	경기 안성

48) 정승모, 「장승의 기원과 유형석」, 『문화재』46권1호(2013), p. 171.

49) 정은우, 「조선후기 대형 소조사천왕상의 구조와 제작기법 연구」, 『불교미술사학』22(2016), p. 133, 표 1 참조.

18세기 전반기에 조성된 많은 수의 석장승들은 사찰 앞에 세워졌다. 비보와 벽사, 금표 역할을 하였던 석장승의 얼굴 표현은 이미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인근 사찰의 사천왕상에서 전해진 것으로 봐야한다. 석장승 얼굴에 표현된 세부적인 표현 방법이 사천왕상의 얼굴 표현과 동일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사천왕상은 임진왜란 이후 17세기부터 18세기 초반에 집중적으로 재건되었고 새롭게 만들어졌다. 주로 사찰 앞에 세워진 석장승의 경우 18세기 전반기에 확산된 점을 고려한다면 벽사와 비보적 특징을 갖고 있는 석장승은 자신의 역할과 유사한 성격의 사천왕상 조형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도 27.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 얼굴



도 28.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 얼굴 확대

우리나라의 사천왕상은 통일신라 8세기에 조성된 석굴암 사천왕상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밖에 통일신라시대 사천왕상은 석탑과 승탑의 부조에 남아 있으며 고려시대에도 석탑과 승탑에 조각된 많은 수의 사천왕상이 전해진다. 고려시대까지 조성된 사천왕상은 일반적인 인물 조각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적당한 크기의 이목구비가 표현되었다. 조선시대 전기의 천왕문이나 사천왕상은 현재 남아있는 작례가 없다. 다만 도갑사 해탈문과 청평사 회전문을 통해 조선전기의 사천왕상을 대해 엿볼 수 있다. 도갑사 해탈문은 1457년에 중건되었고, 청평사 회전문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1557년(명종 12)에 보우가 능인전 등을 중건할 때 세워진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두 문은 중문, 또는 남문의 역할을 하면서도 그 안에 사천왕상을 봉안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⁵⁰⁾ 조선전기에 조성된 대형 사천왕상은 현존하는 것은 없지만 양주 회암사지 조각을 통해서 그 편린을 유추할 수 있다. 회암사지에서도 조선전기로 볼 수 있는 사천왕상 갑옷 장식편이 발굴되었다. 사천왕상의 얼굴은 출토되지 않아 어떠한 형상인지 알 수 없으나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인물상이나 무장형 갑상 조각들의 얼굴을 통해 보았을 때 조선전기의 사천왕상은

50) 주수완, 「조선 전반기 불교건축과 예배상과의 관계에서 본 도상의미 연구」, 『강좌미술사』36(2011), p.404; 청평사 회전문의 경우 사천왕상을 봉안하기에 공간이 협소하여 탱화로 대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홍성익, 『청평사와 한국불교』(경인문화사, 2009), pp.52-53.

조선후기의 사천왕상처럼 매우 큰 왕방울 눈과 주먹코가 표현된 조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⁵¹⁾

우리나라의 사천왕 신앙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그 맥을 이어갔으며 특히 임진왜란 이후 사천왕상의 제작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불교계에서는 전란으로 파괴된 사찰을 대대적으로 복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임란이후 복구되거나 새롭게 만든 대형 사천왕상은 위의 표와 같이 한반도 남부지역에 집중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사천왕상의 조성은 주로 인조대와 숙종대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순천 송광사, 구례 화엄사, 완주 송광사 사천왕상들은 신체 균형 및 제작 기법 등에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사천왕상들이라 할 수 있다. 이중 인조시기에 만들어진 사천왕상들은 모두 벽암 각성 대사들의 문도들에 의해 조성되고 있어 같은 집단의 기술자들이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⁵²⁾

조선 후기에 유행처럼 조성된 사천왕상의 특징은 이마나 미간에 굽은 주름이 있으며 커다랗고 튀어나올 것 같은 왕방울 눈을 하고 있다. 코는 콧망울이 크게 부풀어 오른 주먹코이며 콧등에는 굽은 주름이 새겨져 있다.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있으며 입을 'ㄱ'자 형태로 다물고 있는 사천왕상도 있다. 이러한 얼굴 모습은 18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석장승들과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얼굴과 상당히 일치한다. (도 27~29)



도 29.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



도 30. 영암 쌍계사지 석장승



도 31. 제주읍성 돌하르방

얼굴에서 튀어나올 듯한 왕방울 눈과 주먹코를 이용한 얼굴 표현 방법은 조선전기의 조각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앞장에서 언급한 임진왜란 이전의 경복궁 '천록' 조각과 조선말기 조성된 경복궁 서수조각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제주읍성 얼굴 표현의 시원은 17세기 조선 인조 때 조성된

51) 회암사지박물관, 『회암사지박물관』(2012), pp.17-41.

52) 魯明信, 「松廣寺 사천왕상에 대한 고찰」, 『강좌미술사』13(1999), p.95.

사천왕상에서 찾을 수 있다. 17세기 사천왕상의 눈과 코가 강하게 강조된 강인한 얼굴은 벽암 각성대사와 그의 문도들이 새롭게 창안한 표현 양식이라 할 수 있다.

17세기 사천왕상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왕방울 눈과 주먹코 양식은 이후 한반도 남단을 중심으로 18세기 초까지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행을 바탕으로 18세기 전반기에 사천왕상의 얼굴 모습에서 영향을 받은 많은 석장승이 사찰 인근에 조성되었다. 사찰의 사천왕상을 일상적으로 보아왔으며 석장승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을 장인들이 1754년 관덕정을 수리하기 위해 제주도에 왔으며, 이들은 목사 김몽규의 지시에 부응하여 제주읍성 돌하르방 건립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제주읍성 사천왕상의 얼굴 모습은 17세기 조성된 우리나라 사천왕상에서 유래한 것이다.⁵³⁾

17세기 사천왕상의 얼굴 조형은 18세기 석장승을 매개로 제주도에 전래되면서 제주읍성 얼굴 조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자세와 신체 표현에는 15세기부터 대정현성·정의현성 성문 앞을 지키고 있었던 대정현성과 정의현성 돌하르방의 영향 또한 녹아들어가 있다. 즉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멀리 7~8세기 돌궐계 석인상부터 가까이는 17세기의 사천왕상과 18세기의 석장승이 융합되어 1754년 목사 김몽규에 의해 제주도를 대표하는 새로운 형태의 돌하르방으로 창안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교류와 전통이 융합되어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뛰어난 조각 작품이라 할 수 있다.

2. 복신미륵과 대정현성·정의현성 돌하르방

제주도에서 가장 큰 조각작품은 제주도 민속문화재 1호인 복신미륵이다. 복신미륵은 제주읍성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던 석불이다. 제주읍성 동쪽에 있었던 석불은 현재 동자복이라 부르며 서쪽에 있는 석불은 서자복이라 부른다. 제주목사 이형상이 쓴 『남환박물』의 기록을 통해 보면 동자복이 있는 사찰의 이름은 만수사(萬壽寺)였으며 서자복이 있는 사찰의 이름은 해륜사(海輪寺)였다.⁵⁴⁾

복신미륵은 18세기 조성된 제주도 동자석과 유사한 면이 있어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⁵⁵⁾ 그러나 근래의 연구성과는 복신미륵이 15세기 후반경에 조성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⁵⁶⁾ 복신미륵을

53)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얼굴 모습은 17세기 우리나라 사천왕상에서 처음 만들어진 왕방울 눈과 주먹코 양식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제주읍성 돌하르방과 똑같이 생긴 중국 요녕성 건평 박물관 소장 요대 석인상은 미술사의 양식발전 과정과 문화의 전개과정을 생각해보면 요대 조성된 석인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54) 이형상, 『남환박물』(푸른역사, 2009), p.113.

55) 김유정, 『제주 미술의 역사』(파피루스, 2007), pp.70-80.

56) 정성권, 「조선전기 석조불상 연구 -편년과 양식적 특징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24(2017), pp.197-199 ; 이경화, 「제주의 불교미술과 자복미륵」, 『문화재』51권3호(2018), pp.113-116.

15세기 후반경에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는 복신미륵이 착용하고 있는 보개(寶蓋)라 불리는 모자를 통해서이다. 복신미륵이 착용하고 있는 보개는 돌하르방의 모자와 다른 형태이다. 복신미륵의 모자는 챙이 상대적으로 넓으며 둥근 두관(頭冠) 위에는 원형의 장식이 달려있다. 이러한 형태의 모자는 원정모(圓頂帽)라 불린다. 원정모는 원(元) 황제는 물론 귀족들이 직접 착용한 원나라 복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몽골간섭기 이후 고위 관리와 승려들이 착용하였으며 고려 말 조선 초에 유행하였다. 원정모를 착용한 대표적인 불상으로는 1471년 조성된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 병립상이 있다.⁵⁷⁾ 불상이 착용한 원정모형 보개는 15세기 후반기에 잠시 유행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보개는 불상의 조성시기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된다. 원정모 형식의 보개를 착용하고 있는 복신미륵의 조성시기는 원정모형 보개가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어 15세기 후반기 조성된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⁵⁸⁾

이밖에 제주도 복신미륵은 1505~1506년 제주목사를 지내기도 한 육한(陸閑)이 1491년경 조성한 옥천 대사 불상을 비롯하여 광주 십신사지 불상과 양식적 관련이 깊다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이를 통해서도 제주도 복신미륵의 조성시기가 15세기경임이 논의되었다.⁵⁹⁾ 이밖에 복신미륵은 제주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력한 계층들을 비롯하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여 조성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가능한 시기는 제주지역의 다양한 상황과 불교계의 동향을 고려했을 때 15세기경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이유로 복신미륵의 조성시기를 15세기경으로 파악하는 연구도 있다.⁶⁰⁾

복신미륵의 조성시기를 15세기경으로 판단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 중 하나는 조선시대 석불 조각의 흐름을 통해서도 파악이 가능하다. 조선시대 제작된 석조불상 중 조성시기를 알 수 있는 기록이나 명문이 있는 불상은 12구 정도가 알려져 있으며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와 같다.⁶¹⁾

- ① 보령 금강암 석불좌상(1412년, 永樂10年, 태종 12)
- ② 당진 운정리 석불입상(1428년, 宣德3年, 세종 10)
- ③ 예산 장신리 마애불상(1465년, 成化1年, 세조 11)
- ④ 진도 금굴산 마애불상(1469~1471년, 成化5年~成化7年, 예종 1~성종 2)
- ⑤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1471년, 成化7年, 성종 2)
- ⑥ 천안 장산리 석불입상(1476년, 成化12年, 성종 7)

57) 이경화, 「坡州 龍尾里 磨崖二佛竝立像의 造成時期와 背景 - 成化7年 造成設을 提起하며-」, 『불교미술사학』(2005), pp. 75-76.

58) 정성권, 「조선전기 석조불상 연구 -편년과 양식적 특징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24(2017), pp. 197-199.

59) 이경화, 「제주의 불교미술과 자복미륵」, 『문화재』51권3호(2018), p. 116.

60) 엄기표, 「제주지역 불교 석조미술의 특징과 의의」, 『탐라문화』54(2017), pp. 159-164.

61) 조선전기의 불상은 정성권, 위의 논문, p. 195를 참조하였으며 조선후기의 명문 불상은 최성은, 『석불·마애불』(예경, 2003), pp. 436-441을 참조하였다.

- ⑦ 안양 망해암 석조여래입상(1479년, 成化 15年, 성종 10)
- ⑧ 공주 일락산 마애지장보살입상(1465~1487년, 成化年間, 세조 11~성종 18)
- ⑨ 서울 약사사 석불입상(1490년, 弘治3년, 성종 21)
- ⑩ 서울 상운사 석불좌상(1497, 弘治10年, 연산군 3)
- ⑪ 서울 관악산 마애불좌상(1630, 崇禎3年, 인조 8)
- ⑫ 청주 용정동 순치9년명석불상(1652, 順治9年, 효종 3)
- ⑬ 안양 삼막사 마애삼존불좌상(1763, 乾隆28年, 영조 39)

조선시대 명문기록이 있는 석조불상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불상이 15세기까지 조성되었으며 그 후 한동안 명문기록이 있는 불상 조성의 명맥이 끊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명문기록이 있는 석조불상 중 많은 수가 성화(成化)연간에 조성되고 있음은 주목된다. 조선의 건국이념은 숭유억불이었다. 그러나 명문기록이 있는 석조불상은 15세기까지 왕실을 비롯하여 일반 백성들까지 불교가 광범위하게 신봉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복신미륵은 제주읍성을 사이에 두고 1.56km정도 떨어진 채 서로 마주보고 서있다. 복신미륵은 그 위치를 통해 보았을 때 제주읍성을 염두에 두고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제주읍성 중앙에는 제주목 관아가 있으며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되어 머물렀다. 유교를 최고의 이데올로기로 여기는 조선의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관리가 읍성 주변에 불상을 건립하는 것을 용인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가 그것을 용납해야만 한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는 명문기록이 있는 석조불상의 조성시기를 통해 보았을 때 석조불상이 집중적으로 조성되는 15세기 후반으로 파악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복신미륵의 보개가 15세기경 잠시 유행하였던 시대적 특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복신미륵의 조성시기는 15세기 후반경으로 파악된다.

복신미륵은 석조불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만의 특색이 강하게 남아있는 특징이 있다. 복신미륵은 예전부터 내려온 전형적인 석불이라기보다는 주로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야외에 조각되는 민불(民佛)에 가까운 형상으로 조각된 점이 특징적이며 두 조각상은 토속적인 요소가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⁶²⁾ 복신미륵에 토속적인 요소 또는 지역적인 요소가 강하게 반영된 이유는 대정현성 돌하르방과 정의현성 돌하르방의 영향 때문으로 판단된다.

복신미륵에 반영된 대정현성 및 정의현성 돌하르방의 영향은 얼굴 표현에서 쉽게 살펴볼 수 있다. 복신미륵은 이중동심원을 이용하여 타원형으로 만든 눈을 얼굴 표면에서 돌출되게 조각하였다. 복신미륵의 입은 'U'자형으로 만들어 살짝 미소짓게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모습은 대정현성 돌하르방의 전형적인

62) 엄기표, 「제주지역 불교 석조미술의 특징과 의의」 『탐라문화』54(2017), p. 160.

특징이다. 복신미륵의 코는 삼각형 모양이다. 대정현성 돌하르방과 정의현성 돌하르방의 코는 'I'자 형태인데 정의현성 동문 돌하르방의 코는 삼각형 모양에 가깝게 조각되어 있어 복신미륵의 코는 정의현성 돌하르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정현성 돌하르방의 얼굴은 평평하게 조각되어 있다. 이에 반해 복신미륵은 얼굴에서 광대뼈가 살짝 도드라지게 만들었는데 이는 정의현성 돌하르방의 얼굴에서 보이는 조각표현이다. 복신미륵의 귀는 대정현성, 정의현성 돌하르방과 같이 'C'자 형태이다.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귀가 'I'자 형태이다. 즉, 얼굴표현만 놓고 보았을 때 복신미륵의 얼굴에는 대정현성과 정의현성 돌하르방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도 32~35)

복신미륵은 양 손을 가슴에 마주대고 있다. 이러한 수인은 대정현성 돌하르방 중 2-34호와 2-41호 돌하르방의 수인과 유사한 형태이다. 대정현성 돌하르방은 측면에서 보았을 때 'ㄱ'자 형태의 팔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정의현성 돌하르방은 측면에서 보았을 때 팔이 보이지 않고 넓은 도포자락을 걸치고 있는 형태이다. 복신미륵의 측면 역시 넓은 도포자락이 흘러내리고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보았을 때 복신미륵의 수인은 대정현성을 모방하였고 복식형태는 정의현성 돌하르방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신미륵은 대정현성 돌하르방과 정의현성 돌하르방의 조형적 특징을 모방하여 조성된 석불이다. 대정현성 및 정의현성 돌하르방과 복신미륵의 조형적 영향관계는 제주도 돌하르방의 조성시기를 밝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제주도에서 가장 큰 석조 작품인 복신미륵은 15세기 후반경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정현성은 1418년 축성되었으며 정의현성은 1423년에 현재의 자리에 건립되었다. 15세기 후반경에 만들어진 복신미륵에 대정현성과 정의현성 돌하르방의 특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대정현성과 정의현성 돌하르방의 조성시기는 각 현성이 축성된 직후로 추정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⁶³⁾ 다만 대정현성 돌하르방 4기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13세기 후반~14세기 전반기 만들어진 후 대정현성이 축성된 직후에 성문 앞으로 옮겨온 것으로 파악된다.

63) 정성권, 앞의 글(2015), p.219.



도 32. 복신미륵 (동자복) 정면



도 33. 복신미륵 (동자복) 측면



도 34. 복신미륵 (서자복) 정면



도 35. 복신미륵 (서자복) 측면

IV. 맺음말

제주도 돌하르방은 어디서 왔을까?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이 본 글의 목적이었다. 그동안의 연구는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을 다양한 곳에서 찾았다. 그 결과 2000년대 초반까지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에 대한 학설은 남방기원설, 북방기원설, 제주자생설 등이 주장되었고, 근래에는 북방기원설과 육지 석장승 영향설 등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이중 북방기원설은 몽골 훈족로 기원설, 돌궐 석인상 영향설, 요대 석인상 기원설 등이 제기되었다.

백가쟁명식의 다양한 학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돌하르방의 기원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함을 본 논문에서 주장하였다. 그 방법은 제주도 돌하르방과 불교조각과의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먼저 제주도 돌하르방에 관한 문헌기록을 살펴보았다. 문헌 기록과 더불어 18세기 주로 만들어진 육지 석장승과 제주읍성 돌하르방 양식 비교를 병행하였다. 그 결과 제주읍성 돌하르방이 1754년 목사 김몽규에 의해 조성되었다는 김석익의 『탐라기년』 기록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754년 조성된 제주읍성 돌하르방 이외에 대정현성과 정의현성 돌하르방의 기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대정현성과 정의현성은 조선 초기에 축성된 읍성이며 돌하르방은 읍성 앞에 세워져 있다. 그런데 대정현성 돌하르방 중 일부 돌하르방에서 조선 초기에 나타날 수 없는 외래적 요소가 강하게 보이고 있어 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대정현성 돌하르방 2-34호에는 평평한 얼굴, 이중동심원을 이용한 돌출된 눈 표현, 목 주변을 두터운 음각선으로 연마해 놓은 모습, 목 아래 11자 형식의 복식 표현, 장방형 모양을 연결해 만든 허리띠 등이 표현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유라시아 초원지대에 산재해 있는 돌궐계 석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래적 요소이다.

외래적 요소가 대정현성 돌하르방 일부에서 나타나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구비전승과 진주 대하고등학교 석상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정현성 돌하르방 중 상대적으로 조각솜씨가 우수하고 크기가 큰 4기의 돌하르방이 13세기 후반~14세기 전반기에 몽골제국 중 킵차크 칸국 출신 하치(목동)들에 의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하치들이 자신들의 고향에서 일상적으로 보아왔던 돌궐계 석인상들을 모방하여 제주도에서 13~14세기경 비슷한 유형의 석상을 만든 것이 돌하르방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이 돌하르방은 15세기 전반기 대정현성 성문 앞으로 옮겨가며 성문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부여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대정현성 돌하르방의 건립 이후 곧이어 15세기 전반경 정의현성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대정현성과 정의현성 돌하르방이 15세기 전반경에 성문 앞에 세워진 것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불교조각인 복신미륵의 분석을 통해서 밝힐 수 있었다.

복신미륵은 15세기 후반경에 잠시 유행한 원정모형 보개를 착용하고 있는 점과 다른 불상과의 비교 등을 통해 15세기 후반에 조성된 불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정현성과 정의현성 돌하르방이 15세기 후반 이전, 15세기 전반경에 대정과 정의현성 성문 앞에 건립된 것을 밝힐 수 있었다.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17세기 집중적으로 재건되고 새롭게 만들어진 사찰의 사천왕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이마 위의 굽은 주름과 왕방울 눈, 주먹코 등의 특징은 17세기 우리나라 사천왕상에서 등장한 조선의 양식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돌하르방 요대 기원설의 근거가 된 중국 건평박물관 요대 석인상은 양식과 형식의 발전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술사의 연구방법론상 요대 작품으로 보기 어려운 석상이라는 점을 논하였다.

정리하면 제주도 돌하르방은 돌궐계 석인상의 영향을 받아 킵차크 칸국 출신의 몽골인들이 바람 부는 제주도 언덕에 조성한 4기의 대정현성 석상이 그 기원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이 석상은 대정현성이 축성되며 성문 앞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 대정현성 돌하르방이 만들어진 후 곧이어 정의현성 돌하르방이 건립되었다. 15세기 성문 앞에 석인상을 세우는 유행은 제주읍성에 영향을 주어 복신미륵을 건립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들어와 목사 김몽규는 대정현성과 정의현성 돌하르방과 육지 석장승 등을 참고로 하여 준수하고 당당한 제주읍성 돌하르방을 새롭게 창안하였다. 제주도 돌하르방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유라시아 대륙과 교류를 통해 새롭게 창안해 낸 아시아 대륙의 대표적인 석인상이라 말할 수 있다.

<문헌>

柳得恭, 『冷齋集』

李元鎮, 『耽羅志』

<단행본>

金錫翼, 『耽羅紀年』, 제주: 瀛洲書館, 1918.

김유정, 『제주 미술의 역사』, 서울: 파피루스, 2007.

盧啓鉉, 『麗蒙外交史』, 서울: 甲寅出版社, 1993.

테 바이에르, 『몽골석인상의 연구』, 서울: 혜안, 1994.

유홍준 외, 『장승』, 서울: 열화당, 1988.

이개석, 『고려-대원 관계 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2013.

이형상, 『남한박물』, 서울: 푸른역사, 2009.

주강현, 『우리문화의 수수께끼』 I, 서울: 한겨레신문사, 2004.

秦聖麒, 『南國의 傳說』, 서울: 一志社, 1968.

찰스 헬퍼린, 『킵차크 칸국: 중세 러시아를 강타한 몽골의 충격』, 서울: 글항아리, 2020.

최성은, 『석불·마애불』, 서울: 예경, 2003.

홍성익, 『청평사와 한국불교』, 서울: 경인문화사, 2009.

<논문>

강창언 외, 「제주도 石像에 관한 一研究」, 『濟州道史研究』7, 1998.

고창석, 「원대의 제주도 목장」, 『濟州史學』 창간호, 1985.

권현주, 「실크로드 출토 유물에 보이는 대(帶)의 유형 및 특징」, 『실크로드의 복식과 동서 문화교역』, 대구: 계명대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 2021.

김민규, 「경북궁 인수형(麟獸形) 서수상(瑞獸像)의 제작시기와 별간역(別看役) 연구」, 『문화재』 47권1호, 2014.

김병모, 「한국 석상문화 소고」, 『한국학논집』2, 1982.

김새미오, 「심재(心齋) 김석익(金錫翼)의 삶과 저술에 대한 일고」, 『영주어문』31, 2015.

金榮敦, 「濟州·大靜·旌義 主縣城 石像」, 『문화인류학』5, 1972.

金榮敦, 「돌하르방」, 『朝鮮時代 濟州文物展』, 濟州大學校博物館, 1992.

김유정, 「돌하르방 북방·남방 기원설에 대한 재론」, 『耽羅文化』31, 2007.

金日宇, 『高麗時代 耽羅史 研究』, 신서원, 2000.

김정선, 「翁仲石: 돌하르방에 대한 고찰」, 『耽羅文化』33, 2008.

魯明信, 「松廣寺 사천왕상에 대한 고찰」, 『강좌미술사』13, 1999.

文基善, 「돌하르방의 解剖學的 研究」, 『제주대학 논문집』13, 1981.

엄기표, 「제주지역 불교 석조미술의 특징과 의의」, 『탐라문화』54, 2017.

우실하,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과 요대 석인상」, 『몽골학』51, 2017.

- 윤형원, G. 에렉젠, 「몽골 석인상의 편년과 상징성에 대한 일고찰」, 『中央 아시아 研究』 11, 2006.
- 이경화, 「坡州 龍尾里 磨崖二佛竝立像의 造成時期와 背景 - 成化7年 造成設을 提起하며-」, 『불교미술사학』 3, 2005.
- 이경화, 「제주의 불교미술과 자복미륵」, 『문화재』 51권3호, 2018.
- 李琪亨, 「〈제주도 전설〉 녹편 하르방」 『제주도』 8, 1963.
- 정성권, 「제주도 돌하르방에 관한 연구 -양식적 특징 및 조성시기를 중심으로-」, 『史學志』 34, 2001.
- 정성권,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과 전개」, 『耽羅文化』 50, 2015.
- 정성권, 「조선전기 석조불상 연구 -편년과 양식적 특징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24, 2017.
- 정승모, 「장승의 기원과 웅중석」, 『문화재』 46권1호, 2013.
- 정은우, 「조선후기 대형 소조사천왕상의 구조와 제작기법 연구」, 『불교미술사학』 22, 2016.
- 주수완, 「조선 전반기 불교건축과 예배상과의 관계에서 본 도상의미 연구」, 『강좌미술사』 36, 2011.
- 주채혁, 「몽골·고려사의 한 고찰-알랑여신과 이어도, 돌하르방, 몽골호칭 등에 관한 문제 제기」, 『인문과학연구』 1, 1990.
- 주채혁, 「제주도 돌하르방 연구의 몇가지 문제점 : 그 기능과 형태 및 계통 - 동몽골 다리강가 훈출로와 관련하여」, 『江原史學』 9(1993).
- 주채혁, 「제주도 돌하르방 연구의 몇가지 문제점 : 그 명칭과 개념정의 및 존재시기 - 동몽골 다리강가 훈출로와 관련하여」, 『청대사림』 6, 1994.
- 주채혁, 「돌하르방은 석궁왕(石弓王), 쿠빌라이 대칸의 탐라도 환생석」, 『한국 시베리아연구』 20권2호, 2016.
- 玄容駿, 「濟州石像 ‘우석목’ 小考」, 『제주도』 8, 1963.
- 황시권, 「제주도 돌하르방의 종합적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 황시권, 「제주도 돌하르방의 제작시기 고찰」, 『耽羅文化』 61, 2019.
- 황시권, 「돌하르방의 문화재 가치 재정립과 관리제도 개선방안」, 『탐라문화』 64, 2020.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 문제와 불교조각과의 관계

정성권(단국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제주도 돌하르방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며 제주 문화의 아이콘이다. 제주도 돌하르방은 제주·대정·정의, 삼주현성(三州縣城) 성문밖에 세워져 있었던 48기의 석인상(현존 47기)이 전근대시대부터 내려온 돌하르방이다.

본문에서는 먼저 제주읍성 돌하르방이 1754년 목사 김몽규에 의해 조성되었다는 기록은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밝혔다. 대정현성과 정의현성은 조선 초기에 축성된 읍성이며 돌하르방은 읍성 앞에 세워져 있다. 그런데 대정현성 돌하르방 중 2·34호에는 돌궐계 석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래적 요소가 강하게 포함되어있다. 본문에서는 돌궐계 석인상과 대정현성 돌하르방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정현성 돌하르방 중 상대적으로 조각솜씨가 우수하고 크기가 큰 4기의 돌하르방은 13세기 후반~14세기 전반기에 몽골제국 중 킵차크 칸국 출신 하치(목동)들에 의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이 돌하르방은 15세기 전반기 대정현성 성문 앞으로 옮겨가며 성문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부여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대정현성 돌하르방의 건립 이후 곧이어 15세기 전반경 정의현성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대정현성과 정의현성 돌하르방이 15세기 전반경에 성문 앞에 세워진 것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불교조각인 복신미륵의 분석을 통해서 밝힐 수 있었다.

복신미륵은 15세기 후반경에 잠시 유행한 원정모형 보개를 차용하고 있는 점과 다른 불상과의 비교 등을 통해 15세기 후반에 조성된 불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정현성과 정의현성 돌하르방이 15세기 후반 이전, 15세기 전반경에 대정과 정의현성 성문 앞에 건립된 것을 밝힐 수 있었다.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17세기 새롭게 만들어진 사찰의 사천왕상과 얼굴의 생김새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주도 돌하르방은 돌궐계 석인상의 영향을 받아 킵차크 칸국 출신의 몽골인들이 바람 부는 제주도 언덕에 조성한 4기의 대정현성 석상이 그 기원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이 석상은 대정현성이 축성되며 성문 앞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 대정현성 돌하르방이 만들어진 후 곧이어 정의현성 돌하르방이 건립되었다. 15세기 성문 앞에 석인상을 세우는 유행은 제주읍성에 영향을 주어 복신미륵을 건립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들어와 목사 김몽규는 대정현성과 정의현성 돌하르방과 육지 석장승 등을 참고로 하여 준수하고 당당한 제주읍성

돌하르방을 새롭게 창안하였다. 제주도 돌하르방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유라시아 대륙과 교류를 통해 새롭게 창안해 낸 아시아 대륙의 대표적인 석인상이라 말할 수 있다.

키워드: 제주도, 제주읍성 돌하르방, 대정현성 돌하르방, 정의현성 돌하르방, 돌곶계 석인상, 훈출로

The Relationship between Buddhist Sculpture and the Question of the Origin of *Dolhareubang* in Jeju

Jeong, SeongKwon(Dankook University, Academic Research Professor)

Dolhareubang (stone grandfathers) are stone statues that have become leading symbols of Jeju and an iconic part of the island's culture. They were originally placed outside the gates of Jeju's three walled towns; 47 of the original 48 statues created in the pre-modern era have survived to the present day.

This study begins by revealing the strong credibility of documents stating that the *Dolhareubang* originally located at the walled town of Jeju, the island's center of administration, were created under the orders of Kim Mong-Gyu in 1754 during his term in office as the island's magistrate. The town walls of Daejeong-hyeon and Jeongui-hyeon were constructed in the early Joseon Dynasty period, and *Dolhareubang* were placed outside their gates. However, one of the *Dolhareubang* in Daejeong-hyeon, #2-34, has features that are foreign to Jeju but highly characteristic of stone statues that are widespread in regions that were controlled and influenced by the Turkish khanates. This study contains a comparative analysis of statues from those areas and the *Dolhareubang* statues in Daejeong-hyeon. This analysis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it is highly likely that four of the Daejeong-hyeon *Dolhareubang*, which are relatively large and carved with a high degree of skill, were created between the latter half of the 13th century and the first half of the 14th century by hachi (herdsmen) originating from the Kipchak Khanate, part of the Mongol Empire, during the Mongol occupation of Jeju.

These *Dolhareubang* seem to have been moved from their original locations to the entrance gates of the walled town of Daejeong-hyeon in the first half of the 15th century, where they took on the role of guardians of the town gates. The *Dolhareubang* at Jeongui-hyeon are thought by scholars to have been sculpted soon after this, towards the end of the early 15th century. Through an analysis of Jeju's leading examples of Buddhist sculpture, the boksin mireuk (Maitreya god of good fortune) statues, I was able to show that *Dolhareubang* were placed outside the gates of Daejeong-hyeon and Jeongui-hyeon around the first half of the 15th century.

I was led to conclude that the boksin mireuk statues were sculpted sometime around the latter half of the 15th century based on the fact that they have hats with rounded tops called bogae that were fashionable for a short period around that time, and by comparison with other Buddhist statues. I was able to show, therefore, that the Daejeong-hyeon and Jeongui-hyeon *Dolhareubang*

were placed in front of the gates of the walled towns sometime in the first half of the 15th century, prior to the second half of the 15th century. The facial expressions of the *Dolhareubang* at the town of Jeju bear a close resemblance to sacheonwang (four devas) statues at temples first built during the 17th century.

The origin of Jeju's *Dolhareubang* can be found in the four *Dolhareubang* at Daejeong-hyeon which were created by Mongolian herdsmen born in the Kipchak Khanate, who placed them on top of hills on the island; the style of those *Dolhareubang* was influenced by stone statues from regions controlled and influenced by Turkic people and their culture. These *Dolhareubang* were later moved from the hilltops to the entrances of Daejeong-hyeon when walls were built around the town, and took on the role of guardian spirits. *Dolhareubang* were set up at Jeongui-hyeon shortly after the Daejeong-hyeon *Dolhareubang* were constructed. This 15th century trend of placing stone statues at the entrances to walled towns on the island influenced the creation of the boksin mireuk statues at the town of Jeju. Following the example of the *Dolhareubang* at Daejeong-hyeon and Jeongui-hyeon, and the tradition of setting up seokjangseung (stone totem poles) on the Korean peninsula, one of Jeju's 18th century magistrates, Kim Mong-Gyu, ordered the creation of *Dolhareubang* for the town of Jeju. Jeju's *Dolhareubang* can be considered as representative examples of Asian stone statues, which were built due to an exchange of culture between Korea and the Eurasian continent.

Keywords: Jeju, Jeju-eupseong *Dolhareubang*, Daejeong-hyeon *Dolhareubang*, Jeongui-hyeon *Dolhareubang*, Turkish stone statues, khun chuluu, Mongolian stone statues, Kurgan stelae, balbal

제2부

조선후기~근대 제주 불교문화의 특징

새로운 성소(聖所)의 오래된 성물(聖物), 제주도 소재 조선시대 불상

양수미(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근대기 제주 불화와 관음사 후불도

이승희(덕성여자대학교 연구교수)

1940년대 제주 포교당 건립과 금융 일섭(金蓉日燮)의 불사

김영희(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새로운 성소(聖所)의 오래된 성물(聖物)

제주도 소재 조선시대 불상

양수미*

I. 머리말

II. 제주도의 불교와 불교미술의 역사

III. 옮겨진 상들, 제주도 소재 조선시대 불상

1. 서산사 목조보살좌상
2. 월계사 목조아미타불좌상
3. 삼광사 목조보살좌상
4.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
5. 정방사 석조여래좌상
6. 용문사 목조석가불좌상

IV. 맺음말

I. 머리말

새로운 지역에서 사찰을 개창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도량을 건립하려는 원력을 세운 창건주와 후원자들, 사찰을 이끌어갈 승려들, 불교사원으로서 법식을 갖추 수 있는 불상과 불구 등이 필수적인 요소일 것이다. 특히 불상을 조성하고 봉안하는 것은 사찰이 종교적인 성소(聖所)로서 기능하는 데에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때 사찰을 이루기 위해서 불상을 갖추는 데에는 반드시 새롭게 만들어 봉안한 상만이 유의미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것은 아니다. 이 글은 이처럼 최초로 봉안되었던 장소성이 탈각된 불교 조각들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제주도에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 20여 점이 전한다. 그러나 이 상들 대부분은 20세기 이후에 제주로 이운된 것으로 제작 당시부터 제주 불교사의 맥락에 속했던 상들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이들을 제주도의 조선시대 불상으로 받아들이거나 제주에서 재봉안된 맥락을 분리하고 조선시대 불교 조각사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에 전하는 조선시대 불상들의 성격과 의미를 어느 한 범주 안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불상들이 이운되기 이전까지 전개된 제주의 불교와 불교미술의 현황을 살펴보고 확실한 제작 연대와 원봉안처를 가진 조선시대 불상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제주도에 전하는 조선시대 불상이 가진 성격과 제주 불교사에서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II. 제주의 불교와 불교미술의 역사

제주의 불교와 불교미술의 역사를 하나의 명쾌한 서사로 재구성하는 일은 쉽지 않다. 오랜 시간에 걸쳐 흔적을 축적해 온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제주의 불교와 불교미술에 대해서는 그 실체를 파악할 만한 자료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견 주목할 만한 흐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헌에 산견되는 기록과 고고학적인 발굴 성과로 확인된 사실들은 제주 역시 오래전부터 불교를 수용하고 그에 따른 신앙 활동을 이어왔음을 짐작하게 한다.

제주에 전하는 조선시대 불상들의 불교사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대 이전 제주의 불교와 불교미술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근대 이전 제주의 불교와 불교미술을 둘러싼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어떻게 후대에 작용했는지에 대한 단서로 삼고자 한다.

제주는 고려 1105년(숙종 10)에 고려의 군현 중 하나인 탐라군(耽羅郡)으로 편입되기 전까지 탐라(耽羅)라는 독립적인 정치체였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시기 제주의 불교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고려사』나 『고려사절요』에는 고려 건국 초기부터 탐라가 공물을 바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고려 조정에 출입했던 기록, 팔관회와 같은 국가 의례에 참석했다는 내용과 대규모 사찰 창건을 위한 벌목이나 조영 과정에 탐라 사람들이 동원된 기록 등이 전하고 있으므로 불교와의 접점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¹⁾

1) 『고려사』 권 6, 세가 6, 정종 즉위년 11월; 『고려사』 권 6, 세가 6, 정종 2년 11월; 『고려사』 권 9, 세가 9, 문종 27년 11월

이후 수정사(水精寺), 법화사(法華寺), 원당사(元堂寺), 존자암(尊者庵)과 같은 사찰이 세워지면서 제주에서도 본격적으로 불교가 신앙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고려시대 제주의 대표적인 불교사원으로 조선시대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수정사와 법화사는 국가의 보호를 받던 비보사찰(裨補寺刹)로서 조선 전기까지도 상당한 사세를 유지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찰들 외에도 묘련사, 서천암, 보문암 등에 대한 기록이 전하고 제주 전역에서 고려 중기~조선 초기에 이르는 사찰지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고려시대 제주에서 불교가 다른 지역 못지않게 번성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 사찰들에는 당연히 불상이 봉안되었을 것이나 지금까지 전하는 예는 없다.²⁾

조선시대 이후 제주도의 불교와 불교미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 역시 많지 않다. 지리지와 각종 개인 문집에 전하는 단상을 통해서 조선시대 제주의 불교 현황을 일부 파악해 볼 수 있다. 1530년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제주의 사찰로 존자암, 월계사, 수정사, 묘련사, 문수암, 만수사, 해룡사, 강림사, 보문사, 서천암, 소림사, 관음사, 영천사, 법화사, 성불암 등 15개소를 기록하고 있다. 이보다 약 100년 이후에 출간된 이원진(李元鎭, 1594~1665)의 『탐라지(耽羅志)』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언급되지 않은 안심사, 원당사, 돈수암, 굴사, 광지사 등의 절 이름이 보인다. 17세기 이후 제주의 불교는 쇠퇴의 길을 걸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601년 안무어사로 제주에 왔던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의 『남사록(南槎錄)』이나 1679년 제주에 왔던 이증(李增, 1628~1686)의 『남사일록(南槎日錄)』 등의 기록에서는 당시 사찰이나 승려들의 곤궁한 상황을 전하고 있다.

근대 이전 제주 불교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는 1702년에 있었던 제주 목사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의 신당·사찰 철폐 사건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 『남한박물(南宦博物)』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경위를 적고 있다. 이 조치는 제주의 여러 가지 병폐를 없애 줄 것을 요청하는 장계를 받아준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 유생들이 신당과 사찰을 없애고 무당들은 자발적으로 농민으로 돌아가기를 요청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의 장면을 그린 것이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의 ‘진포배은(巾浦拜恩)’ 장면이다(도 1).³⁾

2) 태종 6년(1406)에 있었던 법화사 삼존불상의 명나라 이송에 대한 기록은 당시 제주에 실존했던 불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흥미롭다. 1406년 명의 영락제는 선황비와 황후를 기리기 위한 행사에 쓸 목적으로 제주도 법화사에 봉안된 금동불상의 이운을 요구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사행에 동행했던 韓帖木兒는 이 상이 아미타삼존이며 원나라 때의 뛰어난 장인이 만든 것으로 밝히고 있다. 법화사 삼존불상의 명나라 이송에 대한 내용은 朴現圭, 「제주도 法華寺 三尊佛像과 南京 大報恩寺의 관계」, 『中國史研究』58(2009), pp. 129-154 참조.

3) 그림 하단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壬午十二月二十日 / 鄉品文武上下并三百餘人 / 燒火神堂一百二十九處 / 破毀寺刹五處 / 巫覡歸農二百八十五名”



도1. 이형상 편찬, 김남길 그림, 『탐라순력도』 중 <건포배>, 1703년, 지본채색, 55×35.5cm,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소장, 보물(국립제주박물관 제공)

이 그림은 『탐라순력도』의 마지막 부분에 실려 있는 것으로, 이날의 일은 이형상 목사 자신이 서문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로 언급할 만큼 그의 기억에 강렬하게 남은 사건이었다. 그림은 1702월 12월 20일 이형상과 제주의 관리 300여 명이 건입포에 모여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북쪽을 향해서 절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포착하고 있다. 그 뒤로는 신당(神堂)과 사찰이 불에 타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광경이 보인다. 조선시대에 불교가 정책적으로 억압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를 시각화한 자료로는 아마 이 그림이 유일할 것이다.

이형상 목사의 사원 철폐 이후 제주의 불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러나 제주의 불교는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타격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경향은 20세기 이후 제주의 근대 불교가 태동하기 전까지는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에 광범위하게 촬영된 유리건판 자료에도 다른 지역과는 달리 불교 사적(史跡)에 대한 자료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제주지역에서 촬영된 건판 사진들은 민족지학적인 관점에서 수집된 자료가 대부분으로 복신미륵의 흔적만 확인되는 정도다. 제주의 불교는 1909년에 관음사가 창건되면서 비로소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다음 장에서 다루는 제주도 소재 조선시대 불상들은 바로 이 새로운 시대와 함께 제주 불교의 역사에 등장한 상들이다.

Ⅲ. 옮겨진 상들, 제주도 소재 조선시대 불상

지금까지 알려진 제주도 소재 조선시대 불교 조각은 약 25점으로 추산된다.⁴⁾ 이 가운데는 발원문 등의 기록을 통해서 명확한 제작 시기와 제작자, 원봉안처, 제작 배경 등을 알 수 있는 상 6점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상들 대부분이 제주가 아닌 외지에서 만들어진 뒤 전해진 것으로 원봉안처를 떠나 새롭게 봉안된 상들이라는 점이다. 상이 봉안된 사찰들은 모두 20세기 이후에 새롭게 창건된 사찰들이기 때문에 이 현상이 근현대 제주도의 불교계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제주도에 전하는 불교 조각 가운데 제작연대가 확실한 단독 불보살상을 중심으로 조각상들의 현황과 이 상들이 원봉안처를 떠나 이운된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제주도에 전하는 조선시대 불교 조각의 미술사적, 불교사적 의의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⁵⁾

〈표 1〉 제주도 소재 조선시대 불상 목록⁶⁾

연번	명칭	제작연대	원봉안처	원봉안처	비고
			창건연대		
1	목조보살좌상	1534년	서귀포시 서산사(西山寺)	전남 나주 추정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1943년		

4) '2003년 전국 사찰 문화재 일제 조사'와 '2008년 제주도 불교문화재 현황 조사'에 의하면 도지정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서 공개된 자료 이외에도 九龍寺, 院堂寺, 忠魂閣, 開法寺, 古觀寺, 金剛寺, 金龍寺, 德林寺, 極樂寺 등의 사찰에 조선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교조각들이 전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제주도 소재 불교문화재의 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단, 『한국의 사찰문화재-전라북도, 제주도』,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단(2003), pp. 180-193;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회관, 『제주 불교문화재 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2008), pp. 13-78; 문명대 외, 『朝鮮時代記錄文化財 資料集Ⅱ』, (사)한국미술사연구소 출판부, 2012), pp. 412-421.

5) 이 글에서는 원봉안처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주불로 봉안된 상들을 중심으로 고찰했기 때문에 서귀포 영조사에 보관중인 목조불감은 논외로 했다. 이 불감은 1692년 수조각승 端應과 보조 조각승 卓密, 普雄, 宗印 등이 제작한 것으로 昭影大禪師의 願佛로서 조성된 것이다. 원봉안처에 대해서는 함경도 지역의 사찰로 추정된 의견이 있다(송은석, 『義城 大谷寺 나한전 존상과 조각승 卓密』, 『석당논총』 66, 2016, p. 265, 표 1). 확실한 제작 연도와 조각승에 대한 기록을 동반한 점, 우수한 조각 기법을 보이는 점 등에서 조선 후기 불감 가운데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는 상이다.

6) 제주도에 전하는 조선시대 불교조각 가운데 도유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문화재적 가치가 검증된 상을 중심으로 목록을 작성했다. 목록에 제시된 각 사찰의 창건연대에 대해서는 제주도 불교 사찰 현황을 소개하고 있는 자료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1950년 이전의 창건 연대를 가진 사찰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 관보, 제주 교무원 자료, 불교 시보 등의 자료에 근거한 한금순의 연구 성과(한금순, 『근대 제주 불교사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0), pp. 253-257)를, 그 외의 사찰에 대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회관에서 발행한 『제주 불교문화재 자료집』(2008)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사찰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에서 이와 다른 연도를 밝히고 있는 경우에는 사찰의 의견을 따랐다(관음사의 경우 1908년과 1909년 두 가지 자료 병존, 관음사 공식 소개 자료에 따라서 1909년으로 명시).

연번	명칭	제작연대	현봉안처	원봉안처	비고
			창건연대		
2	목조아미타불좌상	1661년	제주시 월계사(月溪寺) 1937년	전남 장성 백양사 약사암 (白羊寺 藥師庵)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3	목조보살좌상	1671년	제주시 삼광사(三光寺) 1992년	전남 장성 백양산 청심대 (白羊山 淸心臺)	
4	목조관음보살좌상	1689년	제주시 관음사(觀音寺) 1909년	해남 대흥사 남암 (大興寺 南庵)	
5	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감	1692년	서귀포시 영조사(永照寺) 1951년	미상	
6	석조여래좌상	1702년	서귀포시 정방사(正房寺) 1935년	순천 대흥사(大興寺)	
7	목조석가불좌상	18세기 초	제주시 용문사 1945년	전(傳) 해남 은적사	
8	목조관음보살좌상	조선 후기	제주시 보림사(寶林寺) 1957년	전(傳) 순천 선암사(仙巖寺)	
9	석조여래좌상	조선(추정)	제주시 원명선원(圓明禪院) 1952년	미상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10	목조여래좌상	조선(추정)	제주시 월영사(月瀛寺) 1936년	미상	
11	소조여래좌상	조선(추정)	제주시 월정사(月井寺) 1934년	미상	
12	목조보살입상	조선(추정)	제주시 월정사(月井寺) 1934년	미상	
13	목조여래좌상	조선(추정)	제주시 보덕사(普德寺) 1943년	미상	
14	석조약사여래좌상	조선(추정)	제주시 선운정사(禪雲精舍) 1997년	미상	
15	복신미륵(동자복)	조선(추정)	제주시 만덕로 -	제주 만수사지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16	복신미륵(서자복)	조선(추정)	제주시 동한두길 -	제주 해륜사지	

1. 서산사 목조보살좌상(1534년 향엄(香嚴), 지현(智軒) 등 조성)

제주도에 전하는 조선시대 불교 조각 가운데 연대가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상이다. 현재 서귀포시 서산사 대웅전에 근래에 조성된 불상들과 함께 봉안되어 있다⁴²⁾. 보살상 바닥면에 있는 복장공에서 발견된 발원문의 내용을 통해서 상이 조성될 때의 상황을 알 수 있다.⁷⁾ 조성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원문은 모두 5매로 각각 별도의 종이를 사용해서 썼다. 이외에도 1920~1930년대 개금불사 기문 2매가 전한다.⁸⁾



도 2. 서산사 전경(국립제주박물관 제공)

발원문에 의하면 이 상은 1534년에 향엄(香嚴), 지현(智軒) 등이 만든 것으로 당시 이 상과 함께 조성된 불상의 협시보살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원문은 조성 연대, 발원 내용, 시주자 명단, 불사에 관여한 승려 명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주와 연화질(緣化秩)의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시주는 불상대시주(佛像大施主), 상금대시주(上金大施主), 공양대시주(供養大施主)를 필두로 100여 명의 명단을 적고 있다. 연화질의 경우에도 증명(證明), 지전(持殿), 화원(畫員), 별좌(別座), 공양주, 단청화주(丹青化主), 개와화주(蓋瓦化主) 등 불사에 관여한 승려들을 맡은 바에 따라 나누어 기록하고 있어서 이전 시기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발원문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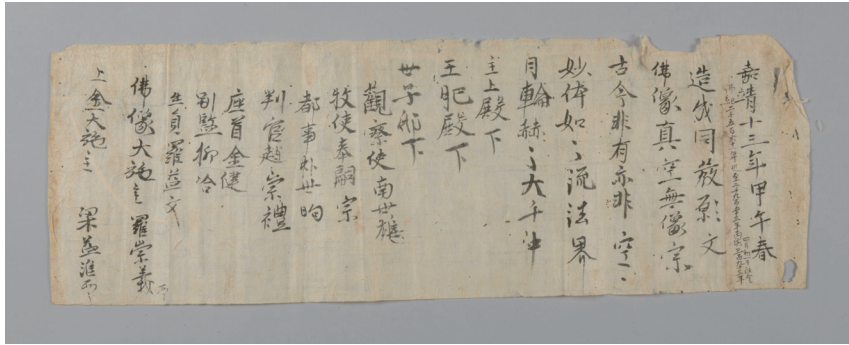
상을 발원한 이들은 관찰사 남세웅(南世雄)과 나주 목사 봉사종(奉嗣宗)을 비롯한 지역 관리들로 도사(都師) 박세구(朴世畇), 판관(判官) 조종례(趙宗禮), 좌수(座首) 김건(金健), 별감(別監) 절휼(折洽), 생원(生員)

7) 기존의 보고 내용에 따르면 발원문과 함께 복장물(金剛手菩薩呪文 2매, 사리 3과, 오방경 2개, 팔엽대홍련 1개, 백옥제 보탑 1개, 호박 6개, 수정 2개, 약초봉지 13개)이 확인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앞의 책(2008), pp. 38-39; 金昌化, 『朝鮮時代 濟州島 佛像 研究-紀年名 佛像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p.133, 그림 18-24 참조.

8) 발원문 전문의 석문은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단, 앞의 책(2003), p.186;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앞의 책(2008), pp. 35-38; 문명대 외, 앞의 책(2012), p. 414 참조.

9) 송은석,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주)사회평론, 2012), pp. 79-80.

나익지(羅益之) 등의 이름이 확인된다. 남세웅이 전라도 관찰사에 제수된 것은 1534년 2월의 일로, 이 상은 그가 관찰사에 임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시주자 명단에 등장하는 100여 명의 이름은 일반인과 승려, 성씨가 없는 천민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불사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¹⁰⁾



도 3. 발원문(부분), 1534년, 종이에 먹, 서산사(국립제주박물관 제공)



도 4. 향엄, 지현 등, 1534년, 나무, 높이 58cm, 서산사(국립제주박물관 제공)

서산사 보살상은 가름한 얼굴과 길고 얇게 표현된 눈, 장식 없는 청동제 보관, 장엄구를 걸치지 않은 간략한 표현 등을 특징으로 한다. 상의 존명은 알 수 없지만 16세기 전반의 불교 조각 양식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상을 만든 조각승 향엄은 이 상 외에도 1565년에 나주 운흥사 지장보살상 조성에 수조각승으로 참여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서 이후의 17세기 조각승 계보와 16세기를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로 꼽힌다.¹¹⁾ 이 상은 임진왜란 이전에 조성된 드문 예 가운데 하나로 조선 전기 불상 양식과 당시 불교도들의 신앙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¹²⁾

이 상의 최초 봉안처가 어디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발원

- 10) 이전 시기에 비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발원하여 상을 조성하는 예는 16세기 들어 보이는 새로운 경향이다. 이 상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의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 다수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결사의 맥락에서 조성된 상으로 보기도 한다. 金光熙, 「16세기 菩薩像 연구」, 『文物研究』 14(2008), p. 110.
- 11) 송은석, 「목포 달성사 명부전 존상의 조성과 중수: 향엄(香嚴), 진열(進悅)」, 『미술사와 시각문화』 18(2016), pp. 11-12.
- 12) 지금까지 알려진 16세기 불상은 약 40건으로 그 가운데 조성 연대가 확인되는 상은 약 17건이다. 16세기 불상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성과를 참고할 수 있다. 김광희, 앞의 글(2008), p. 106; 어준일, 「조선 전기 16세기의 불교조각 연구」, 『불교미술사학』 16(2013), pp. 73-80; 이희정, 「조선 전기 불상 특징과 조선 후기 17세기로의 이행」, 『한국중세고학』 6(2019), pp. 8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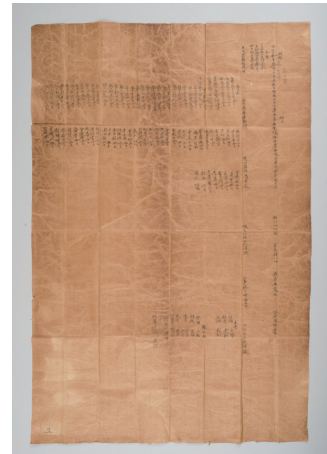
자들의 구성과 향엄이 만든 또 다른 상이 나주 운흥사에 봉안되었던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 상은 원래 나주 지역의 어느 사찰에 봉안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서산사에 이운된 시점과 계기 역시 명확하지 않은데 1943년 서산사가 창건되기 전인 1926년과 1939년에 있었던 개금불사 기록과 발원문에 추가로 적힌 '경기도 양주 수락산 학림암' 등의 내용은 이 상이 서산사에 이운되기 이전에도 원봉안처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을 가능성을 상기시켜 준다.

2. 월계사 목조아미타불좌상(1661년 운혜(雲惠), 상전(尙前) 조성)



도 5. 운혜·상전, 목조아미타불좌상, 1661년, 나무, 높이 37cm, 도 6. 복장물 일괄, 1661년, 월계사(국립제주박물관 제공)

1661년에 조각승 운혜와 상전이 제작한 목조불좌상이다. 운혜는 17세기를 대표하는 조각승 가운데 한 명으로 독립적인 유파를 이루어 해남 서동사, 화순 쌍봉사, 곡성 도립사, 강진 백련사 등 전라남도 일대에서 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³⁾ 불상 하부 복장공에서 복장물과 발원문이 발견되었는데 제작 연대, 원봉안처, 시주자와 제작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¹⁴⁾ 이 상은 원래 전라남도 장성(점선 표시 안쪽, 발원문에는 압성(鴨城)으로 표기) 백양산(白羊山) 약사암에 봉안되었던 상으로 불화, 보살상과 함께 조성되었다(도 7). 주불에 대한 시주 외에도 보처보살 2구에 대한 기록이 있어 이 상이 원래 삼존상의



도 7. 발원문, 1661년, 월계사(국립제주박물관 제공)

13) 송은석, 앞의 책(2012), pp. 269-277.

14) 발원문 전문의 석문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회관, 앞의 책(2008), pp. 61-62; 문명대 외, 앞의 책(2012), p. 415; 송은석, 앞의 책(2012), pp. 534-535 참조.

주불로 조성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발원문에는 존명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수인을 통해서 아미타불로 추정하는 데에 큰 이견이 없다.

전체 높이 37cm에 불과한 크지 않은 상이지만 얼굴, 상·하체가 안정적인 구도를 이루고 있어서 주존불로서 위엄을 갖췄다. 일반적으로 운혜와 그 유파에 속한 조각승들이 만든 상은 중량감 있고 양감이 풍부한 얼굴과 신체, 입체적인 옷주름 표현 기법 등을 그 특징으로 꼽는다.¹⁵⁾ 하지만 이 상은 작은 규모 때문인지 운혜가 제작한 다른 상들에 비해서 간략하고 단순하게 조각되었다.

월계사는 1937년 백양사 한림 포교당으로 창건되었다.¹⁶⁾ 이 상이 언제 백양사 약사암을 떠나 제주도로 이운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이 상의 원봉안처가 백양사의 부속 암자였던 점, 1932년 조선총독부 관보에 고지된 백양사 약사암 재산 목록에 이 상과 부합하는 상이 없다는 점, 1951년 월계사 연혁 보고 상의 재산 목록에 백양사에서 전래된 1척 2촌의 불상이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1951년 이전에는 이 상이 월계사에 봉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당초 한림 포교당(월계사의 전신)의 설립을 계기로 이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¹⁷⁾

3. 삼광사 목조보살좌상(1671년 응혜(應惠), 계찬(戒贊) 조성)



도 8. 응혜·계찬, 목조보살좌상, 1671년, 나무, 높이 43cm, 삼광사 (국립제주박물관 제공)



도 9. 응혜, 계찬, 목조보살좌상, 1671년, 나무, 높이 43cm, 신안 일심사(최인선, 「전남 신안 일심사 목조보살상과 복장물」, 『호남문화연구』 42(2008), 사진2)

15) 최선일, 「全羅南道 和順 雙峯寺 木造地藏菩薩坐像과 彫刻僧 雲惠」, 『불교미술사학』 2(2004), pp. 199-219; 최선일, 『조선 후기 彫刻僧과 佛象 研究』(경인문화사, 2011), pp. 133-134.

16) 조선총독부 관보 제3043호(1937년 3월 9일).

17) 제주불교사연구회, 『근대 제주불교사 자료집』(2002), pp. 287-289(김창화, 앞의 글(2009), pp. 161-164 재인용); 송은석, 앞의 책(2012), p. 275 각주 207 참조.

1671년에 조각승 응혜와 계찬이 만든 상이다(도 8). 응혜는 17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조각승 가운데 한 명으로 경상도와 전라도를 근거지로 삼아 활동했던 인물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에 의하면 1639년에서 1678년까지 약 40년간 불상 제작 활동을 한 것이 확인된다. 한 가지 특기할만한 점은 그가 제작한 불상들은 40~80cm 가량의 작은 상들이 대부분으로 대개는 1~2명, 많아도 7~8명 남짓한 인원로 작업조를 꾸리는 것이 그의 작업 방식이었던 것 같다. 이 때문에 응혜는 주로 산간 암자에 봉안하기 위한 작은 불상을 주로 다루었던 조각승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¹⁸⁾

발원문에 의하면 이 보살상은 원래 장성 백양산(白羊山) 청심대(淸心臺)에 봉안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으로 아미타삼존불의 협시보살로서 조성된 상이다. 복장에서는 발원문과 더불어 황초폭자(黃綃幅子)에 싸인 후령통, 주사(朱砂) 다라니 50여 장이 발견되었다. 상호만으로는 이 상이 관음보살과 세지보살 가운데 어떤 존상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상과 함께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보살상이 전남 신안 일심사(一心寺)에 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도 9).¹⁹⁾

보살상의 얼굴은 뺨과 턱에 양감이 강조되고 눈과 입에는 열은 미소가 나타나 있어 전체적으로 온화한 인상을 준다. 군의의 옷주름이 좌우 대칭 형태로 대좌를 덮고 있어서 보살상과 대좌를 따로 만들어서 결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나무로 조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대좌와 불신을 하나의 나무로 조각한 예는 응혜가 수조각승으로 참여했던 1678년 광양 무등암 관음보살좌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상에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특징은 오른손을 낮게 들어 올려 맺은 수인의 모습이다. 이러한 수인은 응혜가 제작한 여러 조각상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를 채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⁰⁾

삼광사는 1992년에 건립된 사찰로 건립 과정에서 제주도 불교 중흥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 임덕희(林德禧, ?~2004)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삼광사 외에도 제석사, 불탑사, 보림사 등의 건립과 중흥에 힘을 보탠 인물로 20세기 중반~현대에 이르기까지 제주도 불교계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이자 조력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이 보살상이 이운된 시기와 계기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사중(寺中) 인물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상은 임덕희가 소지했던 원불로 2004년 그가 사망한 뒤 삼광사로 이운된 것이라고 한다.

18) 송은석, 「海南 大興寺의 조선 후기 불상」, 『불교미술사학』 22(2016), p. 179.

19) 최인선, 「전남 신안 일심사 목조보살상과 복장물」, 『호남문화연구』 42(2008), pp. 341-375.

20) 이같은 수인에 대해서는 응혜의 스승인 청현의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다. 송은석, 앞의 글(2016), p. 180.

4.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1698년 개금)



도 10. 작가 미상, 목조관음보살좌상, 1698년 개금, 높이 75cm, 나무, 관음사(국립제주박물관 제공)

제주도의 대표적인 사찰인 관음사에 전하는 목조보살좌상이다(도 10). 대웅전 옆에 위치한 지장전에 다른 불보살상들과 함께 봉안되어 있다. 1698년의 개금 기록과 1925년 이운과 재봉안 기록을 통해서 상에 대한 내력을 알 수 있다.²¹⁾ 먼저, 1698년의 기록(康熙 三十七年戊寅 九月二十二日點眼 靈巖郡 成道菴改金 海南郡大興寺南菴 奉安)을 통해서 이 상이 1698년 영암의 성도암에서 점안, 개금된 뒤 해남 대흥사 남암에 봉안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1925년에 작성된 <관세음보살개금원문>에는 이 상을 해남 대흥사로부터 이운하고 개금한 내력을 적고 있다. 두 기록 모두 상을 만든 조각승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상의 양식적 특징과 1698~1701년 성도암과 대흥사에서 진행된 불사의 내용에

근거해서 이 상을 당대를 대표하는 조각승 중의 한 명인 색난(色蘭)의 것으로 보기도 한다.²²⁾

이 보살상은 높이 75cm의 제법 규모가 있는 상으로 뛰어난 조각 수법을 보여주는 상이다. 얼굴은 전체적으로는 사각형이지만 미소 띤 눈과 입술, 둥글게 처리된 턱의 양감 표현 등으로 부드럽고 유려한 인상을 준다. 어깨와 무릎, 가슴 등의 신체도 둥글고 부드럽게 조각되었고 통견 형식의 두꺼운 불의를 입고 있지만 옷주름이 유연하게 조각되어 전체적으로 단아한 인상을 보여주는 뛰어난 상이다. 간략한 신체표현이나 옷주름 표현과는 대조적으로 보관은 화려하게 만들었다. 삼산관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화불과 화염문, 화문, 천관대 등의 장식을 따로 만들어 붙였다.

관음사는 잘 알려져 있듯이 근대 제주 불교사를 이끈 안봉려관(安蓬廬觀, 1865~19385)이 1909년 창건한 사찰이다. 관음사의 창건은 근대 제주 불교의 시작을 알린 사건으로 제주 사회와 지역민들 사이에 불교가 자리 잡게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창건주 안봉려관은 제주 화북 출신으로 1907년 전남 해남 대흥사에서 출가한 뒤 1908년 제주도로 돌아와 1909년 관음사를 창건했다. 창건 직후인 1910년 영봉 화상 두연과 안도월의 도움으로 경남 통영 용화사의 불상과 불화를 이운해와 봉안했고 1918년 제주도에서는 가장 먼저 조선총독부로부터 '대본산 대흥사 제주도포교당'으로서 정식 허가를 받았다.²³⁾

21) 발원문 전문은 문명대 외, 앞의 책(2012), pp. 416-417. 참조.

22) 최선일, 『조선 후기 彫刻僧과 佛像 研究』(경인문화사, 2011), pp. 168-172.

23) 관음사의 창건은 당시 제주 사회에 큰 인상을 남긴 사건으로 관음사 창건과 안봉려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이 전한다. 이 가운데 통영 용화사에서 이운한 불상에 대한 것은 김형식의 『혁암산고』 遊觀音寺記에 수록된 내용으로 1917년 관음사를 찾았던 김형식과 안봉려관이 나눈 대화에 근거한 것이다. 김형식 저, 오문복 역, 『혁암산고』(북제주문화원, 2004), pp. 279-280(한금순, 앞

〈관세음보살개금원문〉에 따르면 이 보살상은 현재의 위치에 있기에 앞서서 관음사의 시내 포교당인 제주불교협회포교소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1925년 8월 24일 해남 대흥사로부터 이운된 것이다. 같은 해 10월 초하루에 개금 점안했으며 이 불사에는 당대 저명한 포교사였던 회명 일승 비구를 비롯하여 관음사 창건주 안봉려관, 초대 주지 안도월, 이후 2대 주지로 취임하는 오이화 비구 등 사중(寺中) 인물들이 대거 참여했다. 시주질에는 승려와 개인을 비롯하여 대흥사 사중, 제주불교협회 회원 1,783명 등의 단체도 포함되어 있어 이 불사가 당시 제주 불교계에서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관음사는 4·3 사건을 지나며 1949년에 전소되었으나 1962년에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본사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재건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른다. 따라서 이 상은 1925년 해남 대흥사에서 최초로 이운된 뒤 관음사의 재건과 중흥이 진행되던 어느 시점에선가 다시 현재의 위치로 옮겨져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5. 정방사 석조여래좌상(1702년 수일(守日) 조성)

1702년 수일이 제작한 상이다. 수일(守一 또는 守日)은 17세기 말~18세기 초에 활동했던 조각승으로 알려져 있다. 발원문에 의해서 이 상이 원래 진라남도 순천 동리산(桐裡山, 현 봉두산) 대흥사(大興寺)에 과거칠불 가운데 하나인 ‘비사부불(毗舍浮佛)’로 봉안되었던 상임을 알 수 있다²⁴⁾. 대흥사는 16세기에 용대암(龍臺庵)으로 창건되어 18세기 순천의 대표적인 사찰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지만



도 11. 수일, 석조여래좌상, 1702년, 제올라이트, 높이 61.5cm, 정방사(제주특별자치도 제공)

19세기 후반 이후 폐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찰이다.²⁵⁾ 이곳에는 칠불과 더불어 오십삼불이 봉안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상들은 서귀포 정방사를 비롯해 여러 사찰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보성 용연사에는 구류손불(칠불 중 첫째 부처)과 대혜력왕불(오십삼불 중 46번째 부처)이, 남원 극락암에는 무량음성왕불(오십삼불 중 48번째 부처)이 봉안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수일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²⁶⁾

의 글(2010), p. 15. 재인용)

24) 발원문 전문의 석문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회관, 앞의 책(2008), p. 70; 문명대 외, 앞의 책(2012), p. 418.

25) 최인선, 「제주도 正房寺 所藏 순천 大興寺 石造如來坐像과 腹藏物」, 『文化史學』 23(2005), pp. 163-167.

26) 송은석, 「17세기 말-18세기 초 彫刻僧 守一의 造像 활동」, 『韓國思想과 文化』 70(2013), pp. 377-378.

이 불상은 불석(佛石, 제올라이트)으로 만든 상으로 조선 후기 불상 양식을 잘 갖추고 있다. 신체에 비해서 두부가 다소 큰 편으로 머리를 약간 숙이고 결가부좌하고 있다. 육계는 둥글고 높으며 정상계주와 중간계주가 있다. 얼굴은 거의 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가는 눈썹과 아래로 내려뜬 눈, 얇은 입술 등은 조선시대 17세기 후반 불상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특징이다. 백호가 선명하고 두 귀가 길게 표현되어있다. 신체는 균형이 잘 잡혀 있는 편으로 무릎 폭이 적당하여 상하체의 비율이 안정적이다. 통견의 대의를 입은 착의 형식도 조선 후기 불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두 손을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붙여둔 모습으로 수인이 조각되었는데 오른손은 손바닥을 위로하고 왼손은 아래로 하고 있으며 모두 엄지와 장지를 맞댄 모습이지만 이를 근거로 칠불 가운데 특정 존명을 부여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 상이 언제 어떤 계기로 원봉안처를 떠나 제주에 이운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정방사는 1935년 전남 백양사 제주도 서귀포교당으로 설립된 사찰이다.²⁷⁾ 그 전신은 서귀포시 영천동에 있었던 쌍계사(雙溪寺)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정방사에는 ‘1932년 제주도 쌍계사(雙溪寺)’에서 사용되었던 동제 불기(佛器)가 전한다. 사전(寺傳)에 의하면 이 상 역시 다른 불구들과 함께 쌍계사에서 옮겨와 초창기부터 정방사에 봉안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불상의 원봉안처였던 대흥사가 19세기 후반경에는 폐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같이 봉안되었던 상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면 사찰이 폐사된 이후 이 상 역시 어느 시점에선가 최초의 봉안처를 떠났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6. 용문사 목조석가불좌상(18세기 전반, 진열(進悅)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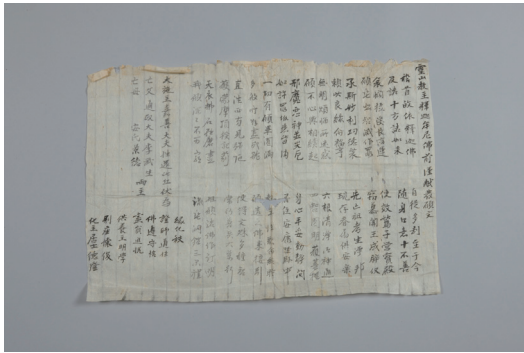
도 12. 진열, 목조석가불좌상, 18세기 전반, 나무, 높이 42cm, 용문사(국립 제주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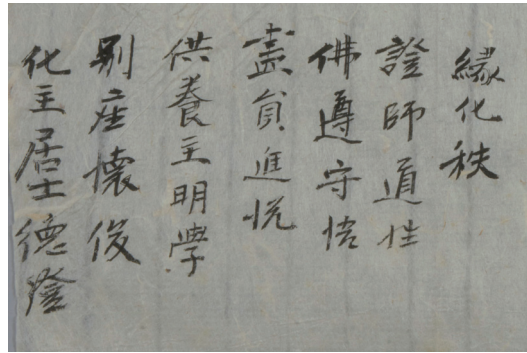
도 13. 복장물 일괄, 18세기 전반, 용문사(국립제주박물관 제공)

27) 조선총독부 관보 제2684호(1935년 12월 23일).

17세기 말~18세기 전반에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조각승 진열이 만든 목조불좌상이다²⁸⁾. 불상의 내부에서 발원문, 후령통, 경전, 다라니 등이 발견되었으며 불상의 바닥면을 마감한 나무판에도 묵서명이 있다. 발원문에는 상을 조성한 목적과 발원 내용, 불상 조상에 참여한 인물들에 대해서 적고 있다. 이 불상은 성환(性還) 비구가 돌아가신 부모님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조성한 것이다.²⁸⁾ 성환은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인물로 1656년 완주 송광사 오백나한상, 1657년 법인사 목조아미타불좌상, 1661년 범어사 목조석가삼존불상, 보림사 법당 중건 과정 등에 조각승으로서 때로는 후원자로서 참여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발원문에는 불상의 조각을 직접 담당했던 진열 외에도 도성(道性), 명학(明學), 회준(懷俊) 등 17세기 후반~18세기에 고흥, 강진, 함양 등지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 상 조성 과정에 참여했음을 밝히고 있다.²⁹⁾ 발원문 첫머리에 영산교주(靈山敎主) 석가모니불에게 귀의한다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어서 이 불상이 석가모니불로서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불상의 제작 연도와 봉안처는 기록되지 않았다.



도 14. 발원문, 18세기 전반, 종이, 용문사(국립제주박물관 제공)



도 15. 도 14의 세부, 18세기 전반, 종이, 용문사(국립제주박물관 제공)

이 불상은 전체 높이 42cm 가량의 작은 상으로, 신체에 비해서 머리가 큰 비례를 가지고 있다. 얼굴은 사각형에 가깝지만 턱을 둥글게 처리해서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인상을 준다. 이마 중앙에 백호가 큼직하게 조각되었고 이목구비 또한 크게 표현되었다. 법의는 통견으로 양쪽 팔에 걸친 옷자락이 무릎 아래까지 유려하게 흘러내리고 있다. 오른쪽 어깨의 대의 자락 일부가 가슴까지 길게 늘어지게 표현되었다. 불상의 존명, 시주자와 조각승이 확실하게 밝혀져 있으며 불사에 참여한 인물들의 활동 연대에 비추어서 18세기 전반으로 제작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상이다.³⁰⁾

28) 발원문 말미에 시주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다. “平生至願爲父母願/佛施主嘉善大夫性還伏爲/亡父通政大夫李武生/亡母安氏景德/兩主” 용문사 석가불좌상 발원문; 불상 바닥면에 적힌 묵서명의 내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平生至願爲父母願/佛施主嘉善大夫性還伏爲/亡父通政大夫李武生亡母安氏景德靈駕”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앞의 책(2008), p. 56, 도7 및 석문 참조.

29) 불상 조성에 참여한 인물들의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김창화, 앞의 글(2009), pp. 81-82, 표14-17 참조.

30) 진열의 기년작들과의 양식 비교를 통해서 이 상의 제작 연대를 1720년대 전반으로 추정한 연구성과는 유재상, 「조선 18세기 전

용문사는 1945년에 관음사 중앙포교당 하도 출장소로 창건된 사찰이다. 창건 당시에는 제주도 내 다른 사찰에서 이운된 상이 봉안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상이 용문사에 이운된 시기와 경위는 분명하지 않다.³¹⁾ 사전(寺傳)에 의하면 이 불상은 원래 해남 은적사에 봉안되어 있었던 것으로 1949년 목포 삼학사로 옮겨졌다가 이후 다시 용문사에 이운된 것이라고 한다.³²⁾

IV. 맺음말

지금까지 제주도에 전하는 조선시대 불상 가운데 제작 연대가 분명한 6점의 상을 중심으로 불상의 현황과 이 상들이 제주로 옮겨진 경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 제주도 소재 조선시대 기년명 불상의 원봉안처와 이운 시기

연번	명칭	제작 연대	조각승	현봉안처	창건연대
				원봉안처	이운연대
1	목조보살좌상	1534년	향엄(香嚴) 지현(智軒) 등	서귀포시 서산사(西山寺)	1943년
				전남 나주 추정	미상
2	목조아미타불좌상	1661년	운혜(雲惠) 상전(尙前)	제주시 월계사(月溪寺)	1937년
				전남 장성 백양사 약사암(白羊寺 藥師庵)	1937~1951년
3	목조보살좌상	1671년	응혜(應惠) 계찬(戒贊)	제주시 삼광사(三光寺)	1992년
				전남 장성 백양산 청심대(淸心臺)	2004년
4	목조관음보살좌상	1689년	미상	제주시 관음사(觀音寺)	1909년
				전남 해남 대흥사 남암(大興寺 南庵)	1925년
5	석조여래좌상	1702년	수일(守日)	서귀포시 정방사(正房寺)	1935년
				전남 순천 대흥사(大興寺)	1935년 이전
6	목조석가불좌상	18세기 전반	진열(進悅)	제주시 용문사	1945년
				傳 전남 해남 은적사	1972년/1997년

반 조각승(彫刻僧) 진열(進悅)의 불상 연구-작풍(作風)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불교미술사학』 30(2020), p.84, 참조.

31) 1951년 제주도 불교 교무원에 제출한 재산 목록에는 불화 2점과 불상 1점이 기록되어 있는데 각각 구례 화엄사와 서귀포 洪爐寺에서 이운, 봉안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목록에 언급된 불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 제주불교사연구회, 『근대제주 불교사자료집』(2002), pp. 276-277(김창화, 앞의 글, pp. 172-173 재인용).

32) 제주도로 이운 시기에 대해서는 도유형문화재 지정 자료에는 1972년으로 최근 연구성과에서는 1997년으로 언급하고 있다. 강금림, 『제주도 문화유산 보유사찰의 분포현황 및 유산적 가치』,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21), p. 48. 인터뷰 자료 참조.

제주도에 전하는 조선시대 불상들은 당대를 대표하는 조각승들이 제작한 연대가 확실한 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들을 통해서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향엄, 수일과 같은 조각승의 작품 사례와 활동 내용을 보완할 수 있고 전하는 예가 극히 드문 16세기 보살상의 사례도 살펴볼 수 있기에 이 상들은 매우 중요한 자료다.

이와 동시에 이들은 모두 원래의 봉안처를 떠나서 새로운 공간에 재봉안된 상으로 제작 당시의 맥락은 탈각되고 새로운 성소의 오래된 성물(聖物)로서 의미 있는 상이기도 하다. 기존의 거대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 제주라는 공간에서 불교는 압축적으로 성장했고 이 상들은 그 과정에서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했을 것이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서 이운 시점과 계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렵지만 이운의 가장 큰 배경은 당시 제주 불교계의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³³⁾

잘 알려져 있듯이 1911년 제정된 사찰령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찰은 본말사 관계로 묶이게 되었다. 제주도의 경우 일제강점기 내내 본사 지정이 불가하여 외부의 사찰을 본사로 정하고 그 본사의 포교소로서 조선총독부에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해방 이전 시기까지 확인되는 제주도의 인가 사찰은 52개소이며 그 본사는 기림사, 대흥사, 백양사, 법주사, 봉은사, 선암사, 해인사, 위봉사, 화엄사 등 9개 사찰이다. 그 가운데 위봉사, 백양사, 대흥사가 본사로 설정된 경우가 가장 많다.³⁴⁾ 이 같은 시대 상황은 현재 제주에 전하는 조선시대 불상의 상당수가 전남 지역에 연고를 둔 사찰에서 이운된 사실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1925년 <관음보살개금발원문>과 같은 자료에서 보듯이 제주도에 봉안된 조선시대 불상들은 불상의 조성과 봉안, 이운과 재봉안에 이르는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료다. 향후 추가적인 자료의 축적과 연구가 수반된다면 불상 조성 이후 이운과 중수 과정이 불교사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더욱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33) 새로운 사찰 조성 과정에서 기존에 제작된 불교 문화재 이운에 대해 주목한 선행 연구 사례로는 조태건, 「도전사 관음보살좌상을 통해 본 18세기 서울 지역으로의 불상 이운 배경」, 『불교미술사학』 22(2016), pp. 253-277. 참조.

34) 한금순, 앞의 글(2010), pp. 30-32.

참고문헌

<문헌>

『고려사』
『남사록』
『남환박물』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주풍토록』
『탐라지』
『탐라순력도』
조선총독부관보

<보고서>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단, 『한국의 사찰문화재-전라북도, 제주도』,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단, 2003.
사찰문화연구원, 『제주의 사찰과 불교문화』 전통사찰총서 21, 사찰문화연구원, 2006.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 불교문화재 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 2008.

<단행본>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 국립제주박물관, 2001.
국립제주박물관, 『그림에 담은 옛 제주의 기억 탐라순력도』, 국립제주박물관, 2021.
송은석,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 (주)사회평론, 2012.
최선일, 『조선 후기 彫刻僧과 佛象 研究』, 경인문화사, 2011.

<논문>

강금림, 『제주도 문화유산 보유사찰의 분포 현황 및 유산적 가치』,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金光熙, 「16세기 菩薩像 연구」, 『文物研究』 14, 2008.
金昌化, 『朝鮮時代 濟州島 佛像 研究-紀年名 佛像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문명대, 「조선 전반기 불상 조각의 도상해석학적 연구」, 『강좌미술사』 36, 2011.
문명대 외, 『朝鮮時代記錄文化財 資料集Ⅱ』, (사)한국미술사연구소 출판부, 2012.
朴現圭, 「제주도 法華寺 三尊佛像과 南京 大報恩寺의 관계」, 『中國史研究』 58, 2009.
배연이, 『제주도의 불교와 불교미술 고찰』, 경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송은석, 「17세기 말-18세기 초 彫刻僧 守一의 造像 활동」, 『韓國思想과 文化』 70, 2013.
송은석, 「海南 大興寺의 조선 후기 불상」, 『불교미술사학』 22, 2016.
송은석, 「목포 달성사 명부전 존상의 조성과 중수: 향엄(香嚴), 진열(進悅)」, 『미술사와 시각문화』 18, 2016.
송은석, 「義城 大谷寺 나한전 존상과 조각승 卓密」, 『석당논총』 66, 2016.
어준일, 「조선 전기 16세기의 불교조각 연구」, 『불교미술사학』 16, 2013.

- 엄기표, 「제주지역 佛教 石造美術의 특징과 의의」, 『耽羅文化』 54, 2017.
- 유근자, 「조선 전반기 불상조각의 조성기 분석을 통한 조성 배경 연구」, 『강좌미술사』 36, 2011.
- 유재상, 「조선 18세기 전반 조각승(彫刻僧) 진열(進悅)의 불상 연구-작풍(作風)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30, 2020.
- 이희정, 「조선 전기 불상 특징과 조선 후기 17세기로의 이행」, 『한국중세고고학』 6, 2019.
- 전민숙, 「고려시대 청석탑에 관한 연구」, 『불교미술사학』 22, 2016.
- 조태건, 「도선사 관음보살좌상을 통해 본 18세기 서울 지역으로의 불상 이운 배경」, 『불교미술사학』 22, 2016.
- 최인선, 「제주도 正房寺 所藏 순천 大興寺 石造如來坐像과 腹藏物」, 『文化史學』 23, 2005.
- 최인선, 「전남 신안 일심사 목조보살상과 복장물」, 『호남문화연구』 42, 2008.
- 최선일, 「全羅南道 和順 雙峯寺 木造地藏菩薩坐像과 彫刻僧 雲惠」, 『불교미술사학』 2, 2004.
- 최선일, 「高陽 詳雲寺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과 彫刻僧 進悅」, 『美術史學研究』 244, 2004.
- 최선일, 「순천 동화사 <목조삼세불좌상>과 조각승 계찬」, 『미술사학연구』 285, 2015.
- 한금순, 『근대 제주불교사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새로운 성소(聖所)의 오래된 성물(聖物) 제주도 소재 조선시대 불상

양수미(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새로운 지역에서 사찰을 개창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도량을 건립하려는 원력을 세운 창건주와 후원자들, 사찰을 이끌어갈 승려들, 불교사원으로서 법식을 갖출 수 있는 불상과 불구 등이 필수적인 요소일 것이다. 특히 불상을 조성하고 봉안하는 것은 사찰이 종교적인 성소(聖所)로서 기능하는 데에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때 사찰을 이루기 위해서 불상을 갖추는 데에는 반드시 새롭게 만들어 봉안한 상만이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 이 글은 이처럼 최초로 봉안되었던 장소성이 탈각된 불교 조각들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제주도에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 20여 점이 전한다. 그러나 이 상들 대부분은 20세기 이후 제주로 이운된 것으로 제작 당시부터 제주 불교사의 맥락에 속했던 상들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이들을 제주도의 조선시대 불상으로 받아들이거나 제주에서 재봉안된 맥락을 분리하고 조선시대 불교 조각사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불상들이 이운되기 이전까지 전개된 제주의 불교와 불교미술의 현황을 살펴보고 확실한 제작 연대와 원봉안처를 가진 조선시대 불상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제주도에 전하는 조선시대 불상이 가진 성격과 제주 불교사에서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했다.

제주도에 전하는 조선시대 불상들은 당대를 대표하는 조각승들이 제작한 연대가 확실한 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들을 통해서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향엄, 수일과 같은 조각승의 작품 사례와 활동 내용을 보완할 수 있고 전하는 예가 극히 드문 16세기 보살상의 사례도 살펴볼 수 있기에 이 상들은 매우 중요한 자료다. 이와 동시에 이 상들은 모두 원래의 봉안처를 떠나서 새로운 공간에 재봉안된 것으로 제작 당시의 맥락은 탈각되고 새로운 성소의 오래된 성물(聖物)로서 의미 있는 상이기도 하다. 기존의 거대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 제주라는 공간에서 불교는 압축적으로 성장했고 이 상들은 그 과정에서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했을 것이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서 이운 시점과 계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렵지만 이운의 가장 큰 배경은 당시 제주 불교계의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1911년 제정된 사찰령에 따르면 제주도의 경우 일제강점기 내내 본사 지정이 불가하여 외부의 사찰을

본사로 정하고 그 본사의 포교소로서 조선총독부에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해방 이전 시기까지 확인되는 제주도의 인가 사찰은 52개소이며 그 본사는 기림사, 대흥사, 백양사, 범주사, 봉은사, 선암사, 해인사, 위봉사, 화엄사 등 9개 사찰이다. 그 가운데 위봉사, 백양사, 대흥사가 본사로 설정된 경우가 가장 많다. 이 같은 시대 상황은 현재 제주에 전하는 조선시대 불상의 상당수가 전남 지역에 연고를 둔 사찰에서 이운된 사실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1925년 <관음보살개금발원문>과 같은 자료에서 보듯이 제주도에 봉안된 조선시대 불상들은 불상의 조성과 봉안, 이운과 재봉안에 이르는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료다. 향후 추가적인 자료의 축적과 연구가 수반된다면 불상 조성 이후 이운과 중수 과정이 불교사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더욱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제주도, 조선 후기 불상, 제주불교, 재봉안

Old Sacred Objects in New Sacred Places

- Joseon Era Buddhist Statues in Jeju -

Yang, Sumi(National Museum of Korea, Curator)

What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when temples are established in a new region? Critical elements include the founders and patrons who provide the resources necessary to build a center for the transmission of Buddhism, monks to lead the operation of the temple, and statues of Buddha and ritual articles and utensils kept on Buddhist altars at the structures used for Buddhist worship. The construction and enshrining of statues of Buddha in particular is a core element of preparing a temple to serve as a sacred religious site. In the establishment of a temple the Buddhist statues to be enshrined do not necessarily need to have been newly constructed. This article begins with the question of how we ought to view Buddhist sculptures that were removed from their original site of enshrinement.

There are more than 20 Buddhist statues in Jeju that are believed to have been constructed during the Joseon Dynasty. But the majority of them were brought to Jeju after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so they do not belong to the tradition of locally-produced statues from that era. These statues have so far been accepted as belonging to the category of Joseon Dynasty Buddhist statuary from Jeju, or have been considered rather simply in the context of the history of Joseon Buddhist sculpture, overlooking the fact that they were transported from mainland Korea and re-enshrined later on Jeju Island. This study examines Buddhism and the creation of Buddhist art in Jeju in the period leading up to the importation of Buddhist statuary from other reg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cover the characteristics of Buddhist statues in Jeju created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discover their meaning within the context of the history of Buddhism in Jeju by focusing on those Joseon era statues for which we have definite knowledge of the time of their creation and their original site of enshrinement.

The existing Joseon Buddhist statues in Jeju are highly significant due to the fact that the time of their construction by representative sculptor monks of that era is known with certainty. These statues provide examples of the artwork and activity of relatively unrecognized sculptor monks such as Hyang-eom and Su-il, and our ability to study examples of extremely rare Bodhisattva statues from the 16th century makes the statues especially important. They are also meaningful as sacred objects with a long history that includes having being removed from the context of their original shrines to be transported and re-enshrined in newly prepared sites in the past. The statues

must have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Buddhist faith in Jeju, given that the growth of the religion faced limitations due to the lack of large temples on the island. Given the lack of information on the matter, it is difficult to say exactly when and why Buddhist statues were transported to Jeju, but we can safely assume that the circumstances of their transportation were closely related to the existing status of Buddhism on Jeju at the time.

The 1911 Sachal-ryeong (Temple Act) enacted under Japanese rule made it impossible to establish head temples in Jeju, but dharma propagation centers could be built on the island as branches of head temples from other regions after having received permission to do so from the Joseon Chongdokbu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52 such centers are known to have been approved and built on Jeju before the liberation of Korea, and they served as branches of nine different head temples - Girimsa, Daeheungsa, Baegyangsa, Beopjusa, Bongseonsa, Seonamsa, Haeinsa, Wibongsa and Hwaeomsa. Among these, Wibongsa, Baegyangsa and Daeheungsa were most commonly registered as head temples. This is the reason that a considerable number of the Buddhist statues from the Joseon Dynasty in Jeju were transported to the island from South Jeolla Province. Documents such as the Gwaneumbosal Gaegeum Barwonmun (Prayer for the Regilding of a Gwaneum Bodhisattva Statue), written in 1925, are important sources of information on the transitional process covering the creation and original enshrinement and subsequent transport and re-enshrinement of Buddhist statues in Jeju. Further collection and analysis of such documents will offer an exciting opportunity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significance of the transport and restoration of Buddhist statues in the history of Buddhism.

Keywords: Jeju, Buddhist statu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Buddhism in Jeju, statue re-enshrinement

근대기 제주 불화와 관음사 후불도

이승희*

I. 머리말

II. 근대기 제주 불화와 화승 활동

1. 제주 불화의 특징
2. 금용일섭 화파의 제주 활동과 불화

III. <관음사 후불도>의 제작배경과 일심삼관(一心三觀)

1. <관음사 후불도> 도상과 표현
2. 일심삼관 수행과 원상(圓相)
3. 이회광·이회명의 영향

IV. 맺음말

I. 머리말

제주도에서 불교가 부흥한 시기는 근대에 이르러서이다. 제주도 불교는 1702년 이형상(李衡祥, 1653~1733) 목사의 사찰 훼손 이후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거의 무불시대라고 할 정도로 쇠퇴하였다.¹⁾ 불교 신앙활동이 불가능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당연히 불사(佛事)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지 현전하는 불화들은 대부분 근대기의 작품들이다.

근대 제주에서 불교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1908년 관음사 창건이다. 관음사를 창건한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1) 한금순, 「근대 제주불교사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0) pp.14-34.

안봉려관(安蓬廬觀, 1865~1938), 관음사의 초대 주지인 안도월(安道月, 1879~1936), 그의 제자이자 2대 주지인 오이화(吳利化, 1903~1950), 안봉려관과 함께 관음사, 범정사를 창건한 김석윤(金錫允, 1877~1949) 등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치며 제주도에 새로운 불교의 변화를 이끌었다. 관음사 외에도 1920, 30년대 제주도에서는 범정사, 범화사 등 여러 사찰이 새로 건립되었고, 대흥사, 화엄사 등의 대본산에서는 제주도에 포교당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제주에는 근대기 불교문화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불사도 활발하게 일어났다.²⁾

일제강점기에 사찰이 다수 건립됨에 따라 예불 목적의 불화 수요도 점차 늘어났다. 제주도 내에서는 불화를 그릴 수 있는 화승이 없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내륙에서 제주도로 불화를 이안하여 봉안하였다. 하지만 불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내륙에서 활동하고 있던 불화승들을 초빙하여 불화를 새롭게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불화 봉안과 제작과정에는 제주도의 독특한 역사적 상황과 근대기의 다양한 문화적, 불교적 변화들이 담겨 있다.

특히 제주도 불교의 근대적 이행과정에서 당시의 불교사상과 신앙, 그리고 역사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불화가 <관음사 후불도>이다. (도 1) <관음사 후불도>는 근대기를 대표하는 화승 금용 일섭(金容 日燮, 1901~1975)이 1940년에 그린 불화이다. 이 불화에는 아미타삼존과 권속, 그리고 지옥도와 반야용선도까지 표현되어 있다. 전통불화에서는 결코 하나의 화면 안에 조합된 적이 없는 도상들이 한 화면에 조화롭게 자리잡고 있어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던 독창적인 형식의 불화라고 할 수 있다.



도 1. <관음사 후불도>, 1940년, 면본채색, 157.2×291.5cm, 관음사(국립광주박물관 제공)

2) 한금순, 「안봉려관과 근대 제주불교의 중흥」, 『정토학연구』(2010), pp. 247-287.

본 글에서는 정도와 왕생, 지옥을 함께 구성한 독특한 구성의 <관음사 후불도>가 어떠한 맥락에서 조성, 봉안되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관음사 후불도>의 조성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근대기 제주불교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제주도 내 사찰에서 불화의 봉안과 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제주도 불교 교단 내에서 관음사의 위상과 활동을 통해 <관음사 후불도>가 조성된 직접적인 배경을 찾아보고, 불화 조성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면면을 파악하여 <관음사 후불도>의 도상과 화면 구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창출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II. 근대기 제주 불화와 화승 활동

1. 제주 불화의 특징

제주도 불화는 현재 12점이 조사되었다. 대부분 근대기 불화로, 모셔진 사찰은 고관사, 관음정사, 불탑사, 월정사, 월정사, 금봉사, 원당사이다. 사찰에서는 대개 1점씩을 소장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불탑사는 3점, 월정사는 2점, 원당사는 2점을 각각 소장하고 있다. 연도가 있는 작품은 총 8점이며, 5점의 작품이 1940년에 제작되었고, 1936년, 1937년, 1944년에 제작된 불화가 각각 1점씩 있다. 나머지 불화들은 화기가 남아 있지 않거나 쓰여 있지 않아 제작 시기를 확인할 수 없다. 우선 <관음사 후불도>를 제외한 11점의 작품을 통해 제주도 불교회화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금봉사 오백나한도>와 한라산 영실기암 오백나한 신앙

<금봉사 오백나한도>는 <관음사 후불도>와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적인 불화이다.^(도2) 금봉사는 현재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 위치한다. 1926년 4월 2일 화엄사 제주 포교소로 창건되었다. 금봉사에서 '금봉(金鵬)'이라는 용어는 용을 잡아먹는 금시조라는 뜻이다.³⁾ 금봉사는 태고종사찰로 비구니 대승각 김만홍(金萬弘, 1855~1935)과 도감(都監) 성봉(聖峰)스님, 속명 이준구(李駿九, 1883~1948)스님이 창건하였다.⁴⁾ 창건 당시 법당에는 성봉스님이 직접 흙으로 만든 16나한상을 모시고 나한기도를 올렸다고

3) 김지현, 「제주도 금봉사의 연혁」, 『금봉사 오백나한도 문화재지정 자료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2020.10), pp. 29-30.

4)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신 분은 1963년 제4대주지로 취임한 수암(修庵, 김종식(金琮植), 1940~현재)스님이며, 창건주의 증손자이다.

전하고 있어, 금봉사는 창건 당시부터 나한신앙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



도 2. <금봉사오백나한도>, 1940년대 추정, 면본채색, 140.7×275.5cm, 금봉사 대웅전(국립제주박물관 제공)

<금봉사 오백나한도>는(도2) 대웅전 향우측 불단에 모셔져 있다. 가로로 두 폭의 면(244cm+14cm)과 세로로 두 폭의 면(71cm+73cm) 등 모두 4폭의 면을 이어 붙여 화면을 만들었다. 일부 채색이 박락된 것을 제외하고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사찰에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금봉사를 창건한 성봉스님이 새로 조성한 16나한상과 화엄사에서 가져온 오백나한도를 법당 안에 함께 봉안하였는데, 1948년 제주 4·3사건 때 나한상은 소실되었고 오백나한도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⁶⁾

이 불화는 원래 상·하축이 있는 족자형이었으나 불화의 훼손이 진행되면서 보관을 위해 상하축을 빼고 접어서 궤에 넣어 보관하였다. 그림 중간에 접혔던 흔적은 오랜 기간 궤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액자형으로 장황이 되어 유리 액자에 보관 중이다. 전북 지방무형문화재 27호인 불화장 도원청운(속명 유삼영)은 1982년 금봉사에 머물면서 대웅전 각단 탱화 및 명부전 지장시왕 탱화를 제작하였는데, 이때 주지 수암스님이 오백나한도가 쥐로 인해 훼손되어 예불화로 모실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서 도원 청운스님에게 수리를 의뢰하였다고 한다. 보채, 보건 등의 수리 후에 액자형식으로 장황하게 되었다고 한다.⁷⁾

5) 김지현, 「제주도 금봉사의 연혁」, 앞의 자료보고서, p. 30.

6) 1948년 제주 4·3사건이 일어나면서 11월 21일 동네 목동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당시 금봉사의 주지였던 성봉스님은 토벌대에 의해 총살당하고, 금봉사 대웅전과 요사채 등이 불태워졌다고 한다.

7) 금봉사 주지 수암스님과 도원청운 스님의 증언과 확인이 있었다.

이 불화는 중앙에 석가모니와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 석가삼존을 배치하고 좌우에 오백나한을 빈틈없이 배치하였다. 앞쪽 1, 2열의 나한들은 전신이 모두 표현되어 있지만 그 뒤의 나한들은 상체만 표현되어 있다. 나한들은 백발이 성성한 늙은 나한 이외에 젊은 나한, 둥글고 흰 얼굴의 나한, 수염이 더부룩한 나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이다. 얼굴 또한 모두 개성이 강하고 표정도 다양하다. 대부분의 나한들은 합장을 하거나 염주와 발우 등 간단한 지물을 들고 있다.

<금봉사 오백나한도>의 하단에는 화기란이 마련되어 있으나 내용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불화의 정확한 유래를 알 수 없다. 다만 1948년 제주 4·3사건 당시 법당이 불타는 가운데서도 불화가 무사히 남아 보존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본다면 이 불화는 금봉사가 창건된 1926년 이후와 1948년 이전 어느 시기인가에 봉안된 것으로 추측된다.⁸⁾ 한편 1940년부터 1941년까지 금융 일석이 제주도에 와서 조성한 불화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긴 『연보(年譜)』에 오백나한도와 관련된 기록이 보이지 않아 성봉스님이 내륙에서 조성한 불화를 가져와 봉안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 시점은 1940년대가 가장 유력하다. 금봉사는 애초에 화엄사 제주 포교소로 창건되었다. 성봉스님의 속명은 이준구로 1944년 6월에 이준구가 현태백(玄太白, 1909년생)을 제2상좌로 삼았다는 기록이 화엄사 ‘승니현주신출최고(僧尼現住申出催告)’에 적혀 있다.⁹⁾ 또한 이준구가 화엄사 선원에서 안거하고 1942년 9월 9일에 증서를 수여 받았다는 기록도 『조선불교 조계종보』(1943년 2월 간행)에 남아 있다.¹⁰⁾ 1940년대 성봉스님의 제2상좌가 화엄사와 머물렀다는 사실과 성봉스님이 화엄사 선원에서 안거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 즈음에 불화를 의뢰하여 완성 후 제주도로 들여온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오백나한도를 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성봉스님의 신앙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창건 당시 성봉스님은 직접 흙으로 16나한상을 만들고 나한 기도를 올렸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금봉사는 창건 당시부터 나한 신앙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제주도에 뿌리 깊은 나한 신앙이 존재한다. 고려 중기에 송나라의 사절로 왔던 서공(徐兢)이 저술한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1123년) 권35에는 탐라로 간주되는 섬 반탁가산(半托伽山)이 등장한다. 반탁가는 16나한 중 제 10존자로¹¹⁾ 1123년경의 탐라는 나한의 섬으로 취급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탐라와 나한과 관련한 또 다른 기록이 전한다. 원의 승려 청출정정(淸拙正澄)이 일본으로 가던 배 위에서 탐라존자를 예배하였다는 기록, 1325년 입원(入元) 승려였던 일승(日僧) 추우칸 엔케츠(中巖 円月)가 탐라 부근을 지날 때 선상에서 바다

8) 인근에 성림사 주지 수호 스님(구좌읍 평대리 소재 사찰)은 1955년, 해광사 주지 지현 스님(서귀포시 법환리 소재 사찰)은 1957년 이후 오백나한도를 친견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수암스님의 주장을 수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9) 『조선불교 조계종보(朝鮮佛教 曹溪宗報)』, 『佛教』新第61輯 6月號, 佛教社(1944).

10) 『佛教』新第45輯 2月號, 佛教社(1943).

11) 森平雅彦, 『黑山諸島水域における航海』, 『中近世の朝鮮半島と海域交流』(汲古書院, 2013).

간너에 있는 존자(尊者)에게 예를 갖추고 시를 읊었다는 기록, 스우잔코쥬우(嵩山居中, 1277~1345)가 원을 방문한 후, 일본으로 귀국할 때 보타(寶陀)에서는 개토(開土, 여기서는 관음)를 대면하고, 탐몰라주에서는 응진(應眞)을 만났다 기록 등이 그것이다.¹²⁾ 한라산 영실기암은 오백나한, 천불동, 수행동, 나천불, 오백나한동 등의 이칭으로 불린다. 영실기암이 나한과 관련된 명칭으로 불렸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고려시대 탐라를 지나던 원과 일본의 승려들이 선상에서 예배를 드렸던 존자는 한라산 영실기암(靈室奇巖)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³⁾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영실기암은 마치 중이 도를 닦는 모양과 같다고 하여 수행동(修行洞)이라고 했으며, 『탐라지』에 실린 관관 김치(1577~1625)의 시 <영실(瀛室)> 중에는 ‘봉마다 기암괴석은 나천불(峯頭怪石羅千沸「佛」)’이라고 하여 영실을 여전히 오백나한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765년 『증보탐라지(增補耽羅志)』 권1 산천(山川)조의 영실에 인용된 『수록(隨錄)』에도 ‘오백나한이 기암 위에 열지어 있다(五百羅漢 列於巖上)’라고 하여 영실을 오백나한에 대한 인식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⁴⁾ 고려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제주도에는 뿌리 깊은 나한 신앙의 전통이 <금봉사 오백나한도>로 이어지고 있다.

2) 제주도 외 지역 불화의 유입

제주 근대기 불화 가운데에는 내륙이나 일본 등지에서 조성되어 유입된 불화가 여러 점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라사 신중도>이다.(도 3) 사라사는 1953년에 사라봉 북사면 기슭에 여러 거사들과 불자들이 원력을 모아 지은 태고종 사찰이다. 이 불화는 제석과 위태천을 주요 존상으로 하여 그 주변과 하단에 주악천녀와 신장상 등을 배치한 구도이다. 사라사에 언제부터, 어떤 경유로 보관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사찰 측에서는 전 주지가 내륙에서 가져온 불화라고 알고 있다. 전체적으로 갈색톤의 색감이나 조형을 고려해볼 때 이 불화는 19세기말부터 20세기 전반 경에 그려진 것으로 추측된다.



도 3. <사라사 신중도>, 19세기말~20세기 전반, 삼베 채색, 133.0x108.7cm, 사라사(국립제주박물관 제공)

12) 榎本涉, 「송일, 원일 간 해상항로와 고려 도서지역」, 『해양문화재』9(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8).

13) 榎本涉, 위의 논문, pp. 92-93.

14) 김지현, 「제주도 금봉사의 연혁」, 앞의 자료보고서, p. 27.



도 4. <월정사 신중도>, 일제강점기, 모시채색, 94.6×114.4cm, 월정사(국립 제주박물관 제공)



도 5. <월정사 산신도>, 1940년, 면본채색 추정, 69.8×46.3cm, 월정사(국립제주박물관 제공)

외부에서 유입된 또 다른 불화에는 <월정사 신중도>와^(도 4) 1936년 조성된 <월정사 산신도>가^(도 5) 있다. 월정사는 김석윤이 1934년에 전남 대흥사 제주포교소 월정암으로 창건한 사찰이다. 1938년부터는 조선불교 중앙선리참구원 제1지방분원을 설치하여 제주 최초의 선원으로 운영되었다. 현재까지도 월정사는 선학원 소속 사찰로 명맥을 잇고 있다.¹⁵⁾ 이 두 점의 불화는 현 주지스님의 소유이다. 하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 소유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월정사 신중도>는 화면을 상하로 나누어 상단에는 정면을 향한 위태천을 중심으로 한 천부와 기괴한 형상의 인물들과 천자와 공양하는 천동, 천녀가 그려져 있고, 하단에는 무장상과 불로초를 들고 있는 산신의 형상이 보인다. 결이 매우 고운 모시 위에 그려져 있으며 구름 등의 색감은 거의 남겨져 있지 않고 열화된 느낌이다. 전체적으로 화면이 갈색톤으로 표현기법이나 색감 등을 볼 때 이르면 일제강점기에 그려진 것으로 생각된다.

<월정사 산신도>는^(도 5) 화기에 따르면 1937년 4월 8일에 조성되어 일본 오사카시 동성구(東成區)의 마카미치모토마치(中道元町) 1가에 위치한 대각불교소(大覺佛教所)에 봉안되었던 불화이다.¹⁶⁾ 고즈넉한 분위기의 산 속에 호랑이와 함께 앉아 있는 산신의 모습을 그린 불화로 단순한 화면구성과 섬세하지 않은 표현, 산수를 표현한 기괴한 붓터치가 상당히 이색적이다. 이 불화는 포광법연(包光法演)이라는 승려가 그렸다. 단순한 인물과 호랑이의 모습이라든가 산신의 얼굴에 보이는 자연스럽지 않은 선 등을 볼 때 법연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화승이 아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15) 榎本涉, 앞의 논문, pp. 92-93.

16) “丙子四月八日造成于「大阪市東成區城中道」元町一丁目大覺佛敎所」……”.

이외에도 <월성사 현왕도>도 외부에서 들어온 불화로 추정된다.^(도6) 이 불화는 제주도 불화 가운데 가장 작은 불화이다. 현재 액자 속에 넣어진 불화의 크기는 불과 세로 59cm, 가로 39.8cm이다. 의자에 앉아 있는 현왕을 중심으로 그 좌우에 천녀, 천동을 그려 넣은 단순한 구성의 불화이다. 붓의 터치가 보일 정도로 얇게 칠해진 채색과 유려하지 않은 필법 등을 볼 때 역시 전문 화승의 그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¹⁷⁾

3) 조선말기 전통 불화 형식의 계승

제주도에 있는 불화들은 대부분 조선말기의 전통적인 불화 형식을 계승하고 있다. 현재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위탁보관 중인 <원당사 산신도>에는^(도7) 깊은 산속을 배경으로 붉은 도포를 입은 산신이 왼손에 파초선을 들고 호랑이에 기대어 앉아 있다. 그 옆에는 역시 붉은 도포를 입은 동자가 긴 장대를 끼고 산신을 바라보고 있다. 깊은 산속을 암시하는 폭포와 나무를 배경으로 한 점, 민화풍의 호랑이 모습 등에서 19세기 말의 전통적인 산신도 불화 양식을 계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원당사 삼여래후불도>는 1944년 우송(友松)이 그린 불화이다.^(도8) 우송이라는 화승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가로로 긴 화면에 삼불을 중심에 놓고 주변과 부처님 사이 공간에 4명의 보살과 4명의 제자를 배치한 매우 단순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항마촉지인을 한 석가여래가 중앙 연화대좌에 결가부좌하고 있으며, 양 옆의 부처님 역시 각각 연화대좌 위에 동일한 수인을 취한 채 앉아 있다. 주변에는 아난과 가섭, 4위의 보살과 2명의 제자가 자리하고 있다. 삼여래의 상호가 그다지 원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살의 비례가 어색한 점, 구름의 표현이 부자연스럽고 형식화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결코 우수한 화풍의 불화라고 할 수 없으나 전통불화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앞서 살펴본 <사라사 신중도>와^(도4) <월정사 신중도>^(도5) 역시 19세기 신중도의 화면 구성을 계승하고 있어 전통불화 형식을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 6. <월성사 현왕도>, 일제강점기, 면본채색, 59×39.8cm, 월성사(국립제주박물관 제공)



도 7. <원당사 산신도>, 1937년, 면본채색, 제주대학교 박물관 위탁보관(국립제주박물관 제공)

17) 월성사에 관해서는 「제주 절오백-월성사」, 제주불교신문(2020.11.04.) 참고.



도 8. <원당사 삼여래후불도>, 1944년, 면본채색, 101.5×200.1cm, 원당사(국립제주박물관 제공)

2. 금용 일섭 화파의 제주 활동과 불화

1) 금용일섭화파의 제주 활동



도 9. 손연철, <금용일섭진영>, 1993년, 지본채색, 110.5×67.8cm, 통도사성보박물관

금용일섭은 19세기 말~20세기 초 마곡사를 중심으로 한 계통산 화파의 대표화승인 금호약효(錦湖若效)의 화맥을 잇고 있다. 그의 스승은 약효의 제자인 보응문성(普應文性)이다. 일섭은 불화를 비롯하여 개금, 단청, 조각 등 다방면에서 활동을 했던 근대기를 대표하는 화승으로 명성이 높았다¹⁸⁾. 그는 전남, 전북 지역 뿐 아니라 충남, 서울·경기, 제주도, 개성, 만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말년에 평생의 업적을 인정받아 1971년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으로 지정되었다. 1938년 자신의 거처인 김제 부용사에서 후진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성예원을 성립한 후, 제자양성에 매진하였고 일섭의 제자들은 오늘날까지 ‘일섭문도회’로 이어져 번창하고 있다.¹⁹⁾

일섭과 그의 제자들이 제주도에 들어와 불화를 대대적으로

18) 『금용일섭, 근대부처를 만든다』(국립광주박물관, 2018), pp. 58-92.

제작한 시기는 1940~1941년이다. 1938년경 김제 부용사에 근대식 불교미술 교육기관인 성예원을 세워 후학을 양성하면서 제자 및 사제를 동반하며 전국적으로 활발히 활동하였던 시기에 해당한다. 당시 그는 김우일, 박상순, 신병철, 고재섭 등과 함께 제주도 내 여러 사찰의 불화와 불상 제작 및 개금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1940년 7월 15일부터 1941년 4월 3일까지로 약 8개월에 걸친 불사였다.

제주도에서의 불사는 당시 포교사였던 허응선과 관음사의 2대 주지이자 회주였던 오이화 스님의 발원으로 이루어졌다. 1940년 7월 7일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간 후 8일에 허응선 스님을 만났고, 7월 15일부터 제주도 김녕리 대흥사 포교당 불사를 착수하여 후불탱, 지장탱, 칠성탱, 신장탱, 산신탱, 독성탱, 감로탱과 산천단의 칠성탱과 신장탱을 그려 10월 5일에 회향하였다. 9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는 제주도 성내교당(관음사) 후불탱, 칠성탱, 신장탱, 오여래도, 산신탱, 독성탱을 조성하였으며, 애월교당에서는 지장탱, 산신탱을 조성하였으며, 조천교당에서는 신장탱을 조성하였다.¹⁹⁾

10월 21일부터는 제주도 삼양 원당사(현 불탑사)의 지장탱, 칠성탱, 산신탱, 독성탱, 감로탱, 인왕탱, 현왕탱을 조성하였으며 12월 8일 거울에 회향했다. 이후 12월 11일부터는 삼양 원당사(백양사 포교당)에서 삼존을 조성하고, 감로탱과 현왕탱을 그렸다. 또한 조천 포교당의 현왕탱, 김녕 백양사 포교당의 감로탱을 조성하고, 원당사의 불화들은 1941년 3월 25일경 회향하였다.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는 제주도 성내 운주당 백양사 포교당의 산신과 본존상을 개금하였다.²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주도 김녕리 대흥사 포교당(백련사)을 시작으로 산천단, 제주성내 포교당(현 관음사), 애월교당, 조천교당, 대흥사 포교당 탑사(현 불탑사), 백양사 포교당(현 원당사)에서 총 29점의 불화를 제작하였다. 불화는 후불도, 칠성도, 신장도, 5여래도, 산신도, 독성도 등 다양하며 그 중 제주성내 포교당(관음사)의 후불도와 독성탱, 대흥사 포교당 탑사(현 불탑사)의 3점, 총 5점의 불화만이 남아 있다. 제주성내 포교당에서 제작되었던 독성탱은 현재 고관사에서 소장 중이다.

백양사 포교당의 불화 제작은 일섭이 당시 선종을 날리던 만암종헌(曼庵宗憲, 1876~1956)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²¹⁾ 만암종헌은 일제강점기 불교사 및 한국불교 정화운동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고승이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피폐했던 백양사(白羊寺)를 크게 중창하여 백양사와 호남불교 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 일제강점기 중앙 불교 교단 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며 승가 교육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특히 8·15 해방 이후 불교계에서 일어난 불교정화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로,

19) 古鏡 감수, 申恩英 역주, 『金魚 金磬日變의 年譜』(송광사성보박물관, 2016), p. 97.

20) 古鏡 감수, 申恩英 역주, 위의 책, p. 98.

21) 일섭은 만암종헌의 제자로 백양사 비림에 있는 「대종정만암대종사사리탑기」(1957)에 만암종헌의 제자 중 3번째로 이름이 올라 있다. 신은영, 『금용 일섭의 『연보』와 「불교예술운동」, 『금용일섭: 근대 부처를 만든다』(국립광주박물관, 2018), p. 116.

1954년에는 다시 중명을 회복한 조계종의 종정으로 추대되기도 하였다.²²⁾ 일섭과 만암스님과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연보』에는 1926년 백양사 16나한상, 산신도, 독성도, 삼존상을 조성하던 시기부터 만암스님이 등장한다. 당시 만암스님은 백양사 주지로 주석하고 있었으며, 일섭의 작품 활동은 백양사 소속 사찰에서 주로 이루어졌다.²³⁾

2) 일섭화와 불화

현재 제주도에는 일섭화파의 불화가 총 5점 남아 있다. 불탑사에 3점, 고관사에 1점, 관음사에 1점이다.

(1) 불탑사의 불화, 지장도·산신도·독성도

불탑사(佛塔寺)는 일제강점기에 대흥사 포교당으로 알려진 사찰로 제주시 삼양동의 원당봉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불탑사가 자리한 곳은 원래 원간섭기에 제주도의 3대 사찰 중 하나였던 원당사(元堂寺)가 있던 터이다.²⁴⁾ 원당사는 13세기 말엽 원나라 순황제와 기황후(奇皇后)가 아들을 얻기 위해 절과 함께 건립하였다고 전하는데, 당시의 유물인 5층석탑이 보물 제1187호로 지정되어 있다. 1층의 기단과 5층의 몸돌이 심하게 좁아진 형식으로 건립된 이 불탑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무암으로 축조된 오층석탑으로 그 가치가 크다.

원간섭기에 세워진 원당사는 조선중기까지 유지되다가 1702(숙종 28년) 배불정책으로 훼철되었다. 이곳에 1914년 안봉려관 스님이 대중포교를 위해 사찰을 중건하면서 불탑사로 개칭한 것이다. 제주 대흥사포교소 불탑출장소로 인정받은 것은 그보다 16년 뒤인 1930년 3월 25일이다.²⁵⁾ 1934년에는 김중봉이 감원으로 취임하여 사찰을 증축하는 등 안정된 기반 속에서 포교활동을 하였다. 불탑사 소장 불화들은 불탑사가 비교적 안정되었던 시기에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948년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면서 전각은 파옥되었다. 그 와중에 다행히 불상과 불화는 삼양리 마을로 안전하게 옮겨졌다. 이후 이경호가 1953년 불탑사를 재건하면서 피신했던 불상과 탕화들을 가져와 봉안하였다. 따라서 일섭이 조성했던 불화들은 1950년대까지 보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현재는 지장시왕도와 산신도, 독성도 3점만이 전한다.^(도 10, 11, 12) 26)

22) 김상영, 『曼庵 宗憲의 생애와 활동 - 1927년까지의 활동을 중심으로 -』, 『대각사상』 19(2013), pp. 241-281.

23) 신은영, 앞의 논문, p. 116.

24) 현재에는 불탑사와 마주보고 있는 사찰을 원당사라고 부른다. 원당사는 1924년 음력 6월에 전남 백양사 원당포교소로 건립된 태고종사찰이다.

25)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Ⅱ,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004; 『전통사찰총서-제주의 사찰과 불교문화』21(사찰문화연구원, 2006).

26) 이승희, 「제주 근대기 전통불화의 제작과 특징」, 『승실사학』 47(2021. 12), p. 391.



도 10. <불탑사 지장시왕도>, 1940년, 면본채색, 143.0×169.5cm, 불탑사(국립제주박물관 제공)

도 11. <불탑사 산신도>, 1940년, 면본채색, 145.5×119.2cm, 불탑사(국립제주박물관 제공)

도 12. <불탑사독성도>, 1940년, 면본채색, 138.7×113cm, 불탑사(국립제주박물관 제공)

세 점의 불화들은 모두 유리 액자 안에 보관되어 있다. 지장시왕도와 산신도에는 화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독성도에는 화기가 없다. 화기에는 이 불화들이 불기2967년, 즉 1940년 납월(臘月, 음력 선달 즉 12월) 10일에 대흥사 포교소 삼양불탑사에 봉안되었으며, 증명비구는 응선, 회주비구는 오이화, 금어로 일섭, 우일, 재섭이 참여하였다고 쓰여 있다.²⁷⁾ 일섭과 그의 제자들이 1940년 제주도에 입도한 후 제주도 성내교당이었던 관음사에서 9월 15일부터 불화를 그리기 시작한 이후 10월 21일 회향하고 곧바로 불탑사로 이동하여 불화를 조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관음사의 창건주인 안봉려관이 중건한 불탑사는 관음사의 말사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탑사 지장도>는(도 10) 중앙에 결가부좌하고 있는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대좌 옆에 검은 복건을 쓰고 보주를 든 무독귀왕과 석장을 대신 들고 있는 도명존자가 자리하고 지장삼존의 주변에 열 명의 시왕과 판관과 귀졸, 사자 등이 배치되어 있다. 지장삼존을 중심으로 두고 뒤로 갈수록 인물들을 작게 표현하면서 공간감을 살리려한 노력이 보인다. 지장삼존과 시왕 등의 권속들을 배치한 구성은 전통적인 지장시왕도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복건을 쓴 무독귀왕의 모습은 원류관을 쓴 전통적인 도상과 차이를 보인다. 화면이 습기로 인하여 어둡게 변색되기도 하였지만 원래 질이 떨어지는 안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색감이 칙칙하다.

<불탑사 산신도>는(도 11) 깊은 산속을 배경으로 붉은 도포를 입고 상투를 튼 산신이 정면을 향한 채 호랑이 등에 앉아 있고, 호랑이는 산신 쪽으로 몸을 돌려 입을 벌린 채 포효하고 있다. 산신의 왼쪽에는 머리에 꽃을 꽂은 천녀가 자리하고 있다. 이 불화에 표현된 산신의 모습은 전통적인 산신도 불화에서 보이듯 관념화된 얼굴이 아니고 서양화풍의 음영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마치 실제 인물이 연상될 정도로 사실적으로 그려져

27) <불탑사 지장도> 화기, “佛紀二九六七庚辰臘月十日」大興寺布教所」三陽佛塔寺」奉安于地藏帳」證明比丘 應宣」會主比丘 利化」金魚比丘 日變 又日 在變」……”；<불탑사 산신도> 화기, “佛紀二九六七庚辰臘月十日」大興寺布教所三陽佛塔寺」奉安于山神帳」證明比丘 應宣」會主比丘 利化」金魚比丘 日變」又日 在變」……”.

있다. 호랑이도 민화풍이 아닌 털과 표정까지 생생하게 표현하여 사실적인 표현을 강조하려는 듯한 의도가 보인다. 이처럼 실물을 염두에 둔 인물표현과 사실성을 강조하는 화풍상의 특징은 근대기 불화를 주도했던 금융 일섭파의 경향을 잘 보여준다.

<불탑사 독성도>에는^(도 12) 화기가 남아 있지는 않지만 다른 불화들과 함께 조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계곡물이 흘러내리는 깊은 산속에 서책을 넣은 상자에 원팔을 기대고 앉아 있는 독성과 두 명의 시중드는 여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동글동글하게 말린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온 독성의 모습은 전통적인 독성과 다른 형상이다. 주름진 이마와 길게 찢어진 눈매, 잘 생긴 코와 살짝 미소 지은 입모양 등 기운 생동한 느낌을 주는 얼굴이다. 인물표현에 능했던 금융 일섭의 역량을 잘 볼 수 있는 표현이다.

(2) <고관사 독성도>

금융 일섭파의 또 다른 불화는 고관사(古觀寺)에 모셔져 있다. 고관사는 제주도 조천읍 조천리(朝天里)에 위치한다. 고관사는 1927년 화주 고계부와 강정완 보살이 기와로 된 개인 주택을 매입해 선암사 제주포교사로 창건한 사찰이다. 1930년 고자선 보살이 전라남도 선암사에서 목조 아미타불좌상을 모시고 봉안하면서 사찰의 기반을 닦았다고 한다.²⁸⁾

<고관사 독성도>는^(도 13) 화기에 세존응화 2967년(1940) 10월 17일에 대본사 대흥사 제주도성내 포교당에 봉안, 증사가 응선, 회주 이화, 편수 일섭, 금어 우일, 상순, 재섭, 병철이라고 적혀 있다.²⁹⁾ 따라서 이 불화는 관음사에서 제작된 불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음사의 독성도가 어떤 이유로 언제 고관사로 이안되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허응선이 조천교당의 주지였다는 점과³⁰⁾ 관음사 불화들을 조성할 때 허응선이 증사로 참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허응선과의 인연으로 <관음사 독성도>가 고관사로 이안되었을 가능성도 있다.³¹⁾ 이 불화는 멀리 폭포가 보이는 고즈넉한 산속에 앉아있는 독성과 소나무를 등지고 서있는 시자만을 그린 단출한 구성을 보여준다.



도 13.. <고관사 독성도>, 1940년, 면본 채색, 143.7×77.8cm, 고관사(국립제주 박물관 제공)

28) 「제주불교 흔적 바로 세우기- 조천읍 조천리 고관사」, 현대불교신문(2018.11.02.), <http://www.hyunbulnews.com>.

29) “世尊應化二千九百六十七年十月十七日 大本山大興寺口口島城內布教堂 證師 應宣 會主 利化 片手 日變 金魚 又日 尚順 在 變 秉澈”……”

30) 古鏡 감수, 申恩英 역주, 앞의 책, p. 97.

31) 이승희, 앞의 논문, pp. 392-393.

Ⅲ. <관음사 후불도>의 제작배경과 일심삼관(一心三觀)

1. <관음사 후불도> 도상과 표현

<관음사 후불도>는 2021년 7월 28일 제주 근대기의 특징적인 화면구성과 화풍 등의 특징을 인정받아 제주도 지정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도 1). 이 불화는 금용일섭 화파가 내도하여 그린 불화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클 뿐 아니라 포교당의 성격을 감안하여 조성된 의미 있는 불화이다. 금용 일섭파는 1940년 9월 15일부터 시작하여 10월 17일 완성하여 대홍사의 제주 성내 포교당에 봉안하였다. 증명법사로 참여한 응선(應宣)과 회주(會主)인 이화(利化)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불화로 신도들도 십시일반 시주금을 모아 참여하였다.³²⁾

<관음사 후불도>의 크기는 세로 157.2cm, 가로 291.5cm(화면 145.5×273cm)이다. 세로길이 28.5cm, 71.7cm, 57cm의 면본 세 폭을 가로로 이어 만들었다. 이처럼 가로로 화면 잇기 방식은 구한말 서구에서 면이 수입되어 바탕재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흔히 볼 수 있는 잇기 방식이다. 화면은 상단에 불삼존과 권속, 하단에 지옥도와 반야용선도(般若龍船圖)를 배치한 특이한 구성을 하고 있다. 화면의 상부 중앙에는 여래가 보살과 권속들을 거느리고 결가부좌하고 있다. (도 1-1) 부처의 두광에서는 여덟가닥의 흰 광선이 좌우로 길게 뻗어나가고 있으며, 몸에서는 방사형의 빛이 뻗어 신광을 가득 메우고 있다. 양 옆에 시립한 두 보살은 각각 여의와 연꽃을 들고 있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로 추정할 수 있다. 그 옆으로 아난존자와 가섭존자를 비롯하여 10대 제자가 본존을 향하여 합장하거나 지물을 든 채 본존을 향해 시립하고 있다. 두 협시보살과 제자들의 존재를 통해 석가모니불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석가모니불의 수인은 오른손을 무릎 위에, 왼손을 가슴 부근에 대어 각각 첫째와 셋째 손가락을 마주 잡고 있다. 이러한 수인은 일반적으로 아미타불의 수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선 말기에는 석가모니불의 수인으로 사용된다. 수인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관음사 후불도>의 주존은 석가모니불과



도 1-1. 본존의 설법도, <관음사 후불도> 부분

32) “世尊應化二千九百六十七年庚辰」十月十七日於大本山大興寺濟」州城內布教堂新畫成奉安」緣化秩」證師 應宣」會主 利化」片手日變」金魚 又日 尚順」在變 炳澈.”



도 1-2. 지장시왕도 부분, <관음사 후불도> 상단 부분

아미타불의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석가설법도의 좌우에 표현된 ‘지장시왕도’와 ‘관음보살도’의 형상을 통해 분명해진다.

석가설법도의 오른쪽에는 지장보살이 명주와 석환장을 들고 서있으며 주변에는 합장을 한 시왕과 관관, 귀졸들이 각각의 지물을 들고 합장한 채 지장보살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지장보살의 앞에는 도명존자가 합장을 한 채 중앙을 향하고 있으며, 무독귀왕은 몸을 돌려 화면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다.

석가설법도의 왼쪽에는 관음보살이 머리에서부터 무릎 아래까지 백의를 걸치고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정병을 잡고 서있다. 관음보살의 아래에는 어린 공양천녀 2위가 자연스러운 자세로 협시하고 있다. (도 1-3) 화면 오른쪽의 지장보살과 왼쪽의 백의관음의 존재를 통해 중앙에 석가모니불은 아미타불의 속성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음보살의 주변에는 16나한이 둘러싸고 있다.

이들 중 사자관과 코끼리관을 쓴 인물은 팔부중을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입고 있는 의복은 주변의 나한들과 다를 바가 없다. 비교적 자유로운 자세와 지물을 취하는 나한의 도상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나한으로 추정해도 무방하다.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화면 상단에는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의 권속을 혼합·구성하여 복합적인 신앙형태를 화면 속에 구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불화의 하단은 가로로 갈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긴 띠같이 표현된 채운으로 불·보살과 나한들이 그려진



도 1-3. 백의관음과 16나한, <관음사 후불도>의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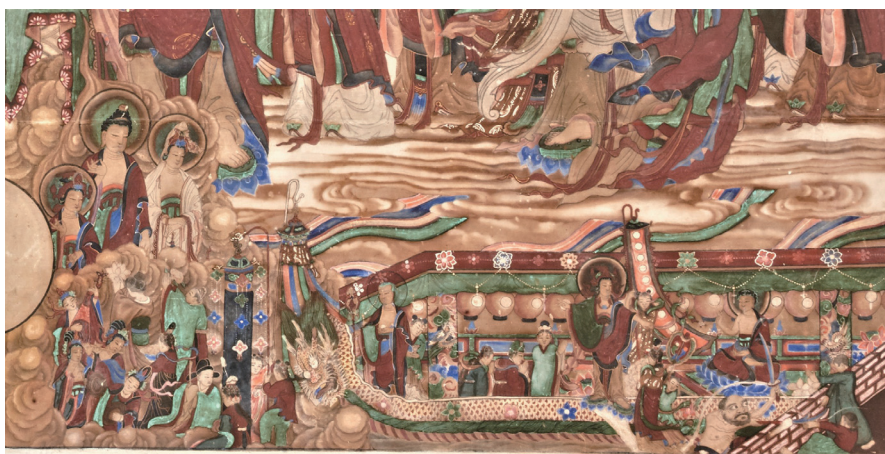
상단과 구분된다. 하단 부분의 도상들은 모두 상단의 지장보살과 관음보살과 내용상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지장시왕도의 하단에 자리한 지옥장면을 먼저 살펴보면 (도 1-4), 지옥의 옥졸들이 죄인을 잡아 장대에 꿰어 펄펄 끓는 가마솥에 넣어 고통을 주는 확탕지옥(鑊湯地獄)을 비롯하여 형틀에 매달린 죄인의 입에서 혀를 뽑아 그 위에서 발을 갈 듯이 소가 쟁기로 혀를 갈아엎어 고통을 주는 발설(發舌)·경전지옥(耕田地獄), 나무로 된 상 위에 묶인 채 지옥의 옥졸에 의해 온몸에 쇠못이 박히는 형벌을 받는 철정지옥(鐵釘地獄), 죄인을 기둥에 묶은 채 산채로 몸이 자르는 고통을 주는 거해지옥(鋸骸地獄), 칼로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을 당하는 도산지옥(刀山地獄) 등이 표현되어 있다. 이 지옥장면들은 시왕도에서 주로 표현되는 장면들이다. 상단의 지장시왕도와 하단의 지옥장면이 결합하면서 시왕전에 봉안된 지장도와 시왕도가 하나의 화면에 압축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지옥 장면에서 처벌 받기를 기다리는 인물들은 모두 한복을 입고 있는 조선인 여성과 남성들이다.



도 1-4. 지옥장면, <관음사 후불도>의 하단 부분



도 1-5. 반야용선도를 타고 왕생하는 장면, <관음사 후불도>의 하단 부분

백의관음보살의 하단에는 지옥 장면과 사뭇 다른 분위기가 펼쳐져 있다(도 1-5). 화면의 좌측에는 아미타삼존이 2명의 남녀를 굽어보고 있으며, 아미타삼존의 아래 주악천녀들은 극락왕생의 기쁨을 표현하듯 흥겹게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2명의 남녀인물은 옆에 표현된 반야용선을 타고 극락세계에 도달하여 아미타삼존을 바로 앞에서 뵈고 있다. 흰 연꽃을 들고 있는 여인은 머리를 부풀려 풍성하게 만든 머리와 기모노를 입은 모습으로 일본의 전통적인 복식을 차려입은 일본 여인으로 추정된다. 아미타삼존을 향해 영지를 들고 팔을 높이 든 인물은 머리에 관모를 쓰고 팔의 통이 넓은 도포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 추정된다.

그 옆의 반야용선도를 살펴보면 용선의 앞에 지장보살이 서서 이끌고 있다. 용선 안에는 한쪽 어깨를 드러낸 우견편단의 여래가 앉아 있고 그 앞에는 인로왕보살이 번을 들고 서있으며, 여래를 향해 합장을 한 왕생자들의 모습도 보인다. 표현상 특별한 점은 배의 뒤쪽에 칼을 든 험악한 인상의 귀족이 배 위에 오르려는 사람들을 떨어뜨려 배에 오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중 쪽머리를 한 여인은 붉은 저고리와 녹색 치마를 입은 모습을 통해 조선의 여인임을 알 수 있다. 그 옆의 민머리의 남성은 도포를 입고 있기는 하나 평범한 신분의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다.³³⁾ 이 두 남녀는 극락왕생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선에 오를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용선을 탈 수 없는 인물을 평범한 조선인으로 표현한 것은 일제강점기 식민지사회의 차별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닐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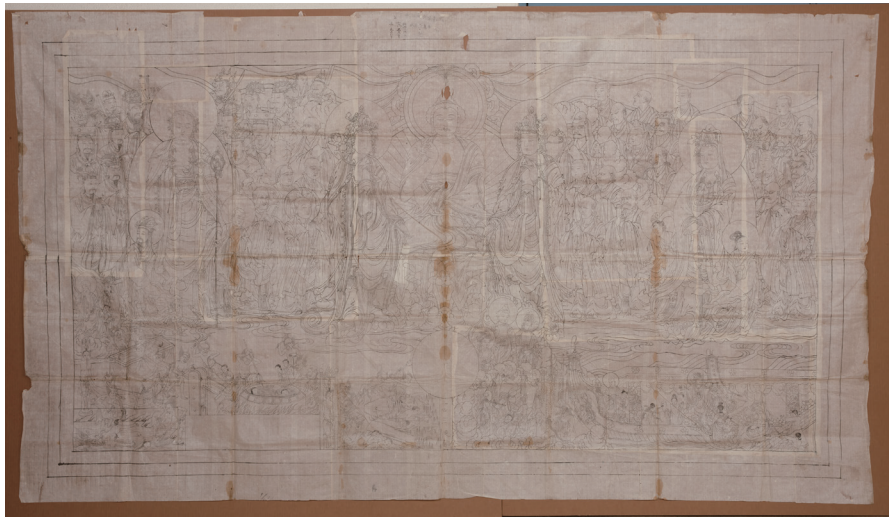
이 불화는 일제가 1939년 중일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기점으로 전쟁이 본격화되자 황민화정책(皇民化政策), 창씨개명(創氏改命), 내선일체(內鮮一體) 등을 내세우면서 악랄한 식민지 정책을 전개하던 시기에 제작되었다. 당시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 종교적인 예배대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 시기 시대상을 반영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³⁴⁾

2. 일심삼관 수행과 원상(圓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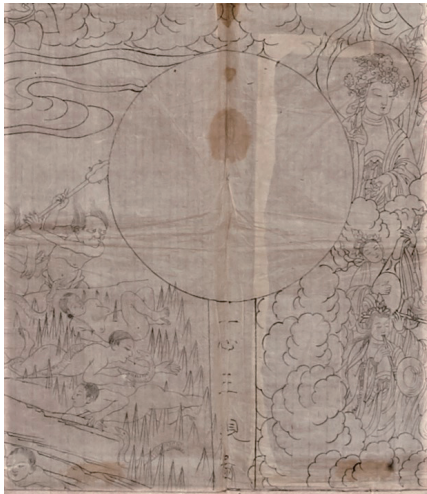
〈관음사 후불도〉는 아미타불의 속성을 지닌 석가설법도와 극락왕생과 지옥의 심판이 하나로 어우러진 독특한 구성의 불화임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합적인 도상을 통해 지향하고자 한 신앙적인 목적을 무엇이였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은 가장 하단에 표현된 원상(圓相)을 통해 찾을 수 있다.

33) 이 불화의 초본에는 한글로 '공부업는 사람이 극락에 무슨 일이 있나'라고 쓰여 있어 교육을 중시했던 당시의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교육은 불교 포교의 주요사업이었고 이와 관련해 만해 한용운은 "교육을 방해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고 교육을 진흥시키는 자는 마땅히 불도를 이루리라"고 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최엽, 『한국 근대기 불화의 대중 포교적 성격』, 『미술사학연구』281(한국미술사학회, 2014), p. 210.

34) 이승희, 앞의 논문, pp. 397-398.



도 14. <관음사 후불도> 초본, 1940년, 김제 부용사(국립광주박물관 제공)



도 14-1. <관음사 후불도> 초본의 하단부분

일설이 주석하였던 전북 김제 부용사(芙蓉寺)에는 <관음사 후불도>의 초본이 잘 남아 있다(도 14). 이 초본에는 불화에서 볼 수 없었던 부분이 남겨져 있어 주목된다. 불화에서는 화면 하단의 중간 부분에 위치한 원상을 붉은 색의 세로 받침대로 받치고 있을 뿐 아무 것도 쓰여 있지 않다. 하지만 초본에서는 원상을 받치고 있는 세로 받침에 '일심삼관도(一心三觀圖)'라고 쓰여 있다(도 14-1).

일심삼관은 천태종(天台宗)에서 중시하는 관상(觀想) 수행법이다. 일심삼관에서 일심(一心)은 곧 하나의 마음 속에 모든 것이 갖추어 있다는 의미이다. 모든 현상에는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주시하는 공관(空觀), 모든 현상이 여러 인연의 일시적인 화합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주시하는 가관(假觀), 공(空)이나 가(假)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진리를 주시하는 중관(中觀)은 서로 원만하게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 일심삼관은 그 3가지 진리를 동시에 관찰하며 수행하는 마음의 수행법인 것이다.

일심삼관의 수행법은 천태교관이 유입된 삼국시대부터 행해졌겠지만 고려 대각국사의천(大覺國師義天, 1055~1101)대부터 본격적으로 불가(佛家)에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화엄종승이었던 대각국사의천은 송으로 유학을 떠나 천태교학을 배우고 돌아와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화엄종 승려였던 그가 천태종을 개립한 까닭은 천대의 근본 사상인 회삼귀일(會三歸一)과 일심삼관(一心三觀)의 교의로써 국가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선(禪)과 교(敎)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고려 후기 백련결사의 활동과 원간섭기



도 15. <심우사 일심삼관문도>, 1921년, 면본채색, 217×161.5cm, 경남 거창 심우사(『한국의 불화』5, 성보문화재연구원, 1997, p. 181)

왕실의 후원을 받으며 교세를 펼쳤던 천태종은 선·교양종으로 통합된 조선전기에 선종으로 통합되었으며, 일심삼관의 수행법은 명맥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근대기에 ‘일심삼관’이라는 수행법이 재조명되고, 불화로 그려지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음사 후불도>보다 19년 전에 그려진 거창 <심우사 일심삼관문도>가 참고가 된다(도 15).

<심우사 일심삼관문도>는 1921년에 서울의 불교중앙포교소의 설법전에 걸렸던 불화이다. 출초를 한 사람은 당대의 유명한 화승이 고산축연(古山竺演)이고, 학송학눌(鶴松學訥), 초암세복(草庵世復)과 사미정순(沙彌淨順)이 그렸다.³⁵⁾ 불화의 하단 중앙에 원상이 있고, 흰색의 둥근 원에서 위쪽과

양옆 세 갈래로 거대한 물기둥과 같은 기운이 피워 올라간다. 원래는 세 구획으로 나누어 있었던 것으로 향우측은 망실되었고, 향좌측에는 『부모은중경』 내용이 도설되어 있다. 중앙에는 아미타여래와 관음보살을 중심으로 한 정토의 모습과 왕생자가 반야용선에 몸을 싣고 정토로 향하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화기 첫머리에는 ‘제 천궁전수선상생 극락구품반야용선 일심삼관문 모과수인(諸天宮殿修善上生極樂九品般若龍船 一心三關門³⁶⁾ 慕果修因)’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화기에 적힌 ‘일심삼관문(一心三關門)’에 근거하여 이 불화를 일반적으로 ‘일심삼관문도’라고 부른다. 1921년에 3월1일에 그리기 시작하여 관불일(灌佛日)에 불교중앙포교소설법전에 봉안하였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 발원문구에는 천궁전(天宮殿)에서 선(善)을 닦아 반야용선을 타고 극락구품에 상생(上生)하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다.³⁷⁾

‘일심삼관’을 중요한 개념으로 그리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인물이 화기에 적힌 감독(監督) 회광사선(晦光師璿)이다. 직원(職員)으로 등재되어 있어 당시 불교중앙포교소의 감독직을 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광사선은 바로 이회광(李晦光, 1862~1933)으로, 일본 정토종의 영향을 받아 1906년 설립된 불교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한국 최초의 근대적 불교 종단인 원종(圓宗)을 1908년 창설하고

35) 화기는 『한국의 불화 화기집』(성보문화재연구원, 2011), p. 479, 참고.

36) 일심삼관문(一心三觀門)의 오기로 추정된다.

37) 화기는 『한국의 불화 화기집』(성보문화재연구원, 2011), p. 479, 참고. 강소연, 「전통불화의 창조적 재현 <一心三觀門幀>」, 『문학, 사학, 철학』24권(2010), pp. 170-174, 최엽, 앞의 논문, pp. 207-208.

초대 종정을 역임한 인물이다. 또한 1910년 일본 조동종과의 연합을 추진하는 등 친일 노선에서 활동한 인물이다.³⁸⁾ 원종은 1908년 동대문 밖 원흥사에서 총회를 열고 원종 종무원을 설립하고, 이회광을 대종정을 추대하면서 창설되었다. 1910년에는 현재 조계사 자리에 각황사(覺皇寺)를 설립하고 원흥사에 봉안하였던 금불을 각황사로 이안하고, 원종의 종무원을 각황사로 이전하며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1912년 총독부에서 원종이나 임제종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단지 '조선불교선교양종'으로 통칭하게 함으로써 원종은 사라진다.³⁹⁾ 이후 1914년 9월 11일 창건 당시의 각황사를 모두 철거하고 일본과 서양을 혼합한 양식의 2층 교당을 기공한 후 각황사는 일제 강점기 동안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이자 대중 포교의 구심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역할은 1938년에 총본산 태고사(현 조계사)를 옮겨 지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비록 원종은 종단으로 자리잡지 못했지만 이회광의 영향력은 1920년대 초반까지도 지속되었고, 각황사의 불교중앙 포교소에서 감독을 맡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원종은 불과 5년 동안 존재했던 종파였지만 이회광이 정립한 원종의 종교관은 이후에도 그의 활동영역 안에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회광이 건립한 원종이라는 이름에 관해 이능화는 그 종명이 고려 대각국사 의천(大覺國師義天, 1055~1101)이 언급한 원종에서 왔다고 하였다. 앞서 대각국사의친은 화엄종승이었지만 고려에 천태종을 개입하고, 선(禪)과 교(敎)의 화합을 도모하였다. 그는 원종의 '원(圓)'이 일체 제법(諸法)의 사리가 융통되어 막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원융무애(圓融無碍)에서 나왔다고 서술하였다.⁴⁰⁾ 원종이라는 명칭을 통해 추정해볼 수 있듯이 이회광은 아마도 의천의 사상에 깊이 경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심우사 일심삼관문도>는 이러한 천태종의 일심삼관 수행법에 그 사상적 근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불화의 구성과 세부 표현에 있어서는 당시 사회상과 신앙 경향이 반영되어 있다. 불화는 근대기 새롭게 출현한 불교포교소라는 공간에 걸맞게 설명적이고 서사적인 그림으로 대중 감화와 포교에 중점을 두고 제작되었으며, 석가탄신일에 봉안하기 위해 주제에 맞는 『부모은중경』의 내용을 묘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⁴¹⁾ 또한 반야용선에 몸을 싣고 정토로 향하고 있는 장면을 중앙에 배치한 것은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를 극락왕생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부모은중경』의 내용이나 극락세계와 왕생에 관한 모든 기원과 현상은 근원적인 진리인 원상에서 파생한 현상으로 이해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38) 근현대 불교인물 탐구⑧ 이회광 / 윤기엽불교평론 <http://www.budreview.com>

39) 이능화, 「布敎規則認定三敎」, 『朝鮮佛敎通史』下卷.

40) 김정집, 「근대 원종의 성립과 의의」, 『한국불교학』 제29집(2001), pp. 231-232. 의천은 1087년에 『원종문류(圓宗文類)』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총 22권 중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 14, 22권 3책 뿐이다. 이 3권에 근거하여 『원종문류』는 화엄과 관련된 저술서로 인식되고 있지만 천태종 개창과 같은 그의 활동을 추정하여 볼 때 의천의 원융무애는 화엄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법화사상까지도 통섭하여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41) 최엽, 「한국 근대기 불화와 화승 금융 일섭의 불화」, 『동악미술사학』24(동악미술사학회, 2019.12), p. 37.

3. 이회광·이회명의 영향

이제부터 제주도 <관음사 후불도>를 일심삼관도로 제작하게 된 배경에 관해 관음사의 승려들과 이회광, 이회명의 제주 활동과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관음사는 근대기 제주도에서 창건된 사찰 가운데 시대가 가장 올라간다. 창건주인 안봉려관은 제주도 출신 비구니로 제주 불교의 중흥조라고 할 수 있다.⁴²⁾ 그녀는 1908년 김석윤(金錫允, 1877~1949)에게 가사를 전수 받고 그의 도움을 받아 관음사를 창건하였다.⁴³⁾ 김석윤은 1894년 출가한 제주 출신으로 1909년 항쟁을 이끄는 등 제주 항일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자 근대 제주불교의 기틀을 마련한 승려이다. 1911년에는 안봉려관과 함께 법정사를 창건하고 1918년 법정사를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펼쳤다.⁴⁴⁾ 안봉려관은 1910년에 용화사에서 안거 중이던 김석윤과의 인연으로 용화사의 영봉(靈峰)화상과⁴⁵⁾ 안도월⁴⁶⁾ 처사 등이 불상과 탕화를 관음사로 이운 봉안하여 관음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⁴⁷⁾ 이때 안도월은 관음사 1대 주지로서 안봉려관을 도와 관음사가 사찰로서 면모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1911년 사찰령 반포된 후 관음사는 1918년 6월 11일 '대본산 대홍사말사 제주도 포교당'으로 허가를 받았다. 포교담당자는 대홍사의 주지였던 이화담(李華曇)이었다.⁴⁸⁾ 관음사는 제주도포교당으로 인정받기는 하였지만, 1918년 김석윤, 안봉려관 등이 창건한 법정사를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결행함에 따라 1930년까지 일제의 통제를 받았다. 이 시기에 안봉려관은 일제의 통제를 타개하기 위해 무단한 노력을 하였다. 그 일환으로 안봉려관은 1924년에 창설된 '제주불교협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제주불교협회'는 일본이 문화정치의 일환으로 종교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협회이다. 초대회장은 이회명(李晦明, 1866~1951)이다. 이회명은 1897년 고종의 비인 엄비의 명을 받아 건봉사 봉암암(鳳巖庵) 준제보살(準提菩薩) 앞에서 엄비가 왕세자를 낳을 수 있도록 백일기도를 하였으며, 이를 기회로 왕실과 각별한 친교를 맺었다. 그는 포교사로서 명성을

42) 한금순, 「안봉려관과 근대 제주불교의 중흥」, 『정토학연구』 14(2010. 12), pp. 247-288.

43) 이은상, 「두륜산인 관음사 사적기」, 『탐라기행』(1937). 안봉려관은 1865년 제주도에서 태어났다. 1882년 결혼하여 1남4녀를 두었으나 1889년 우연히 고승을 만나게 되어 정미년(1907) 9월(혹 12월 28일)에 출가의 뜻을 품고 해남 대홍사 승려 유장(宥藏)스님을 은사로 청봉(淸峰)화상을 계사로 모시고 계를 받았다. 다음 해(1908) 정월(혹 5월 5일)에 돌아와 불법을 포교하고자 하였으나 도민들의 핍박이 매우 심하였다고 한다.

44) 김광식, 「법정사 항일운동의 재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집(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5) pp. 141-176. 한금순,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 『淨土學研究』 第十輯(2007), 429-467쪽. 한금순, 「승려 김석윤을 통해 보는 근대 제주인의 사상적 섭렵」, 『대각사상』 제19집(2013.6), 287-312쪽.

45) 1910년 약사전 불화와 1912년 감로도에서 영봉두연은 화주를 담당하였다.

46) 1910년 경 출가한 후 이회명과 함께 1920년대 제주불교를 중흥시킨 오이화의 은사이다.

47) 통영군 용화사의 불상, 불화의 이운에 관해서는 다음의 저서를 참고. 김형식 저, 오문복 역, 「유(遊) 관음사기」, 『혁암산고』(복제주문화원, 2004), pp. 279-280; 이은상, 『탐라기행』(조선일보사, 1937); 한금순, 위의 논문(2010), pp. 252-262.

48) 한금순, 위의 논문(2010), pp. 266-267.

쌓으며 활동을 하였고, 1908년에는 원종의 불교종무국취지서 발기인 중 13도의 사찰 대표로 참여하였다. 이회명이 중앙불교계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원종의 종정 이회광의 역할이 컸다. 이회명은 건봉사에서 명성이 높은 강백이었던 이회광을 사형(師兄)으로 모시고 사교과 가운데 농업경과 기신론, 화엄경을 공부한 바 있다. 이러한 인연으로 이회명은 중앙불교계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포교사로서 명성이 더욱 높아졌다.⁴⁹⁾

이회명은 1921년 9월 29일 제주 법화사에서 동안거 설법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제주 포교 활동을 추진하였다.⁵⁰⁾ 일제의 문화정치 정책에 따라 친일성향을 가진 이회명에게 제주불교를 일임했다고도 할 수 있다. 1924년에는 관음사 중창 낙성식과 더불어 제주불교협회를 출범시킨다. 4월 초파일을 맞아 거행된 관음사 중창 낙성식에는 경성의 이회광, 본산 대홍사 주지 대리 감선월(甘船月), 나주 다보사 주지 김금담(金錦潭) 등이 참석했으며, 제주도의 행정 책임자들을 비롯하여 만여 명에 이르는 신도들의 운집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⁵¹⁾ 또한 관음사 초대 주지에 임명된 안도월과 2대 주지 오이화가 건단(建壇)하여 이회명의 법사(法嗣)와 법손(法孫)이 되었고,⁵²⁾ 제주도의 명망 있는 승려들이 이회명의 문도임을 자처하고 나섰다. 관음사 중창 낙성식 이후의 관음사와 제주불교의 활동은 이회명을 주축으로 하게 된다. 안봉려관을 필두로 관음사의 승려들은 제주불교협회의 요직을 맡아 적극 참여하였다. 안봉려관은 구제부장, 안도월은 포교부장, 오이화는 포교부 간사로서 실질적으로 제주불교협회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제주 법정사 항일 운동 이후 위축되었던 관음사는 다시 제주불교 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었다.

안봉려관과 안도월은 1925년 4월 제주시 이도리에 제주불교포교당을 신축하고, 불교협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으로 제주불교협회를 운영하였으며, 제주불교협회 활동을 위해 제주도에 내려온 이회명은 관음사 주지 안도월과 안봉려관 등과 순회 포교에 나서기도 하였다.⁵³⁾ 결국 이회명은 1925년 관음사의 포교담당자로 임명이 되었다. 이회명은 함경남도 안변군 석왕사 소속이었으므로 대홍사 제주포교소인 관음사의 포교담당자가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음사의 포교담당자가 되었다. 1927년 제주를 떠났는데도 계속하여 관음사의 포교담당자를 맡았다. 1930년에 가서야 비로소 관음사의 실제 주지인 안도월이 관음사의 포교담당자로 허가되었다.⁵⁴⁾

이제까지 살펴본듯이 이회명은 안봉려관을 비롯하여 안도월과 오이화와 관계가 매우 친밀하였을 뿐

49) 이경순, 「이회명과 근대 제주불교」, 『대각사상』 제35집(2021.6), pp. 194-197.

50) 한금순, 앞의 논문(2010), p. 253. 이회명에 관해서는 이경순, 위의 논문, pp. 191-217.

51) 「제주 관음사 낙성식」, 매일신보(1924.6.4.); 권태연 편역, 『회명문집』, 도서출판 여래(1991), p. 363; 한금순, 위의 논문(2010), pp. 268-269.

52) 『조선불교』(1924.7.11), 한금순(2010), 앞의 논문, p. 269.

53) 한금순, 앞의 논문(2010), pp. 270-271.

54) 한금순, 앞의 논문(2010), pp. 272-273.

아니라 그들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안도월은 이회명을 스승으로 모셨으며,⁵⁵⁾ 오이화는 이회명에게 구축계를 받았다.⁵⁶⁾ 비록 1931년 안도월이 주도한 제주불교임시대회에서 제주불교계만의 힘으로 활동하고자 하였고,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39년 제주불교연맹에서 오이화가 제주불교활동을 주도하게 되었다.⁵⁷⁾ 하지만 1946년 이회명이 제주도에서 보살계법회를 집전하고 관음사에 머물렀다는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관음사를 비롯한 제주불교계에 그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회명의 제주포교 활동과 제주불교협회의 창설, 관음사 중창불사 등 이회명과 관음사 승려들은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회명의 사형인 이회광이 불교중앙포교소의 설법전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된 <심우사 일심삼관도>는 비록 도상은 다르지만 일심삼관 수행을 목적으로 제작된 불화라는 점에서 <관음도 후불도>와 같은 신앙과 사상을 공유하고 있다.

IV. 맺음말

이제까지 근대기 제주 불화와 제주도의 지역성과 시대를 대표하는 불화로 <관음사 후불도>를 살펴보았다. 제주도에 현전하는 불화는 모두 12점으로, 7점은 제주도 외 지역 즉 본토와 일본 등지에서 조성되어 제주도로 유입된 불화이고, 5점은 1940~41년에 금융일섭 화파가 제주도에 들어와 직접 조성한 불화들이다.

제주도 불화들의 대부분 근대기 불화들이다. 1702년 이형상 목사의 사찰 훼손 이후 무불시대를 거쳐 본격적인 불교활동이 일어난 사건이 1908년 관음사 창건이었다. 관음사를 창건한 안봉려관과 초대주지인 안도월, 오이화 등은 제주도에 새로운 불교의 변화를 이끌었다. 1910년부터 불화가 제주도에 전래되기 시작하였다. 전래된 불화 가운데 주목할 만한 불화는 <금봉사 오백나한도>이다. 규모도 크고, 무엇보다 한라산 영실기암 오백나한 신앙과 관련성이 엿보인다. 또한 주존을 중심으로 하나의 화면에 오백나한을 배치하는 것은 일본 지온인 소장 고려 후기 <석가삼존오백나한도> 이래로 유례가 없다.

일제강점기인 20~30년대 대홍사, 화엄사, 선암사 등 대본산을 중심으로 제주도에 포교당을 설치하여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펼치면서 불화 수요가 점차 증가하였을 것이다. 이에 제주도 성내 대홍사포교당(관음사)의 포교사이자 조천교당의 주지였던 허웅선 스님과 관음사의 회주였던 오이화는 금융일섭과 그

55) 한금순, 「안도월과 근대 제주불교」, 『대각사상』 제25집(2016. 12), p. 333.

56) 1914년 대홍사에서 안도월을 은사로, 박만하를 사미계사로 득도하였다. 「제주불교 인물열전 16, 오이화 스님(吳利化, 1903~1950)」, 제주불교(2007. 05. 21.), <http://www.jejubulgyo.com/>

57) 한금순, 위의 논문(2016. 12), pp. 346~350.

제자들을 초청하여 불화를 다수 제작하게 하였다. 약 8개월간 29점의 불화를 제작하였는데, 그중 다섯 점의 불화가 남아 있다. 이들 작품 가운데 대표적인 불화가 <관음사 후불도>이다.

<관음사 후불도>는 제주 근대기를 대표할 만한 불화로 관음사의 사격과 신앙, 그리고 금용일섭 파의 창의력 등이 돋보이는 의미있는 불화이다. 더구나 이 불화는 밑그림(草本)이 금용일섭의 교육기관인 성예원에 잘 남아 있어 사상적인 측면도 이해 가능하다. 불화에는 쓰여있지 않지만 초본에는 '일심삼관도(一心三觀圖)'라는 불화의 명칭이 남아 있다. 일심삼관은 예로부터 천태종(天台宗)에서 중시하는 관상(觀想) 수행법이다. 일심삼관에서 일심(一心)은 하나의 마음 속에 모든 것이 갖추어 있다는 의미이다. '일심삼관' 수행을 목적으로 불화를 그린 예는 근대기에 처음 등장한다. 1921년 서울의 불교중앙포교의 설법전에 봉안되었던 <심우사 일심삼관도>가 관음사 불화를 제외하고 유일하다. 이 불화는 근대 친일파 승려였던 이회광이 감독(監督)으로 있었을 때 조성된 것이다. 이회광을 사형(師兄)으로 둔 이회명은 1924년 제주불교협회의 초대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관음사의 승려들과 함께 제주포교활동을 추진하였다. 특히 <관음사 후불도> 조성을 주도했던 관음사 2대주지인 오이화는 이회명에게 구족계를 받았던 승려이다. 따라서 <관음사 후불도>에 일심삼관의 개념을 구현한 것은 이회명이 제주활동을 할 때 맺게 된 오이화와와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도상은 다르지만 <심우사 일심삼관도>의 사상적 측면을 계승하고 있다.

<보고서 및 도록>

- 『근현대문화유산 종교분야 불교 목록화 조사연구 보고서』, 2013.
- 『마곡사 근대불화를 만나다』, 국립공주박물관, 2012.
- 『보용, 일섭, 우일 작품선집 : 조선불교미술의 맥을 이은 금어들』, 통도사 정보박물관, 2006.
- 문화재청·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전라북도/제주』, 2003.
- 석정, 『韓國의 佛畫草』, 『韓國의 佛畫草本』, 통도사정보박물관, 1992.

<단행본 및 논문>

- 강석주, 『불교근세백년』, 서울: 중앙일보사, 1980.
- 강소연, 「전통불화의 창조적 재현 <一心三觀門幀>」, 『문학, 사학, 철학』 24권, 2010.
- 古鏡스님, 『金魚 金蓉日變의 年譜』, 송광사정보박물관, 2016.
- 고경스님 校勘, 송전스님·이중수·허상호·김정민 編著, 『한국의 불화 화기집』, 성보문화재연구원, 2011.
- 金光植, 『불교의 근대성과 한용운의 대중불교』 『한국불교학』 50, 2008.
- 金光植, 「근대 불교사 연구의 성찰 - 회고와 전망」, 『민족문화연구』 45, 2006.
- 金光植, 「일본불교의 영향을 받은 근대불교의 다면성」, 『일본불교사연구』 9, 일본불교사연구소, 2013.
- 김경집, 「근대 圓宗의 성립과 의의」, 『한국불교학』 제29집, 2001.
- 김기중, 「근대 대중불교운동의 이념과 전개 - 권상로·백용성·김태흡의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 『한민족문화연구』 28, 2009.
- 김상명, 「曼庵 宗憲의 생애와 활동 - 1927년까지의 활동을 중심으로 -」, 『대각사상』 19, 2013.
- 김성순, 「일제강점기 마산지역 일본불교의 활동과 마산포교당의 대응에 관한 고찰」, 『민족문화연구』 91, 2021.
- 김순석,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불교 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서울: 경인문화사, 2003.
- 김순석, 「근대 일본 불교 세력의 침투와 불교계의 동향」, 『한국학연구』 18,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08.
- 김영희, 「金蓉日變(1900~1975)의 佛像과 藝術觀-個人樣式 成立期를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9, 2016.
- 김지연, 「조선후기 반야용선도 연구」, 『미술사학연구』 제281호, 2014.
- 신은미, 「화승 김일섭의 불화 연구」, 『강좌미술사』 26-2, 2006.
- 신은영, 「금용 일섭의 『年譜』와 佛教藝術運動」, 『동악미술사학』 24, 2018.
- 예지숙, 「1920년대 불교계의 사회사업의 동향과 사회문제 인식」, 『동국사학』 67, 2019. 12.
- 윤기엽, 「1920년대 불교계의 혁신론과 개혁운동」, 『한국사상과 문화』 제79집, 2015.
- 윤영해, 「한국불교의 도심포교와 대중화 연구」, 『불교연구』 26, 2007.
- 이경순, 「이회명과 근대 제주불교」, 『대각사상』 35, 2021. 6.
- 이능화, 『역주 조선불교통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9.
- 이승희, 「제주 근대기 전통불화의 제작과 특징」, 『승실사학』 47, 2021. 12.
- 제점숙, 「일본불교의 근대인식과 개항기 조선: 정토종(淨土宗)의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32, 2011.
- 최엽, 「20세기 전반 佛畫의 새로운 동향과 畫僧의 입자: 서울 安養庵의 佛畫를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66, 2010.
- 최엽, 「한국 근대기 불화의 대중 포교적 성격」, 『미술사학연구』 281, 2014.

최엽, 「한국 근대기 불화와 화승 금융 일섭의 불화」, 『동악미술사학』 24, 2019. 12.

최엽, 「마곡사 화승 약효와 동시대 활동했던 화승들의 근대기 불화」, 『마곡사 근대불화를 만나다』, 국립공주박물관, 2012.

하지연, 「한말·일제 朝日佛教聯合 시도와 李晦光」, 『이화사학연구』 제30집, 2003.

한금순, 「승려 김석운을 통해 보는 근대 제주인의 사상적 섭렵」, 『대각사상』 19, 2013.

한금순, 「안도월과 근대 제주불교」, 『대각사상』 26, 2016. 12.

한금순, 「안봉려관과 근대 제주불교의 중흥」, 『정토학연구』 14, 2010. 12.

<학위논문>

김지연, 「近代 畫僧 金容堂 日變 불화에 대한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신은영, 「금어 금융 일섭의 "연보"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한금순, 「근대 제주불교사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근대기 제주 불화와 관음사 후불도

이승희(덕성여자대학교 연구교수)

제주도 불화들의 대부분 근대기 불화들이다. 1702년 이형상 목사의 사찰 훼손 이후 무불시대를 거쳐 본격적인 불교활동이 일어난 사건이 1908년 관음사 창건이었다. 관음사를 창건한 안봉려관과 초대주지인 안도월, 오이화 등은 제주도에 새로운 불교의 변화를 이끌었다. 1910년부터 불화가 제주도에 전래되기 시작하였다. 전래된 불화 가운데 주목할 만한 불화는 <금봉사 오백나한도>이다. 규모도 크고, 무엇보다 한라산 영실기암 오백나한 신앙과 관련성이 엿보인다. 또한 주존을 중심으로 하나의 화면에 오백나한을 배치하는 것은 일본 지은인 소장 고려 후기 <석가삼존오백나한도> 이래로 유례가 없다.

일제강점기인 20~30년대 대홍사, 화엄사, 백양사 등 대본산을 중심으로 제주도에 포교당을 설치하여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펼치면서 불화 수요가 점차 증가하였을 것이다. 이에 제주도 성내 대홍사포교당(관음사)의 포교사이자 조천교당의 주지였던 허응선 스님과 관음사의 회주였던 오이화는 금융일섭과 그 제자들을 초청하여 대대적으로 불화를 제작하였다. 당시 약 8개월간 29점의 불화를 제작하였는데, 그중 5점의 불화가 남아 있다. 이들 작품 가운데 대표적인 불화가 <관음사 후불도>이다.

근대기 불교의 신앙적인 측면을 잘 보여주는 불화가 <관음사 후불도>이다. 이 불화는 밑그림(草本)에 '일심삼관도(一心三觀圖)'라는 불화의 명칭이 남아 있다. 일심삼관은 예로부터 천태종(天台宗)에서 중시하는 관상(觀想) 수행법이다. 일심삼관에서 일심(一心)은 하나의 마음 속에 모든 것이 갖추어 있다는 의미이다. <일심삼관도>를 주제로 한 또 다른 불화는 1921년 서울의 불교중앙포교의 설법전에 봉안되었던 <심우사 일심삼관도>가 있다. 이 불화는 근대 친일파 승려였던 이회광이 감독(監督)으로 있었을 때 조성된 것이다. 이회광을 사형(師兄)으로 둔 이회명은 1924년 제주불교협회의 초대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관음사의 승려들과 함께 제주포교활동을 추진하였다. 특히 <관음사 후불도> 조성을 주도했던 관음사 2대주지인 오이화는 이회명에게 구족계를 받았던 승려이다. 따라서 <관음사 후불도>에 일심삼관의 개념을 구현한 것은 이회명이 제주활동을 할 때 맺게 된 오이화와와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도상은 다르지만 <심우사 일심삼관도>의 사상적 측면을 계승하고 있다.

주제어: 제주도 불화, 근대불화, 금융 일섭, 관음사후불도, 일심삼관도

Modern Buddhist Painting in Jeju and the *Gwaneumsa Hubuldo*

Lee, Seunghui(Duksung Women's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The practice of Buddhism in Jeju suffered such a decline after the destruction of temples on the island in 1702 by the island's magistrate, Lee Hyeong-Sang (1653-1733), that late Joseon Dynasty Buddhism on the island can be said to have been almost non-existent. The revival of Buddhism in Jeju took plac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Beginning with the rebuilding of Gwaneumsa Temple by the female monk (bikkhunu) An Bongryeogwan in 1908 and the subsequent active propagation of the religion by such figures as Kim Seok-Yun, An Do-Wol and O I-Hwa, Jeju entered its modern period.

The Buddhist paintings in Jeju that have been transmitted to us from the past were all created on the islan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or imported from mainland Korea. This paper provides the results of an examination of 12 modern Buddhist paintings in Jeju. More than half of these paintings were brought to Jeju from the Korean peninsula. Five of the paintings were directly created by the leading monk-artist Ilseop and his disciples following their arrival in Jeju. Most of these paintings were made by the monks while visiting the island in 1940 and 1941. Ilseop and his disciples are representative monk-artists of the modern period who painted in the tradition of Yakhyo and Munseong, who were primarily active at Magoksa Temple. Ilseop established a modern Buddhist painting training center at Buyongs Temple in Gimje, where he was active in the education of disciples and other activities, and his modern artwork has made immensely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modern practice of Buddhist painting.

The *Gwaneumsa Hubuldo* is a Buddhist painting that clearly exhibits the religious characteristics of modern Buddhism. The illustration at the bottom section of the piece is labeled *Il Simsamgwando*. *Il Simsamgwando* is a method of contemplation that has long been emphasized by the Cheontae-jong order of Korean Buddhism. *Il sim* (一心, one mind) is a term that refers to the concept of all things being contained within the mind. Another painting created in the same theme of the *Gwaneumsa Il Simsamgwando* is the *Simusa Il Simsamgwando*, which was enshrined in the Seolbeopjeon (Teaching Hall) at the Bulgyo Jungang Pogyo (Dharma Propagation Headquarters) in Seoul in 1921. It was painted under the supervision of Lee Hoe-Gwang, a pro-Japanese monk. Lee Hoe-Gwang's Buddhist elder brother Lee Hoe-Myeong was appointed as the first president of the Jeju Bulgyo Hyeophoe (Jeju Buddhism Association) in 1924 and participated in the propagation of Buddhism in

Jeju along with monks from Gwaneumsa Temple. O I-Hwa was a monk who became fully ordained as a Buddhist monk under Lee Hoe-Myeong, and as the second person to hold the position of chief monk of Gwaneumsa Temple led the creation of the *Gwaneumsa Ilsimsamgwando*. So the depiction of the concept of contemplation (*ilsimsamgwan*), in the *Gwaneumsa Ilsimsamgwando* was due to the connection between Lee Hoe-Myeong and O I-Hwa, who developed a relationship during their time spent promoting Buddhism in Jeju.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iconography, the *Gwaneumsa Ilsimsamgwando* belongs to the ideological tradition of the *Simusa Ilsimsamgwando*.

Keywords: Buddhist painting in Jeju, modern Buddhist painting, Geumyong Ilseop, Gwaneumsa Temple, *Gwaneumsa Hubuldo*, *Ilsimsamgwando*

1940년대 제주 포교당 건립과 금융 일섭(金蓉日燮)의 불사

김영희*

I. 머리말

II. 근대 불교의 포교당 설립과 제주 포교당 현황

1. 근대 불교 신앙 공간으로서의 포교당 설립
2. 20세기 초 제주 포교당 설립 현황

III. 1940년대 금융 일섭의 제주 불사

1. 금융 일섭의 제주 불사 과정
2. 제주 포교당의 발전과 예배용 존상의 봉안

IV. 1940년대 금융 일섭 제주 불사 작품의 특징

1. 포괄적 성격의 도상 창안
2. 포교당 기능 확대에 따른 의식용 불화의 조성
3. 금융 일섭 초기 양식의 성립

V. 맺음말

I. 머리말

근대기 불상과 불화의 조성에 종사한 금어(金魚) 금융 일섭(金蓉日燮, 1900~1975)은 1940년부터 1941년까지 제주도에 머물면서 많은 작품을 조성하였다. 일섭은 활동 범위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시기의 제주 불사는 짧은 기간 동안 한 지역에서 많은 작품을 조성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점에서 주목된다. 일섭은 1940년 7월 제주에 도착한 후 1941년 4월까지 약 7개월간 9개소의 사찰에서 총 34여 건의 불사를 행했다.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작품을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제주에서 불사의 수요가 많았던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는 불사를 행한 사찰의 명칭이 대부분 ‘포교당’ 혹은 ‘○○교당’이라고 기록된 점과 관련된다. 이들은 당시 새로이 건립된 포교당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포교당의 확장과 함께 사찰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불상·불화를 모시고자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섭의 1940년대 제주 불사는 당시 제주에서의 불교 확산에 따른 포교당 건립이라는 배경에서 단기간 집약적으로 이루어진 다량의 불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불사를 살펴봄으로서 근대 제주 불교의 신앙 형태와 사찰의 면모가 갖추어져 나가는 모습을 고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근대기 한국 불교의 포교당 건립 상황을 살펴보고, 그 맥락에서 1940년 시점의 제주 포교당 건립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일섭의 작업일지인 『일섭일생연보(日變一生年譜)』(이하 『연보』) 기록을 토대로 1940년대 제주 불사 진행 과정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서 이 불사가 근대 제주 불교의 발전과 일섭 개인의 작품세계 확립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근대 불교의 포교당 설립과 제주 포교당 현황

1. 근대 불교 신앙 공간으로서의 포교당 설립

일제강점기의 한국 불교는 1911년 6월 조선총독부의 「사찰령(寺刹令)」 제정으로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다. 「사찰령」은 사찰의 병합·이전·폐지 혹은 명칭 변경과 같은 제반 사항과 사찰에 속한 토지·건물·불상·문서 등의 소유물의 처분에 모두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¹⁾ 이어 제정한 「사찰령시행규칙」에는 경기도 봉은사(奉恩寺)를 비롯한 30개 사찰의 주지 취직을 조선 총독에게 인가받도록 하였다.²⁾ 이는 조선 사찰의 운영 및 인사권을 모두 조선총독부가 장악하는 내용이었다. 또 봉은사를 비롯한 30개 사찰을 이른바 ‘본사(本寺)」로

1) 「制令第7號 寺刹令」, 『朝鮮總督府官報』 제227호(1911.6.3).

2) 사찰령시행규칙에서 정한 30개 사찰은 경기도 광주군 봉은사, 수원군 용주사, 양주군 봉선사, 강화군 전등사, 충청북도 보은군 법주사, 충청남도 공주군 마곡사, 전라북도 전주군 위봉사, 금산군 보석사, 전라남도 해남군 대흥사, 장성군 백양사, 순천군 송광사, 신암사, 경상북도 대구부 동화사, 영천군 은해사, 의성군 고운사, 문경군 김통사, 장기군 기림사,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 양산군 통도사, 부산부 범어사, 황해도 신천군 패엽사, 황주군 성불사, 평안남도 평양부 영명사, 순안군 법흥사, 평안북도 영변군 보현사, 강원도 간성군 건봉사, 고성군 유점사, 평창군 월정사, 함경남도 안변군 석왕사, 함흥군 귀주사이다. 「朝鮮總督府令第84號 寺刹令施行規則」, 『朝鮮總督府官報』 제257호(1911.7.8).

청하고, 이들이 각기 '사법(寺法)'을 정하여 인가받도록 함으로서 한국불교를 이 30개 사찰을 중심으로 한 본말사제도로 재편하는 역할을 하였다.

1915년 8월 16일 반포되고 10월 1일 시행된 「포교규칙(布教規則)」은 신도·불도·기독교 등 '종교'의 포교자는 자격과 이력서를 조선 총독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과 함께 제9조 '종교상 필요한 교회당, 설교소 또는 강의소를 설립하려는 자'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³⁾ 이와 관련하여 1915년 9월 17일 정부총감으로부터 각 도(道) 장관 앞으로 보낸 「포교규칙 시행에 관한 건」에서는 포교규칙의 시행에 앞서 신고 서식 등을 안내하고 있다. 그 중에는 포교소를 신고하는 '포교소대장(제4호 양식)' 서식도 포함되어 있는데, 종파의 명칭, 포교소의 명칭 등을 기재하는 란이 마련되어 있고 "종파의 명칭은 조선 사찰의 경우 그 본사명을 기재할 것" 이라고 작성 주의사항을 부기하였다.⁴⁾ 이 규칙이 시행된 후 같은 해인 1915년 12월부터 범어사 동래포교당, 백양사 정읍포교당 등⁵⁾ '○○사 포교당'과 같이 본사명을 함께 기재한 포교당의 인가가 있었는데, 이는 본사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후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포교당의 설립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사찰령」에서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찰의 병합·이전·폐지·변경'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찰의 창건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찰의 창건은 이미 조선시대부터 금지해 오던 상황이었고, 오직 옛 절터를 중수·재건하는 경우만 허락하고 있었다.⁶⁾ 따라서 '사법'을 통하여 인가된 본사 및 말사는 '○○사'라는 명칭으로 운영되었고, 새로 설립되는 불교 관련 종교기관은 '○○사 포교당' 혹은 '○○사 포교소'라는 명칭으로 인가·운영되었다. 포교당은 산간에 위치한 본사를 대신하여 도회지에 설립됨으로서 대중불교의 근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백양사 포교당의 경우와 같이 대도시보다 군·읍 또는 마을 단위에 소규모 포교당을 설치함으로써 보다 민중에 가까워지고자 하는 경우도 주목된다.⁷⁾

포교당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갖추고 신고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다. 1915년 10월 1일 포교규칙 신고와 함께 배포된 「신고양식」에는 '포교소설치원'의 기입 항목으로 '1. 설치가 필요한 이유, 2. 포교소 명칭, 3. 포교소 소재지, 4. 부지 면적 및 그 소유자, 5. 건물 평수 및 그 소유자, 6. 종교 및 그 교파·종파의 명칭, 7. 포교담당자 자격 및 선정방법, 8. 설립비 및 그 마련방법, 9. 관리 및 유지 방법'에

3) 「布教規則」, 『朝鮮總督府官報』 제911호(1915.8.16). 포교규칙은 1920년 개정되면서 제2·9·10조의 '허가'를 '신고(届出)'로 변경하였다. 「朝鮮總督府告示第102號 布教規則ニ依ル布教局, 布教願, 布教管理者設置届, 布教所設置届ノ様式左ノ通決定ム」, 『朝鮮總督府官報』 제2294호(1920.4.7).

4) 「布教規則施行ニ關スル件」(1915.9.17),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04747.

5) 범어사 동래포교당은 1915년 12월 4일, 백양사 정읍포교당은 1915년 12월 15일 허가되었다. 한동민, 「사찰령 체제하 본산제도 연구」(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pp. 223-225에서 재인용.

6) 「凡寺社勿新創唯重修古基者告兩宗報本曹啓聞」 '寺社(原)', 『禮典』, 『大典會通』. 한동민, 위의 논문, pp. 64-65에서 재인용.

7) 한동민, 위의 논문, pp. 222-224.

대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⁸⁾ 즉 종교·종파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면 건물과 토지, 설립과 운영 비용, 포교자라는 기본적인 사항만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포교당 설립 인가 신청에 불상·불화 등 예배용 존상을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아 있는 불교회화 작품 중 화기의 기록을 통해 포교당에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작품은 80여 점에 이르고 있어, 포교당의 설립 후 다양한 수요에 의해 포교당에 봉안하기 위한 예배용 존상이 많이 제작되었다고 추정된다.⁹⁾

2. 20세기 초 제주 포교당 설립 현황

1908년 한라산 기슭에 관음사가 창건되면서 근대 제주 불교의 여명이 밝아왔다. 이 시기까지 제주에는 승려가 출가하거나 계를 받을 수 있는 사찰이 없어, 관음사 주지 안봉려관(安蓬廬觀, 1865~1938)도 1907년 해남 대흥사에서 출가하고 제주로 돌아와 사찰을 창건하였다. 이후 주지 안봉려관의 노력으로 관음사는 전각과 불상, 불화, 경전을 갖춘 사찰로 발전하였고, 1913년에는 처음으로 관음사에서 출가한 승려가 나오는 등 제주 불교의 중심적인 위치로 자리매김하였다.¹⁰⁾

「사찰령」과 「포교규칙」의 반포 이후 관음사는 조선총독부의 행정적인 인가를 받고 활동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관음사는 1918년 ‘대흥사 제주도포교당’으로서 인가받았는데,¹¹⁾ 이는 일본 사찰인 ‘진종대곡과 본원사 제주도포교소’(1917년 인가)를 제외하면 제주의 포교당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인가를 받은 것이다.¹²⁾ 관음사가 대흥사의 포교당으로서 인가받은 것은 주지 안봉려관이 출가한 사찰이라는 인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제주에는 본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음사의 경우처럼 육지에 위치한 사찰을 본사로 하여 포교당이 설립되었다. 관음사의 포교당 인가 이후 제주도에는 백양사, 위봉사, 대흥사, 기림사 등 다양한 사찰을 본사로 한 포교당이 설립되었다.

1944년까지 제주의 포교당으로 인가받거나 신고된 곳은 총 47개소이다. [표 13] 일본 사찰 포교당 3개소를

8) ‘第5號樣式 布教所設置願」『朝鮮總督府告示第253號 布教規則ニ依ル布教局, 布教願, 布教者名簿, 布教管理者設置局, 布教所設置願, 信徒數局ノ樣式左ノ通定ム』, 『朝鮮總督府官報』號外(1915. 10. 1).

9) 최엽, 「한국 근대기 불화의 대중 포교적 성격」, 『미술사학연구』 281(한국미술사학회, 2014), p. 206.

10) 제주 관음사에서는 1913년 방동화가 최초로 출가하고, 1914년 오이화가 출가하였다. 한금순, 「근대 제주불교사 연구」(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p. 24-25.

11) 「布教所設立許可」, 『朝鮮總督府官報』제1755호(1918. 6. 13).

12) 「既設布教所届出」, 『朝鮮總督府官報』제1399호(1917. 4. 6).

13) 제주 포교당 건립 현황은 한금순, 앞의 논문, pp. 30-39 내용을 바탕으로 집계하였다.

제외하면 총 9개소의 본사가 제주에 포교당을 설치하여, 육지 본사가 제주에서 활발하게 포교 활동을 전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제주에 포교당을 설립한 본사 중에서도 백양사의 포교 활동이 주목된다. 백양사는 1943년 이전까지 총 11개의 포교당을 설립하여 위봉사(13개소) 다음으로 가장 많은 포교당을 설립한 본사였는데, 1943년에는 위봉사 포교당 중 12개소를 인수하면서 제주에서 가장 많은 포교당을 운영하는 사찰이 되었다.

〈표 1〉 일제강점기 제주 포교당 설립 현황

본사명	연번	포교소 명칭	창건연도	허가연도	변경연도	비고
위봉사	1	위봉사 제주읍 회천리포교당	1912	1933		1943년 동일과리로 이전 위봉사 동일과리포교당
	2	위봉사 제주도포교소(서일과리)	1928	1930	1943	백양사 포교당
	3	위봉사 제주도포교소(금덕리)	1928	1930	1943	백양사 제주도포교당
	4	위봉사 애월면포교당		1934	1943	백양사 애월면포교당
	5	위봉사 안덕면포교당	1928	1935	1943	1942 인성리 이전 1943 백양사 인성포교당
	6	위봉사 상귀리포교당		1936	1943	백양사 상귀리포교당
	7	위봉사 제주읍 도평포교당		1936	1943	백양사 도평포교당
	8	위봉사 해안리포교당		1936	1943	백양사 해안포교당
	9	위봉사 성산포교당		1937	1943	백양사 성산포교당
	10	위봉사 제주 표선포교당		1938	1943	백양사 표선포교당
	11	위봉사 평대포교당		1941	1943	백양사 평대포교당
	12	위봉사 하례포교당		1941	1943	백양사 하례포교당
	13	위봉사 한동포교당		1941	1943	1942 위봉사 금등포교당 1943 백양사 금등포교당
백양사	1	백양사 제주포교소(삼양리)	1924	1924		
	2	백양사 제주포교소(상효리)	1924	1924		
	3	백양사 고내포교당		1933		
	4	백양사 동명리포교당		1934		
	5	백양사 함덕포교당		1935		
	6	백양사 한림포교당		1936		
	7	백양사 북촌포교당		1937		
	8	백양사 토산포교당		1937		
	9	백양사 제주포교당(일도리)		1938		
	10	백양사 김녕포교당		1939		
	11	백양사 사계포교당		1940		

본사명	연번	포교소 명칭	창건연도	허가연도	변경연도	비고
대흥사	1	대흥사 제주도 포교당(아라리)	1908	1918		
	2	대흥사 포교당 산남출장소	1921 이전	1926		
	3	대흥사 제주포교소 불탑출장소	1914	1930		
	4	대흥사 제주포교소 고산출장소		1931		
	5	대흥사 김녕포교당		1939		
	6	대흥사 해륜포교당		1939		
	7	대흥사 판포포교당		1940		
	8	대흥사 서귀면포교당	1929	1941		
	9	대흥사 제주 청수포교당		1943		
	10	대흥사 말사 관음사 대정포교소		1944		
기림사	1	기림사 고내리포교소		1940		
	2	기림사 사계리포교당		1940		
	3	기림사 하원포교당		1940		
	4	기림사 귀덕포교당		1941		
법주사	1	법주사 제주포교당(조천리)		1932		
	2	법주사 제주도 동홍포교당		1936		1937 법주사 제주도 서귀포 신희포교소
봉은사	1	봉은사 애월면 구엄리포교당		1938		
선암사	1	선암사 제주도 조천포교소	1927	1931		
해인사	1	해인사 말사 실상사 제주도 제석암포교당		1938		
화엄사	1	화엄사 제주포교소(하도리)	1926	1928		
일본 사찰	1	진종대곡파 본원사 제주도포교소		1917		
	2	본문법화종 대본산 본능사 제주도포교소		1937		
	3	본문법화종 조선 본능사 중문포교소		1938	1941	1941년 폐지 신고

III. 1940년대 금융 일섭의 제주 불사

1. 금융 일섭의 제주 불사 과정

1940년대 일섭의 제주 불사는 작업일지인 『연보』 기록을 통하여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연보』에는 일섭이 불사를 행한 포교당 및 사찰명과 당시 주지, 화주, 불사 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포교당 및

사찰명은 『조선총독부관보』 상에 등록된 ‘○○사 포교당’이라는 명칭과 당시 제주의 승려·신도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포교당’, ‘○○교당’, ‘○○사’라는 명칭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이 기록에 등장하는 포교당은 오늘날의 사찰로 계승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와 폐지·명칭 변경이 추정되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연보』에 기록된 포교당 명칭을 기반으로 작성하며, 오늘날의 사찰로 계승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함께 기재하고자 한다.¹⁴⁾

1940년은 금용 일섭이 김제의 부용사(芙蓉寺)를 중심으로 전라남·북도, 충청남도, 서울, 개성 등 넓은 지역에서 활발하게 불사 활동을 보이던 시기였다.¹⁵⁾ 1900년생인 금용 일섭은 30대 초반까지 스승 보웅 문성과 함께 불사를 행하다가, 1935년경부터 수화사로 독립하여 많은 불사를 이끌게 되었다. 1938년에는 김제에 부용사를 창건하고 불사 작업과 제자 양성의 거점으로 삼아 활동하였다. 이즈음 일섭은 이미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린 금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1938년 조선불교 총본산 태고사 대웅전의 단청과 벽화, 후불도(도 1)¹⁶⁾의 조성과 불상의 개금을 담당한 사실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¹⁶⁾



도 1. 일섭·송파·병문, 서울 조계사 영산회상도, 1938년, 면본채색, 405.0×302.3cm,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성보문화재연구원 제공)

일섭은 1940년 7월 제주에 도착하여 성내 대홍사 포교당의 허응선을 만나 불사를 시작하였다.¹⁷⁾ 성내

대홍사 포교당은 오늘날의 제주 관음사이며, 허응선과 관음사 주지 오이화의 안내로 김녕 대홍사교당의 불사에 먼저 착수한 후, 성내교당(현 관음사), 애월교당, 조천교당, 삼양원당사[대홍교당 탑사](현 불탑사)의 불사를 마무리하고 12월에 삼양원당사[백양교당](현 원당사), 조천교당, 김녕 백양교당의 불사를 이어서 시작하였다. 이 해에는 조천교당과 김녕 백양교당의 불사를 완료하였으나 삼양원당사[백양교당](현 원당사)의

14) 일섭은 『연보』 기록에서 포교당 명칭을 기록하면서, “三陽院堂寺(大興教堂塔寺)”처럼 원 사찰명과 포교당명을 괄호를 사용하여 함께 기재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이 글에서는 ‘삼양원당사[대홍교당 탑사]’로 기재하고, 소괄호를 사용하여 현 사찰명을 함께 기재하고자 한다.

15) 금용 일섭의 생애에 대해서는 拙稿, 「金蓉 日燮(1900~1975)의 佛像과 藝術觀: 個人樣式 成立期를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9(2010) 참조. 이하 일섭의 제주 불사 상황에 대해서는 『연보』 1940년 7월 7일~1941년 3월 26일 기록 참조.

16) 「佛教總本山 大雄殿奉佛式」(조선일보, 1938.10.23).

17) “申炳徹同本院出發往木浦濟州渡航翌朝着城內大興寺布教堂見布教師許應宣師”, 『연보』, 1940년 7월 7일 ; “許應宣吳利化二師同我二人行濟州金寧里大興寺布教堂佛事着手…” 『연보』, 1940년 7월 15일.

불사는 마무리하지 못하고 12월 18일 연말을 보내러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듬해인 1941년 1월 일섭은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의 보수 작업을 진행하였다. 당시의 기록에 ‘김우일과 고재섭은 채색 도중에 제주에서 건너와 참여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섭이 송광사 불사를 진행하는 동안 제자들은 제주에서 완료하지 못한 불사에 마저 매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섭과 제자들은 2월에 다시 제주에 가서 3월에 삼양원당사[백양교당](현 원당사)의 불사를 마무리한 후, 4월까지 성내 운주당 백양교당(현 정광사)의 산신도 조성과 본존불입상의 개금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때 개금한 본존불입상은 일섭이 1935년 금산사 미륵불 조성 입찰에 제출하였던 높이 약 1m의 미륵불입상으로, 1941년 3월 이전 제주도로 옮겨 온 것으로 보인다. 이 불사를 마지막으로 일섭 일행은 제주도 불사를 마무리하고 4월 8일 부용사로 돌아갔다.

일섭의 제주행은 허응선을 비롯한 관음사 관련 인물들의 초빙으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보』 기록으로는 이전에 일섭이 제주에 방문하거나 불사를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관음사와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일섭은 제주에 오기 전 해인 1939년 해남 대흥사에서 개금 불사를 행한 일이 있었다. 이때 불사의 화주(化主)로 ‘대원행(大願行) 비구니’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1940년 7월 제주 김녕포교당과 관음사 불사에도 ‘대원행(大願行)’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¹⁸⁾ 이 ‘대원행’이라는 인물이 일련의 불사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섭이 대흥사 불사를 행하면서 알게 된 이 인물 혹은 대흥사와 관련된 이들의 초빙으로 제주 불사를 시작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일섭이 제주에 머무르는 동안 행한 불사들이 모두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제주에서 처음 작업을 시작한 대흥사 김녕포교당과 성내교당(현 관음사), 삼양원당사[대흥교당 탑사](현 불탑사)의 경우에는 이들이 모두 대흥사 소속 포교당이라는 관계에서 처음 제주에 올 때부터 불사를 의뢰받아 계획하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9월 성내교당(현 관음사) 불사를 진행하던 중 일섭을 찾아와 만난 애월교당의 ‘한병욱’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의 부탁으로 지장도와 산신도를 조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12월에는 삼양원당사[백양교당](현 원당사)의 삼존상 조성에 착수하였는데 이곳은 대흥사 포교당인 삼양원당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다. 일섭은 이 삼존상 조성을 그 해에 마치지 못하고 12월 18일 부용사로 돌아갔다가, 이듬해인 1941년 1월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 보수를 마친 후 2월에 다시 제주에 가서 삼존상 조성을 마무리한다.

이처럼 일섭의 제주 행 초기에는 대흥사 소속 포교당의 불사만을 계획하였으나, 불사를 진행하는 도중 일섭의 화명(畫名)을 듣고 찾아온 인근 포교당이나 관련 인물들로부터 추가적으로 불사를 의뢰받으면서 제주

18) “全南海南郡三山面大興寺清信庵本尊一全寺千佛殿本尊一位外一位三尊改金時住持朴暎熙師 化主大願行比丘尼…”, 『연보』, 1939년 4월 25일.

체류 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섭의 불사가 대흥사 소속 포교당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백양사 소속 포교당에서도 행해지는 양상에서도 추측된다.

한편 일섭의 제주 불사는 단기간 내에 좁은 지역에서 많은 작품을 조성한 점에서 매우 특징적이다. 『연보』 기록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1940년 7월부터 1941년 4월까지 약 7개월 간 총 9개의 사찰에서 34건의 작품을 조성하였다.¹⁸⁾ 한 달에 약 4~5건의 작품을 조성한 것인데, 이는 일섭의 평균적인 작업 속도와 비슷하다. 일섭은 전년도인 1939년 부용사에서 약 2주에 걸쳐 신중도, 산신도, 독성도 3점의 작품을 조성하였고, 이후 약 한 달간 후불도, 지장도, 칠성도, 범고 4점의 작품을 조성하였다.¹⁹⁾ 이러한 작업이 가능하였던 것은 이 시기 일섭이 이미 제자들과 함께 효율적으로 작업하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었던 까닭으로 생각된다.

1940년대의 제주 불사에 동참한 회원들은 김우일(명성明星 우일又日, 1910~1998), 박상순, 신병철(묘봉妙峰 병철炳徹), 고재섭(낭월浪月 재섭在燮, 1924~2005), 임환경(해봉海峰 석정石鼎, 1928~2012) 등이며, 불사마다 3~4인이 참여하였다. 우일은 일섭의 화제(畫弟)로서 같은 스승인 보응 문성(普應 文性, 1867~1954) 아래에서 함께 학습한 후배 화원으로, 1930년 익산 승림사 여래·독성상 조성 불사에서 일섭과 함께 작업한 후 1947년 목포 반야사 칠성도 조성 불사까지 일섭 다음가는 회원으로서 불사에 참여하였다. 상순 또한 비슷한 시기인 1930년 밀양 표충사 신중도 조성 불사부터 1945년 영암 망월사 삼존상과 지장시왕도·신중도·칠성도·독성도·산신도 조성 불사까지 참여하였다. 병철과 재섭은 1939년경부터 1942년경까지 짧은 기간동안 함께 작업하였으나, 이 시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불사에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제자들이었다. 이처럼 당시에는 이미 적어도 10년 이상 일섭과 함께 작업해온 능숙한 회원인 우일과 상순, 그리고 새롭게 참여한 젊은 제자 회원의 조합으로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었으므로 1940년대 제주 불사와 같은 집중적인 다작(多作)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표 2> 『연보』 기록에 나타나는 1940년대 금용 일섭 제주 불사

연번	사찰명	제목	조성시기	주지	중개	발원·시주	동참회원	인가명칭
1	김녕 대흥사교당	후불도	1940.7.15.~10.5.		허응선 오이화	오영홍 김선봉 대원행	일섭 김우일 박상순 신병철 고재섭	대흥사 김녕포교당 (1939)
2		지장보살도						
3		칠성도						
4		신장도						
5		산신도						
6		독성도						
7		감로도						

19) 『연보』 1939년 7월 2일~15일, 1939년 7월 19일~8월 20일.

연번	사찰명	제목	조성시기	주지	중개	발원·시주	동참화원	인가명칭
8	산천단	칠성도	1940.7.15.~10.5.	이화선	허응선 오이화	오영홍 김선봉 대원행	일섭 김우일 박상순 신병철 고재섭	
9		신장도						
10	성내교당 (성내 대흥사 포교당)	아미타후불도*	1940.9.15.~10.20.	오이화			일섭 김우일 박상순 신병철 고재섭	대흥사 제주도포교당 (1918)
11		칠성도						
12		신장도						
13		오여래도						
14		산신도						
15		독성도*						
16	애월교당	지장보살도	1940.9.15.~10.20.	한병욱			일섭 김우일 박상순 신병철 고재섭	
17		산신도						
18	조천교당	신장도	1940.9.15.~10.20.	허응선			일섭 김우일 박상순 고재섭	
19		현왕도	1940.12.11.~12.18.					
20	삼양원당사 (대흥교당 탐사)	지장보살도*	1940.10.21.~12.8.			발심화	일섭 김우일 고재섭	대흥사 제주포교소 불탑출장소 (1930)
21		칠성도						
22		산신도*						
23		독성도*						
24		감로도						
25		인왕도						
26		현왕도						
27	삼양원당사 (백양교당)	삼존상*	1940.12.11.~1941.3.25.	송재술			일섭 김우일 고재섭 임환경	백양사 제주포교소 (1924)
28		협시보살상*						
29		감로도						
30		현왕도						
31	김녕 백양교당	감로도	1940.12.11.~12.18.				일섭 김우일 고재섭	백양사 김녕포교당 (1939)
32		관음상(3척)				한병욱		
33	성내 운주당 백양교당	산신도	1941.3.26.~4.3.	이일선			일섭 김우일 고재섭 임환경	
34		본존상 이운·개금*						

*표시는 현존 작품

2. 제주 포교당의 발전과 예배용 존상의 봉안

한편 일섭의 제주 불사를 포교당별로 살펴보면 한 사찰에 필요한 불상·불화 일습(一襲)을 조성하는 양상이 나타난다.^(註 2) 특히 김녕 대흥사교당, 성내교당(현 관음사), 삼양원당사(대흥교당 탑사(현 불탑사))의 경우가 그러한데, 전각의 주존격인 후불도나 아미타후불도, 오여래도, 지장보살도를 비롯하여 칠성도·신장도·산신도·독성도·감로도 등 전각의 상·중·하단을 구성하는 불화를 한번에 조성하였다.

이 포교당들은 1940년의 시점에 이미 포교당으로서 인가·신고를 마친 곳이었는데, 포교당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예배용 존상을 봉안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제반 사항을 갖추어 나가고자 하였던 단계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1940년의 시점에 제주 포교당이 인적·물적으로 어느 정도 발전하였는지 그 규모를 유추해 볼 수 있다.

1940년은 1908년에 관음사가 창건된 후 30여년이 지난 시점이었으며, 1915년 공식적으로 포교당이 설립되기 시작한 후 25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동안 불교는 제주 사회에서 민중들 사이에 신앙으로서 깊이 뿌리내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1930년대 초에 이미 각 포교당마다 수백 명에 달하는 신도 수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신문기사 등의 기록에 따르면 1931년 제주 고관포교소는 7~800인 이상의 신도를 모집하였으며, 1933년 백양사 포교소인 원당사도 신도 수가 400여 명에 이른다고 언급하였다.²⁰⁾

이와 같이 포교당의 신도 수가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신도 수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의식과 법회 때에 많은 신도를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포교당마다 전각을 새로 짓는 등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전각의 신축 또한 이 많은 신도들의 시주에 기반한 경제력의 확보에서 가능하였다. 1930년대 후반에는 관음사 대웅전 신축(1936년), 백양사 원당포교소 신축(1937년), 백양사 한림포교당 신축(1937년), 성산포교당 신축(1937년), 화엄사 제주포교소 신축(1938년), 화엄사 하도리포교소 신축(1939년) 등 많은 포교당을 새로 짓는 공사가 이어졌다.²¹⁾

전각을 새로 짓는 등 공간적 규모가 커지면서 각 포교당에는 예배용 존상을 봉안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새로운 존상을 조성하여 봉안하고자 하는 수요가 생겨났던 것으로 추측된다. 1940년 일섭의 불사 이전부터 제주 포교당에서는 예배용 존상을 갖추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일찍부터 육지 사찰에서 조성·봉안된 작품을 제주로 옮겨 봉안한 일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관음사 창건 후 주지 안봉려관은 1910년 통영 용화사에서 불상과 불화를 모셔왔다고 하며, 불경 또한 서울에서

20) “조선 고래의 종교인 불교를 부흥코자…현재는 약 칠팔백인 이상의 신도를 모집한 바…”「제주고관포교소 봉불식」(매일신보, 1931.10.10); “십여년 전 전남대본산 백양사로부터 포교지소가 창립되어…신도가 약 4백여명에 이른다.”「제주도의 불찰 원당 사확장」(매일신보, 1933.11.26).

21) 제주불교사연구회, 앞의 책, pp.112-128.

구입하여 왔다고 전해진다.^(도 2) 22) 또한 제주 서산사 목조보살좌상(1534년)^{(도 3)의} 경우 전라도 나주 목사 봉사종(奉嗣宗)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나주에서 조성된 상을 옮겨 온 것으로 여겨지며,²³⁾ 제주 월계사 여래좌상(1661)^(도 4) 또한 장성 백양산 약사암(藥師庵)에서 조성되었다는 발원문이 발견되어, 육지에서 제주로 옮겨 봉안한 사실을 알 수 있다.²⁴⁾

뿐만 아니라 신도들의 노력으로 새로운 예배용 존상을 조성하는 불사도 행해졌다. 당시 발행된 불교 잡지에는 불상·불화, 범종 등을 조성하여 포교당에 봉안하였다는 기록이 여러 건 전한다. 예를 들어 1938년 백양사 고내봉포교소에서는 화원을 청하여 후불도와 지장도를 조성하였고, 같은 해 기림사 하원리포교당에서는 11면 관음존상을 조성하는 등 신도들의 노력에 의한 불사가 행해졌다. 1939년 실상사 이도리포교당에서는 석가상과 각단 불화를 조성하는 큰 불사를 행하기도 하였다.²⁵⁾

이처럼 이 시기 제주 불교는 30여 년간의 저변 확대를 거쳐, 공간적으로는 예배용 존상을 조성하여 봉안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었으며, 경제적으로는 신도 수 확보를 통해 불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1940년 일섭의 불사가 행해질 수 있었으며, 이는 20세기 초부터 축적되어 온 제주 불교의 발전 안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다.



도 2. 제주 관음사 관음보살좌상, 조선 1698년, 나무, 높이 75cm,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국립제주박물관 제공)



도 3. 제주 서산사 목조보살좌상, 조선 1534년, 나무, 높이 56cm,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국립제주박물관 제공)



도 4. 제주 월계사 목조아미타불좌상, 조선 1661년, 나무, 높이 34.3cm,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국립제주박물관 제공)

22) 이은상, 『탐라기행』(조선일보사, 1937), pp. 155-157 ; 김형식 저, 오문복 역, 『혁암산고』(북제주문화원, 2004), pp. 279-280) ; 한금순, 앞의 논문, pp. 15-16에서 재인용.

23)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라북도·제주도』자료집(2003), p. 186.

24) 송은석, 「17세기 중후반 윤희파의 조상 활동 : 윤희와 경림」, 『미술사와 시각문화』 제9호(2010), pp. 124-125.

25) 「普光寺 봉불식 거행」, 『불교시보』 제39호(1938. 10. 1.) ; 「관음존상과 금종시주 特志」, 『불교시보』 제39호(1938. 10. 1.) ; 제주불교사연구회, 앞의 책, pp. 130-131에서 재인용.

IV. 1940년대 금융 일섭 제주 불사 작품의 특징

1. 포괄적 성격의 도상 창안

『연보』에 기록된 일섭의 제주 불사는 총 34건이며, 현재는 관음사 아미타후불도(1940년), 고관사 독성도(1940년), 불답사 지장보살도·독성도·산신도(1940년), 원당사 여래삼존상(1941년), 정광사 미륵여래입상(1935년 조성, 1941년 개금)의 7건이 남아 있다.^[註 3] 전각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후불도로 구성된 관음사 아미타후불도(1940년)^(도 5)는 포교당의 중심 전각에 봉안하기 위한 포괄적 성격을 보이는 작품으로 여겨진다. 이 그림은 중앙에 아미타불을 비롯한 관음보살·세지보살의 아미타삼존을 배치하고, 왼쪽에는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한 시왕(十王)을 그렸으며, 오른쪽에는 백의관음을 중심으로 한 십육나한을 배치하였다. 화면 하단에는 중앙에 그려진 원상(圓相)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확탕지옥(鑊湯地獄), 발설지옥(拔舌地獄), 거해지옥(鋸骸地獄), 철정지옥(鐵釘地獄)의 지옥도 장면을 그렸다. 오른쪽에는 극락을 향해 전진해오는 반야용선(般若龍船)을 맞이하는 아미타삼존을 그렸다.²⁶⁾

이 그림의 독특한 구성은 당시 일섭이 제작하였던 일련의 불화들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1940년 일섭은 관음사에서 아미타후불도와 함께 칠성도, 신장도, 오여래도, 산신도, 독성도를 제작하였다. 같은 해에 관음사에서처럼 불화 일습을 한번에 조성하였던 포교당인 김녕 대흥사교당과 삼양원당사[대흥교당 탑사](현 불답사)의 불화 구성과 비교하면, 관음사에 조성한 불화 중에는 나머지 두 사찰에 모두 조성한 지장보살도와 감로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註 2] 대신 관음사 아미타후불도에는 지장보살과 시왕의 도상, 백의관음과 반야용선, 지옥도상이 모두 결합되어 한 화면에 표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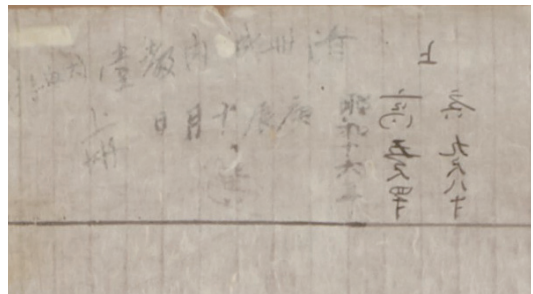
당시 제주 포교당은 규모가 영세하여 전통적인 사찰처럼 대웅전, 지장전, 원통전 등 다양한 전각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새로운 전각을 조성하였다 하더라도 1~2개의 전각 안에서 예불과 교화, 영가천도 등 다양한 목적의 의식을 행해야 했다. 이처럼 당시 포교당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그 안에 봉안되는 존상 또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도상을 모두 나타내고 있어야 했다. 따라서 일섭이 창안한 화면 또한 이처럼 포괄적 구성으로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이 불화는 작품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작한 초본(草本)이 함께 남아 있는데, 그 상단에는 목서로 ‘濟州城內教堂(大興寺) 庚辰十月日’이라고 적혀 있다.^(도 6, 7) 이것으로 보아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초본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당시 ‘대흥사 성내교당’이라고 불렸던 관음사에 조성하기 위하여 새롭게 제작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6) 최엽, 앞의 논문, p. 211 ; 국립광주박물관, 『금융 일섭(1900~1975) - 근대 부처를 만든다』(2018), pp. 199-200.



도 5. 일섭·우일·상순, 제주 관음사 아미타후불도, 1940년, 면본채색, 140.7×275.5cm, 등록문화재 (국립제주박물관 제공)



도 6. 일섭, 아미타후불도 초본, 1940년, 종이, 179×314cm, 도 7. 일섭, 아미타후불도 초본(도6) 세부, 1940년 김제 부용사(국립광주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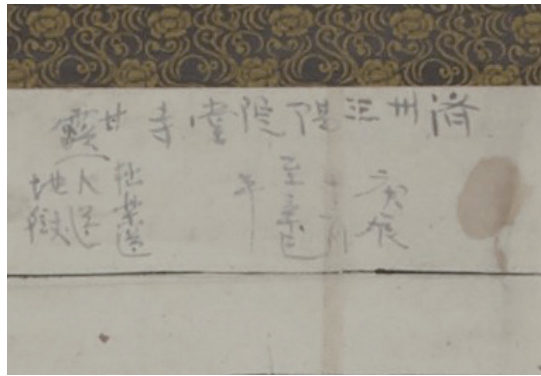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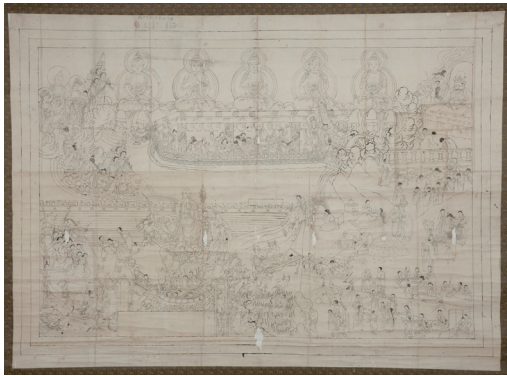
2. 포교당 기능 확대에 따른 의식용 불화의 조성

일섭이 불사를 한 1940년대는 제주에서 포교당 건립이 시작된 지 25년여가 지난 시점으로, 제주의 일반 신도 사이에서도 포교당이 신앙의 근거지로서 자리매김하였던 시기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교당이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예배·설교·교육의 기능 뿐 아니라 신도들에게 필요한 의식을 행하는 장소로서도 기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섭은 제주 불사에서 9개소의 포교당 가운데 김녕 대홍사교당, 삼양원당사[대홍교당 탑사](현 불탑사), 삼양원당사[백양사 포교당](현 원당사), 김녕 백양교당 4개소에 감로도를 조성하였다. 이 작품들은 현재 모두 남아 있지 않으나, 통도사정보박물관에 소장된 감로도 초본(1940년)이 남아 있어 참조할 수 있다.^(도 8) 이 초본에는 상단에 묵서로 ‘濟州三陽院堂寺 甘露 庚辰 十月 至辛巳年’이라고 적혀 있어, 1940년부터 1941년에 걸쳐 제작한 원당사 감로도의 초본으로 사용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도 9)

이 그림은 중앙에 가로지른 성벽을 중심으로 상단에 오여래(五如來)와 반야용선을 배치하고, 하단 왼쪽에는 지옥 장면, 하단 오른쪽에는 사람이 태어나서 생을 마감하기까지의 각 장면을 그려 대비를 이루었다. 반야용선에 타서 왕생자들을 이끄는 보살과 나무끼는 깃발의 모습, 구름을 타고 왕생자들을 맞이하는 아미타삼존, 철정지옥·확탕지옥·거해지옥 등 세부 표현은 관음사 아미타후불도(1940년)의 장면과 공통적인 요소가 발견된다.

포교당에 후불도와 칠성도·신장도(신중도)·산신도 등 예배와 감화용 불화 뿐 아니라 감로도와 같은 하단불화가 조성된 것은 이미 이 시기의 포교당이 영가천도 등 일반 신도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여야 했던 상황을 보여준다. 이 시기 포교당은 황군(皇軍) 전사자를 위한 위령제를 지내거나,²⁷⁾ 결혼식을 행하기도 하는 등²⁸⁾ 관혼상제 의식을 위한 장(場)으로도 기능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섭의 불사를 통해 이러한 수요에 부합하는 존상을 봉안한 것으로 보인다.



도 8. 일섭, 감로도 초본, 1940년, 종이, 181.5×252.3cm, 도 9. 일섭, 감로도 초본(도9) 세부, 1940년
통도사성보박물관(국립광주박물관 제공)

3. 금융 일섭 초기 양식의 성립

일섭의 제주 불사는 그의 초기 불사활동 가운데 좁은 범위의 지역에서 집약적으로 행해진 불사이며, 개인 양식 성립기의 양상을 보여주는 특징을 갖는다. 원당사 여래삼존상(1941년)^(도 10)은 일섭의 초기 불상 작품 가운데 뛰어난 조형성을 보이며, 다양한 표현 요소가 시도된 상이다. 이 삼존상은 좌상의 본존여래좌상과 입상의 좌우협시보살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조합은 이후 전주 정혜사 석가여래

27) 「출정 황군전사자 위령대법회」, 『불교시보』제30호(1938.01.01.) ; 「총후적성 국방금 모집헌납 및 위령제 거행」, 『불교시보』제30호(1938.01.01.) 등 참조; 제주불교사연구회, 앞의 책, pp.120-126에서 재인용.

28) 「제주교당의 화혼식 거행」, 『불교시보』제36호(1938.07.01.) 제주불교사연구회, 위의 책, p.128에서 재인용.

삼존상(1941년)(도 11)에 나타난 후 20여년이 지나 산청 대원사 석가여래삼존상(1963년)(도 12), 김제 부용사 아미타여래삼존상(1964-65년)(도 13)에서 다시 등장한다.

착의형식에서도 원당사 삼존상의 본존여래좌상은 대의 자락으로 오른쪽 어깨를 덮고, 오른쪽 팔을 가리는 부견의(覆肩衣)는 생략하여 오른팔의 맨살이 드러나는 변형 편단우견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변형 편단우견의 착의형식은 일섭의 초기 불상 가운데 원당사 상에서 처음 나타나며, 역시 일섭의 후기 작품인 대구 중심사 불좌상(1960년)(도 14) 및 1960년대의 항마촉지인 상(도 15)에서 주로 다시 등장한다. 이밖에도 중앙계주와 정상계주를 함께 표현한 원추형 육계와, 가부좌한 오른발 아래에 보이는 S자형 군의 주름의 표현도 원당사 상의 본존에서 처음 등장하여 일섭의 이후 작품에서 거듭하여 나타난다.

정광사 미륵불입상(1935년 조성, 1941년 이운·개금)(도 16)은 제주 불사에서 조성한 상은 아니지만 일섭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계기와 관련되는 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 상은 1935년 금산사 미륵불입상 재건을 위한 입찰에 모형으로 만들어 제출했던 것으로, 일섭이 수화사로서 조성한 첫 번째 불격 존상이다. 이 상은 일섭의 작품 중에서는 매우 드문 불입상이며, 군의·대의·내의·부견의를 모두 착용하였다. 가슴 앞에서 내의를 끈으로 묶은 윗부분이 꽃잎처럼 표현되었으며, 군의는 양 다리를 따로 덮으며 주름을 만들고, 대의는 큰 U자형으로 몸 앞에 드리워지고 오른팔 아래를 돌아 작은 U자형 주름을 만들며 배 앞에서 옷 속으로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이 상에서 시도된 입상의 착의형식은 원당사 삼존상의 좌우협시보살상을 비롯하여 전주 정혜사 나한전 좌우협시보살입상(1941년)(도 11), 김제 부용사 아미타여래삼존상 중 좌우협시보살상(1965년)(도 13)으로 계승되어, 가슴 앞으로 가로지른 내의와 끈 표현, 대의 옷단이 몸 전면에서 큰 U자형을 이루고 배 앞에서 작은 U자형을 만들며 옷 속으로 들어가는 표현, 군의 자락이 양쪽 다리를 따로 덮으며 주름을 만드는 모습 등이 공통적으로 반복된다.



도 10. 일섭, 제주 원당사 여래삼존상, 1940년, 흙, 본존 높이 79.5cm(국립제주박물관 제공)



도 11. 일섭, 전주 정혜사 나한전 석가여래삼존상, 1941년, 흙, 본존 높이 63cm(필자 촬영)



도 12. 일섭, 산청 대원사 석가여래삼존상, 1963년, 나무, 본존 높이 약 120cm(필자 촬영)



도 13. 일섭, 김제 부용사 아미타여래삼존상, 1964~1965년, 흙, 본존 높이 약 120cm(국립광주박물관 제공)



도 14. 일섭, 대구 증심사 극락전 여래좌상, 1956년, 흙, 높이 약 80cm(필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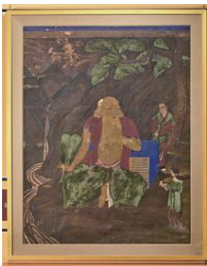
도 15. 일섭, 대구 대성사 여래좌상, 1961년, 흙, 높이 81.5cm, 『한국의 사찰문화재:대구광역시·경상북도』(2007), p.201, 도982



도 16. 일섭, 제주 정광사 미륵불입상, 1935년, 흙, 높이 101cm(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이처럼 원당사 상과 정광사 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현 요소들은 이후의 불상에 선택적으로 반영되어 일섭이 조성한 전 시기 불상에서 폭넓게 발견된다. 제주 불사에서 조성한 상들은 그 조형이 우수한 점 뿐 아니라 일섭 초기 불상의 양식 성립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작례로 판단된다.

〈표 3〉 1940년대 금융 일섭의 제주 불사 작품

연번	사진	명칭	조성연대	회원	화기·발원문
1		관음사 아미타후불도	1940	일섭 우일 상순 병철 재섭	世尊應化二千九百六十七年庚辰」十月十七日於大本山大興寺濟」州城內布教堂新畫成奉安」緣化秩」證師 應宣」會主 利化」片手 日變」金魚 又日尚順」在變 炳澈」誦呪 漢澤」持殿 秉旭」別座 李君烈」供司 吳順禮」都監 明潤」化主 玄木蓮」金萬德花」金仁」金海貞」洪圓陀性」朴來賢」李東源」施主秩」金村承秀」信士 李芳薰」白樂欽 崔永源」洪鍾彦」宋善男子」尹昌瑞 高惠英 朴宗實」金○雨 金大圓 泰斗順 尹碩珍」夫寬佰 夫寬珍 夫寬華」金聖鉉 梁正海 金汝弘」朴時玫 高戌生 崔玉順」高昌鳳 崔大旭 梁甲生」金順性 姜癸生 鄭癸生」
2		고관사 독성도	1940	일섭 우일 상순 재섭 병철	世尊應化二千九百六十七年十月十七日大本山大興寺○○島城內布教堂」證師 應宣」會主 利化」片手 日變」金魚 又日 尚順」在變 炳澈」持殿 秉旭」誦呪 漢澤」別座 李君烈」供司 吳順禮」化主 主太蓮 金萬德華 李東」源 金大受心」…
3		불탑사 지장시왕도	1940	일섭 우일 재섭	佛紀二九六七庚辰臘月十日大興寺布教所」陽佛塔寺奉安于 地藏幀」證明比丘 應宣」會主比丘 利化」金魚比丘 日變 又日 在變」都監比丘 漢應」別座比丘尼 大慈華」供司清信女 白普光心」化主清信女 尹發心華」施主秩」…
4		불탑사 산신도	1940	일섭 우일 재섭	佛紀二九六七庚辰臘月十日」大興寺布教所三陽佛塔寺」奉安于 山神幀」證明比丘 應宣」會主比丘 利化」金魚比丘 日變 又日 在變」都監比丘 漢應」別座比丘尼 大慈華」供司清信女 白普光心」化主清信女 尹發心華」施主秩」…
5		불탑사 독성도	1940		

연번	사진	명칭	조성연대	화원	화기·발원문
6		원당사 여래삼존상	1941	일섭 우일 재섭 환경	
7		정광사 미륵불입상	1935조성 1941 이운· 개금	일섭 우일 재섭 환경	

V. 맺음말

1940년대 제주에는 육지 사찰들의 활발한 포교당 설립이 시작된 지 25년여가 지나, 불교가 일반 신도들의 삶 가운데 크게 자리매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제주 포교당은 신도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그 기능을 확대하여 나가고 있었는데, 이는 포교당 본연의 기능인 교육과 감화 뿐 아니라 기도회·결혼식·영가천도 등 신도들의 일상생활 전반에까지 이르고 있었다. 또한 제주 사회에 불교가 자리잡으면서 포교당 신도 수가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많은 신도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각을 짓는 공사가 이어졌다. 많은 신도 수의 확보는 이들의 시주를 통해 새로운 전각을 짓고 예배용 존상을 봉안할 수 있는 경제력이 확보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이 시기의 제주 포교당은 불상·불화 등 예배용 존상을 봉안할 수 있는 공간적 조건 및 새로운 상을 조성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대 최고의 금어였던 금용 일섭을 초빙하여 불사를 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일섭의 제주 불사에서 조성한 작품들은 그의 생애 전반기에 작품 제작 기량이 완숙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잘 보여준다. 일섭은 각 포교당의 특성에 맞는 작품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의 구상을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초본을 제작하여 작업하였다. 짧은 시간 안에 이러한 작업이 가능하였던 것은 일섭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는 완숙한 기량 및 제자들과의 효율적인 협업 체계에 기인한 것이었다. 또한 제주 불사에서 일섭이 시도한 다양한 표현 요소들은 이후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 선택적으로 적용되어, 제주 불사를 통해 일섭의 초기 개인 양식이 정립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시기의 제주 불교계는 포교당을 설립하고 화원을 초빙하여 불상·불화를 조성하는 등 저변의 확대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일섭의 불사 이후로도 제주에서는 육지에서 불상·불화를 조성하여 옮겨 오거나 우송(友松) 등 화원을 초빙하여 불사를 행하는 등의 노력이 이어졌다. 근대기에 조성한 포교당 및 예배용 존상들은 오늘날 많은 수가 사라져 그 면모를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관련 기록들을 통하여 근대기 제주 포교당의 설립과 이곳에 봉안되었던 존상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문헌>

『日變一生年譜』

<연속간행물>

『매일신보』

『朝鮮總督府官報』

『조선일보』

<단행본>

국립광주박물관, 『금용 일섭(1900~1975) - 근대 부처를 만나다』, 2018.

김형식 저, 오문복 역, 『혁암산고』, 북제주문화원, 2004.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라북도·제주도』, 2003.

이은상, 『탐라기행』, 조선일보사, 1937.

제주불교사연구회, 『근대제주불교사 자료집』, 오성, 2002.

<논문>

김영희, 「金蓉 日變(1900~1975)의 佛像과 藝術觀: 個人樣式 成立期를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9, 2010.

김영희, 「金蓉 日變(1900~1975)의 後期 佛像 研究」, 『불교미술사학』 14, 2012.

최엽, 「한국 근대기 불화의 대중 포교적 성격」, 『미술사학연구』 281, 한국미술사학회, 2014.

한금순, 「근대 제주불교사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한동민, 「사찰령 체제하 본산제도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940년대 제주 포교당 건립과 금용 일섭(金蓉日燮)의 불사

김영희(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근대기 불상과 불화의 구성에 종사한 금어(金魚) 금용 일섭(金蓉日燮, 1900~1975)은 1940년 4월부터 1941년 7월까지 약 7개월간 제주도에 머무르면서 9개소의 사찰에서 총 34여건의 불사를 행했다. 20세기 초 전국을 배경으로 활동하였던 일섭의 불사 행적에서 이처럼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며 집중적인 불사를 행한 것은 당시 제주 지역에서 불사의 수요가 매우 많았던 사실을 보여준다.

일섭이 제주 불사를 시작한 1940년은 근대기 제주에 불교가 다시 확산되어 신앙으로서 정착되고 있던 시기였다. 조선시대 이후 명맥이 끊기다시피 하였던 제주 불교는 1908년 관음사의 창건과 함께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후 1911년 「사찰령(寺刹令)」, 1915년 「포교규칙(布教規則)」의 제정 및 시행을 거치면서 제주에 건립된 사찰 및 포교당은 조선총독부에 공식적인 인가를 받아 포교활동을 시작했다.

포교당을 설치할 때 갖추어야 하는 사항을 안내한 「포교규칙」에는 예배용 존상을 필수적으로 구비하도록 하지 않았으므로, 새로 건립하는 포교당은 토지와 건물, 포교사 등 기본적인 요건만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제주에 설립된 포교당을 거점으로 제주 사회에 불교가 널리 스며들면서 각 포교당은 수백 명에 달하는 신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처럼 신도 수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신도를 수용하여 예불 및 의식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전각을 짓게 되었고, 전각이 갖추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곳에 모실 예배용 존상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게 되었다. 한편 이는 역으로 많은 신도들의 시주에 기반한 경제력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였다.

일섭이 1940년대 제주 불사에서 조성한 작품들은 근대 불교미술의 독특한 측면을 보여줌과 동시에 일섭 개인양식의 발전상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일섭은 포교당에 봉안하기 위한 도상을 창안하여 조성하였다. 당시 포교당은 1~2개의 전각 안에서 예불과 교화, 영가천도 등 다양한 목적의 의식을 행해야 했으므로, 여기에 봉안되는 존상 또한 많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성격을 갖추어야 했다. 일섭은 불화를 조성하면서 이와 같은 포교당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도상을 한 화면에 표현한 화면 구성을 창안하였고, 이는 근대기 포교당에 봉안된 불화와 불상의 연구에까지 확장하여 적용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다. 한편 제주 불사에서 일섭의 작품에 나타나는 표현 요소들은 일섭의 후기 작품에 선택적으로 적용되어 나타나, 제주 불사는 일섭의 초기 개인양식 성립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주제어: 금융 일섭, 제주 관음사, 제주 원당사, 제주 정광사, 근대 불교, 근대 불교미술, 포교당, 포교규칙

The Establishment of Dharma Propagation Centers in Jeju in the 1940s and the Buddhist Temple Work Performed by Geumyong Ilseop

Kim, Younghee(National Museum of Korea, Curator)

The monk-artist Geumyong Ilseop (1900~1975) was a modern-era creator of Buddhist statues and Buddhist paintings who spent about 7 months on Jeju Island between April 1940 and July 1941, where he engaged in a total of 34 projects for the preparation of temples at 9 different locations. The fact that Ilseop was active across the entire nation in the early 20th century yet spent such a long time creating Buddhist artwork in just one region attests to the very high demand for such Buddhist temple work in Jeju at the time.

In 1940, when Ilseop began his work in Jeju, Buddhism was undergoing a revival on the island, with the religion taking new root in the culture. Buddhism had almost disappeared in Jeju by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but the foundations for its rediscovery were laid along with the construction of Gwaneumsa Temple in 1908. Following this, the propagation of Buddhism began in Jeju when temples and dharma propagation centers received official recognition from the Joseon Chongdokbu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following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1911 *Sachal-ryeong* (Temple Act) and 1915 *Pogyo-gyuchik* (Regulations on the Propagation of Religion).

The *Pogyo-gyuchik* prescribed the conditions that must be met to establish a missionary center. They included the basic demands that the organizations owned land and buildings, and had missionaries working for them, but did not state that the centers were required to have sacred images for worship. Nevertheless, the dharma propagation centers established in Jeju helped Buddhism gained a strong foothold on the island, with hundreds of new believers joining each center, and as the numbers of new adherents increased, new temple halls were built to accommodate them for participation in Buddhist services and special ceremonies. Along with the new halls naturally arose a demand for sacred images to serve as the object of worship. The ability to create new sacred images was also tied to the improved financial situation of the dharma propagation centers thanks to the many donations received from their followers.

The artwork created by Ilseop in the 1940s at temples in Jeju display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modern Buddhist art and contains meaningful examples of the development of Ilseop's own personal style. He created iconography for the enshrinement of Buddhist statues and paintings at

dharma propagation centers. The centers included one or two temple halls at the time, in which Ilseop performed Buddhist worship, gave lectures, and conducted ceremonies with a variety of purposes, such as *yeonggacheondo* (prayer for the spirits of the deceased). The sacred images to be enshrined in the halls required a comprehensive, all-inclusive approach in order to suit a variety of purposes. Ilseop developed and implemented a creative way of presenting many different sacred images in a single scene, and this feature of his work presents an opportunity for its application at modern dharma propagation centers, and allows for the expansion of research into Buddhist paintings and statues. The elements of Ilseop's artwork enshrined in Buddhist temples in Jeju display the conscious choice of expressive means in his later period, and are an important part of the period when he began establishing his own unique style.

Keywords: Geumyong Ilseop, Jeju Gwaneumsa Temple, Jeju Wondangsa Temple, Jeju Jeonggwangsa Temple, modern Buddhism, modern Buddhist art, dharma propagation centers, *Pogyo-gyuchik* - Regulations on the Propagation of Religion



국립제주박물관

